

文鮮明先生말씀選集

163

文鮮明先生말씀編纂委員會

머 리 말

世界平和統一家庭聯合 會長 黃 善 祚

차 례

머리말	3
.....	9
.....	70
.....	156
.....	165
.....	190
.....	277
.....	400
.....	400

남북통일운동에 대해서

교수들을 연합해서 대안을 제시한 우리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가지고 표면화시켜 학생으로부터 전부 다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 학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때를 중심삼고 좌익들이 총장실을 점령하지, 그러니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챔피언이 되려면 링 위에 올라가야

이런 입장에서 갈라 내려오는 거예요. 부딪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링 위에 올라가야 챔피언십(championship;선수권)을 따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디 올라가야 챔피언십을 따 와요? 「링 위에」 링 위에 올라가야 돼요, 링 위에. 하자구.

이 자식들, 이론에 지니까 주먹으로 해? 말로 해서 지니까 정당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주먹으로 해? 전부 들이 맞는 거예요. 대학가의 피끓는 젊은 자식들, 전부 다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의 세계를 추구하고겠다는 지성의 이 걸레 짜박지들, 이것들을 가만히 놔 둬요? 몇몇 사람들은 중간에서 바람만 불어도 '와-' 하는 거예요. '와-'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 뭐 어때? 문 총재가 나빠? 통일교회가 나빠? 이 자식아!' 한다는

거예요. 우린 빠져 나가도 그들은 싸워 준다구요. 이렇게 해서 대학 학풍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해요.

그런데 손대오는 바들바들 떨고... 손대오 있나? 어디 갔어? 「나갔습니다」 그거 깔따구같이 생겨 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구, 뭐 어쩡구 뭐 어쩡구...' 했지만 싸움을 하는 데는 죽어야 됩니다. 싸움하는 데는 총탄을 맞아 죽고 대포를 맞아 옥살박살이 나고 그러는 거라구요. 싸움하는 데에 그거 없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지요. 그런데 무서워 가지고 와들와들... 일년 동안에 끄대기가 세었으니 그거 얼마나... 아마 굶은 똥을 많이 싸고 변비가 생겼을 걸.

그 사실을 내 안다구. 그 신경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먹나?

세계 침단의 챔피언쉽이 오는 그 시기를 무서워해선 안 돼요. 자진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챔피언쉽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바들바들 떨고 '아이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주의인 통일사상밖에 없어

선생님은 미국이면 미국을 들이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사상체제를 중심삼고 주도하는 거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부터 15년 전, 그때만 해도 전부 다 자리 잡고 번질번질하게 사는 때였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안 됐다고요. 선생님 말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이 이렇게 퍼부은 거예요, 전부 다. 요 한 14년 동안에 미국이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 워싱턴 대회라든가 양키스타디움 대회에 레버런 문이 순회하면서 발표하던 것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망한다. 두고 봐라' 했는데 그때 미국이 망한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젠 뭐 자타가 공인합니다. 퇴역장성들도 공인하고, 교수들도, 종교지도자들도 다 공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고등학교만 나온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미국이 이대로 가다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고 물어 보면 전부 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 것이냐? 민주주의 가지고? 안 됩니다. 여

기에 우리 통일교회가 등장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여당 야당, 즉 공화당 민주당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공화당이 합해 가지고 40년 동안 전부 나눠 먹고, 40년 동안 정치를 했지만, 미국을 망친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이 자식들, 누가 망쳤느냐? 너희들이 망치지 않았느냐 이거야, 민주당 공화당 정권이 전부 다 망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참석율이 37퍼센트가 된 거예요. 이것은 나라를 부정하는 국민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63퍼센트에 해당하는 국민은 지금까지의 정부를 전부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3퍼센트를 동원해서 미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재기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들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미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장사꾼은 안 된다, 장사꾼은 물러가라 이거예요. 장사꾼 가지고는, 돈 가지고는 미국을 못 살립니다. 또, 지금까지 정치하던 사람도 물러가라 이거예요. 못 살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 갖고 살리겠느냐? 종교인 가지고? 종교인들이 지금 전부 다 부패해 있으니 그것도 물러가라 이거예요.

새로운 사상을 중심삼은 새로운 종교가 나와야 돼요. 미국은 종교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사상을 중심삼은 기독교, 그 사상이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기독교, 그것이 있으면 미국은 급속한 시일 내에 살아납니다. 거기에는 뭐 속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속 들어 가지요. 새로운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기독교사상을 중심삼은 하나님주의가 있다면 미국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희망을 걸고 백 퍼센트가 '야!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삼고... 교회제일주의가 아닙니다. 거기에 경제체제,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의 방향까지 설정한 그런 사상적 체제를 갖고 나온 것이 가디즘(Godism; 하나님주의)입니다. 가디즘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사상이요, 레버런 문 주의입니다. 레버런 문을 지금까지 싫어 했지만 지금은 관심을 갖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야말로 아침의 광명한 태양같이 솟아오를 단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 50개 주에 부패한 상하원의원들을 전부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50개의 나라입니다. 주의 법이

각각 달라요. 나라가 이중구조로 돼 있습니다. 주를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주지사를 중앙정부에서 선정을 못 합니다. 주자치제로 돼 있지요. 50개 국가가 하나되어서 연방국, 즉 합중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해서 망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각 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주 상원 하원의원이 전부 7천 명인데, 이 중에서 3천 5백명은 금년까지 교육을 끝냈습니다. 7천 명이 다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어중이 떠중이 늙은이, 뭐 쓰지 못할 이들은 빼고 똑똑한 사람들 절반만 뽑아 와서 요 사람들 중심삼고 하면 중앙정부의 상원의원은 전부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 상원의원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중앙정부의 상하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교육해서 통일사상만 집어 넣으면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워싱턴으로 가는 거예요.

워싱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전국적인 조직을 딱 해 놓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원을 잡아다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 상원의원은 이미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 주 상원의원 공화당 주 상원의원을 합해서 교육을 시키면 거기서 '우리 하나 되어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싸워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는 전부 우리 사상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150명 정도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감을 통해서 장사하는 방법 (영감상법)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어느 단계에 들어왔느냐 하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아니라 민주당 공화당 통일운동국민연합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남북과 마찬가지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 공화당, 대내 대외, 여당 야당, 통일운동국민연합이에요. 그것이 아메리칸 프리덤 코울리션(American Freedom Coalition; 미국자유협회)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한 것 말이에요, AFC활동... 미국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 여당은 전부 다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싸움이 테스트였어요. 공산당 사회당이 위협을 느껴서 '통일교회가 일본을 삼켜 버린다. 너저분한 것들이 나서 가지고 일본을 삼켜 버린다. 레버런 문이 일본을 삼켜 버린다' 하면서 반기를 들고 야단하고 국가적으로 몰아내자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꽃 팔고 병 파는 장사를 하면... 여기 꽃병 같은 것 있잖아요? 응, 어디 갔어? 큰 병 어디 있나? 응, 요거구만. 저기 큰 꽃병 있잖아요? 제일 비싸게 파는 게 한 개에 25만 붙입니다. 임자네들 고거 25만 붙 주고 사겠어요? 똑똑한 임자들. 임자들 똑똑하다고 하지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1억이라는 무대를 중심삼고 세계로 흘러 나가고 흘러 들어오는 사조권내에서, 이 조그마한 일엽편주와 같은 데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병 하나를 25만 붙씩 주고 산다는 그런 미치광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자기 조상이 나타나서, 조상 영들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야, 내일 누가 올 테니 그걸 사라. 집을 팔아서 사라. 땅을 팔아서 사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 살 수 있겠어요? 안 살 수 있어요? 어디 여기 저 누군가? 안 살수 있어요? 「사야 되겠습니다」 사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 일본에서는 레이칸 쇼호(れいかんしょうほう; 영감상법)이라는 새로운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영적으로 파니까 말이예요, 그냥 판다고 할 수 없거든요. 영감을 통해서 장사하는 방법, 그래서 영감상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 공산당이 알아야 알수 없지요. 그러나 산 사람들은 암만 세상이 떠들어도 '이놈의 자식. 너희들이 나쁘지, 통일교회는 좋다' 하는 거예요. 푹푹 뭉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꽃병이나 다보탑을 산 사람들이 대회를 연 것입니다. 자기 들끼리 연결해 가지고 '반대하는 패들을 몰아 내자'해 가지고 '우리는 좋아서 샀는데 왜 야단이나 이놈의 자식들' (웃음) 당장 때린 것입니다. 공산당 빨갱이 단체 전체가 동원돼 가지고, 통일교회가 이번에 옥살박살 똥가당똥가당한다고 봤어요. 그걸 선생님은 알았기 때문에 벌써 150명의 승공 국회의원을 작년에 당선시키지 않았어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

들이 쳐들어올 게 틀림없다' 하면서 방어를 딱 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미국에서 간부들을 긴급히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들이 조여라. 전부 다 노출시켜라'고 했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전부 꿈무늬를 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잡아다가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너, 한국에 가서 공부 했어, 안 했어? 전부 다 선포해라. 우리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숨어서 들었소' '그러면 선포해라' 하고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안 나서면 봐라. 다음엔 국물도 없다'하고 말이에요. (웃음)

내려 쳐라. 국회에서 뒤통수를 쳐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움직여라 이거예요. 문교분과위원회에는 신문사가 달려 있고, 산업기관, 공산당패들, 우익당의 우두머리들이 달려 있는데 그들을 협박할 수 있게끔 전부 노출시키라고 내가 그걸 지령했습니다. 이번에 안 나타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산당 국회의원, 공산당 변호사의 내력을 전부 신문에 폭로시켜라 이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통일교회를 그렇게... 자기 내력이 공산당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일본에서 변호사 못 해먹는다고요. 이걸 드러냈더니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내가 약점을 모를 것 같아?' 하고 싸움을 했더니, 이제는 아사히신문, 매일신문, 요미우리신문, 좌익계열들이 기관총을 들이대면서 통일교회가 어떻게 되나 보자하고 총사격을 했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통일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망할 것 같아? '너희들 정신 차려'하고 들이차 버렸어요. 우물우물하다가는 깔려 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싸움을 암만해도 꺼지게 되어 있지, 별수 있어요?

통일교회는 정보세계에 있어서도 세계 첨단에 있어

일본의 이 내각조사실, 이것은 우리 나라 안기부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통일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머리 있는 사람들은 벌써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갈 데가 없어요. 한국의 안기부 정보 책임자들은 아시아의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고요. 세계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이 안기부의 정보 가지고 돼요? 보안사 정보 가지고 되겠어요? 세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일본 정보국과 연결하고 미국 정보국과 연결해야 됩니다. 정보세계에 있어서 일본정보와 제일 가까운 내각조사실은 우리 세계일보 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일본정부의 모든 내면을 아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어서 CIA는 우리 워싱턴 타임즈 편집국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하워드 베이커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는데 신문사 편집부에선 이미 일주일 전에 알았다구요. 그때 하워드 베이커씨는 공화당에서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꿈꾸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이 며칠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데, 그거 알아요?' 하니깐 '우 - 그럴 리가 있나. 나 몰라. 모르는데' 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발령이 날 텐데 기다리시오' 했는데 며칠 후에 발령이 났거든요. 그렇게 빠릅니다. 미국대통령이 컷속 얘기 한 것까지도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지 말래도 깜쪽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FBI국장도 말이예요, 이걸 전부 다 역사지요. [인사이트]표지에 잘내서 FBI가 얼마나 수고한다는 걸 냈더니 그 이름이 일약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 전국에서 그 표지를 들고 와서 싸인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쌓였다나요. 그래서 그 국장 하는 말이 '아이구, [인사이트]가 그렇게 유명한 줄 이번이야 알았소. 싸인해 달라는 패들을 보니까 지방에서 전부 다 큰 회사의 사장이고 미국의 이름난 대표자들인 것을 볼 때, [인사이트]가 유명한 줄 알았소'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CIA 국장이 될 것을 일주일 전에 알아 가지고 전화를 했지요. '너 이 녀석, 일주일 후에는 CIA국장이 될 텐데 우리말 잘 들어야 돼' (웃으심) 세상에 CIA국장이 뭐냐 이거예요. FBI국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구요. FBI이면 미국 내의 모든 정보에서 최고 첨단에 있는데 말이예요. 일주일 내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그럴 가망성이 없고, 또 그럴 성싶지 않거든요. '두고 봐라. 그러니 우리 말 잘 듣고 잘 도와'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에 딱 CIA국장이 된 것입니다. 그말은 뭐냐 하면 미국의 CIA정보, FBI정보 이상의 정보를 워싱턴 타임즈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 소스를 다 알기 때문에 여기 안기부 정보, 일본의 내각조사실 정보, 미국의 CIA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교환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도 일본의 정보국에서 언제든지 한국... 통일교회의 원산지는 한국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제나 통일교인들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통일교회의 이런 것을 알아요? 모르거든요. 또, 미국의 CIA에서도 통일교회가 이런 놀음을 하는 것을 모르거든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창설

CIA 책임자는 일본 통일교회에 있어서 해피 월드를 중심삼고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손해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왔다면 문제가 된다구요. 그러나 미국을 중심삼은 세계적인 입장에서 평화건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해야 할 것을 통일교회가 대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자기네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4, 5년 전부터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정보처 책임자들은 일본에 있어서 금후에 세계로 갈수 있는 방향은 통일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공인하고 있다구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의 공산당이 소련과 중공을 연결하는 삼각지대의 기지가 돼 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70년대, 80년대를 넘어오면서 일본 대학가 문제로 난장판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 내에서 중공계 공산당, 소련계 공산당, 일본 자체 내의 공산당, 이 3파전을 중심삼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리연구회하고 싸울 때에는 합작하는 것입니다. 원리연구회는 그 3파의 극렬분자들과 싸워서 대학가를 완전히 쓸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조용해요. 원리연구회 요원이 한 명 가게 되면 공산당 대표는 그들로 숨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이 한국, 통일교회 분산지인 한국의 공산당 패들, 이놈의 자식들...

이건 일본 조야가 다 아는 거예요. 지식세계에 있어서 그 공로는 통일교

회 문선생의 공이라는 걸 다 알지요. 일본 경도 같은 곳은 29년 동안 공산당의 기지가 되어 왔습니다. 내가 이스트 가든에서 명령해 가지고 말이예요, 시장이라는 사람, 대판 시장, 나고야 시장, 동경 시장 한 백여명 이상을 전부 모가지 잘랐습니다. 이러니 일본 공산당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미워도 할 수 없지요. 말에 지면 이론에 지고, 실제 행동에 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통일원리를 중심삼고, 이 사상적인 체제를 중심삼아서 세계적인 스파이의 온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또, 중공이 기지로 삼으려고 하고, 소련이 기지로 삼으려고 하고, 미국이 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삼각지대에 들어가서 본때를 보여 줘야 합니다. 알겠어요? 피처가 던지면 스트라이크로 갈겨 버려야 된다고요. 그 놀음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것입니다. 일본 조야의 식자층의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세계를 향한 방향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교회의 공적을 실감했어요. 내각조사실은 절대 철석 같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렇잖아요! 이 자식들, 일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배포를 갖고 냅다 미니까 '에헤헤...' 눈으로 앞을 못 보니까 이려고 있더라구요. 바람 분다니까 '뭐 바람 불 게 뭐 있어?' 하는데, 여기에 냅다 들이치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자민당의 304명 가운데에 못해도 180명이 우리 바람권 내에서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나라를 움직이고, 수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수상을. 그렇기 때문에 수상을 중심삼고 비밀회담을 하는 거예요. 이런거 다 모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볼 때, 미국에도 여야 통일운동국민연합을 창설해 놓고 왔다 이거예요. 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야가 통일될 수 있는 국민조직을 만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 한국이 조상국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지, 뭐. 임자네들 상통을 보니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봐야 뭐 전부 적막강산이야, 절망강산이야, 절망강산. 그래, 자신 있어? 「예」 미국놈보다도, 일본놈보다도 말이예요. 여기 저 오야마다는 한국 말을 아는데 일본놈

미국놈 하니까 기분 나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웃음) 이럴 때에는 일본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놈한테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합니다」 왜 안 져야 돼요? 지게 되어 있는데. 돈이 있나, 힘이 있나 응? 지게 돼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심정이 있습니다」 심정? 그 사람들은 심정 없어요? (웃음) 심정이라면 그 사람들은 높은 골짜기에까지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통일교회 활동하는 데에 한국패들이 더 세계적이에요, 일본패들이 더 세계적이에요? 대답해 보라구. 대답해 보라구.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심정권의 높은 골짜기에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자네들은 한다 한다 하더니, 뭘했어요? 나이들은 많지. 박판남이는 머리가 왜 저렇게 세었나? (웃음) 뭘했나, 뭘? 「10만 명 교육시켰습니다」 10만 명 자기가 교육시켰나? 선생님이 돈 대주어서 하라고 하니 했지. 여러분들이 시켰어요? 「아버님이 시켰습니다」 내가 시켰지, 뭐 자기가 했다고... (웃음)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솔직이 까놓고 얘기해봐요. 임자네들 한 게 뭐예요? 그러니 전부 낙제감들이라고요.

세계의 운세를 몰아 한국 통일운동에 협조하려는 영계

이제는 한번 해야 돼요. 이제는 영계가 '한국을 돕자' 할 수 있는 시대에 왔다구요. 알겠어요? 지금까지 선영들이 세계에 널려서, 외부에서 일하여 전부 다 기반을 닦아 그 운세를 몰아 가지고 돌아 들어오는데, 누가들어오느냐 하면, 선생님이 선발대가 돼 가지고 한국을 위하던 충신 열녀애국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의 꿈무늬를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따라 들어와 가지고 영계에 있는 모든 종단장들을 중심삼고 기독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한국 통일운동에 협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내무부에서 강의를 하는데 똑똑한 사무관들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천운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딱 섰는데 몰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주동문이 왔나? 「……」

갔나? 어제 주동문이 하는 말을 들었지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이번 뉴욕에서 있었던 행사 때에 한 일주일 동안 복닥 질렀다구. 주동문도 자기 부하 15명이 약혼하기 위해 참석했으니 책임자로서 한번 거쳐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잠도 잘 안 든 비몽사몽간에 말이예요, 김구 선생, 장덕수, 손병희 이런 사람들 한 일곱 명이 나타나서 큰일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큰일났다고. 자, 이거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데 통합운동을 자기네들이 해야 할 텐데 준비가 안 되어서 큰일났다고 야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모실 준비가 안 됐는데 큰일났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눈을 떠 보니 참 신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선생님이 영계에 가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벌써 한국에 와서 터를 잡아 가지고 영계의 대표자들을 한테 몰아서 한국을 몰아대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이예요. 그래도 주동문이가 거기에 관계돼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 줬다구요. 여기 와서는 '아! 이랬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영계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번에 선생님이 바람을 몰아와서 왕창 해버리려는 기미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엇그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선생님의 말이 아니예요, 주동문이 말이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그 뭐라 할까, 두꺼비 같고 곱새끼 같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동역자를 세워서 그런 증거를 한 거라구. '그랬구만. 그럴 성싶구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일 것 같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뭇이어야 돼요? 「사실입니다」 사실이다 이거예요. 사실이라구요. 그래 사실이에요, 이제? 「예」

미국을 그렇게 해 놓고, 일본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중공은 이제 갈데가 없어요. 선생님을 붙들지 않으면 30년 후에나 만나야 합니다. 3, 40년 후에 만나면 중공은 여지없이 불쌍하게 됩니다. 여건이 전부 이렇기 때문에 통일산업에 중공사절단이 오는 것입니다. 중공 상공부를 중심삼은 공업기계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5월달에 방문할 것입니다. 독일을 거쳐오는데, 레버런 문이 독일에도 공장을 세운 것을 보면 눈이 뒤집어

질 것입니다. 언제 이렇게 레버런 문이... 미국도 못 갖고 있는데, 독일의 자동차 자동 시스템의 톱(top) 기술을 내가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독일정부가 야단하는 거예요. 레버런 문이 이렇게 하면 세계적으로 이 기술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너들 혼자 해먹지 말라 이거예요. 독일기계를 만든 것을 구라파를 대표해서 한 때 써먹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반대해라 이거야. 그래서 6, 7년간 반대받았어요. 반대받으면서 완전히 기반 닦은 거예요. 이제는 뭐 자기 풍토에서 몰아낼 수 없어요. 독일정권이 아무리 반대해도 세계적인 판도를 가지고 있으니, 아카데미의 힘을 통해서 기독교 민주당하고 사회당을 들대질 다 했어요. 내 신세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할 때...

이젠 기반을 다 닦았으니 한번 보게 되면 눈이 뒤집어질 거라구요. 아이구, 독일이 제일인 줄 알았겠지만 통일산업을 보게 되면 독일에 있는 공장보다 더 멋지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뭐 녹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발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남북통일이 불가피적으로 필요한 때

남북통일을 하겠다면 좋아할 곳은,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었다고 하면 좋아할 곳은 중공입니다. 또, 좋아할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 김일성이 문제지요? 4개 사단이 문제되게 되면 미국의 200만, 300만 정의군이 여기에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괴를 놓고 그저 '아이구, 하나님께서 보우하사 어떻든지 무슨 사고가 나지 않게 하소'하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소비에트와 연합해서 남한을 침략하면 일본은 자동적으로 인수해 줘야 됩니다. 싸움이 필요 없어요. 자민당을 중심삼고 인수해 줘야 돼요, 전부 다. 자위대는 날아가는 파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런 실정의 아시아의 정세권 내에 있어서 남북한을 수습해 가지고... 또, 남북한을 보라구요. 모든 정치 풍토로 볼 때, 불원한 장래에 남북한이 투쟁하게 되면 일본도 피해요, 미국도 피해요, 중공도 피해입니다. 그

러니 삼국이 연합해 가지고 피해가 안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돈을 모아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그 운동을 해야 할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해 놓고 미국대사 중공대사 일본대사 이 3대사를 들대질 해 가지고, '너 현재의 정부에 보고해라' 이러면 레이건 정부도 내 말을 들어 야지, 별수 있어요? '레버런 문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 CIA에서 쓰는 돈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미국정부는 레버런 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보급하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 소망적이다'라고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은 선생님이 만들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보고서 꾸며서 전달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풍토가 돼 오는데 행차 후에 나발이 될 거예요, 나발 불기 전의 준비요원이 될 거예요? 어떤 것이예요? 「준비요원이 되겠습니다」 준비요원 이라고 보니까 믿음직하지 않아요. 마음이 안 놓인다구, 이 쌍것들. 이럴 때 욱먹어도 할 수 없지, 쌍것들이라 하더라도.

어저께 시지부장들이 와서 나한테 욱먹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쌍놈의 자식들' 하고 별의별 욱을 다 했지만. 그거 전부 써서 읽어 보라구요. 그냥 덮어 놓고 욱하지 않아요. 이론을 딱 붙여 가지고 할 때 가서 하지, 그냥 하지 않는다구. 써서 읽어 보라구. 녹음한 것 들어 보라구. 덮어놓고 욱해요? 할 때에 했다구. 할 때에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머리엔 욱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러지. (웃음) 선생님이 쓸데없이 욱해요? 그래도 세계적인 지도자라구요. 한다 하는 사람들도 오게 되면 '뒤로 돌아서!' 해 가지고 몇 녀석은 줄 타고 나가는데, 아 그런 책임자가 그런 무식한 놀음을 하겠어요? 손해날 걸 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하기 힘들어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중심삼고 전부 다 선발대로 뛰어야 할 텐데... 지지 않게끔 서로가 뛰어야 되겠다구요. 무엇을 위해서? 문총재의 뜻을 받들어 남북통일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되겠습니다. 요런 때가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다리 하나 잘라 바쳐서라도 해야지? 「예」 모가지는 자르면 그만이니까 안 되지. (웃음) 해보라구요. 선생님이 간섭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보라구요. 선생님은 세계를 요리하는

데, 같은눈, 같은 사지,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조직이 다 돼 있고, 판국이 돼 있고, 시대의 모든 운세가 다 되어있는데, 환경이 다 벌어지는데 이것도 못 하겠어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안 죽으면 선생님이 죽이겠다구. 그래서 독수리밥으로 팔아먹어야 되겠다구. 말해 보라구, 어디 말해 보라구. 이렇게 다 해줬는데 못 하겠어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한다고 했지.

나이도 이제는 사십이 다 넘었지요? 「예」 사십 넘은 사람 손들어 보라구. 어허-, 에이 이놈의 자식들아, 선생님은 45세에 세계의 판도를 쥐고 대출범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40여 개 국을 중심삼고 120개 성지를 만드느라고 돌하고 흙을 짚어지고 다닌 거예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미친 놀음이에요, 정상적인 놀음이에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에요, 정상적.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년 전이에요? 「22년 전」 22년 전에 남들은 구경하러 다니는데 선생님은 돌맹이하고 흙보따리를 지고 다니니 어디 가든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말이에요. 그게 엇그제 같은데... (웃으심) 출발하던 그때, 그렇게 준비해서 세계적인 기반 닦아 나온 걸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이것이 오늘날에 와 보니 야 이거, 선생님이 벌써 판도를 꾸며 놓고 일을 했다는 거지요. 벌써 복귀섭리를 전부 다 외적으로 연결해 세계까지 연결해서 그다음에는 축복 가정과 연결하고 사람과 상대적인 만물권을 연결시키면서 복귀섭리의 틀림없는 공식과정을 거치게끔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도를 짜 가지고 이론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남북통일이 불가피적으로 필요한 때에 온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일본이 후원할 것이고, 미국이 후원할 것이고, 또 중공이 후원할 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인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역사시대가 또 찾아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딱 몰아서 이걸 밟고 그야말로 세계로 도약할수 있는, 몇천 년 역사를 통해 새로이 찾아온 운세를 놓칠소냐 이거예요. 놓치겠어요? 어디 말해 보라구요. 다 사위를 얻게 됐지만 할아버지에게 육을 좀 먹어야 돼요. 내가 통일교회 할아버지

아니예요? 그렇지? 「예」 여러분들 사위 다 얻었지요? 사돈 짜박지들도 여기 있구만. 사돈 하게 되면 제일 부끄러운데, 사돈이 뭐예요? 박보희도 나가 싸워야 돼. 안 싸우면 내가 선두에 설 것입니다.

역사적 풍토를 종합해 결론지을 수 있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한국에까지 와서 이래야 되겠나 이거예요. 내가 국가기준을 넘어 세계적인 기반을 닦았으면 여러분은 돌아오자마자 연결돼야지요. 안 그래요? 그걸 연결시키는데 누굴 중심삼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원리적으로 볼 때, 2세를 중심삼고 연결시켜야겠어요, 1세를 중심삼고 연결시켜야 되겠어요? 2세는 여당 야당이 아닙니다. 대학가의 정수,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어서 남아진 양심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대학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중심삼고 전부다... 노틀들을 동원하기가 쉬워요?

대학교수들이 전부 다 대학생들과 연합한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혁명입니다. 작년 3월인가 교수들을 중심삼고 삼위기대를 만들어 대강연준비를 할 때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해서 신세질 수 있는 자리에 몰아넣고 그들이 조져서 했으니 그렇지, 그게 가당한 일이에요? 교수들을 조직해서 전국 순회강연 하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것도 문선생에 대해서, 문선생 사상에 대해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는 선생님의 얼굴이 철면피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바라보고 '이놈의 영감들' 그러면서 싸 박아 가지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교수 세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차원을 전환시킬 때 내가 원동력이 돼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확대시킨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의 총장을 중심삼고 수도권에 있는 총장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나서 설득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무력한 교수들이 전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깃발을 뽑아서 전국교수대회를 한 것입니다. 했지요? 「예」 '때가 오면 다 해야 돼' 하고 후려갈기는 거예요. 여기서 대학가를 딱 잡아 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규합을 쪽 해 가지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도 입학 전에 조직을 짜고 이 운동을 할 준비를 지금까지 짜 나온 것입니다. 뭘할지 몰랐지요.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대회를 한다는 것은 역사에 없는 놀음입니다. 교수들이 어깨에 힘을 준 그 교만한 자세는, 학생들은 그 앞에 있어서 호랑이 앞의 쥐새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수들이 하나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협동한다는 것입니다. 애국심을 중심삼고 평등한 기준에서 부모와 서로 타협할 수 있고 스승과 더불어 타협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느냐? 교수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게 아니예요. 종적인 기준에서, 대한민국 자체를 두고 볼 때 어디가 아벨이나 하면 교수와 학생이 아벨권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편서하시면서 말씀하심) 사탄 놀음을 하고 있어요. 전부 합해 가지고 국민과 하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예」

여당 야당을, 그까짓 여당 야당은 관심도 갖지 말라구요. 남북을 통일하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지, 여야당 싸우는 게 문제예요? 그들이 해먹겠으면 해먹고 말겠으면 말라 이거예요. 이러한 시대의 모든 정세로 볼 때에 시운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뭐 아무리 했됐자 한국을 협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결점으로 가야 할 것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입니다. 여기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가담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여당 야당, 각료들도 가담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걸 반대해? '반대하면 공산당이야, 이 자식이' 하면서 후려갈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정부가 반대하면 내가 데모대 이상 밀어제낄 거라구요. 이걸 반대하면 쳐 버려야 돼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쳐 버려야 돼요. 그런 배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신념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로지 우리는 이런 판도를 가지고 영계와 육계와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릴 수 있는 지상 상륙작전을 해야 해요. 이것이 당면과제로서 이미 명령이 내려졌어요.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이의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의가 있어요? 「없습니다」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에 역사적 풍토를 전부다 종합해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구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이것은 남북통일

운동을 위한, 통일을 위한 운동입니다. 이걸 국민이 연합해서 남북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천만을 동원해야 합니다. 6천만 민족이 하나되어야 합니다. 60만을 대표해 단결해서 새로운 에덴을 향하여 6백만 6천만의 단결된 기수들이 생겨나게 되면, 세계는 완전히 지상천국의 기지로 직행할 것입니다. 그것도 6수라구요. 저, 이북의 송서방 왔구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야? 「550만 명에서 1천만 명 가량 됩니다」 그 천만 명은 활동요원이 되지 말래도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 아들딸들은 전부 다 선발대예요. 그 2세들은 전부 다 이 활동요원으로 완전히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편이에요. 승공연합이 있고, 전국에 교수 학생 조직이 있지요? 그것만 하면 완전히 들어맞아요. 그렇게 해서 망태기에 딱 싸 가지고는 망태기 끈이 있으면 그 끈을 누가 쥐겠느냐? 하나님과 선생님이 꼭 쥐고 끄는 것입니다.

통일은 가인 아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 뭐 여당 야당의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응?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북의 선거대책을 강구할 때는 전부 다 이북의 조직을 중심삼고... 지금 그들은 모든 행정구역 분담을 이남과 똑같은 수로 전부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2배가의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2배가 교육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전부 다... 사람이 세 가지를 잘 할 수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론적인 설득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게 해야 된다고요.

현재의 국회의원들, 남북통일이 된 후에 국회의원 해떡겠으면 여기에 가담 해라 합니다. 가담 안 하면 나중에 국물도 없다구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담 해라 이거예요. 그 대신 사상무장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을 설득하고 그들 요원들과 이론투쟁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고 도리어 그들이 머리를 숙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습

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공산당 이상, 총끝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는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해 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된 자리에서 절대복종을 하는 심정판도를 남겨 놓자는 것입니다. 저들은 심정판도가 아니라 한숨판도예요. 우리는 웃음판도를 남겨 놓자구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더 얘기해야... 너희들 뻔하게 알겠지, 그만큼 얘기했으니. 귀들이 전부 다...

그래도 어디 가면 다 어른 대접을 받지? 「예」 얼른 대답하누만, '예' 하고. (웃음) 선생님은 왜 대접을 안 해주느냐? 대접하면 앞으로 세계적인 책임자가 못 돼요. 대접을 안 해줘야... 일본을 요리해야 되고 세계를 요리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앞으로 미국의 2세들을 잡아 가지고 미국을 요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 게 아니예요? 종적인 가인 아벨, 횡적인 가인 아벨입니다. 복귀시키는 종적인 부모 아담을 중심삼고 아담을 재창조하기 위하여 아벨이 종의 종으로부터, 종으로부터, 양자와 서자를 거치고 적자를 거쳐, 해와 즉 어머니를 거치고 아버지를 거쳐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적인 가인 아벨 형태입니다. 이것이 횡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개인복귀, 가정복귀, 종족복귀, 민족복귀, 국가복귀, 세계복귀로 그 판도를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 둘이 딱 돼 가지고... 종적인 기준에서는 탕감복귀가 필요하고, 횡적인 기준에서는 심정권을 중심삼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된 남자를 중심삼고 가인 아벨을 굴복시키고 사탄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계나 지상세계나 사탄의 참소권을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상세계의 사탄 참소권과 영계의 사탄 참소권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적 기준과 횡적 기준을 가인 아벨을 세워서 완전히 해야 합니다.

한국을 분석해 보면, 종적 기준에서 가인 아벨은 교수들하고 학생들입니다. 부자지간도 되겠지만 현재 나라를 중심삼고 볼 때,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교수하고 학생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는 자연히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종적인 가인 아벨 일치권을 중심삼고 횡적인 사회의 유지들과 청년들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도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 횡적인 가인 아벨의 형태로 돼 있으니, 이 둘이 하나되어 원리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기반을 닦고 나라가 여기에 타야 됩니다. 나라는 거기에 있어서 올라서게 돼요. 나라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하나 안 되면 나라가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주권자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말이예요. 전부 다 마음대로 날아가 버리게 돼 있지요. 그게 원리관이예요. 통일은 가인 아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통일방안이지요? 안 그래요? 「예」 통일방안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통일방안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판도, 세계적인 탕감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온 세계가 종적인 선생님의 판도권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기반을 닦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종적인 역사를 대역했던 사람들이 가인적인 입장에서 전부 다 영계에서 선생님을 옹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의 세계적 판도를 중심삼고 옹위하던 모든 종교의 종주들과 모든 성현들이 지상에 재림해 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그 판도권,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적 판도권에 배치돼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흥진군이 감으로 말미암아 120개 국의 주권국가 왕권이 재림할 수 있는 기반이 닦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다 된 거예요. 폭탄에 불만 붙어 터지기 시작하면 팡 팡 팡, 세계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운을 몰고 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이제 1987년 4월은 새로운 빛이 소생하고 세계의 희망이 한 곳으로 모여 짝이 트는 것입니다. 영계의 영인들이 얼마나 한국에 오고 싶었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영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협조할 수 있는 그날을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전부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주동문이 본 것과 같이 말이예요. 나라를 위해 피 흘린 사람들, 제물 됐던 영들이 연합해서 비로소 부모님 모시기 위한 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영인들을 전부 다 모셔 들일 수 있는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연결해서 이 나라를 획-둘러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교섭을 하더라도 배포를 가지고 명령적으로 '이만큼 말했으면 알 것 아니요, 문총재 따라가야 살 것 아니우?' 경찰서 서장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때가

그런 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여러분들은 때가 이렇다는 걸 알고, 영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일교인은 무엇을 하든지간에 제일인자가 돼야

미국 대통령도 이제 내 손아귀에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결정해야 된다고요. 선생님이 결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보희! 「예」 지금 몇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발표됐나? 「예, 지금 민주당에서 세 사람이 나와 있고 공화당에서 약 다섯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전부 다 한번씩 만나야 되겠다고요. 뭐 가만 있어도 나를 찾아올 거라고요, 도와 달라고, 냄새를 피울 거예요, 스핑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한국문제가 문제가 아니라구요. 알겠어요? 「예」 이제 이때가 지나가면 앞으로는 미국 바람이 불어서 전부 다 해치우는 거예요. 임자네들이 전통적 문화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 기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국가주의자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이예요, '미국의 역사적인 대표 애국자는 레버런 문이다'라고 해요. 미국의 애국자는 나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가서 오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빨리 와서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다고요. 그놈의 자식들, 자기들의 잇속이 눈 앞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눈이 있지만 조그맣기 때문에 안 보이지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일락말락하지, 새까만 눈이 어떻게 보겠어요? 비치는 것도 새까맣지. 안 그래요? 파란 눈은 조그마한 티가 있어도 알거든요.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몇 년전과 생각해 보라구. 얼마나 달라졌나. 작년에 선생님이 와서 다 보조를 맞추게끔 했으니 이렇지, 안 그랬으면 지금 이게 얼마나 밤중이겠어요?

여러분들을 한번 내가 믿어 봐요? 「예」 나는 낮잠이나 좀 자고, 이젠 그래도 괜찮겠지요? 「예」 놀러 다니더라도 말이예요. 이제 남은 것은 잠 복귀예요. 세계에서 제일 오래 잔 사람의 기록을 깨야 돼요. (웃음) 탕감

복귀가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잠의 왕들이 영계에 가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을 가까이 해보겠어요. 내가 잠 탕감복귀를 해줘야지요. (웃음) 40일 동안을 먹지 않고, 먹긴 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자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탕감복귀를 해야 된다고요.

또, 노는 데도 말이예요, 술 먹는 데에도 독을 몇 개 갖다 놓고 먹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콧물 눈물나게 울면서 탕감조건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술 먹은 사람들이 이다음에 선생님 앞에 와서 '어- 아버지도 그랬는데' 하고 그러지요. (웃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탕감복귀가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정치가라면 누구 못지 않은 정치가이고, 사업가이면 누구보다도 사업가이고, 기술자면 누구한테 지지 않는 기술자이고, 뱃놈이면 누구한테 지지 않는 뱃놈이고, 산(山)놈도 어느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다 해 나오지 않았어요? 농사꾼 뭐 못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싸움도 잘합니다.

옛날 십대 소년 때에는 동네방네에서 나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돈냥이나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왕패라고 하는 놈을 '야! 기다려라, 이자식 너 안 되겠다' 해서 쳐박아 놓구야... 내 말을 듣게끔 해놓고, 점령하여 아무 때 와라 하면 오게끔 해 놓고 지냈어요. 눈이 조그맣지요? 선생님 눈이 조그맣기 때문에 멀리 보는 거예요. (웃음)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워싱턴 타임즈만 해도 레이아웃(layout;배열), 조판을 짜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내가 기획해 가지고 5년째 일등이예요.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가르쳐 준 그 방법을 중심삼고 해 가지고 워싱턴 타임즈의 사람이 제일인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 레이아웃 짜는 데 가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워싱턴 타임즈...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만큼 미술적 센스, 예술적 센스도 있는 거예요. 알아요? 글씨도 잘 쓰지요? 「예」 내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또, 아들딸도 잘났지요? (웃음) 못하는 게 어디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질 게 뭐 있느냐 말이예요. 무슨 면으로 보든 여러분들보다도 낫지요? 「예」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한 가지도 못 하겠어요? 다 만들어 봤는데 불도 못 켜겠으면 죽어야지. 불 켜라는데 불도 못 켜

됐어? 자신 있지? 「예」

남북통일의 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은 다 끝났어요. 요걸 만들어 놓으면 삼팔선을 넘으면서 기도하던 것... 그거 쉬운 일이에요? 남북통일의 기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섭리가 그래요. 벌써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해방되어 만세를 부를 때 선생님은 만세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불러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예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남북을 통일해 놓고...

남북이 통일되면 이 통일된 운세는 대번에 동독 서독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동독 서독이 통일되는 날에는 전세계 공산세계와 민주세계의 통일권이 우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추대의 상징으로서 만민이 허리를 굽혀 추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것이 눈앞에 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승공연합을 발족할 때 승공연합의 일은 인도해방과 더불어 끝날 것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인도해방. 그 말대로 소련이 점령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벌써 출발할 때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도해방까지, 인도에 깃발을 꽂을 때 승공연합의 일은 끝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벌써 그때에 예상한 것이... 그 말 기억해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인도를 해방해야 돼요. 소련을 쫓아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시베리아 대륙은 우리 한국 땅이 될 것입니다. 연해주는 송나라 시대에는 전부 다 중국 땅이었어요. '중국 친구들, 너희들 큰 땅을 갖고 있으니, 저 연해주는 우리에게 나눠 주지' 그러면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 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앉아 있어 가지고 돼요? 영향을 미쳐야 돼요. 중공에 영향을 미쳐야지요. 중공에 영향을 미치는 날에는 인도는 쟁까닥, 소련 기지까지 몰아낼 수 있습니다. 북방방위부터 남방방위 기준까

지, 이걸 전부 다... 인종이 달라요. 인도는 구라파 계(系)입니다. 토인비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학적으로 같은 족속이라구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사명을 짊어진 사나이로서 출범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예」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하늘땅에 전부 다 부끄러운 것을 알아야 돼. 선생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중심자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아무리 죽는 형제가 나오더라도 자기의 권위와 위신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댄버리에 갈 때 눈물 안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이 있어야 돼요. 하늘땅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어디 뭐 공화당 민주당 당원들, 이놈의 자식들, 전부 다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총재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눈앞에 뻔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직과 더불어 다년간 그 배후조직을 중심삼고 정계와 재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전부 다 선생님이 연결할 수 있는 놀음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뭘하는지 몰랐겠지만 말이예요.

선생님이 훌륭해요? 「예, 훌륭합니다」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말을 잘 이해시킨다고 훌륭한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실적이 필요한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는 천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적을 가져야 돼요, 실적을. 그렇지요?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계 앞에 할 일 다한 암만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 한 일들이 선생님의 십분의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 자체, 온 서구의 인물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레버런 문은 명실공히 재림주가 아니 될 수 없다'하는 이런 긍정적 판도권 내에 들어 왔습니다. 알겠어요? 공산당을 해방하고 신음하는 인류와 이 세계를 해방하는 분이 주인이지요. 세계의 메시아이지, 별 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런 문이 메시아라 해도 긍정할 단계에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그렇잖아요? 모이게 되면 레버런 문이 옛날에 뭐뭐... 「워싱턴 정가의 최고 화제입니다」 그 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져야 돼요.

세계적 생활무대는 천운을 타야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데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말이예요. 사람이 사는 데에 있어서 생활무대라는 것은 개인적 생활무대, 가정적 생활무대, 사회적 생활무대, 국가 기반 밑에서의 생활무대예요. 세계적 생활무대, 그다음엔 하늘땅의 천국적 생활무대가 있습니다. 개인적 생활무대에서 합격을 해야 되고, 가정적 생활무대, 그다음엔 사회적 생활무대, 그다음엔 세계적 생활무대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대한민국 백성이 세계적 생활무대에 접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장사에 있어서도 국내에서만이 아닙니다. 무역도 세계무대입니다. 외교도 세계적 무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대한민국의 일방적 생활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세계적 생활무대를 타고가야 됩니다. 그것을 상실하게 되면 세계운세와 접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 생활무대는 천운을 타야 되는데, 하늘나라의 생활무대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이거예요. 그 기반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하늘과 인간 세계는 분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이상적 실천장, 하늘과 더불어 하나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기반이냐? 하늘의 실천장이라는 것, 그것은 심정기반이예요. 참사랑기반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살 때는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심정이 개인으로 살더라도 가정적 생활기반을 넘고 사회적 생활기반, 세계적 생활기반, 하늘땅의 생활기반을 넘고 하나님의 사랑 생활기반 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은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을 넘어서 세계와 살고 하늘나라로 연결할 수 있는 생활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고 교육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안 되겠으니 들이까는 것입니다. 무슨 FBI가 무서워 못 까요? CIA가 무서워? 칼이 무서워 못 까요? 그러니 들이까는 거예요.

선생님이 미국 내에서 살더라도 하나님의 생활권 내의 그 기반을 갖고 사
니 하나님이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쳐요? 세계가 동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배반하더라도 세계의 운세권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니, 세계를 포괄한 천운과 하나님을 중심삼고 있으니 쳐 봐라 이거
예요. 치는 녀석이 뺑가당뺑가당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훌륭
해도 세계 인류를 놓고 내가 다 탕감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국에 내릴 때, 미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섬에
인디언으로부터 전부 다 해방하고, 어떤 그 누구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있어서
애국자의 기치를 드높이 든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이상의 자리에 선다
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한계적인 미국 영토를 중심삼고 살았지만, 나는 세계
를 사랑할 수 있는 미국 기준을 세워 보겠다' 이려고 왔습니다. 다르다구요.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내 아들딸, 뭐 내 생활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려요.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생활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운이 선생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쳤다가는 손해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대한민국이 나를 쳤다가는 손해배상을 전부 물고, 나라도 전
부 다 옥살박살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는 것이지
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여러분은 뭐 지금 통일교회를 믿고 잘살아야 되겠다고 하겠지만, 어떤것
이 잘사는 것이냐? 뭐 차 짜박지나 타고 다니고, 뭐 밥이나 먹는다고 잘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라의 모든 성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을 느껴야 돼요.

이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사상을 고쳐야 합니
다. 그 생활기반이 개인적으로 합격하고, 가정적으로 합격, 사회적으로

합격, 국가적으로 합격, 세계적으로 합격, 하늘땅에 합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판도권내에서 살아가는 아무개, 한 시대의 나로서, 우리 후손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가지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 가지 전체는 줄기와 더불어 영양소를 받고 뿌리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적 심정권을 갖고 있는 가지여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취직해서 별의별 놀음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 먹고 다... 교회가 이용 안 당한다구요. 우리통일교회를 지금까지 이용해 먹고 다 떨어져 나간 녀석들을 이제 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하늘이 이용 안 당합니다.

세계운세가 이용 안 당해요. 개인운세는 가정운세를 따라가야 되고, 가정운세는 전부 사회운세를 따라가야 되며, 사회운세는 국가운세를, 국가운세는 세계운세를 따라가야 되고, 세계운세는 천운을 따라가야 되고, 천운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세계, 천운과 하나님의 운세와 접근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중심삼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오늘날의 생활권 내에서 산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생활은 세계를 대표한 생활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하의 어느 누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 보기에 부끄러운 남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특사예요. 아들딸이 하늘의 특사라는 거예요. 나를 감시하고 나를 교육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제일 측근자로서의 특사라는 거예요. 자식 앞에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특사들을 먹이는 데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고 하늘을 섬길 수 있어요? 조상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나라에 가면 조상이 즉각적으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요. 조상이 심판을 해서 결국은 세계적 공판정까지 끌어내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거기에서 보고해서 공판정에 끌어내지 않으면 그 조상들이 선한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그 치리법을 배후에 두고 미래에 소망의 터전을 결정지어야 할, 또 그런 날들을 맞아가야 할 이 생애의

노정이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 가도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앞에 가 앉았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선생님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념의 사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산다 하는 관이 딱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한 일이 벌써 세계와 하늘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닦아 준 이런 터전, 생애를 거친 터전, 그 수난의 정수를 이어받아서 승리의 결과로서 다짐지어진 터전을 볼 때, 높게 깊게 넓게 추앙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과 더불어 피살이 약동하는 자리에 서서 그렇게 하루의 생활을 다짐해 나가면 하늘이 같이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같이하던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같이할 것이고, 나를 옹호하던 천운이 여러분을 옹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관이예요, 인생관. 개인의 생활관이 있고, 가정생활관, 사회생활관이 있어요. 그것이 연결되어야 돼요. 국가생활관, 세계생활관, 천주생활관, 그 관의 명백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참된 사랑입니다.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사랑을 중심삼고, 부부로 더불어 이어받은 사랑을 중심삼고... 이건 교재예요, 교재.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어서 만민을 위하고 세계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이것이 대표자의 표준 존재입니다. 내가 서 있으면 모든 우주가 나와 더불어 자세를 갖추고 산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는 것도 함부로 못 앉고, 엎드려 가지고 별의별 놀음을 마음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땅을 모시고 우주를 모시고 나가는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똥개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똥개가 사는 데 가서 끼꾸로 치박힌다구요. 선생님을 암만 알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동정 안 합니다. 우주의 힘, 원칙적인 힘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편네들이 여기에 와 앉았구만. 여편네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식들을 중심삼고 자기 남편만을 중심삼은 생활방식,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

도 세계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알싸, 모를 싸? 「알싸」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활동하라구요. 뛰라구요. 도 책 임자로서 산 고비를 넘어 집집마다 전부 못 가면 식구들을 시켜서라도 집집 마다 전부 다 방문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거기서 추려서 한번 하고 또 하고, 몇년 만에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합니다.

환경을 타개하여 하나되게 하는 집착제 높음을 하라

선생님이 삼팔선을 넘으면서 기도하던 것이 이제 성사될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그러면 김일성 이는 내 손에 제거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입니다」 선생님이 어디 갈 데가 있는데 시간이 넘었군. 이 전부 다 불청객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알고, 요번에 말씀한 것을 알지요?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편성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도지부장 중심삼고 한 것은 가인 아벨이 하나되라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되라 이거예요. 요걸 중심삼아서 앞으로 통일교회는 전부 다 시멘트가 돼야 합니다. 시멘트 노릇을 하자구요. 승공연합까지 조직 전체를 중심삼고 정당이라든가 기관의 모든 요원들이 우리 뜻과 통일될 수 있는 운세권 내에 있어서, 하나 못 될 수 있는 환경을 타개하고 하나되게 하는 집착제 높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딱 한번 잡으면 놓지말고 끌고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몇 명이나 집착시키느냐 하는 것, 이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행동반경 여하, 정성과 심정의 그 모든 제물적 조건을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그 비례적 결과가 여러분의 행로에 나타날 것입니다. 과학적이요, 이론적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위해서 대학가를 중심삼고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의 유지들. 지방 청년들을 중심삼고… 「8개 도시에서 하고 창립총회는 5월 15일에…」 어, 5월 15일… 「그리고 아버님, 잠실체육관 알아 봤습니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비어 있습니다」 며칠인가? 「29, 30, 1, 2 이렇게 나흘 동안 비어 있습니다」 7월 며칠? 「2일까지…」 그때는 내 미국에 가야 된다구. 「그 앞에는 6월 15일, 16일, 17일 3일간이 비어 있

습니다」 그쯤이면 될지 모르지. 사흘 동안에 전부 다 결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만. 그거 좀 계획해 가지고... 내가 바쁘겠구만.

선생님 말을 좀 알겠어요? 「예」 심각합니다. 한 날을 위해서 고대하던 것이 이제는 한국 자체도 나를 밀어낼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구요, 한국자체의 운세가. 지금 여당 야당도...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 번에 와서 정지작업을 다 했어요. 반대해 봐라 이거예요. 이번에 뭐 8월에 선거 하겠다고요? 「지방의회...」 어, 지방의회.

새로이 정비된 모습으로 총출동하라

이제 남북의 국회의원 해먹겠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여기서 짜야 돼요. 그래서 경비조달을 해야 합니다. 경비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선거구를 중심삼고 백 명씩. 대학생 중고등학생들, 21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어른들이 가지 못한 것, 과거 타락한 조상들이 그릇되게 갔던 것을 탕감복귀하게 해야 되고, 또 이들이 피살을 모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해야만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늘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횡적으로, 몸과 마음이에요. 가인 아벨, 몸 마음과 같이... 마음적 기준에서 영양적인 영력을 몸 앞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적 기준에 협조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준 터전에 그 기준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이든 어디든 전부 다 점심을 먹고 나올 때 '점심 얼마 짜리 먹었어? 십일조 내. 북한 사람들 점심 한 그릇 대접해야지' 하는 거예요. 남한이 4천만이니까 북한의 두 배이므로 점심 한 끼 빠자는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갈 때 '오늘 점심 얼마짜리 먹을래?' 하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세 우리 학생들을 동원해서 부자집 아들딸을 전부 찾아가고 재벌들을 찾아가고 위정자를 찾아가서, '문총재는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학교도 말이예요, 대학기지의 판도를 전부 향토학교로 돌려라 이거예요. 학교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문총재는 이렇게 했다고, 집을 팔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온 재산을 투입해서 이 놀음 한 거예요. 아들딸이 '안 듣겠어요?' 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듣겠어요?

돈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일본이 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해요?

지금 평화의 댐 건설 모금액이 6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100억을 낼 테니까 재벌들 60명만 빼서 100억씩 내자고 하면 6천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이거 하다 보니 신나거든요. 그러니까 6조 원을 하는 거예요. 6조 원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북한해방을 위해서... 김일성을 막기 위해서 6천억을 만들었으니 북한해방을 위해서는 십 배쯤 노력해야지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말입니다. 알겠어요?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6조 원을 모으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 선거 비용으로 말이에요. 정부가 돈을 한 십 배쯤 풀어 놔 가지고 선거에 임하자 이거예요.

40일간입니다. 70일이 안 넘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섭리가 그래요. 후닥닥 닦아 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려니 이론무장을 해 가지고 대거 이동하는 것입니다. 2천만이니까, 남한의 4천만 중에서 2천만은 전부 다 이북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가서 일대일 사상대결로 붙들고 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에 부채질하는 외국 사람 한 7천 명, 만명 이상을 몰아 들여다가 '문총재 따라가야 산다. 김일성은 암흑천지야' 하는 선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말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당이라도, 남한 정부 그 누가 반대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밀어제끼는 거예요. 군대라도 밀어제킨다 이거예요. 그런 결의를 해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결의해 가지고 이 일에 임해야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만날 시간이 없구만. 그렇게 알고, 새로이 정비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히 돌아가서 출동하길 바라요.

약속시간이 열 시인데, 지금 열한 시가 되었으니 내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어? *

본연의 경계선을 넘자

고단하지 않아요? 「고단하지 않습니다」 (웃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4월 1일...」 4월! 4월이 되면 꽃이 피게 되지요.
봄이라고요. 요즘이 봄이에요. 봄의 때가 찾아왔다는 거지요.

본연, '본연의 경계선을 넘자' 했는데 그 본연의 세계가 어디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떤 세계예요? 본연의 반대가 뭐가요? (웃으심) 우리가 살
고 있는 이 세계는 본연의 세계와는 다른 세계라고요. 그러면 왜 본연의 세계
와 다른 세계가 되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본연의 세계와 달라졌다는 거예
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요.

모든 피조물은 참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왜 달라졌느냐? 무엇이 부족하여 달라졌느냐? 본연 자체는 완전한
데 달라질 수 있는 무엇이 있어 가지고 달라졌느냐? 본연의 세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는 완전하다구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
님이 계실 곳은 완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에 의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날 월드(original world;본연의 세계)라는 곳은
어떤 곳이나? 그곳은 주인이 하나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의 주인의 세계가 아니예요. 하나의 주인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는,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싸우고 뒤넘이치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는 그릇된 또 다른 주인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경계선이라는 것, 경계선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두고 경계선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디퍼런트 네이션(different nation; 다른 나라)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라는 말이 나온 거라고요. 본연의 세계에는 바운더리(boundary; 경계선)가 없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주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오리지널 월드(original world; 본연의 세계)와 폴른월드(fallen world; 타락의 세계)하고 경계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이 없었다면 본연의 세계의 소유주,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응!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예요.

그러면 소유의 물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물건의 주인이 돼 가지고 뭘할 것이냐? 거느리고, 거느리고 살기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물은 그 주인을 따라서 살게 마련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주인이 자기를 매일같이 대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만에 혹은 몇십 년만에, 몇백 년만에 찾아오더라도 반겨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에 의해 지으신 물건과 소유주가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본연의 참사랑에 의해 리시프로컬 릴레이션십(reciprocal relationship; 상호관계)을 맺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주인이 사랑의 주인이 될 때, 그 주인은 억천만 년이 가도 모든 피조물이 반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지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사랑을 중심삼고 전부 다 인연을 지어 나갑니다. 그 피조물들을 두고 보면 식물세계라든가 동물세계, 광물세계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좋아할 수 있는 감각, 좋아할 수 있는 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본연의 참사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본질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피조세계의 제일 주인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에는 오관이 있다

구요. 오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오관이 뭐예요? 눈, 코, 입, 귀, 피부, 이렇게 오관이 있는데 오관만이 아니예요. 육관이 있어야 되고 칠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이예요. 육감이 있다는 말은 있지요, 육감. 세븐 센시즈(seven senses;칠관)를 가져야 하나님을 안다고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파이브 센시즈(five senses;오감)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식스 센시즈(six senses;육감)와 세븐 센시즈를 넣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 문제다는 거예요.

병난 세계에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과 의사가 필요해

동물은 전부 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다 있다구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조그만, 요 조그마한 것도 동물이예요, 움직이는 건 다 동물이예요. 병균은 뭘까요? 동물이예요, 무슨 유기물질이예요, 균이예요? 점(germ:균)은 동물이예요, 식물이예요? (웃음) 균에 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 봐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렇지 않으면 균이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구요. '사람들은 눈이 있고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안해서 '어, 네 말이 맞다. 네게 맞는 눈을 꽂아 주마' 그랬을 거라고요. 자, 귀가 있겠어요? 싫다고 암만 그래도, 암만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는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코도 있다구요. 코가 없다면 말이예요, 균들이 세계의 공기를 다 빼 버려도 산다는 말이라고요. 숨쉬고 있다구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균에도 남자균 여자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웃음) 「있습니다」 있다면 균의 세계에서도 결혼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웃음)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균들이 결혼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좋다, 아이구 좋다' 하고 얼마나... 거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웃음) 그러면 그들도 춤을 추겠어요, 안 추겠어요? 「춤니다」

그 세계에도 무엇이 제일 필요하나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어떤 골격이 있어 가지고 상호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균들이 '아이구, 나 좋다' 하며 좋아하는 것과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이거예요. (웃음) 균의 세계에 타락이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타락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균의 세계가 타락한 세계보다 나으니까 그 균의 세계가 본연의 세계에 가까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물계에는 상대가 있어서 수놈, 암놈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식물계는 어떨까요? 수컷 암컷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있습니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는 거라구요. 그러면 그 암수가 무엇에 목을 매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식물에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겠어요? 그걸 생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무니들은 이 식물계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어요? 식물계는 사실상 그럴 성싶다구요.

그러면 광물계는 어떨까요, 광물계. 거기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오관이 있겠어요? 하나의 원자를 딱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틀고 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떠나지 않고 영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떼서, 하나는 동쪽에 갖다 놓고 다른 것은 서쪽에 갖다 놓아도, 아무리 떼어놓아도 순식간에 찾아가는 거라구요. 양자를 중심삼고 전자는 돌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암놈이 있고 수놈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 양자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또 전자는 그렇다고 할 때, 없다면 이들이 좋아하고 그러겠어요? 떨어지지 않고 말이예요. 그놈의 눈이 병이 났다 할 때는 이 눈의 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음)

그들이 가만 보니까, 사람의 세계에는 닥터도 많아요. '눈 고치는 의사, 귀 고치는 의사, 배앓이 고치는 의사, 손발 고치는 의사, 별의별 닥터가 많은데 왜 우리 세계에는 닥터가 없노?' 하면서 불평할 거라구요. (웃음) 고장이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닥터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요즘에 미국에 있어서도 에이즈(AIDS) 때문에 10년 후면, 1억의 사람이 죽는다고 야단을 한 다구요.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된다

면, 십년 후에 미국의 절반이 없어지니까 미국의 무니(Moonie;통일교인)들도 절반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 간다는 말이라구요.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모든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즉, 조제할 수 있는 약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닥터는 전지전능하고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되고 못 느끼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구요.

참사랑은 만병통치의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좋아해

그러면 그러한 약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갖다 주면 배가 고팠던 사람도 '아!' 하고 눈이 찌그러졌던 사람도 그것만 보게 되면 눈이 뜨이고, 귀가 막혔던 사람도 그것만 보면 귀가 뚫어지게 될 그런 약이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약이 무엇이나? 그것은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포들도 '아, 그렇지! 아이고, 얼마나 좋겠노' 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라구요. 눈은 앞에 있는데 반대 편에 그 사랑을 갖다 놓으면 반대편으로 꺾 돌아 버립니다. (웃으심)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을 놓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 문사장이 골수염이 나서 죽을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랑을 느끼니까, 마음이 붕 떠 가지고 좋아서 미쳐서 다니다 보니, 아픈 것 다 잊고 몇 년 따라다니다 보니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싱싱하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런말은 이론적이라구요. 문사장 나왔나? 문사장! 이 녀석, 재수없게 안 나타났구만. 「저 방에 있습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봤어? (웃으심) 「오셨습니다」

참사랑이 왜 좋으냐 하면, 만병통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이겁니다. (웃음) 저, 동산의 식물에게,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참사랑이 측 냄새를 피우면 그 식물들이 전부 다 별떡 일어나 방향을 갖

추어 가지고 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소우주예요, 소우주. 이 몸뚱이에는 광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러한 사람 앞에 참사랑을 갖다 대면 세포까지 좋아 가지고 '왁'소리 지르는 거예요. '왁-' (웃으심) 입을 가진 것들은 말이예요, 키스를 하고 싶어서 '오호'하고, 눈을 가진 것들은 눈을 맞추기 위해서 '오호' 하고, 귀를 가진 것들은 귀를 맞추기 위해서 '오호' 모두... (웃으심)

자, 그러니 그것들이 눈을 다 열고, 귀를 다 열고, 입을 다 열고, 거기다 힘을 들여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멋져요? 훌훌 날아다닐 것 같고, 세상 천지에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지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졌더라도 그 힘을 만나면, '야, 이놈아 빨리 대답해!' 하면 '예이' 한다 이거예요. (웃음) 재미있어요? 웃는 걸 보니까 재미있는가 보구만. 「예」 냄새만 맡고 이제 그만두자구요. 이만했으면 됐대구요. 「아닙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동물세계의 수놈 암놈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균의 세계, 세포세계, 광물세계의 부처끼리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구요. 여러분도 '나는 참사랑을 가진 실체다.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세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주적으로 부동된 그런 실체가 돼 있다'할 때는 이 우주가 켜까닥 켜까닥 전부 다 와서 붙는 것 같대구요.

우주의 피조물은 전부 다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참사랑, 참된 사랑을 가진 참된 사람이 가는 데는 모든 동물이 따라가고, 모든 식물도 따라가고 모든 광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히 큰 등지를 틀고 보호를 받으며 살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본연의 세계는 그러한 사랑을 중심삼고... 경계선이 없습니다. 어디나 통합니다. 보희의 머리카락에 참사랑이 왔다 하면 '아-우와-' 한대구요. (웃음)

참사랑의 안테나 중에서 제일의 안테나는 인간

그러면 참사랑의 안테나 중에서 세계 제일의 안테나가 뭐냐? 그게 소위 인간이라는 작자들이다 이거예요. 최고 높은 안테나, 최고 민감한 안

테나, 최고 동적인 안테나, 최고 사랑스런 안테나, 날아다니는 안테나의 첩 피언이 만물의 으뜸인 소위 인간입니다. 기분 좋아요? 「예」 이 동물같은 녀석들이 좋은 모양이지? 히히히... (웃음) 그래서 우주는 페어 시스템(pair system;쌍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라구요. 이게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이 레버린 문의 이론입니다. (박수)

그렇기 때문에 잔디 위를 걸을 때면, 잔디가 '아이고, 나를 밟는다' 하고 싫어하는데, 사랑의 발로 밟게 되면 잔디가 잡아당기면서 어서 밟아 달라고 한다는 거라구요. 봄철에 순이 나올 때, 이놈의 순을 우직스런 발로, 바위 같은 큰 발로 밟게 되면 '나 죽는다'하고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밟아 주는 사람이 사랑으로 밟아 주면 '어서 밟아 다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디를 척척 밟아주면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하면서 발을 떼지 말라고 붙든다는 것입니다. '아이구,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앉더라도 반석이 싫어하는데, 참사랑을 가졌으면 그 반석이 '어서 짹짹 밟아 다오. 깨지도록 밟아 다오' 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런 사랑의 주인이 돼 가지고, 동물세계 식물세계 광물세계와 이 우주를 이렇게 접촉하고, 비벼대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은 천상천하에 어디든지,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이 눈에 들어온다면 귀도 열고, 입도 벌리고, 모든 세포가 이렇게 전부 다 박자를 맞춰서 벌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사춘기에 있는 처녀 총각들이 사랑의 맛을 보게 되면 밤잠을 안 자고 그저 산을 넘고, 짹짹한 바다를 건너더라도 무서움 없이 행차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힘이, 그런 초월적인 힘이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구요. 사람이 자고 있는데 참사랑이 와서 조금만이라도 터치하게 되면 그 몸뚱이가 휘익 끌려서 눈이 전부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참사랑이 뭐냐 했는데 요렇게 하면 쪽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것 참 멋지구냐'그럴 거라구요. 이렇게 설명했으니 다 알았을 거라구요. 여기 입술에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의 세포가 들어가 있을까? 그 세포에도 수놈 암놈이 있다면 얼마나 흥분이 강하겠나 이거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여기는 자극적인 수놈 암놈의 생식기 중심세포, 신

경조직이 통하는 거라구요. 생각해 보라구요. 여기에서 번개가 치고 우뢰질을 한다는 거예요. '야 야, 구름이 끼었구나. 번개가 친다' 그러면서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새빨개져요. 루즈를 바르지 않아도 새빨개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구요. '상대가 누구냐'하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흥이 나서. (웃음) 하나님은 공평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안테나를 주었다구요. 불평할 게 없어요. 그래, 여러분도 그걸 가졌어요? 「예」 정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참사랑의 권내에서 밥을 먹고 싶고, 놀아도 그 권내에서 놀고 싶고, 살아도 그 권내에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럼, 본연의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이러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다 사랑의 호흡에 화동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진 세계가 본연의 세계다 이거예요. 폴른 월드(fallen world ; 타락된 세계)는 그 반대라구요. 오리지날 월드는 한점이 있다면 그 점을 중심삼고 확산하는 세계입니다. 폴른 월드는 그 반대예요. 줄어드는 세계예요. 우주고 무엇이고 없고 다 nada 이거예요. 나도 무슨 나냐? 몸뚱이 만 위하는 nada 이겁니다. 미(me; 나)라는 것이 몸뚱이만예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먹는 것. 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통하지 않고 막혀진 세계입니다. 이것이 악한 사랑을 중심삼은 타락의 세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존재세계는 모두 다 참사랑을 위해 희생하려고 해

자, 그러면 악한세계가 왜 나왔느냐? 본래는 어디에 있었느냐? 본래는 본연의 세계에 속해야 할 것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악의 세계가 됐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이 몇천 년, 몇만 년 걸려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청산하고 제거 하는데는 일생을 통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만 년의 역사를 통해서 청소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 청소운동이 하나님의 구원섭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이 세계에 하나님이 물어 보는 거예요. '야, 야, 이 만물

들어, 저 본연의 세계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천천히 들어가고 싶어?' 하면, 전부 다 '빨리, 빨리'하는 거라구요. 그 길을 가려면 힘이 들고, 다리가 찢기고, 눈이 빠지고, 별의별 상처를 입을 텐데 그래도 전부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리라도 하나 들어가면 좋고, 손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물계도, '내가 죽더라도 빨리 저기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광물계도 그렇고 식물계도 그렇고 동물계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내 몸 한 토막이 죽어 자빠지더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구원섭리노정에 제물이 왜 나왔느냐 하면, 빨리가고자 하는 욕구의 충동을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희생시키는 놀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본래 천지의 법도가 광물은 식물을 위해 있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 있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순차적으로 광물세계 식물세계 동물세계가 희생하는 일을 해서라도 전부 다 사랑의 세계로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잃더라도 빨리 그 세계에 가야 되겠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것을 3단계로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과정을 거쳐온 거라구요. 그러면 성경의 주류사상은 뭐냐? 희생입니다. 제물이 되라, 생축이 되라 이거예요. 뭣 때문에? 구원이 아닙니다. 사랑의 세계, 사랑의 경계선을 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몰랐다가구요.

타락한 이 세계, 본연의 세계가 아닌 이 세계가 전부 다 동원되어 본연의 세계에 돌아가기 위해선,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전체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그러면, 식물은 식물대로 희생할 것이고, 동물은 동물대로 희생할 것이고, 인간은 인간대로 희생의 깃발을 들고 참사랑을 위해서 달려야 되겠다 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랑을 위해서 만물을 희생시키는 시대예요. 신약시대는 뭐냐 하면, 대표적인 아들이 사랑의 세계를 직접 인계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가야 되겠다 하는 시대라구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뭐냐? 참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사상이예요.

그러면 참부모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접프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딱 연결이 되면 비로소 광물의 세계에서부터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으로, 인간의 아들딸에서 인간의 부모, 하늘부모까지의 길이 딱 닦아진다고요. 그 길은 둘이 아니예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밖에. 참사랑의 길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기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한데로 모여 가지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 기독교문화권이 사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전부 다 다시 떨어졌다고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다고요. 이 세가지만 얘기했지, 사랑을 얘기하지는 못했다고요. 네째가 뭐냐 하면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은 상대가 없어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까지 못 나갔대 이거예요. 이 길도 사랑의 길을 원하고, 진리도 사랑의 진리를 원하고, 생명도 사랑의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사랑의 길은 모든 피조만물도 그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교육이 필요 없다고요. 알겠어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사랑의 길은 만사 오케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무슨 길인지, 정치 하는 길인지 도둑질하는 길인지 몰랐대 이거예요. 그 길이 정치적인 길이에요? 「아닙니다」 요즘은 해방신학이 나와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정치적인 길이라고 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환드레이징 하는데 환드레이징 하는 길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전도하는 길이에요? 어느 거예요? 「사랑의 길」 사랑의 길이에요.

사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박물관에 들어가자

* 인간은 어떤 진리를 원해요? 사랑의 진리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있다고요. 그 진리 중에 어떤 진리가 필요해요? 어떤 진리를 원해요? 「사랑의 진리」 어떤 사랑? 「참사랑」 참사랑은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참사랑이라고요. 어떤 생명이예요? 사랑의 생명입니다. 존재하는 만물들은 사랑의 존재로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어디서나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관은 사랑을 위한 오관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눈이 사랑의 눈이에요? 코가 사랑의 코예요? 입이 사랑의 입이에요? 사랑의 피부예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다르다구요. 알겠어요? (* 부터는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 할 때, 거기에 사랑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딱 들어 맞는 것입니다.

* 통일교회 지도자가 누구예요? 「아버님」 그러면 레버런 문이 뭘 가르쳐요? 「참사랑」 참사랑, 참사랑이라구요. 그것은 정확하고 논리적인 답이라구요. 이제 분명해요? 「예」 사탄에게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구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라구요. 절대적으로 그 사랑은 영원히 내 것이라구요. 참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대답이 바른 대답이라구요. (웃음) 그렇다면 죽어도 좋아요. 절대적이라구요. (* 부터는 영어로 말씀하십시오)

사랑을 위해서는 몸뚱이를 쇠꼬챙이에 꿰어서 사랑의 제물로 바쳐져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 나는 싫어요' 이렇게 안 되어 있다구요. 레버런 문이 두 세계, 본연의 세계와 거짓된 세계를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격파하기 위한 운동을 미국 땅에서도 해야 하고, 독일땅에서도 해야 하고, 세계에서도 해야 되고, 영계에서도 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해야 되고, 어디에서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바쳐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기쁜 일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다구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경계선을 격파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의 경계선을 격파한 뮤지엄(museum; 박물관)을 설치한 곳이 있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 그런 박물관을 만들

어야 되겠소!' 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 하더라도 그런 재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중심삼고 경계선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인 경계선, 가정적인 경계선, 종족, 민족, 국가, 세계적인 경계선이 있고, 또 인종이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많아요? 이걸 전부 다 종합해서 종교에서 대표적인 챔피언을 데려다가 다 쓸어 버리면 세계 챔피언이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 뮤지엄에서 챔피언이 되면 인간세계의 역사적인 챔피언이요, 만물세계의 챔피언이요, 식물, 동물, 영계, 모든 세계의 챔피언이지요?' 하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 뮤지엄에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랑의 사람을 아직까지 못 만들었으니 네가 그럴 수 있는 대표자지'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걸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 뮤지엄에 들어갈수 있는 물품을 이 세상에서 마련하는 단체가 통일교회라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 박물관에는 수백의 민족, 세계의 모든 오색 가지의 민족, 오색 가지의 족속이 다 들어와 있다구요, 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 전부 다 선별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진짜 챔피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와 같은 환경에 갖다 놓아 가지고 두드려 췌다 이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고 남아야지 다 깨지면, 그 중간에서 부서지면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래 놓아야 진짜 하늘의 뮤지엄에 들어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홈 처치(home church;가정교회)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네가 어디 박람회야 갈 수 있는 대표냐 아니냐 해서 부딪쳐 보는 거라고요. 인류를 대표한, 360족속을 대표한 챔피언은 이와같은 것을 거느릴 수 있는, 내가 사랑의 주체자로서 그 상대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놈은 전부 다 내 사랑으로 녹여 버리겠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재창조된 상대권을 만들면 그냥 그대로 품평회를 통과하여 박람회에 출품될 수 있는 품목이 되는 것이라구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사랑의 센터가 되어 반대자들을 재창조하면 전우주의 대표 되는 모든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랑에 패스한 자다' 해서 그 사

람을, 이 상품을 갖다 놓으면 박람회엔 진풍경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추천해 가지고 '세계 챔피언, 6대주 챔피언' 하고, 이제 끝날이 되어 세계적시대가 오면 그렇게 매기는 거라구요. 그렇게 360의 족속에게 사랑의 주사를 놓게 되면 '아-악'하고 전부 다 부활한다는 거라구요.

그래서 이 사탄세계의 수많은 경계선을 축소하여 여기에 모아 온 거라구요. 수만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을 전부 다 늘어 놓으면 이 우주가 다 없어진 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걸 안 거치고는, 박람회에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는 암만 일등한 것의 몇백배 되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라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에 한번 가담하고 싶어요? 「예」 '레버런 문이 그렇게 하니깐 나도 하는 것이다' 그건 피동적이에요, 주동적이에요? 「주동적입니다」 본연의 세계에 돌입할 수 있는 하나의 티켓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 생명을 각오하겠어요? 「예」 실용주의 미국, 장사관념이 강한 미국 패들이 목을 걸고 한번 할만해요? 「예」 그러지 않고는 우주의 참된 존재세계에 가입할 수 없어요. 탈락자라구요. 폐물이라구요.

통일교회는 참사랑을 따라 제물의 길을 가야 돼

자, 그런데 고맙게도 지금 통일교회는 어디에 왔느냐? 가정적 싸움시대, 민족적 싸움시대, 국가적 싸움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공산당하고... 그러니 미국은 어차피 통일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구요.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하더라도, CIA나 FBI가 암만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통일교회를 따라가지 않으면 망해요, 망해. 망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국민의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뭐냐? 사랑을 다 잃어버린 병입니다. 사랑이 없는 광야와 같은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린 국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젊은이들의 눈을 보나 몸뚱이를 보나 그러한 본연의 사랑을 잃어버렸다구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담이 있고, 또 누나 형님이 있는 곳에도 갈 수 없게 담이 있고, 나라의 왕에게도 갈 수 없게 담이 있고, 사랑을 중심 삼지 않고는 갈 수 없게 길이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모델을, 대표적인 모델을 보내 가지고 '째그덕째그덕' 다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버런 문이다 이거예요. (박수) 그러면 참부모는 도대체 뭐냐? 참사랑을 소개하는 분이라고요. 이 참사랑만 가지면 그저 개인 옆구리에 이 키를 딱 갖다 대면 딸가닥 '만세!' 하면서 좋아하고, 가정에다 대고 딱 열어도 가정이 열리고, 막힌 데가 없다는 거라고요. 나라도 열리고 하늘나라도 열리고 어디든지 전부 다 열린다고요.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참사랑을 한번 맛만 보면 그 방향을 찾아서 자동적으로 간다 이거예요. 자동적으로 간다고요. 차 버리면 훌 날아서 넘어가는 거라고요. 들이 밀면 땅에 굴을 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고요. 참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나는 그게 좋아. 여러분은 싫지요? 「아니요」 아니예요, 여러분은 그걸 싫어한다고요, 나만 좋아하지. 「아닙니다」 자, 그런 그걸 한번 잡을래요? 그 참사랑은 모든 곳에 날아다닌다고요. 잡을래요? 그 참사랑은 모든 곳에 날아다닌다고요. 잡았어요,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요? 나만 이려고 있지, 아무도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항상 주인이에요. 그래, 얼마나 멋져요? (웃음)

아! 답다구. 내가 열이 난다구. 참사랑이 얼마나 더운지 말이에요, '이 우주에서 참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싶으면 손들어라' 하면 우주가 '와-' 하고 들고는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주지 않으면 나는 손을 들고 죽겠소' 하나님한테 이룬다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들, 참사랑에 생명을 걸어 봤어요? 참사랑을 어떻게 알아, 이놈의 자식들아? 생명을 걸어 봤어, 이 참사랑을 위해서? 생명 몇백 개 몇만개,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참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걸어 봤느냐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동물 식물, 모든 만물을 희생시키면서도 그것을 찾으려고 했고, 신약시대에는 아들딸,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어요? 오늘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목적은 하나, 참사랑을 찾

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생명 하나 내줄 만해요? 「예」 강제로 말고 자원해서 '이제 이 시간 틀림없이 나는 그렇게 결의합니다' 그래요? 나는 눈을 감을 것이니까 한번 손들어 보라고요. 자, 눈 감았어요? (환호) 이제 되었어요? 「예」 눈 떠요? 「예」 보라고요. 레버런 분이 똑똑한 사람이예요,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나 하면, 밤잠을 안 자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안 따라올 수 없게끔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입을 열라' 할 때 '왜? 돈, 지식, 권력 다 싫어...' 하면 입을 열지 않는다고요. '열라' 할 때 '무엇 때문에?' '참사랑 때문에' 하면 '와-' 대번에 열어버린다고요. (웃음) '그 입을 영원히 다물지 마소' 하면 영원히 안 다문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낚시바늘을 갖다가 '삭' 걸더라도 하나님은 아픈 줄 모르고 좋아서 자꾸 끌려 다닌다는 거라고요.

레버런 분이 이 지구성에서 사랑의 낚시대에 사랑의 미끼를 끼워 가지고 하나님을 걸고 잡아당기면 하나님이 '어서 잡아당겨라, 어서 잡아당겨라. 땅에 빨리 가자'고 하지 '아이고, 싫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성에 와 가지고 '아이고, 나 처음 왔다. 너 참 잘했다' 하지, '이 녀석아!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지구성에는 처음 오는데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안다는 거라고요. 그렇게 와 가지고는 너무 좋아서 손을 벌리고 '너를 물겠다' 하는 거라고요. (웃음)

여러분도 사랑의 줄에 걸리면,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거기에서 빠지도 못하고 울면서 끌려가면서도 '아이고...' 하잖아요? 어서 빨리 잡아당기라고 하지, 천천히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빨리, 빨리, 빨리 가... 자,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라고 들이치내면 어서 가서 사랑의 씨로서 승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제물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제물이예요. 제물 안 가지고는 안 돼요. 사람은 제물이예요.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택해 가지고 끌고 제물 고개를, 개인가정종족민족, 이 경계선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블란서나 어디에 가든지 레버런 문을 반대하다가 다 지쳤어요. 반대하다가 다 지쳤다고요.

참사랑의 길은 하나

너희들도 사랑의 줄에 걸렸지? 어디에 걸렸느냐? 다리에 걸린 녀석도 있고, 어떤 녀석은 살에 걸렸고, 어떤 녀석은 귀에 걸렸고, 어떤 녀석은 코에 걸렸고, 어떤 녀석은 입에 걸렸고, 심장에 걸린 녀석도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 걸리면 좋겠어요? 「심장이요」 큰일날 텐데, 아플 텐데도?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랑에 걸리면 좋다는 거라고요. 사랑 때문에 아픈 것도 '아이구 좋아' 이룬다고요. 이제 알았어? 「예」

다들 생명을 건다고 했지요? 「예」 너희들을 내가 지금 당장에 모스크바에 스파이로 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테예요? 「가겠습니다」 '아이구, 죽으면 어떻게 해? 아이구 내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해?' 거기에서 죽으면 사랑의 나무가 생겨난다는 거라고요, 사랑의 나무가.

자, 선생님이 언제든지 말을 하면 여러분이 감명받아요, 선생님 말씀에? 「예」 머리가 스마트(smart; 능숙한)하고 아주 뭐 클레버(clever; 영리한)하고 똑똑한 레버런 문이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미국과 이 세계가 혼잡하다고요. 여러분이 언제 생명을 걸었어요? KGB하고 정면적으로 부딪쳐서... 왜, 어째서? 참사랑을 위해서. 거기에서 폭발하는 날에는 사랑의 파편이 천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퍼지면 미국 지방 지방에서 불이 붙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부활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박보희, 생명을 걸었어, 이놈의 자식아? 「예」 (웃음) 어디 보자!

불평이 없다고요. 참사랑의 길에는 우주가 불평이 없어요. 그저 밑창에 들어가려고 한다고요. 자, 너 손들었어, 이쁘장한 여자? 「예」 저기 너도 그래? 그 뒤에 뒤에, 얼굴 곱상한 여자 말이야. 너 말이야, 너! 아 생명을 거는 데 미인이 백 퍼센트 거는 것 하고 추녀가 백 퍼센트 거는 것 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웃음) 같은 값이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해요? 「추녀」 너희들이 못났으니 추녀라고 하지, 이것들아. (웃음) 옛날에 여자를 제물로 바칠 때에 미인을 잡아다 바쳤지요? 마찬가지로

가지라구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레버런 문이 잘난 남자예요, 못난 남자예요? 「잘난 남자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예요, 무능력자예요? 「능력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로서, 여자들이 선생님을 보면 따라다닐 만하다고 보는 남자예요, 아니예요? 「따라다닐 만한 남자입니다」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선생님을 쓰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런 문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아요? 무엇이든 할 줄 안다구요. 무엇이든 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할 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세계적인 챔피언을 뽑 수 있는 소성을 가진 남자로서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붙들고 따라오는 거라구요.

자,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 나온 사람을 나중에 저 아프리카의 똥통에 빠져 죽게 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왕궁 본궁의 자리에 살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왕궁…」 가장 호화롭고, 가장 빛나는… 다 이런 거라구요. 벨베디아도 내 집이고, 이스트 가든도 내집이고, 또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고, 앞으로 백악관을 팔게 되면 그걸 내가 사려고 합니다. 안 팔아? 이놈의 레이건… CIA가 이 말을 듣고 자빠지더라도 할 수 없다가구요.

백악관 자체에게 물어 보라구요. '야야, 백악관아, 너 사랑도 모르는 그런 걸레 짜박지, 냄새 나는 그런 주인을 모실래, 참사랑을 아는 레버런 문을 주인으로 모실래?' 하고 물어 보라구요. 어떤 것을 따르겠느냐고, 미국의 백악관에게 물어 보라구요. '더 큰 참사랑의 소유자가 좋소' 이렇게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예」 다 가르침 받았어도 마음대로 선생님을 못 따라온다구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말이예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과정에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며,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이예요.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딱 갖다가 심는데, 그걸 북극 나라에 갖다가 심어 놓아도 레버런 문과 같은, 사랑의 주체 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태어날 수 있는 종자를 원한다 이거예요. 무엇보다 이걸 넘을 수 있느냐? 사랑의 열매의 본질을 갖추어 가지고 사랑의 주체와 대상된 자리에 서야

돼요. 같은 방향에 서야지, 딴 방향에 서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명령을 했는데 선생님의 명령을 안 받고 통일교회 사람들이 험잡해 가지고 '우리끼리 흠 처치하자' 해서는 안 통하는 거라구요. 모든것은 전부 다 이 진리의 경계선을 거쳐가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넘는 경계선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냐? 사랑이 가는 길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한 길이에요. 과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걸 못 하게 되면 영계에서 영원히 고생해야 돼요. 영원히 고생해야 된다고요.

참사랑만이 타락세계를 본연의 세계로 돌릴 수 있어

여자가 남자를 대해 가는 데 경계선이 있어 가지고는 참사랑을 못 가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남자가 여자 앞에, 자기 아내 앞에 가는 데 경계선이 있으면 참사랑을 못 가져요. 이 경계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미국 여자들같이 저금통장을 두 개로 해 놓고 '하나는 당신 저금통장 하나는 내 저금통장, 하나는 당신 보따리 하나는 내 보따리' 하는데, 그것은 악마의 소굴에 있는 거라구요. 여자들은 아무리 밤이라도 이렇게 등을 치고 이리면서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하면, 참사랑을 가졌으면 일어나게 돼 있지 '아이 싫어' 하계는 안 되어 있다고요.

미국 여자들은 왜 이렇게 늦어요? 벨베디아 집회를 세 시 반에 한다 하면 푸푸, 그럴래요? 그때는 진짜 달콤하고, 맛만 보면 혀를 뺏으면 뺏지 그걸 놓지 않을 수 있는 맛있는 사랑을 먹여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웃음) 자, 이제 여섯 시에 모이기를 바라는 사람은 다 내버려 두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어때요? 환영해요? 「예」 (박수)

무엇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 본연의 세계로 돌리게 하느냐? 인공위성이 무중력 상태에 돌입하기 위해 도약하는 것과 같은 힘, 그런 힘과 같은 것으로 본연의 세계로 점핑할 수 있는 것은 참사랑밖에 없다고요. 미국 여자들은 전부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남자 없이 자기끼리만 저

인공위성에 승차해서 날으려고 해요? 그거예요? 날개가 한 쪽만 있으면 가다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둘이 돼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을 쏘려면 레즈비언(lesbian; 여자 동성연애자)타입, 호모섹슈얼(homosexual)타입, 즉 외 쪽 한 쪽만의 인공위성을 쏘 거예요, 부부 인공위성, 가정 인공위성, 나라 인공위성을 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부부, 가정, 나라 인공위성입니다」 말은 알아듣고 공리는 통하는구만. 관심은 있구만. 응? 그게 쉬워요? 「아니요」 레버런 문은 나라 인공위성, 세계 인공위성을 하늘에 쏘 올려 가지고 딱 터뜨리려고 그런다구요. 그게 쉬워요? 「아니요」 공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공산당을 소화하고... 공산당을 구해 주려고 하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모든 것이 패어 시스템(pair system; 쌍조직)으로 되어 있으니 사랑도 쌍쌍의 다리로 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구요.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해주는 동기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하나된 그 사랑을 먹어야 달콤하지, 그게 아니면 써요. 쓰다구요, 써. 하나님의 혀에 안 맞는다구요.

그 말은 생명을 거는 데 있어서 '나는 남편한테 생명을 건 여자가 됐다' 그 말이지요? 남자는 '나는 부인한테 생명을 건 남편이다' 그 말이지요? 또 그런 부부는 '아들딸을 위해서 두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딸이 합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일가족이 희생해도 좋다 그 말이라구요. 그리고 통일교회에 수많은 민족을 대표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도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의 사랑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라구요.

참사랑은 우주를 포괄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내 생명만이 아니예요. 너의 일족, 너의 민족, 백인종 전체를 걸고라도 이것을 찾아야 할 운명길이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축복받은 가정은 손들어요. 그래, 너희들 서로 복싱해 봤어? 싸워봤어? (웃음) 여자가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부부는 아들딸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집안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그 어머니는 우주의 제일가는

어머니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우주의 제일가는 남편이요 천하에 비할 수 없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부모가 되고, 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애국자가 되고, 천하에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홈 처치 활동하러 갈 때는 싸우고 투닥거리면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 사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선생님한테 '너는 영어도 할 줄 모르지만 혼자 미국에 가서 미국을 구하라' 할 때 레버런 문은 무엇을 구하려고 했느냐? 문제는 간단해요. '에이 녀석아, 무엇을 구해?' 참사랑이예요. 미국에 와 가지고 한것이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육만 먹었어요. 이러다 보니 미국이 돌아섰다 이거라고요. (박수)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걸고, 가정에서부터 지금 출발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종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가고 나라를 거쳐가야 된다고요. 미국 국민이 이와 같은 사상으로 세계로 가게 되면 세계가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 나쁜 사랑, 추악한 사랑, 프리섹스, 악마의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전부 다 더럽혀 놓았으니 세계가 '양키 고우 홈(Yankee go home; 양키는 돌아가라)' 하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통일교회는 병들어 있는 이 미국을 치료할 수 있는 특약(特藥)

자,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 보자구요. 여기 들어올 때 무니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들어온 사람 있어요? 전부 다 무니를 반대하고 없애 버리겠다고 한 이런 패들이 전부 다 돌아선 거라고요. 무엇 때문에? 사랑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들은 '나는 기분 좋아, 아이구' 하면서 양손 들고 두 발까지 전부 다 들고 '영원히 죽어도 좋다' 이려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레버런 문이 말재간으로, 돈으로, 주먹으로 협박해서? 무니들은 힘들어서 울면서도 따라온다고요. '아이구, 원리를 몰랐으면, 통일교회 진리를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따라간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노정을 걸은 것과 같이, 지금 그 광야노정과 같

은 노정에 들었기 때문에, 40년간 유리고객했지만 고개를 넘어 들어간다고요. 그저 울면서 따라가서...

그래서 태평양 문화권을 중심삼고,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이 씨름을 해가지고 서양문명이 동양문명에 깔려 들어간다고요. 지금 그런 씨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동양의 문명이 무엇을 가졌느냐? 사랑을 가졌어요. 사랑의 종교와 사랑의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콕이 압복강가에서 씨름한 것과 같이 말이에요. 동양문명은 그런 사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계가 망하는 세계예요, 흥하는 세계예요? 「망하는 세계입니다」 왜? 백인은 전부 다 탈취해 갔지만 아시아인들은 그렇게 위하기 때문에 세계 인류 가운데 중국에 10억이라는 인류가 있고, 30억 인류가 아시아에 있다는 거예요.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어때요? 착취를 했어요. 피를 흘려왔다구요. 구라파가 중국 같으면 한 나라가 되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야단이에요, 이게? 전부 부서지게 된다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백인들 앞에 세계를 못 맡긴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 하루만 세계를 맡아 보라는 거예요. 실패한다고요. 전부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버런 문을 보내 가지고 경고시켜 가지고 인류를 품을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삼고 하늘의 품에 품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의 역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미국의 2백 년 역사를 보라고요. 수많은 인재를 학살하여 피로 얼룩져 있다고요. 여러분은 아시아인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레버런 문이 있다고 해서 그냥 구해...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어 가지고는 여기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마약전쟁 (아편전쟁)이 무엇인지 알아요? 앵글로색슨 민족이 중국을 점령해 가지고 아편을 가져 가서 그 아편으로 수많은 중국 사람들을 죽여 버리려고 했어요. 인과법칙이 여기서 적용되어 앵글로색슨계 미국 자체가 아편으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역사를 두고 회개해야 됩니다, 역사를 두고 레버런 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인종을 초월하여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데 있어서 참사랑을 걸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머

리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사랑을 알지 않고는 암만 기도해 봐야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암만 해보라구요.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라구요. 전부 다 해보라구요.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만이 이 나라의 새로운 특약이 될 것이고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거라구요. 여러분의 나라는 통일교회가 없으면 망해요. 여러분 그것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예」 응? 그게 거짓말이 아니예요. 5번가의 거리를 가 보라구요. 젊은 놈들이 전부 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 똥통이 돼 가지고, 쓰레기가 돼 가지고 이려고 있어요. 젊은 놈들이 그러고 있지요? 그걸 아는 여러분 백인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걸 아는 백인 청년 무니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하나님은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라는 천벌을 주는 거예요. 이 병을 준 것은 '이놈의 자식들, 다 걸려서 쓰러져라' 이거예요. 천벌이 내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천벌 병이예요, 천벌 병, 그게 뭐라구? 에이즈, 에이즈라는 병을 쥐 가지고... 뭐 프리섹스? 이놈의 자식들, 언제나 입을 맞추고 야단이예요. 해봐라, 어떻게 되나.

그렇지 않는 데는 찾아보니까 무니밖에 없거든요. 무니밖에 일대일로 부부 생활 하는 데가 없어요. 앞으로는 검사를 해 가지고 에이즈가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문들 닫고 차 버리고 깨끗한 사람만 넣을 거라구요. 통일교회의 참사랑의 불이 붙게 되면 에이즈라는 병도 도망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본다구요.

본연의 경계선을 돌파하려면 누구보다도 흠 처치를 사랑해야

자,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사랑을 찾는 흠 처치의 기반이고 아내가 사랑을 찾는 흠 처치의 기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흠 처치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보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참사랑이 못 된다고요. 여러분의 아들딸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악의 세계에서 본연의 세계로 점프하기 위해 그 경계선을 돌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가정보다 나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는 기준을 중심삼고... 그러지 않고는 흠처치를 암만 움직여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라구요.

참사랑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따라옵니다. 우주가 따라와요. 누가 막을 자가 없어요. 거기에는 자연히 환경이 녹아나고, 전부다 물려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나무가 그림고, 거기에 있는 길이 그림고, 거기의 집들이 보고 싶어서 안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라구요. 알아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하는 운동이 벌어져야 참사랑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만물과 사람과 부모와 하나님이 정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총결론이라구요. 이것은 구약시대이고, 이것은 신약시대고, 이것은 성약시대예요. (판서하시면서 말씀하심) 이것을 개인 중심삼고 보면 딱 맞다는 거예요. 개인 중심삼고 이것이 부부고 이게 부부 중심삼은 아들딸이예요. 이것이 신약시대고 내가 소유한 모든 소유물은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다 한꺼번에 사랑에 꿰어서 하나님께 돌려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갈라진 것도 타락 때문이예요.

자, 여러분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물질을 희생시킬 줄 알고, 자식을 희생시킬 줄 알고, 자기 아내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에게 돈이 있으면 그걸 희생시켜서 제물로 삼는 거예요. 다음에는 통일교회의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딸, 만딸 만아들들도 고생한 거라구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희생한 거예요.

왜? 참사랑을, 참사랑의 세계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참사랑의 세계를 찾아가려니 여기 이국 땅 미국에 와서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이국 땅에 와서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이국 땅에 와서 어머니도 형무소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기에 이제는 미국도 통일교회 레버런 문의 지도를 받아야 되

고, 공산당도 레버런 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미 그럴 수 있는 중앙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중앙에 올라와 사랑과 연결되면 모든 것이, 즉 미국이 사랑과 연결되면 이것은 하늘권이 되고, 세계가 연결되면 이걸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소유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참사랑을 갖고 경계선을 돌파하는 데 선두에 서라

이렇게 되면 만물과 인류가 하나님의 소유권에 접촉할 수 있는 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전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경계선에 왔다 이거예요. 민주세계의 경계선, 공산세계의 경계선, 이게 마지막 경계선이예요. 최후의 경계선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늘나라,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표방하고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산당도 없고,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도 없습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국민...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경계선을 돌파할 순간인데 무엇을 갖고 돌파해야 되느냐? 돈 가지고 안 돼요. 힘 가지고도 안 돼요. 참사랑을 가지고, 참사랑을 가지고 가면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방송국에서 전파를 쭉- 저쪽으로 보내게 되면 막히는 것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세계로 다 그냥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은 '봄이 오는구나' 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새로운 세계, 하나의 세계가 오는구나' 하는 거예요. 벌써 안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구요. 망해 가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미국을 살려줄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해 가는 소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소련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얘기한 것과 같이 공산세계의 젊은 2세대들이 레버런 문에 대해서 '야! 거 꽤기 있는 사람이다. 동양 사람 치고는 제일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려온다는 거라구요.

어저께 현진이 결혼식 할 때 워싱턴의 저명한 패들이 와서 '아이고 제발 참석하게 해주소' 해서 내가 특별히 허락했기 때문에 몇 사람 참석하게 됐지, 오겠다는 녀석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정치계의 대표자, 경제계의 대

표자, 언론계의 대표자, 이런 젊은 청년 지도자 대표자들을 빼서...

자, 통일교회의 기관차는 레버런 문이고, 그 뒤에는 수백 개의 객차를 달았는데 여기 경계선에 와 가지고는 통일교회 사람들을 다 풀어 놓았어요. 다 지금 일선에 나가 있기 때문에 차가 텅텅 비었으니 '레버런 문 따라가고 싶으면 타라' 하면 통일교회 병사의 몇십 배의 사람들이 타려고 자기들끼리 싸울 때가 왔다 이거예요. 어때요? (웃음) 서로가 싸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류 대학 나온 사람을 모아서 수련할 것이고, 백만장자 부자들을 모아 가지고, 이런 사람들 몇백 명만 하면 이 나라의 핵심적 방향을 전부 다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다구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물우물하다가는 다 빼앗겨 버린대구요.

그래서 이 무니들을 전부 다 스파이와 같이 몰래 야간에 경계선에 투입할 거라구요. 레버런 문이 '자, 때가 됐다. 출발!' 할 때는 국경선에서 '와-' 넘어가는데 무니가 타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타 가지고 전부 다 '천하를 요리하자' 이렇게 된대구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선두에 서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챔피언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 망하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어서 '내 하는 대로 해라' 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워 가지고 백명, 천 명을 소화해 가지고 운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디스코 댄스를 추는 이런 젊은 녀석들은 거기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요즘 백악관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될 사람을 누가 만드느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누가 만드느냐? 그건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예요. '레버런 문이 만들어 보자' 이러니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할 사람 이스트 가든에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 올 거라구요. '너희들 무서우면 야간에 밤 열두 시 지나서 한 시 두 시에 오라' 해 가지고 밤에 만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이 줄장부들이 말이에요, 찾아올 거라구요. (웃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미국이 사는 거야' 이렇게 죽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예스 하게 돼 있지, 노 하케는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사는 거지 별수 있어요? 그래서 전파를 통해서 미국 국민이 40일수련을 꼼짝달짝하지 않고 받았다 하면 미국은 부활하겠어요, 죽겠어요? 「부활합니다」 며칠 동안에? 며칠 동안에? 40년이에요? 「아니요」 단지 40일이다 이거예요. 죽어 가는 미국을 부활시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어려워요」 40일입니다. 40년이 아니예요.

그럴 때는 방송국 NBC, ABC, CBS 전부 다 하고 신문 뉴욕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전부 다 해보라구요, 어떻게 되나. 40일 동안에 다 끝나는 거라구요.

미국을 중심삼고 세계기반의 시대를 넘고 있는 통일교회

자, 통일교회가 이렇게 나라 전체를 40일 동안 수련해서 미국 국민 2억4천만을 움직이는 것하고, 공산당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을 줘서 2억 4천만 미국 국민을 움직이는 것과 어느 것이 빠른 거예요? 공산당이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빠를까요, 무니가 교육하는 것이 효과가 빠를까요? 어떤 거예요? 「통일교회가…」 어째서 통일교회예요? 「참사랑…」 아니예요. 미국은 기독교문화권입니다. 기독교가 중심이 돼 있다구요. 통일교회는 성약을 가졌기 때문에, 구약 신약을 완성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목사 203명이 한국에 갔지? 「예」 이들이 지금 한국에 가 가지고 기가 막히던, 그 옛날에 선생님이 외토리로 처량하게 기도하던 그 바윗덩어리를 홀리 락(Holy Rock; 신성한 바위)이라 해 가지고 그걸 붙들고 울고불고 불받고 해서 야단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키스하고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미국이 살아나고 있지요? 응? 공산당들은 목사를 교육하여 감동시킬 수 없고 목사들 모가지를 잘라 죽이지만, 레버런 문은 목사를 데려다가 교육해 개조하여 전부 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병정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개조운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6백 명 이상이 가야 된다구요. 금년에 6천 명을 해야

돼요. 미국의 50개 주 상하의원이 전부 다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 3천 5백 명의 교육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퇴역 장성이 천 3백 명인데 그들을 교육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를 편성하려고 한다구요. 그건 벌써 추진중이예요. 하고 있다구요. 이런 것을 보고 정치인들은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앞으로는 레버런 문의 꿈무늬를 따라다니며 레버런 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레버런 문 하면 '아! 그분이 오실 재림주다' 하더라도 '휘- 그럴 성실지'그러지, '레버런 문이 뭐 재림주야?' 그러지 않아요. 전세계 사람의 메시아가 된다면 레버런 문밖에 될 수 없다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기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14년, 만 14년 동안에. 해방 때부터 부모의 날을 택한 1960년까지 14년이고, 미국에 와 가지고도 14년입니다. 국가기반을 넘었고 세계기반을 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는 부모시대이지만 국가기준 부모시대예요. 국가기준 부모시대에 들어가야 왕권시대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세계로 넘어갑니다, 세계로.

앞으로는 레버런 문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구요. 공산당은 이제 죽어 가는 거예요. 소련의 우리 지하공작대원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얼마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 해방을 레버런 문이 주장한 것입니다. 스마트한 레버런 문이 모스크바 해방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열두 시 전에 특별선언을 한 거라구요.

이제는 흠 처치 활동으로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야

재림주는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의 헌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궁정에 있어서, 왕궁에서 왕족들이 지킬 수 있는 헌법을 가르쳐 주고 가야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세계가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영하는 거예요. 전체 3분의 2가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구요. 그렇게 되면 입적시대가 들어옵니다. 본연의 입적시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와 같은 열두 지파에 속하기 위해서는 흠 처치의 조직을 통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소속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국민이

만약에 천 2백만이면 12지파로 백만 명씩 나누는 거라구요. 심지를 뽑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계열을 중심삼고 종족적 판도를 세계적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다가는 언제 소속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어느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흠 처치 활동하는 일선 지역에 가서 전부 집합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나라가 되겠지요? 한 사랑을 두고는 말이 돌일 수 없다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랑을 중심삼고 하나의 문화세계, 하나의 언어, 하나의 혈통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경계선을 넘어야 할 때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야당 대표자, 대통령도 앞으로 내가 안 만나겠다고 해도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나를 반대하고 야단하는데, 내가 안 만나겠다고 해도 나까소네 일본수상이 내가 한남동에 있으면 한남동으로 찾아올 것이고 이스트 가든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겠다고 이거예요. 미국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IA가 무서워하고 소련의 KGB가 무서워하는 거라구요. '우- , 우리 앵글로색슨족권 내에서는 레버런 문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돼 있어. 너를 싫어한다. 너는 너를 반대하는 사람의 힘을 몰라. 우리는 언제나 여기를 지키고 있다. 헤헤-' 그리고 있다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부수어 버리겠어요. 그 장면을 보고 싶어요. 그들이 망하게 되었으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죽기전에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최대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자, 그렇게 알고, 참사랑을 중심삼고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래요? 점핑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점프」 총알과 같이 빠르게... 이 걸 위해서는 오직 한 길로만 날아가야 됩니다. 두 길이 아니예요.

한번 떠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은 모든 것을 쳐부수는 거예요, 납작하게….

자, 이제 그만하자구요. 이제 세 시간이 됐구만.

이제는 모스크바든지 어디든지 일선에 침투를 해야 되겠다, 통일교회패들은. 어때요? 할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재산을 팔라구요. 재산을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딸에게 전부 다 여기에서 환드레이징해서 돈을 벌게 하여 그 보급료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 모스크바 공산세계까지 해방할 수 있는 이런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세계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세계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는 아프리카가 따라오려고 하고, 소련이 따라오려고 하고, 미국이 따라오려고 하는 이런 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자는 것이냐? 레버런 문에게로 가자는 것이 아니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선두에서 목자가 돼 가지고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대할 자가 없대구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따릅니다. 흑인이 '아이구, 백인이 가는 데는 안 가'해서는 안 됩니다. 백인이 가더라도 환영하면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또, 흑인이 가더라도 백인이 환영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생각해 보라구요. 어느 길이 승리하는 길이냐? 레버런 문의 길이 승리하게 돼 있대구요.

자, 당장에 출발해도 할 수 있다고 결의한 사람은 다시 한 번 결의하자구요. 4월 봄철에 새로운 싹들이 움트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도 새로운 천지를 향해서 봄철을 맞아 새로운 싹들이 움트는 환경으로 전진할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 손들라구요.

자, 이제 그냥 그대로 갈까요, 점핑해 갈까요? 어느 쪽이에요? 「점핑…」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박수) *

참된 길을 가자

오늘 말씀할 제목은 '참된 길을 가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 혼돈 가운데 있는 인류

오늘날 인류가 살아온 역사적 길을 보면, 무엇인가가 인류를 이와 같이 끌고 나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곳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상 좋은 곳으로, 지금보다도 나은 곳으로 가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와 같이 끌고 나온 역사의 배후에서는 누가 지도했느냐? 참된 마음, 보다 좋은 길로 가자 하는 인간들의 마음이 합하여 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적 결과시대로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을 추구해 왔는데, 오늘날 이 현세를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이 추구했던 환경을 갖고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더 높은 데로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야말로 갈래야 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힌 실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제 우리 개인으로도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랄 수 없고, 가정이나 종족, 민족으로도 더 좋은 길은 바

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삼고 현정부 자체를 보더라도 더 좋은 길을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면 세계를 두고 볼 때에도 세계 자체가 더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 혼돈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세계를 이끌어 나온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이미 부딪혔습니다. 그 내부의 부패상을 피할 길이 없고, 어려운 환경에 떨어져 있는 것을 어떠한 도약의 길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공산세계를 보더라도 그들이 노동자 농민을 중심삼은 독재 정권에 의하여 세계 제패라는 목표를 위한 노상에서 투쟁을 중심삼고 자본가와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싸움을 해 나왔지만, 그들 역시 자체 내의 모순에 부딪쳐 가지고 이제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우리 인간세계에 새로운 이미지를 남겨 줄 수 있는 입장은 이미 지나 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역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혹은 종교인이나 문화인이나 할것없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참된 길로 끌고 나온 양심과 그 배후

이와 같은 환경에서 참된 길을 어떻게 모색하느냐?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인류를 끌고 나온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양심이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선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느냐?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끌고 나온 역사적인 모든 걸음걸이가 참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양심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끌고 나왔다면, 그 양심이 참되었더라면 이와 같이 되지 않을 텐데, 그 양심이 참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우리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을 중심삼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사과정에서 수많은 성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유교면 유교를 중심삼고, 불교면 불교를 중심삼고, 기독교면 기독교를 중심삼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나

왔던 것입니다. 성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이 나오는데 그 성현들이 바라던 소망의 세계, 참된 세계가 과연 참이었느냐? 성현들이 제시한 것이 과연 참이었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참이었더라면 이와같은 결과가 되지 않을 텐데, 참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성인들만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신이라는 절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절대자를 중심삼고, 거기에 연유해 가지고 종교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유교를 보더라도 하늘을 가르쳐 주고, 불교를 보더라도 역시 하늘을 중심삼고... 이렇게 모든 종교는 하늘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인연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된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역사(中間役事)를 한 성인들이 그릇됐느냐, 성인들의 가르침이 옳았다면 인간이 그릇된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이 옳았다면 성인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옳았다 할 것이고, 성인들의 가르침이 그릇된 결과를 가져 왔단다면 그 성인들을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릇되었다는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잘못되었다면 그 성인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이 잘못되었느냐?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인의 가르침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가 반드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세계로 가야 돼

과거에 왔다 갔던 성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상을 상상치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변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실제생활에서 보더라도 경제문제를 보나 혹은 과학기술을 보나 시시각각 변해 나갑니다. 어젯날에는 전세계가 좋다 하던 것이 얼마 안 가서 버려지고 또 새로운 것으로 변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을 볼 때, 과학기술이 얼마나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냐? 얼마나 변화시킬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에 이미 과학기술도 첨단에 도달해 가지고 그 기술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주변의 부속품 혹은 장치가 변할 뿐이지, 과학기술은 이미 세계가 평준화 기준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개발국가에서 중진국가로, 중진국가에서 선진국가로 가는 길도 어차피 가면 다 한계에 들어서 평준화 기준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변하는 이 사회에 있어서 무엇이 변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환경이, 경제적 환경이 변해 나갑니다. 경제적 환경이 변해 나가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경제문제도 일개국 경제문제를 문제시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도 역시 정상의 자리, 세계라는 무대를 중심삼고 인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통일된 세계적 체제 내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과학기술을 보나 경제문제를 보나 정치풍토를 보더라도 역시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세계를 기준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세계를 중심삼고 하나의 세계를 모방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세계가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나와 가지고 하나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목적을 향한 하나의 운명을 지닌 패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東)으로 간다고 해서 전부 동으로 갈 수 없고, 서(西)로 간다고 해서 전부 서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각기 나누어져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결합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라는 것은 미국 국민만이 필요로 하는 정치노선으로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선을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정치를 하더라도 세계를 중심삼고 세계를 표준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여파가 미국 자체 내의 정치풍토를 좌우하는 이런 실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대한민국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도자들이 아무리 잘한

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 세계의 비준(比準)을 맞추지 못하면 그때까지 남아 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것이 지금의 세계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보나 경제로 보나 문화적인 면에서 보나, 더우거나 종교적인 면을 보면 종교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퇴폐하고 몰락하는 실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 상황에 부딪친 세계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럼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 나가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야 된다' 하고 암만 가더라도 가다 보면 전체가 안 따라간다고요. 전체가 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를 위주로 하여 움직이다 보면, 돈, 황금만능을 중삼삼고 배금주의자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부가 포괄될 수 없거니와 그 뒤를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상적인 체계가 있어서 이것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포괄해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한계선은 이미 드러나고, 이 모든 것들이 실험을 필하고 이제는 혼란된 상태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에 이 시대에 있어서 공자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자님이 나타나 가지고 이 세계를 책임졌다면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공자님 자체도 인간이므로 절대자는 아니예요. 그도 가다가 한계에 부딪칠 것이요, 어디까지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이 되지 못하는 한 전체 목적의 때가 오게 될 때는 반드시 결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이것을 책임진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예수님이 이 세계에 나타나셔서 전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지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뭘 가지고 지도할 것이냐? 과연 이 세계를 수습할 수 있느냐? 신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소화하고 기독교가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이 세계를 수습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석가 같은 양반은 더더우거나... 마호메트 같은 양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혼란된 상황에서 가진 가야 되겠습니까. 어딘가 터쳐 나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가는 데 있어서 경제를 붙들고 정치를 붙들고 종교를 붙들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붙들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떨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혼란된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를 말하면, 도대체 통일교회는 뭘하겠다는 꾀들이냐? 이런 혼란된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이 혼란된 상황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이 변해 가고 자기들이 움직여 나가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흥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가야 합니다.

그러면 통일교회라는 곳은 뭘하는 곳이나? 통일교회의 레버런 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치문제를 다뤄 가지고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그러려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출마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다음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 삼고 이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물론 경제도 필요하지만 세계의 모든 경제를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종교세계에 있어서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평화의 세계를 만들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자' 해도 전부가 지금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 방법이 무엇이나? 나라를 붙들고 해결할 것이냐? 정치를 붙들고 해결할 것이냐? 경제를 붙들고 해결할 것이냐? 뭐 과학기술을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하게 되면 남자 여자입니다. 간단해요. 역사적으로 수십 억이 살고 있지만, 사람을 분석해 보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들이 참되게...

남자 여자들이 좋아서 갈 수 있는 참된 길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길을 가자'는 것인데, 남자 여자들이 참된길이라고 좋아서 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나? 그게 문제입니다. 그 참된 길이... 어렸을 적부터 자라 가지고 그다음 성숙해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는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일생을 살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중심삼고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치 있는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남자와 그럴 수 있는 여자, '지금의 세계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나는 변치 않는 모습을 가지고 변하는 이 세계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나 가는 데로 가겠다. 내가 변치 않는 이런 길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현재의 시대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아무리 변하더라도 나만은 참된 길을 가고 있다. 그건 변할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변할 수 없다. 내가 나이 많아져 늙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나는 변할 수 없다. 만약에 죽음의 자리에 봉착할 때도 탄식으로 꺼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개를 넘어서, 죽음길을 넘어서 가겠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성현들이 이 땅에 나타나 가지고 가르친 모든 것은 무엇이나? 그들은 나라를 위한 도리를 가르치기 전에 개인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개인을 위해 가르쳤다구요. 개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세상이야 변하든 어떻든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내 젊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고, 또 내 중년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이며, 노년이 되고 죽음길을 가더라도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니, 이게 세상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길이요, 참된 길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남자 여자가 하나되어 가지고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놀음을 이 세계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인간의 새로운 참된 길을 이루어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삼은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가 있는데, 도대체 이 단체는

뫓하는 단체냐?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패 같습니다. 우리 환드레이징하는 거 보면 장사하는 패 같아오. 또 어떤 때 보게 되면, 맹목적으로 길가에 나가 떠드는 패 같고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전부다 온종일 바쁘게 살아오, 바쁘게. 바쁘다고오. 통일교회는 바쁘다구오. 내가 지금 통일교회 괴수가 되었는데 말이에요, 일생 동안 바빻어요. 그렇게 바쁩 수가 없어요. 밥 먹을 시간 까지도 없을 만큼 바쁘니다. 잘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레버런 문이 세계의 문제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혼란한 환경을 소화하는 통일교회

미국 자체가 통일교회를 삼켜 버리려고 하지만, 민주주의 가치고 통일교회를 소화하고 삼켜 버릴 수 있어오? 통일교회가 뭐 큼니까? 그러나 통일교회를 삼킬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가 미국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젊은 학도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려고저려고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통일교회 패의 카프(CARP), 원리연구회라는 것이 있어 가치고 그 젊은이들을 전부다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통일교회 패들이 들어오면 전부다 물을 들어서 녹이든가, 그러지 않으면 삼켜 버리든가 소화하는 이런 놀음을 한다는 거예요. 통일교회에 가게 되면 벌써 통일교회 패한테 물들어 가치고 누구를 닮아 가느냐? 통일교회 패가 세상 패를 닮아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아무리 혼란하고 어떻더라도 그 혼란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교회 사람을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레버런 문한테 '당신이 혼란된 이 세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소?'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계에 사람이 50억이 넘을 만큼 많지만, 그것을 분석하면 남자 여자입니다. 세계를 서양 패, 동양 패, 두 쪽으로 나누어도 거기에는 남자 패, 여자 패입니다. 거기에 통일교회의 사상, 통일교회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딱 갖다 놓게 되면, 동양 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서양 패들까지도 그 사상을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통일교회가 지

금 문제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서구사회에 문제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레버런 문을 따르는 통일교회 패들이 서구사회에 나타나 가지고 근 15년 기간에 동양이 서양을 추앙하던 사상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을 연구하고 높이고 동양으로 가자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와중에서, 혼란된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할래야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풍토가 아무리 야단하고, 공산당이 뭐 선전하고, 미국에 있어서 세속적 인본주의니 뿔이니 하고, 배금주의자들이 황금만능을 주장해 가지고 큰소리를 치더라도 거기에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회 패들이 뭘 할 것이냐? 이 혼란된 와중을 더 혼란스럽게 할 극성맞은 패들이 아니예요? 제거해야 할 패가 아니라구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망치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계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하는데 있어서는 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의사를 반드시 대비해 가지고 죽기 전에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세계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 교인들은 오늘날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혼란되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벽에 부딪쳐 깨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군상들 앞에 떨어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고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그 가던 길에서 180도 돌 뿐만 아니라 360도 돌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360도를 돌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360도 돌았다가 자동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울과 같이.

몸은 양심의 수직선에 90도, 180도 균형을 취해야

통일교회 패들, 통일교회 남자 여자들은 지금 세계적인 무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포들이 어떠하냐? 옛날의 조그만 장난감을 가지고서

좋아하던 배포가 아니라 세계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배포들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겠다'는 배포를 가진 남자 여자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는 남자 여자를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중심삼고 역사과정을 거쳐오던, 우리 조상들로부터 현재 미래로 인류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전부 다 혼란 와중에 있는데, 그럼 무엇이 혼란되어 있느냐? 몸뚱이가, 육신이 혼란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은 이목구비(耳目口鼻), 오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겠다는 눈이 잘못 보고, 먹겠다는 그 입이 잘못 먹고, 맡겠다는 코가 냄새를 잘못 맡고, 듣는 귀가 잘못 듣고, 느끼는 것을 잘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몸이 잘못됨과 동시에 마음은 어떠냐? 마음도 방향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누가 '너 양심의 가책 안 돼?' 이렇게 하지요? '양심의 가책 없어?' 하고 묻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양심은 이미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지니고 있다고 긍정하는 밑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바르다 할 때, 바르다는 것이 뭐냐? 수직선을 향해서 바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 양심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꼬부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직을 따라서 평행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수직선을 따라서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의, 과거 사람의 양심도 그렇게 서 있고, 현대 사람의 양심도 그렇게 서 있고, 미래 사람의 양심도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양심을 중심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바르냐 할 때, 지금 와서는 뭐 양심이 바르다는 얘기들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 하고, 하나님의 양심은 어떻게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양심은 어떻게겠어요? 그야 절대적으로 바르지요. 하나님의 양심을 두고 볼 때에 절대적으로 바르고, 하나님의 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바릅니다. 바르다고 해야지요. 이것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바르기만 하면 모든 물체구성이 안 됩니다. 전부 다 바르기만 하면 물체구성이 안 돼요. 연결될

수 있는 횡적 기반이, 횡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 앞에 횡적 기반으로 서 있는 것이 몸입니다. 몸뚱이는 나를 횡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양심을 중심삼고 몸뚱이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수평선이기 때문에 90도 각도를 맞추어야 됩니다.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몸뚱이라는 것은 본래에 바른 양심 앞에 90도가 되어 가지고 둘을 놓으면 180도요, 네 개 놓으면 360가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몸뚱이는 수직 앞에 90도 각도를 맞추어 가지고 180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양심을 축으로 하고 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외적 세계에 접촉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떠돌아 가게 되면 그건 파괴됩니다. 대한민국에 중심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중심이 없어서, 이 우주에 영원한 중심이 없어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왜? 양심이 수직선이고 몸뚱이는 수평선으로서 90도, 180도 기준, 균형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칙이요 인간이 설 수 있는 철칙이라 할 때는 양심 자체, 수직선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양심 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수평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수평도 말이예요, 축이 여기에 있으면 수평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수평이어야 되고, 저기 꼭대기도 수평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균형적인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앙점입니다.

구형이 있으면 구형을 딱 빼냈을 때, 양심이 수직선이라면 몸뚱이는 중앙점을 중심삼고 좌우로 90도 각을 가진 180도 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조준 밑에 서야 할 기준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주적 양심을 중심삼고 참된 것을 찾아서 접붙임을 받아야

그래 마음에 맞춰라! 마음에 맞추는 데에 있어서 몸은 세상과 더불어 균형을 취해 가지고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외적 세계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에서 몸이 접촉하는 거예요, 양심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몸뚱이가 양심이 작용하는 이상으로 하는 날에는 탈이 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수직선의 운동에 힘이 없는 데 몸뚱이 자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뚱이를 가졌다고 할 때는 우주적 양심기준을 확정지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 우주적 양심이 하나 있으면, 그 양심을 중심삼고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접붙여야 됩니다. 10리 거리, 50리 거리에 있지만 붙어서 가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이 역사시대에 수많은 선각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들이 무엇을 중심삼고 보냄을 받았느냐? 어느 하나의 명문가를 대표해서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목적은 수직적 기반을 상실한 혼란된 마음의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우주 중심 수직선에 갖다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에 갖다 맞추려니, 수직 기준은 중앙점에 있는데 저 동쪽 끝에 가 있는 것을 갖다 붙이려니, 전부 다 양심에 의해 참되고 참된 것을 찾아서 중앙선에 접붙임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런 놀음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본래부터 그렇게 안 되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90도 각도가 딱 맞아 가지고 한바퀴 뽕 돌려 놓으면, 이것은 변함없이 영원히 돌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이예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하가 거꾸로 되고 좌우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뚱이는 세계가,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야, 이놈아, 그런 생각 하지 마' 하고 욕을 안 한다구요. '그래라, 그래라, 그래라' 마음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나'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크기를 바라지요? 여자도 조그만 여자는 볼품이 없거든요. 큰 것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양심은 이 우주의 수직선으로 똑바로 돼야 되겠어요, 한 0.5도 각도라도 기울어져야 되겠어요? 절대

적입니다. 똑바른 거예요. 사람이 동쪽에 있으면 그 기준에 동화(同化)해 가지고 동쪽이 그 기준에 붙어야 됩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서울 KBS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저기 만주 끝에서도 듣게 됩니다. 그 전파가 전부 어디에 붙어 있나요? 서울 방송국에 붙어 있지요? 마찬가지로요. 방송국을 떠나 가지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수직선 방송국이 있습니다. 수직선 방송국, 그런 말 들어 봤어요? 마음은 전부 다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곧은 것입니다. 양심은 곧다구요. 양심적이다, 한국 사람은 양심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료신테기(りょうしんてき; 양심적) 라는 말을 하고, 동양 사람들도 다 양심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양심적이라는 것이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체를 부정하고 전체를 위해 밀어 쥐야 구형이 형성돼

양심은 본래부터 수직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어야 돼요,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만사는 해결되는 거예요. 수직선만 딱 되어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몸뚱이는 자동적으로 180도 기준에 맞추어 서는 것입니다. 어디에? 중앙선에, 중앙선에 딱 맞춰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로 가는 힘, 우로 가는 힘... 구형이 그렇잖아요? 구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어디를 통하느냐? 제멋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구심점을 통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동에서는 서를 밀어 주고 서는 동을 밀어 주고, 북은 남을 밀어 주고 남은 북을 밀어 쥐야 되는 것입니다. 북이 '북을 밀어 다오' 그러나요?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동이 '동을 밀어 다오' 그리고, 동서남북이 '다야야, 내 쪽으로 밀어라' 하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디를 밀어야 돼요? 동은? 「서」 서는? 「동」 절대적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동이 동을 밀라고 하게 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까풀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상이 전부 다 왔다갔다하고, 동이 서를 압제하고 그러면 그건 망할 징조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통일교회 레버런 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서는

동을 위해서 살라. 동은 서를 위해서 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는 망합니다. 이상적 구형세계는 안 나오는 겁니다.

'원만'이라는 게 있지요? 원만이라는 것은 동에서 보나 서에서 보나 모가 없어요. 다 같습니다. 원만이라는 것은 평면선상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형선상에서 되는데 구형을 형성하는 것은 자체를 강조하는 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소, 안 그렇소? 「그렇습니다」 자체를 부정해 가지고 전체로부터 오는 힘을 타 방향에 밀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옆으로 밀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상대를 밀어야지.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구형의 중심점에 존속할 수 있는 기틀을, 자기 형태를 구성하는 존속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은 구형을 넘어가 가지고 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형을 넘어가서, 구형에서 탈선해 가지고 작용하는 것은 파괴됩니다. 그것은 전부다 불순분자들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남자 여자라고 해서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는 남자 여자가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도 남자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를 밀어 주고, 남자는 여자를 밀어줘야 됩니다. 서로가 자기만을 위하라고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몰아냅니다. 안 몰아내나 두고 보라구요. 아주 옥살박살 납니다. 옥살박살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길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어

그러면 어째서 마음이 수직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수직적 양심선인데, 그 양심의 내용이 왜 수직으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건 황금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오늘날 권력도 아닙니다. 무엇이랴구요? 「생명이요」 하나님이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의 주체인데... 하나님도 물론 생명을 사랑하지요. 또, 그다음에 하나님은 뭘 갖고 있나요? 하나님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

다」 사랑 봤어요? 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지만 있을 성싶다구요. (웃음) 모르겠는데 있을 성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절대자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랑이 발동해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갈 것이냐? 45도로 갈 것이냐, 몇 도로 갈 것이냐? 제멋대로 왔다갔다할 것이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길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단 한길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땅 위의 우리 인간은 낮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요 우리는 낮는데, 그 낮은 사람들이 사랑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어머니지요?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생겼다면 그건 이원론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먼저 생겨나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또 다른 무엇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사랑을 이루려면 혼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랑을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세계에 무슨 노벨상을 수상한 여자라도 별수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여자예요. 그 여자 앞에는 보기 싫은 영감이라도 하나 붙어서 살아야 이너지요. (표정 지으심. 웃음) 그렇지 않으면 '음음-' 이런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병신 남자라도 따라 다녀야 이너지, 없으면 푸푸... (표정 지으심. 웃음) 그거 왜 '푸' 해요? 너는 우주의 불합격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세계에 있어서 합격자가 아니예요. 사랑을 몰라요. 거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뭐...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슨 맛이겠어요? 오미자 맛보다도 더한 맛이라는 거예요. (웃음)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나도 모르겠다구요, 하여튼. (웃음)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고 달고 맵고 짜고 신맛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게 되면 말이예요, 이거 한번 맛보고 가만 있어요? 영원히 영원히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맛만 보게 되면 말이예요. 아침 저녁, 사시장철, 늙어 죽도록 그저 먹겠다고 운동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의 맛이 얼마나 감칠맛이 나오! 감칠맛이라 그러지요? 감칠 맛이 라는 게 참 추상적인 말이지요. 감쳐서, 맛을 어떻게 감추나요? 요건 뽕뽕 말 아 가지고 꼼짝못하게 아주 뭐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기분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감칠맛이 있으니 하나님도 그 맛을 보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그 맛을 보고 입을 벌리게 되면 천년을 벌리더라도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쌍으로 되어 있는 만물은 모두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누굴 만들었느냐? 돌 왈(曰)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지'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있을는지 모르지'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요. 또 누가, 딴 무엇이 '하나님이 이 우주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물건은 우리밖에 없어' 이런다면, 그것도 '그럴는지 모르지' 할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럴는지 모르기 때문에 새를 봐도 전부 쌍쌍입니다. 그럴는지 몰라요. 전부 다 쌍쌍이에요. 광석도 전부 다 남자 세포, 여자 세포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 아요? 물질의 제일 작은 것이 원자인데, 원자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양자가 있고 전자가 있어 가지고 전자가 중심인 양자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 떼지 못합니다. 암만 과학적인 힘을 가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지고도 떼지 못해요. 그 법칙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닮았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가만 보니까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요즘은 뭐 남녀 평등권이다 하는데, 내가 미국 가 가지고 '요놈의 간나들, 남녀 평등이야? 미국 간나 중에 제일 큰 간나 나와라. 나 하고 팔씨름 한번 하자' 이랬다구요. (웃음) 그것도 평등하려면 뭐 한번 지고 한번 이겨야지. 그렇지만 벌써 골격이 틀려요. 여자 어깨하고 남자 어깨하고 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자 어깨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그럴 때 머리를 싹 작게 해서 삼각형으로 그리잖

아요? 발을 딱 그리고요. 남자는 머리 그려 놓고 어깨하고 싹 요렇게….
 (웃음) 아, 나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리잖아요, 미술가들이? 간단히 말입니다.
 변소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그린 데가 있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남자는 그리
 찾아가고 여자도 그리 찾아가고… 자기 닮은 데 찾아가는 거 아니예요? 그것
 참, 제일 빠른 교훈이더라고요. 변소에 갈 때 기분 나빠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쁜 냄새는 나지만 갈 때는 기분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웃
 음) 그렇잖소? 사실 까놓고 그렇잖소? 변소에서 그것을 전부 다 펌프질해서
 청소 못 하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건 벼락치는 것보
 다 더 바쁘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깨가 이래야 돼요. 여자는, 우리 엄마도 어깨가 작아요. 그래야
 남자가 꼭 품게 되지요. 이렇게 크면 남자가 어떻게 품어요? (웃음) 어떻게
 품어 들어가나요? 요즘 여자들은 흉내라도 내겠다고 해서 어깨를 이렇게 키
 웠더구만. 이건 망조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웃음) 끝날입
 니다. 그야말로 까꾸로 되어서 이미 끝날이예요.

생리적으로 남자는 큼니다. 큰 녀석이 여자 앞에 뽕뽕 도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작은 녀석이 큰 여자를 뽕뽕 도는 것이 기분 좋아요? (웃음) 보편적
 인 원리로 봐서 어떤 것이 좋아요? 큰 녀석이 조그만 여자를 두고 뽕뽕 도는
 것이 좋아요? 여자들 답변해 보라구요. 좋아, 나빠? 나쁘다면 쌍것들이야. (웃
 음) 천지이치가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그래, 큰 남자 앞에 여자가 썩썩거리고 돌면 남자도 따라 돌지요? 여자는
 돌 줄 모른다고요. 여자는 박자를 맞추 줄을 모른다고요. 왜? 여자는 일방적
 입니다. 알겠어요? 일방적이라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360도 돌아야 하는
 데 그걸 못 맞춘다고요. 그러나 남자는 다방적(多方的)입니다. 다방적이라구
 요. 여자보다도 크기 때문에 박자를 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웃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라

아니 한 시간이 되었구만, 벌써. 이만했으면 뭐 그만두지, 또 하자구?
 「예」 누구 좋으라구. (웃음) 누구 좋으라고 해요? 통일교회 문선생 좋으

라고 해요, 통일교회 패들 좋으라고 해요? 「통일교회 패들요」 통일교회가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패가 좋아서는 안 됩니다. 통일교회가 좋아야 되지, 통일교회가.

인간이 누구를 중심삼고 뽕뽕 돌아야 되겠어요? 남자 여자가 합해 가지고 하나되었다면, 하나님을 중심삼고 볼 때에 하나님이 중앙에 있다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뽕뽕 돌아야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뽕뽕 돌아야 되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뽕뽕 안 돌겠다는 녀석은 우주의 반역자입니다. (웃음) 이 나라 대통령이든 무엇이든 그러지 않으면 다 반역자입니다. 여기, 안기부(安企部) 패들이 왔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대통령은 전대통령밖에 없나요? 세계에 대통령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반역자라고요. 하늘 모르고 자기 중심삼고 밤이고 낮이고 돌아보라고요. 난데없이 낭떠러지에 거꾸로 처박힐 것입니다. 처박히게 마련이라고요. 내가 가만두고 볼 거라고요. 얼마나 사나 보자구요. 미국에서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트르르르 씹버린 역사가 있어요. 그 집안에서는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선생에 대해서 데모 좀 해보지, 이놈의 자식들! 데모 챔피언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데모도 못 하고 죽게 되면, 죽은 데모패들이 가 있는 천국에서 천대받을 거라고요. 오늘 여기서 만났으니 문선생 타도 데모를 한번 해 보시지, 응? 해봐. 이 녀석들아! (웃음) 내가 욕을 하는데 기분도 안 나빠. 그저 웃기만 해? (웃음) 그러니 별스러운 패들이지. 욕을 먹어도 문선생을 따라가려고 하고, 맞으면 아프기는 하지만 선생님에 더 좋다는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니,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다 사람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만물지중(萬物之衆)에 유인(惟人)이 최귀(最貴)란 말, 그거 잘했다고요. 석가도 천상천하에 유아독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중심삼고 유아독존이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삼고 볼 때 유아독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도 내 손아귀에 있고 내 마음속에서 놀아나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흠흠 유아독존...' 이렇게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뫼을 중심삼고 유아독존이에요? 「사랑」 무엇을 중심삼고 유인이 최귀

예요? 「사랑」 '유인(惟人)이 최귀(最貴)' 그게 뭐예요? 사람이 뛰기를 잘한다 해도 사슴 새끼만큼 뛰어요? 100미터 뛰다 해도 그렇지요. 말만큼 달려요? 개만큼 냄새를 맡아요? 독수리만큼 눈이 밝아요? 무엇에 눈이 밝으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밝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밝다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아멘? 아메? 일본 말 아메(あめ)는 비(雨)인데, 오늘 해가 났는데 무슨 아메예요? (웃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거예요? 「따라갑니다」 못 가! 이놈들, 도둑놈들. (웃으심) 이렇게 암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면, 욕 같은 것은 뭐 지나가는 소리와 같고, 흘러가는 무슨 소리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아랑곳없습니다.

양심도 참사랑의 수직선에 맞춰 돌아가야

사춘기의 처녀 총각이 말이예요,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냄새를 맡고 죽자 살자 하잖아요. 그 냄새지요? 그래 가지고 마음이 부웅 떠 가지고 날아다니고... 그때는 꽃만 봐도 좋고 꽃만 봐도 웃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모든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웃는 시간에는 모든 문을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웃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간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웃는 시간에는 모든 것을 여는 것입니다. 좋아야 열지요? 「예」 좋을 때는 딱 문을 여는데, 어째서 좋아요? 돈을 쥐서 좋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이 찾아올 때는 모든 것이 문을 열어요. 세포가 문을 열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다 천지조화 놀음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자기 놀음을 하겠다니, 자기 놀음에 천지조화의 법도가 춤을 추나요? 이런 세계에서 인간이 놀음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조화에 맞춰 가지고 인간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특권적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썩 가게 되면 저 동쪽에 있던 하나님도 여기에서 수직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사랑이 있는 곳에 수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째서 수직이 되어야 되느냐? 어째서 수직의 방향이 설정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과 참된 사람이 높고 낮은 데 있어서 하나로 연결되는 선(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참사랑의 수직선입니다. 그 선이 얼마나 세졌어요? 절대적입니다. 어느 힘으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여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심도 그런 하나님의 수직적 사랑의 선 앞에 상대적 기준이, 수직적 균형이, 수직면에서 이렇게 평행을 취해 가지고 하나되어서 돌아갈 때에, 이것이 한 바퀴 돌면 나는 360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이 도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은 언제나 영원히 그 각도를 맞추어서 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중심삼고 지구 자체가 돌면서 위치를 맞추어서 360도를 도는 거와 같이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계 장치처럼 우주 구조도 그렇습니다. 이 우주 구조가 말이에요, 태양계와 같은 것이 1천억 개나 모인 것이 은하계라고 말하는데, 그 은하계가 몇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광년으로 말하면 210억 광년을 가야 할 만큼 큰 우주라나요? 그런 말을 한 녀석들, 다 미친 사람들이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한 것을 다 믿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컴퓨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방대해요? 210억 광년이라면, 여기서 출발한 것이 210억 년 걸려요. 빛이 1초 동안에 3억 미터를 가는데, 지구를 일곱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도로 1년만 가라해도 숨이 가빠서 '아이고 쉬자' 할 텐데, 210억 광년이나 가야 하는 거리만큼의 큰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주가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숨쉴다구요. 그거 알아요? 지구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만있어도 숨쉬지요? 별떡 별떡...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지요? 응? 「예」 흥무니(항문)도 숨을 쉰다. 흥무니도 숨을 쉰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주의 수직이 왜 생겨났느냐? 뭘 때문이에요? 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럼 이 수직만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끝

일 것이냐? 아닙니다. 짝 수직이 되어 가지고야 동서 사방이 결정되고, 그러면 완전한 구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형은 짜부라뜨릴래야 짜부라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우주 공간에 자기 나름대로 전부 하나님의 축을 중심 삼고 도는 거예요. 사랑의 우주 공간에서 자기가 지구의 별, 떠돌이 별처럼 돈다는 것입니다.

여편네하고 남편하고 둘이 짝짜꿍 하나되어서 좋아하지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절반이고 여자도 절반이지요? 반 쪼가리 아니예요? 「예」 그거 부정할 사람 있어요? 이 여자들도 반 쪼가리야. 기분 나쁘더라도 할 수 없다구. 그리고 이 도둑놈 같은 남자도 반 쪼가리야. (웃음) 반 쪼가리이기 때문에 반 쪼가리를 채우려고 '아이구, 색시 잘 언자. 남편 잘 언자' 이러는 것입니다. 잘 언어도 야단난다구요, 그것이 상대적으로 맞아야지, 새까만 것은 흰둥이하고 되어야 되고, 흰둥이는 새까만 것하고 되어야 돼요. (웃음) 자, 여기까지 하고….

통일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주의

수직선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지도를 따라서 보다 나은 양심의 이상을 주장하고, 보다 나은 수직 방향에 설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역사상에서 꺼져 가지 않고 추모의 대상이 된 선각자들이요, 그 대표적인 선각자들이 성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심(人心)은 조석변(朝夕變)이요, 산색(山色)은古今동(古今同)'이라고 하는데, 성인의 마음은 밤낮으로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낮을 적부터 일생 동안 사는 데 있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지를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혁명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이에요.

이것은 모든 식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절을 따라 가지고 종자들은 자기가 보호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름의 형태를 다 갖추어 주셨기 때문에 만물이나마 하나님한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왜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 바람에 춤추고 사랑 바람에 놀아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패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뭐야? 인간이 제일이지' 하며 인본주의, 물질만능이다 이겁니다. 황금만능이다는 것입니다. 그건 요즘 공산주의 유물론처럼 물본주의(物本主義)입니다. 물질이 제일이다 하는 물본주의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왕자 왕녀예요? 물질에는 인격적인 뭐가 없어요. 그런 뭐가 없다구요. 우리 양심과 같은 지정의(知情意)가 없어요. 지정의가 없는 물질에서 어떻게 지정의가 있는 양심적인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인 모순이예요.

그러면 통일교회는 뭐냐? 유물론주의, 물본주의 패 물러가라. 인본주의자야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 시대에 있어서 필요적절한 환경의 한 면 밖에 메울 수 없습니다. 동서남북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금주의는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다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무슨 주의 교회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주의요」 하나님주의지요. 하나님주의가 뭐예요? 사랑주의입니다. 우리 통일교회는 절대적인 신을 따르, 신에 의한 사랑을 중심삼은, 하나님주의에 대한 상대적인 하나님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놀음을 하는 패입니다.

그 자리만 딱 잡으면, 내가 수직이 되면, '사랑의 신이여 나한테 내려오소' 할 필요 없습니다. 봄날이 오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맺는 것은 자연이치입니다. 인간이 자라게 되면 전부 다 수직으로 맞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째까닥 째까닥 자동적으로 맞추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이게 고장 났다구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타락이 무슨 타락이나? 그릇된 사랑, 사랑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암만 했됐자... 그래서 그릇된 사랑을 뿌린 것이, 그릇된 사랑으로 뿌려진 이 세상이 망하기 시작하려니, 끝날이 되게 되면 그릇된 사랑의 팽창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끝날입니다.

사랑은 횡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찾아야 합니다. 남자 여자는 횡적입니다. 수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 아닙니다. 종적인 사랑이라는 터전을 중심삼고, 영원한 사랑을 중심삼고, 일생 사랑을 중심삼고 접붙이기 위한 것이 남자 여자의 결합이예요. 동쪽 사람, 서쪽 사람이 중앙선을 잃

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접붙이려니 결혼은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이 미국에는 많지요? 호모섹슈얼 (homosexual; 남자 동성애자) 이라든가 레즈비언 (lesbian; 여자 동성애자) 같은 패들이 많다고요. 아들딸 낳는 것 싫어하고 말입니다. 아들딸 못 가진 사람은 영계에 가서는 불합격자입니다. 그건 우주의 공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로서 사랑하지 못한 자는 미완성입니다. 원형, 구형이 찌그러진다고요. 이 구형을 보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여기가 쑥 들어갑니다. (몸짓하심)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둥글게 될 텐데 아내를 사랑 못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형이 안 된다고요.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면 반원으로, 절반으로 이 구형이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부모를 완전히 사랑하고 아내를 완전히 사랑하고 자식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다음에는 구체를 만들려니 그 사랑을 중심삼고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친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우주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지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사랑 때문이니 목적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양심을 갖고 개척의 길을 가야

통일교회 사람들은 양심을 가졌는데 무슨 양심이예요? 절대적인 수직을 중심삼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양심입니다. 그것이 틀림없다는 걸 알면, 이게 혁명이예요. 이걸 누가 못 빼앗아 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통일교회 사람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우리 같은 사람, 누가 하라고 해서 할 게 뭐예요? 하라면 더 안 해요. 우리 성격이 그래요. 누구의 명령을 받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구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길을 개척한 거예요. 하라면 안 해요, 하라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저 알겠다고 파고들어가 가지고 그저 죽겠다고 '아이구!' 할 때는 살짝 비쳐줍

니다. 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냄새만 썩이지 진짜 먹여 주나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한테 그런 교육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좋아하는 것입니다.

문선생 왈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면 시기할 사람있어요? (박수)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한다면... 남자들은 전부 다 도둑놈 사촌들 아니예요? (웃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좋아한다면 '자기만 좋아할 게 뭐야? 문선생 당신이 먼저 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빼앗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전부 했길래 내가 그 자리를 빼앗겼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할건데...' 하겠지만, 미친 자식들! (웃음) 그들과 나와는 생긴 것이 달라요. 다르다고요. 생긴 것이 다르다고 해서 눈에 네 개 다섯 개 아니예요. (웃음) 눈의 자격이 다르지. 자기들은 땅만 보고 한 곳밖에 못 보지만, 문선생의 눈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돌게 마련입니다.

이 인류역사에서 눈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제일 많이 보겠다고 쉬지 않고 운동한 눈이 있다면, 그것은 문선생의 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박수) 또, 냄새를 맡는 데도 사냥개가 부끄러울 정도로... 냄새를 맡는 데도 세계의 냄새를 다 맡아요. 또 맛을 보는 데도... 그 종교 지도자가, 통일교회의 종주(宗主)라는 사람이 참 저 강원도에 가 가지고, 멧돼지를 잡아 가지고는 갈로 심장을 뚫고 '그거 맛있다니 한 번 먹어 보자. 너희들이 먹으니 한번 먹어 보자' 하고 파이프로 빨아 먹어 보니 그 맛이 짹짹하고 들큼하고 구수하더라구요. (웃음) 그것까지 맛본 사람이 똥을 못 하겠어요?

인간은 사랑을 갖고 있기에 가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요? 왜 지었다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뭘하려고 지었다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데리고 놀러가요? 응? 똑똑히 얘기하라고요. 이제 알았어요. 사람을 왜 지었다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됐소. 똥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죽더라도 좋소. 히야, 그러면 그렇지. 인간의 가치문제가 여기에서...

역사를 뚫고 올라설 수 있는 인간의 가치가 여기 있구만. 대우주의 꼭대기에 서 가지고 호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여기 있구만. 그야말로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라는 말이 여기 있구만' 그것을 깨닫게 될때, 그야말로 춤을 추고 다니게 되고, 거꾸로 서서 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좋고, 이래도 좋고, 굴러도 좋고, 엎드려도 좋고, 배밀이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고요? 응? 「하나님…」 하나님과 바꾸자고 해도 안 바뀌요. 그 이상 바라겠어요, 인간이?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과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자, 그런 후보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어디, 해보고 싶은 사람은 손들어 봐요. 손들어요! (웃음) 손이라도 들어야 하나님 보실 때 오늘 기분 좋다고 하시지, 안 되었던라도... 안 되면 그늘이고 병난 것이지요. 병이 났더라도 구경관에 가 가지고 구경은 할 수 있잖아요? 손들을 번쩍 들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야 숨쉬면 공기가 숨통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몸짓하심. 웃음) 어디 한번 더 들어보지요. 「예」 에이, 이 욕심쟁이들! (웃음)

핍박받는 챔피언이 돼야 참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

그래서 문선생이라는 사람이 말이예요. 자, 세상에 참된 길이 무슨 길이냐? 하나님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길이 있다면, 그게 참된 길ियो, 그릇된 길ियो? 「참된 길입니다」 그 이상 참된 길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 많은 문선생이 욕을 일생 동안 먹었어요. 그거 뭐 벼가 아니예요. 여러분, 조 알아요? 조밥? 「예」 좁쌀로 산을 만들어도 백두산보다 더 높게 만들 만큼 사연 많은 반대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반대 받았어도 어디 상처 난 데가 한 곳도 없다가요. 지친 적도 한번도 없다가요. '너희들의 세계에서 내가 최고의 챔피언이 됐으니, 너희들 아들딸 동원해도 전부 다 나한테 굴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반

대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 순응해라, 한 번 반대했거든 완전 순응해라' 이거 예요.

통일교회 패들도 그렇다구요. 통일교회 뭐 이려고저려고 반대하다가 들어와서 알고 나서는 전부 다 꼬봉(こぶん; 부하)이 되었다구요. 그 격이라구요. 통일교회 반대해 보라구요. 나 욱먹는 것은 세계 챔피언인줄 알지요? 레버런 문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욱이라는 것이 생긴 역사 이래 나 이상으로 욱먹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웃음) 다 웃는 걸 보니 알기는 아는구만, 이 사촌들. (박수)

내가 미국 같은 나라에 가 가지고, 민주주의 세계에서 공개 석상에서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박수한다구요. 종교 지도자가 누구 누구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레버런 문이 일생 동안 공개해 놓고 욱을 먹고 폼박을 받는 것에서는 챔피언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등이예요, 일등.

그래, 뭇 때문에 욱을 먹었어요? 도둑질을 해서 먹은 거예요? 주려고, 주기 위해서 먹은 것입니다. 남들 자고 있는데 밤에 가서 깨워 가지고 '이거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먹어야 살아, 살아' 하고, 안 먹으면 몰아 내 가지고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욱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 넣고 맛만 보게 되면 '아, 이거 가늘구만. 더 큰 파이프' 이렇다구요. 입이 찢질 정도로 큰 파이프를 들이대도 '아-' 이렇습니다.

통일교회 패들은 좀 다릅니다. 무슨 맛을 아느냐 하면 참사랑의 맛을 압니다. 맛은 몰라도 냄새는 알아요, 냄새는. 사탄세계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말이예요, 사랑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입을 막아 놓고, 사랑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콧구멍을 막아 놓고, 귀를 막아 놓고 다 막아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의 그 근원을 찾아볼 때 어떻다고요? 수직이 어디서부터 근원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수직선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게 무슨 길이라고요? 「참사랑」 참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은 중앙선을 찾아 올라가야 하는데, 자라서 청춘이 되어야 중앙선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어쨌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 놓고 그 이튿날부터 대번에 중앙선에 올라가게 해서 사랑해 가지고 천지조화의 중심으로서 화할 수 있게끔 만들지 못했느냐? 아버지라면 만들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건 어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라서 성년이 되어 가지고 중앙선에 올라가야 됩니다. 사람이 중앙선에 올라가게 되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무슨 냄새? 사랑의 냄새.

대가집이나 사대부집 처녀가 나이 20이 가까워 오면 말이에요, 봄철이 되면 담 너머로 고개를 넘기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담이 낮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려고 한다구요. 그래 가지고 몸뚱이가 넘어 가면 다리 넘어가고, 그다음에는 양 발이 넘어가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냄새 맡고 이렇게... 그건 벌써 내가 서서 다닐 수 있다,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냄새 맡는 주인공이 됐다 이겁니다. 그건 벌써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사방을 맞춰야 참된 사랑의 세계로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수직의 사랑이 쑥 내려옵니다. 그 둘이 불타 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수직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디에 기다리느냐 하면 그 중앙선에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가 동서로 맞고 중앙선의 동서가 균형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수직에 직선으로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각(角)이 있게 맞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구요. 직선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맞춘다고 그러지요? 눈이 맞았다고 그러지요? 눈이 모든 감정을 측정하는 기관입니다. 눈이 맞았다고 하면 빛에 맞추었느냐? 그 말이 참 재미있어요.

한국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재미있다는 말도 한국 말같이 재미있는 말이 없습니다. 재미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웃음) 그거 생각해 보라구요. 재미라는 말, 그거 아주 뭐 요렇게 만들어도 좋고 찹찹해도 좋고 튕겨도 좋고 밟아도 좋고 요럴 수 있는 기분이 나거든요. 재미라는 말이 진짜 재미있는 말이더라구요. (웃음)

빛 맞춘다고요? 「눈이요」 눈을 맞춘다면, 눈은 빛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존물은 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둘인데, 두 눈은 이성성상입니다.

두 눈이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방향이에요. 언제나 눈은 방향을 맞춥니다. 중앙에서 사방을 맞추게 되어 있다구요. 눈 맞춘다고 하지요? 「예」 그리고 조금 가게 되면 뭘 맞춘다고 하나요? (웃음) 축복받은 여자들, 궁둥이들이 이만하고, 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다 맞추고 그렇게 사는 걸 알면서 뭐 웃어요? 그래 뭘 맞추어요? 「사랑이요」 입 맞추지요? (웃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춰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것입니다. 속 내려갔다가는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서 호흡을 맞추고 맥박을 맞추는 자리에서, 사랑이 약동하는 가운데서 생명줄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부처끼리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만 해도 고소하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낙제생들은 슬플지어다. 아멘. 「아멘」 (웃음) '낙제생은 슬플지어다. 아멘'이 뭐예요? 아멘 반대가 뭐예요? 멘아예요, 뭐예요? (웃음)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불합격자라구요.

그래 눈 맞춘다는 말이 왜 나왔어요? 눈이 맞추어져야지요. 사춘기가 되어야 눈 맞추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측정 감각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측정 감각이 제일 빠른 것이 여자입니다. 짝 보고 짝 돌아서는 거예요. 언제 봤다고... (웃음) 독사가 말이예요. 머리가 그렇게 몽푹하지만 이게 낚아채는 데는 언제 물었는지 모르게 문다구요. '아!' 할 때 물렸다는 거예요, 벌써. 그 독사보다도 더 빠르단 말입니다. 언제 살짝했는지 숨 한 번 깜빡했는데, 남자 눈 깜박할 새에 다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 '뭇 짐짜리구만...' 하는 겁니다. (웃음)

좋으면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좋으면 올려다보나요, 내려다보나요? 올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아 가지고 내려다보면 벼락 맞는다고요. 좋으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음전기 양전기도 좋게 되면 말이예요, 벼락치려면 음전기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천지의 장애물을 전부 다 밟고 올라설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 사랑의 힘입니다. 사망이 사랑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사망을 점령하지만.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의 세계에서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한 시간 반 되었구만. 나 우리 어머니한테 빵떡 먹게 되었다구요. (웃음) 미안합니다, 어머니. (웃음) 우리 이렇게 삽니다. (웃음. 박수)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런다구요.

눈 맞춰 봤어요? (웃음) 못 맞춰 본 녀석들은 죽으라구, 죽어. 눈 못 맞춰 본 사람은 뭐라고요? 문선생님 왈, 뭐예요? 죽어요! 안 죽겠다고 빼드기더라도 백년 가면 다 꺼져요. (웃음) 중지(중자) 씨알머리도 없이 다 꺼집니다. 그래, 눈 맞출 줄 알아야 돼요. 맞추는 데는 바로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맞추느냐?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도 통일교회 교인들은 이런 것은 알거든요.

사랑을 중심삼고 위로받고 박자를 맞추고 살아야 할 인생

내가 못된 일 많이 했지요. 남의 아들들 빼앗아다 내 마음대로 결혼시키니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 이상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남의 자식들, 잘 길러 가지고 이제는 뭐 한턱 보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빼앗아다가 내 마음대로 결혼시키고 내 마음대로 부러먹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욕이나 좀 하고 푸세' 하나님도 그렇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신 욕을 좀 먹었지요. 욕먹고 배가 두둑해 가지고 출세했다구요. (웃음)

그러면 양심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양심은 뭘 따라가야 되느냐? 양심은 바르다고 했는데 무슨 길을 중심삼고 그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평형적, 수직선을 따라서 방향도수(方向度數)를 맞춰 돌아갈 수 있는 양심 기준에 서게 되면 천하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점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하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노처녀 노총각이 얼마나 처량해요? 비참해요, 처량해요? (웃음) 어떤 거예요? 비참하고 처량한

것도 모르는구만! 비-참한 거예요. (웃음) 노총각 뒤에는 파리 새끼도 먹을 것이 없다고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총각 뒤에는. 노처녀 뒤에도 마찬가지로요. 파리 새끼도 안 따라다니요. 구수한 맛은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 여자 섞어 가지고 냄새 피우는 게 구수하다구요. 흠에비 냄새나 과부 냄새는 일방향이더라구요. 그거 합해 놓아야 구수하다는 것입니다. 구수한 맛이, 뭐 구수한 거 있나요? 나는 잘 모르는데... (웃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기 마련이에요. 살기 마련이라구요.

뭣 때문에 사나? 뭣 때문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볼 때에, 내가 뭣 때문에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를 볼 때,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일생 동안 사는 데서 사랑의 감각을 중심삼고 돌고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늙었어도 영감이 없으면, 영감이 돌아갔으면 눈물이 쭉 나오지요? 그거 왜? 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외로워하는 거예요? 사랑을 중심삼고 위로받고 영원히 그 품안에서 박자를 맞추고 살아야 할 인생인데, 인간이 본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본래 그런 길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감이 돌아갔으니 마음이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은 자연이에요. 자연입니다. 천도(天道)예요, 천도. 이것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생겨난 것은 남자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도... 통일교인들은 그거 잘 알지요? 여자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나? 철학적으로 암만 규명할래야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해요. 여자가 태어난 것은 남자 때문입니다. 여자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경대(鏡臺) 앞에 앉아 가지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암만 분을 바르고 했댔자, 그거 여자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요?

제일 변화한 거리가 옛날에는 명동거리였는데, 지금은 종로인가요, 어디인가요? 봄철이 되었으니 아주 뭐 오색 가지로 찬란히 갖추고 향수냄새를 피우며 활풍선을 타고 달리고 싶어서 전부 다 이러지마는, 그게 뭐 여자가 여자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래 가지고는 남자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남자가 톨톨한가 보자. 우리 남편보다 나은가 보자' 하고 재보는 거예요.

남편을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말이예요, 남자를 밤으로 말하면 그 눈이 딱 남자를 보게 되면 알맹이를 갖지 않은 밤송이로 보입니다. 밤송이는 밤송이인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뜻 자기 앞에 나서면 암만 미남이 와도 '억' 하지 '아이구!' 이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 양반이면 아무리 야간 밤중에 와서 '억' 해도 '아이구! 죽을 줄 알았더니 당신이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를, 본래 지어지기를, 생겨나기를 여자들은 여자 때문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자 때문에 태어났어요. 왜 남자 때문에 태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남자 때문에 태어났나요? 어째서 남자 때문에 태어나요? 사랑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남자도 참된 사랑을 중심삼고 여자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 나도 우리 엄마 없으면 울지 별수 있어요? (웃음) 문선생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뭐... 내가 유명하오, 사실은. (웃음)

모든 일에 챔피언이 되어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옛날에 씨름판에 가게 되면 뭐 전부 다... 씨름도 잘해요. 서울에 오니까 얼마나 평안도 말이 느린지... 평안도 말은 '당-' 하면 고개 너머 몇 고개 넘겨다 보고 '-신' 이래요. (웃음) '여-' 해서 듣게 되면 '-보'한다구요. (웃음) 평안도에서는 그래요. '여' 하면 봐야 '보' 하지 보기 전에는 '보'를 먼저 안 합니다. '여' 하면 들여다봐야 '보'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말이 얼마나 빠른지... 이른 봄에 오는 체비들은 재잘거리를 못한다구요. 늦봄에 와 가지고 재잘거리는 체비 새끼 같이, 아 이거 얼마나 붙어 대는지 뭐 뭐 번갯불 이상이더라 이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말하면 나 세 마디 할 때 열 마디... 아침 저녁 전부 다 보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들을 수밖에요. 듣다 보니 뭐 자기 살림 살이로부터 지난날 자기 일생을 엮고, 그다음에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일을 다 보고하는 거예요. 어디 가니 개미 새끼가 이렇게

있더라, 새 새끼가 어떻더라... (웃음) 아 이거 언제나 멍청하니 듣자니 기분이 나빠서, '이것 내가 지지를 앓겠다' 그래서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을 연구했다구요. 갈 날 달 랄 발 전부 다 리을(ㄹ) 발음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세 시간, 네 시간 걸리던 것이 나중에는 30분에 끝나요. 30분에 이야기가 다 되더라 이거예요.

이놈의 헛바닥을 후르르르, 어디 가서 말하더라도 뚜껑만 열면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저쪽에서 나오려고 표정이 달라지면 힘을 주는 거예요. 에이, 저 표정을, 음! (표정 지으심) 내모는 거예요. 그거 다 화술이 필요한 거예요. 세계를 주름잡으려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예요? 기관총을 쏘는 것처럼 터져 나가서 백발 백중 빵빵 맞지요. 그래 통일교회 사람들은 내가 욕도 잘하는 줄 알지만 욕만 잘하는 것이 아니예요. 냐다는 녀석을 잡아서 코너에 몰아넣는 놀음도 잘 한다구요.

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든 빠르다구요. 말도 빨리 하지요, 또 남자 측에 이만했으면 써먹지 못 써먹을 게 어디 있어요? (웃음) 아, 내가 서양에 가서 몇 년 동안 들으니 '아이고, 우리 선생님 같은 남자가 있으면 내 얼른 시집갈 텐데' 그러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 미녀대회에 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미인 아가씨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같은 총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웃음) '내사 그만뒀, 나보다 더 미남들을 만들어 줄께' '어디 있어요?' '있어 기다려 봐' 한 거예요.

그만했으면 남자로서 쓸 만하지, 그렇지요? 여기 여자들, 나만한 남편 데리고 살아요? (웃음) 손들어 봐요. 남자로서 나만큼 이렇게 허우대가 쓸 만하고 말이지, 뒷 허우대는 이거 백점이라구요. (웃음) 관상학적으로 볼 때 잘생겼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태풍이 불어와도 뒷 단장이 당당한 거예요. 모험을 잘하고 말이에요,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빠르고, 눈이 요렇게 작으니까 원거리 측정을 잘하거든요. (박수. 웃음)

산에 가면 산사람을 일주일 이내에 종으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거기서도 한 달 이내에 그 바다에서 생애를 바쳤다는 녀석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다에 가서도 챔피언이에요.

참치 중에 블루핀 튜나라고 말이에요, 제일 큰 참치, 왕참치가 있다구

요. 내가 잡은 것이 1, 272 파운드였다구요. 그건 황소보다 큰 거예요, 황소보다. 내가 지금 200파운드니까, 나 같은 사람 몇 배예요? 5배, 5배예요. 아이구, 미안합니다. (침이 튀어 나가서 그러심) (웃음) 그 튀가 튀어 나가는 구만. (웃음) 부작용이 좀 있지요, 그야 뭐 할 수 있나요? 빨리 가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소리 지르다 보면 다 그런 거지요. 실이 얼마나 굵으냐 하면 1.5mm 가까워요. 황소 같은 놈이 걸려가지고 신이 나는데, 신이 나다 못해 녹아나는 거예요. 이놈을 잡으려고 신나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몇 시간까지 갔느냐면, 여덟 시간까지 하다가 내가 놓쳐 버렸다구요. 그게 얼마나 힘이 센지... 야, 그거 나도 누구 칭찬할 줄 몰랐는데, 그 놈 힘이 센 데에 대해서는 '너 잘했다. 야, 이놈 끈덕지구만. 챔피언십을 내가 너한테 배웠다. 너 잘했다. 굿바이. 잘가라' 그랬어요. (웃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가면 산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포수라면 총 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꿩을 쏘면 미안하리만큼 딱 떨어뜨려요. 빵 하면 말이예요. 측정 감각이 빠르거든, 벌써. 여기 박보희 왔나? 오늘 어떻게 이단자가 되어 안 왔구만. (웃음) 이 녀석은 뭐 저 어디야? 사관 학교에서 M총 사격 선생이었기 때문에 흰해요. 이름난 교관이에요. 교관이니 총 쏘고 다 그랬겠지만, 나는 엽총이나 쏘아 봤나요? 첫 번 가 가지고 나는 스물 여섯 마리를 쏘았는데 박보희는 네 마리밖에 못 맞췄어요. (웃음) 자, 그만하면 알아줄 거 아니요? 알아주지요? 「예」

완성기준에 서면 대상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어

싸움을 하게 되면 내 싸움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시작했다하면, 지면 그 이튿날 또 가는 거예요. (웃음) 행복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네방네 나를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나는 그 할아버지들의 할아버지 놀음을 했었습니다. 안 될 줄 알게 되면 사생결단하는 것입니다. 불을 놓는 것입니다. 놓는다면 놓는 거예요. 행복 안 하면 불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사장 왔나? 문승룡, 그의 아버지가 우리 오촌 숙(五寸叔)이예요. 내가 큰집 작은 아들인데, 그때 왜정 때에 '아이구, 큰집 작은애는 왕이 안 되면 역적이 될 거구만' 그랬습니다. 둘 중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왕? 통일교회의 왕? 「예」 「세계의 왕입니다」 또, 어미 아버들이 전부 다 그릇되었으니, 나는 참 어미 아비 한번 되어 보자 해서 그래 참부모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모든 면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머리를 갖고 있다구요. 남이 10년 동안 하면 난 3년 이내에 다 해치웁니다. 그만하면, 뭐 알아줄 만하지요? 「예」 (박수)

자, 내가 대통령을 해 먹겠다고 했으면, 대통령 해먹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벌써 해먹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박사 되려고 했으면, 셋 이상, 계획했던 것은 틀림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뭘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건 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다구요. 이 생각이 있는 한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주의 근본을 파헤치는 거예요. 다 파헤쳐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랑 보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그래서 내가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만하지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요. '내가 완성을 하고 다 갖출 수 있는 기준에 서거들랑 당신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제어(制御)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나고, 여자는 ? 「남자를 위해서요」 대답을 시원히 하라구요. 지금 답다구요. 나 우리 엄마한테 욱먹게 되어 있다구요. 대답을 시원히 해요. 남자는 뭐라구요? 「여자를 위해」 그런데도 이놈의 남자들이 등쳐 먹고, 어제 저녁 영화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구만, 남자라는 종류는 모두 늑대 같다구 말이예요. 그게 늑대도 양반 늑대가 있고 나쁜 늑대가 있어요. (웃음) 늑대도 하나님의 공법에 의해서 우주에 살 수 있는 하나의 동참자가 아니예요? 그 세계도 사랑을 갖고 새끼를 기를

줄 알고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딴 것은 뭐냐 하면 바쁠 때는 가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 모양으로 말이에요. 늑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다 도둑놈 사촌이에요. (여자 식구 한 사람이 특별나게 웃음) (웃음) 그 아주머니 남편은 틀림없이 그런 도둑놈, 늑대 같은 남편인 모양이구만. 누가 그렇게 웃나? (웃음)

남자가 이집 저집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어디에 있나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여자보다 낫지요? 여자는 찾지 않고 이려고 들이박혀 있는 것입니다. 찾아야 할 운명길에 있어서 남자가 부스대고 찾으니까, 여자는 그 뒤에서 '네가 찾아 놓으면 난 뒤만 따라가면 되지' 이러면 될 텐데, 오늘날 여자들은 남자들 뒤도 안 따라가겠대요. 미국을 보게 되면 '남자가 주체가 아니고 여자가 주체지' 이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창조원리를 가르쳐 주니까 그 입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앵앵앵 짓던 것이 잠전해지더라구요. 원리 원칙은 위대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실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음음...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방안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 앞에 큰소리 할 수 없습니다. 「웁습니다(남자식구 한 사람이)」 (웃음) 사랑을 하는 남자 앞에 큰소리를 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아무리 분하더라도, 아무리 이빨이 칼날 같더라도 쥐어박는 남편을 우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웃음) 남편이 말하기를 '나 좋아서 때리는데 어떡하겠나? 그렇게 때려야 내가 소화되고 잠이 잘 오는데 어떡할 테야?' 라고 하는 운명적인 남편을 만났으면, 그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보는 거예요.

다하면 그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때렸으니, 당신은 거기서 이자를 더해 가지고 4년 동안 나를 때려도 좋아!' (웃음) 그러면 얼마나 행복이예요! 그럴 수 있는 남편을 모시고 살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해석하기에 달린 것입니다. 3년 동안 매를 맞으면 한을 풀겠다고 하지 말고, 맞으면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를 위해 주고 사랑해 주는 남편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 같으면 3년 매맞는 시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멘」 (웃음) 그 말 여자가 했어요, 남자가 했어요? 「여자가 했습니다」 나 같으면 말

이예요, 나 같으면 3년 매맞더라도 그런 남편을 맞아 갈 거예요. 어때요?
「아멘」 응, 또 여자가 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웃음) 아멘도 잘하고
노멘도 잘하고, 다 그러지요. (웃음)

한국은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주체국이 되어야

그러니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이예요. 나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 이렇게
육을 먹고 살다가 천상세계에 가서 억만 년 육을 하고 살더라도 +다 좋다고
한다면 난 40년 육먹는 걸 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육하던
기독교회 목사들, 전부 다 죽어 가게 되면 내 코에 걸립니다. 영계에 가게 되
면 내가 그래도 장땡이거든요. 장땡이 뭐 줄 알아요? 그것은 투전판에서 쓰는
거예요. 내가 투전판에 대해서도 잘알지요. 장땡, 장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당
할 자가 없습니다. 가게 되면 전부 다 내 꼬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야, 아무개야, 어디 얼굴 들어 봐. 내가 누구냐? 으흠' 하면, (웃음) '아이구
나에게 천세만세 한스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육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은 거룩한 분이요 나는 졸장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정권으로부터 박정권, 지금의 전정권이 전부 통일교회
를 환영했나요, 반대했나요? 「반대했습니다」 여기 안기부에서 정보요원들
나왔으면 반대했나, 안 했나, 대답해 보라구요? 왜 그렇게 미워해? (웃음) 내
가 밥을 달랬나, 떡을 달랬나, 내가 뒷 벽을 파 가지고 도둑질을 해먹었나...
(웃음) 겨울이 오면 불쌍하다고 전부 복을 빌어 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천대를 하는 거예요?

흥부 놀부 얘기 있지요? 왜 내가 의붓자식 취급받아요? 성경에도 그랬지
요?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요긴한 돌이 되더라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
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날 버렸습니다. 세계가 날 버렸습니다. 버렸지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에 요긴한 돌이 된 것입니다. 레버런 문
을 발판으로 하지 않고는 세계가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백주에, 똑똑한
지성세계에,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주체국인 미국 지성사회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될 만큼 되었습니다.

그거 못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습니다」 못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습니다」 못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어요? 「잘나서 그랬습니다」 어젯날에는 못났지만 지금은 잘나 보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선생님이 가르쳐 준 진리가 지금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미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설교집을 보라구요. 전부 다 말했습니다. 전부 다 가르쳐줬어요. 몰라서 그렇지... 내 손길이 닿아서 이마를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충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가 앞으로 문선명 선생을 반대했다가는 거리에서 매 맞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에 뭐 고려대에 가서 통일교회 어찌고저찌고... 두고 보라구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반대하거든 서구 사람, 일본 사람, 중공 사람까지 대들어서 전부 다 쳐버릴지 모릅니다. 세계가 레버런 문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운이 떠오르면 봄이 오는 거예요. 세계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게 되면, 통일교회 패들은? 통일교회 패들은 제거해야지요? 응? 제거해야지요? 이것들도 보호하러니, 아이구, 내가 걱정이라구요. 사람들이 풀이 다 덜 됐다고요. 이게 이게...

세계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니 통일교회 패들을 전부 보호하고,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은? 한국은 망하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뒀요」 안 내버려 둥니다. 서양 통일교회 패들은 말이에요, 앞으로 전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한국 남자하고 죽어도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응? 어떡할 거예요?

여기, 어디서 왔어요? 너, 어디서 왔어? 「미국」 미국에서? 너도? 「예」 저런 서양 여자들이, 전부가, 이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조금...」 조금, 왜 배우지 않아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의무야. 「예」 전부 다 그러고 있대구요. 죽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약혼해 주는데 한국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여기 한국 여자가 어디 있고 한국 남자가 어디 있어? 없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 바람...' (박수. 웃음)

자, 죽어도 하겠다는데, 그래도 서양 사람들은 말이예요, 보면 대학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도 따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한번 못 풀어 주겠어요? 응? 어디, 한국 여자들 어때요? 통일교회 내에서 30세 이상 된, 과부된 사람들을 내가 모집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과부라도 상관 안 합니다. 동양에서는 과부면 과부로 늙어 죽게 되어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전부 다 영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과부 사촌 아닌 것이 어디 있고 홀아버 사촌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전부 다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을 사랑해서 그래요, 안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응? 「아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한국 젊은이들을 계몽하려고 대학가에서 깃발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요놈의 공산당 패들이, 뭐 워싱턴 타임즈가 어떻고….

언론계에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세계를 통일할 수 있어

워싱턴 타임즈하고 워싱턴 포스트하고는 원수입니다. 요놈의 프락치들을 잡아다가 모가지를 잘라 버린 거예요. 우리 편집국장님이 자르는 것, 나는 여기와 있으니 알지도 못합니다. 여기 신문 기자들, 한국 특파원 짜박지들, 꺾렁 꺾렁한 녀석들. 여기 언론기관에서 왔으면, 그 녀석들은 덜된 녀석들! 사실이 나 알고 쓰나 말이야, 이놈의 자식들이!

여기 5대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왔으면 잘 알아 두라구요. 특파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놀음이 뭐냐 하면, 그것들이 어디 미국 국무성, 국방성을 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백악관을 갈 수 있어요? 어느 부처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신문사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위실에서 푸- 몰아칩니다구요. 그런 작자들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공산당 말 잘듣는 패들… 한국 기자들 찾아오는 때에는 보수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산당 패들입니다. 그들이 선전에 이용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아이구, 오늘 국무성에 들어갔다는데...' 하며 한국 기자들, 아시아 기자들, 자기들에 관한 것만 찾아 가지고 쪽닥쪽닥

하고 말이예요. 그런 걸 전부 다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어디에서 직접 소스를 찾을 게 뭐예요. 몇 단계 거친 것을 쓱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통신사니 뭐니, 이놈의 자식들. 요놈의 자식들, 기합을 주기 위해서 내가 미국에 신문사를 만든 거예요. 요놈의 자식들의 꿈무늬를 전부 파헤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와서는 큰소리하고 말이야, 올바로 써야 돼!

나 레버런 문은 언론계의 기수로서 정도를 가고 올바른 기사를 쓰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언론인으로서도 내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써놓아 가지고는 뭐야, 이놈의 자식들! 앞으로 5대 신문사들 전부 두고 보라구요.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세계 이념을 당할 수 있어요?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비밀이 들어옵니다. 그 소스(source; 출처)를 가려 가지고 한국정세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워싱턴 정계에 있어서 한국 정책, 아시아 정책에 대한 모든 비밀의 소스를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암만 여기 와서 춤을 추고 그래야 그 곁에도 못 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번에 FBI 국장이 CIA 국장이 되었는데, 우리편집국에서는 '일주일 후면 CIA 국장 발령' 벌써 알았대구요. 어떻게? 대통령이 몇 사람한테 얘기해 놓으면 그걸 지령을 받은 사람이 보고하게 되어 있다구요. 왜냐 하면, 그들도 언론계를 잡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FBI 하게 되면 국내 소식에서는 제일 챔피언인데 FBI 국장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편집국장이 '당신 일주일 후에 CIA 국장이 되는 거 알아요?' 하면 '푸, 그런 게 어디 있어? FBI 국장인 내가 모르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에이, 집어치워' 한다구요.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국장될 테니 그때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아, 그때는 잘 듣지' 이 정도입니다. FBI 국장, CIA 국장이 다 친구입니다. 틀림없이 일주일만에 딱 지령이 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편집국으로 전화해 가지고 편집국장 테보그라브에게 '야 ! 감사하다, 어찌면 그렇게 빠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 근래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하워드 베이커라는 이 양반도 말입니다. 자기가 공화당에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허

적허적이고 있는 판이라구요. 그런데 백악관 대통령 비밀회의실에서 비서들이 전부 다 비서실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는데, 세상에 누가 알게 되어요, 밤중에 벌어진 걸. 그렇지만 벌써 워싱턴 타임즈는 알고 전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3일 후에 대통령 비서실장 되는데 할 거요, 안 할 거요?' '세상에 할 것이 없어서 대통령 비서실이야?' 하지만, 아닌 게 아니라 3일 후에 발령 내니 이 녀석도 뭐 안 올 수 있어요? 그마만큼 빠르다구요. 알겠어요?

CIA로 말하자면, 미국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에 유리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을 국무성과 백악관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할 때 잘못했다가는 큰일나기 때문에 워싱턴 타임즈에 문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미국의 정책수행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워싱턴 타임즈를 누가 알아요?

세상에 무슨 동아일보면 제일이고, 한국일보면 제일이야? 무슨 뭐 조선일보면 제일이야? 내가 안중에도 안 듭니다. 안중에도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안 합니다. 어디 보자구. 네 꿈무니를 내가 따라가나, 내 꿈무니를 네가 따라오나 보자 이거야. 레버런 문은 세계에 선포하기를 '언론계에서 왕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세계를 통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왕자의 자리를 딱 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모든 내각 총수들의 비밀을 전부 우리 세계일보를 통해서 다리 놓으려 하고...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거물이 되었기 때문

그러한 레버런 문을, 통일교회를 그저 무식쟁이 취급하듯 합니다. 내가 무식쟁이지요? 무식쟁이예요? 흥! 알무식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세계에 기술 과학을 자랑하는 독일이 나 때문에 7년간 싸웠습니다. 떡살을 쥐고 싸워 가지고 나한테 졌어요. '너희의 첨단과학 기술을 다 내손에 옮겨 놓아라' 이겁니다. 다 잡아 쥐었다구요. 통일산업은 누구도 못 당합니다. 대우, 현대, 암만 해보라구요. 한국 정부의 상공부면 상공부

전체가 합해 가지고, 어디 통일산업을 앞서나 보자구요. 일본 기술계가, 일본 기계 공업계가 내 꿈무늬를 잡으려고 야단하고 있는데... 일본 전자공업계의 최고 첨단 연구소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잘났지요, 그만했으면? 응? 「예」 (박수) 괜히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통일교회를 왜 반대하느냐? 통일교회가 좋긴 좋지만 먹혀 버릴까봐 반대하는 거예요, 먹혀 버릴까봐. 자유만 주는 날에는 훌쩍 삼켜 버린다 이거예요. 소리도 없이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생은 가만히 있으면서 커 갑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커 간다구요. 머리는 통일교회 문선생, 레버런 문한 사람인데 뒤에 꿈무늬를 보면 점점 커서 미국도 삼킬 수 있는 거물이 되었고 말이예요, 일본도 삼킬 수 있는 거물이 되었고, 구라파도 삼킬 수 있는 거물이 되었고, 남미도 삼킬 수 있는 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나서 그러우, 못나서 그러우? 「잘나서입니다」 얼마나 잘났어요? 네지 (ねじ;나사)가 넘으리만큼 잘났다 이거예요. 허허허. (박수) 그러니까 맞춤 곳이 없어요. 네지가 넘으리만큼 잘났으니 맞춤 네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맞추는 네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박수)

자, 뭐 이거 내 이름, 자가선전하는구만, '아이구, 오늘 419날 좀더 좋은 말 들을 줄 알았더니...' 할지 모르지만 419야 내가 알고 있어요. 419니까 요것이 10이야 그러니 40입니다. 그래서 40고개를 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때를 그때에 잘못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는 27년의 역사를 누가 빼내어서 시정할 거예요? 현재의 정부가 시정할 거예요, 대학 총장들이 시정할 거예요? 지금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내 손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내 손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망가뜨렸으니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국이 좋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터져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손대오! 「예」 운전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참된 길로 세계를 대표한 한 남자와 여자를 보내야

오늘 제목이 뭇인가요? 「참된 길을 가자」 참된 길,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었나갔어요, 참된 길을 가고 있나요? (웃음) 그거 었나갔으면 돌아가자구. 돌아가자구요. (웃음)

그러면 참된 길로 무엇을 보낼 거예요? 무엇을 참된 길로 보낼 거예요? 세계를 보내기 전에, 나라를 보내기 전에, 사회를 보내기 전에 남자 여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해결점이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데모하고 나서 무엇이 남아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암만 공산당들이 데모해도 역사는 자기들 뜻대로 안 됩니다. 레버런 문은 가만히 있더라도, 바라지 않더라도 레버런 문 뜻대로 됩니다. 「아멘」 다르다구요.

무엇을 참된 길로 보내야 되겠어요? 한 남자를, 세계를 대표한 한 남자를 참된 길로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대표한 한 여자를 참된 길로 보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뭘 중심삼고? 「하나님」 사용(私用)이 아닙니다. 영원한 공유물인, 우주의 공유물인, 절대적 공유물인 참사랑을 중심삼고... 어저께도 내가 얘기했지만 사랑은 살아 있습니다. 사랑이 가는 데는 폭발력이 발동합니다. 사랑은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나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한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단하다구요. 보라구요. 2억 4천만을 레버런 문이 혼자서 넥타이를 쥐어 쥐고 팽이처럼 돌려대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 망해. 회개 안하면...'. 그런다고 밋지?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녀석아. 응?' 그런 싸움을 해서 이제는 그들이 눈을 뜨고 알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참된 누구를? 참된 양심을 가지고 참된 몸을 가진, 이 우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내세워서 그를 따라가게 되면 세계는 다 해결됩니다. (박수) 그런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한 남자는 자기를 위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고 우주를 위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각을 해야 됩니다. 밥을 먹되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대표해서 먹는 것입니다. 잠을 자되 자기를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예요. 만민을 대표해서 자는 것입니다. 공의의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줄 타고 가는 사

람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줄을 바로 타야 됩니다. 한 발자국 잘못했다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과정의 길을 거쳐 나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남자, 하나님께서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여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면 세계는 산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만두고, 남자 여자 두분이 가게 되면 영계도 다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도 따라올 것이고, 이 세계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표준은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 있는 이념을 지닌 것이고, 그들의 생활적인 내용은 만민, 역사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랑이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냄새를 피울 줄 아는 것이 뭐이라고요? 통일교회 패들입니다.

참사랑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 달라붙게 마련

응? 권영우! 그래? 「예! 그렇습니다」 사진기 가지고 돈벌이하러 돌아다녔잖아! (웃음) 뭐 팔랑팔랑 좀 벌러 다니지만, 사진 한 장에 천만 원 가게 되면 하늘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한 푼 더 받기 위해서는... 인류가 한 푼 던지면 살 것인데 안 던져 주므로 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푼을 더 아껴 쓰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벌어야 됩니다. 밤을 새우며 일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피살을 꺾는 모든 놀음을 다 해서 번 돈을 전부 세계에 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 포켓에 없어요. 포켓에 있나? 없어요. 지갑도 안 가져 왔구만. (웃음) 나는 무슨 링컨차, 어디 차 하면 안 갖고 있는 차가 있어요? 차를 한꺼번에 백 대도 살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백 대가 아니라 몇천 대도 살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구, 저런 차 한번 타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내가 뭐 수백 채를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구, 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예」

내가 수많은 인류를, 종족과 민족을 초월해서 국가를 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한번 독재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더군요.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들이 '절대 명령을 해 가지고 절대적인 일을 하게 해주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래요, 자기 마음이. 알겠어요? 요 마음이 있더군요. 참사랑만 갖고 있으면 달라붙게 마련입니다.

여기 김인주도 왔구만. 김인주! 「예」 통일교회 믿은 지 몇 해 되었어? 「40년 됐습니다」 40년 되었는데, 그놈의 선생님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닙니다」 '죽어서는 안 되지. 우리 남편이 죽으면 죽고 우리 아들이 죽으면 죽었지, 우리 선생님이 죽어서는 안 돼' 그러지? 「예」 「아멘」 물어 보는데 대답이 뭐 아멘 하노? (웃음)

그러니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먹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해 가지고 어떻게 해먹어요?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해도 따라와야 해먹지. 다 목이 터지고 어떻게 해먹겠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통일교회 선생님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면 찾아서, 도서관에서 연구해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다르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의 문제의 족속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족속이나? 무니 족속입니다, 문 족속. 문 족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화제입니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본 자민당의 분과위원장으로부터 의원들 한 180명 정도가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이 다 무니의원 것발을 들고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더군요. 그많은 껍거리들은 내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총 가지고? 「사랑 가지고」 협박공갈 가지고? 뭇 갖고? 약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 약. 사랑은 말만 들어 봐도 물이 들거든요. 눈이 풀어지고 귀가 풀어지고 얼굴이 빨갱게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흥분하는 거예요. 눈이 딱 가서 끈아지게 되면 잡아먹겠으면 먹고 말겠으면 말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도 그렇더군요. 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대하게 되면, 눈 보고 입 보고 코 보게 되면 말이예요, 빨개져 가지고 눈이 잘돌지 않아요. 말할 때에는 귀가 가려집니다. 그건 이미 빠졌더군요. 그여자는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 연구나 하는 잡된 남자로 생각하면 곤란하더군요. 이치가 그래요.

뭣 갖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랑」 사랑이 얼마나 맛있다고요?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맛보게 되면 천년 동안 이래도(입을 벌리심), 입을 다문다구요? 「아니요」 남편 입술이 두꺼비 입술 같더라도 사랑하게 되면, 여자 입술이 암만 알팍하다 해도, 남편이 입술을 갖다 안 대겠다고 해도 갖다 뺀다구요. (웃음)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런데, 진짜 뭐라 할까, 꿀단지보다도 더 한 진짜 사랑통에서 그 맛을 본 그 입이 가만있겠나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놀음 놀이가 다르다구요. 우리 같은 사람은 벌써 놀음 놀이가 다릅니다.

사랑의 완성 표준이 나와야 평화의 세계로 가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딱 서게 되면 젊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거 보라구요. 지금 몇 시간 했나? 두 시간도 넘었구만. 지금 늙었어도 열 시간도 해치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쳐 떨어지지만, 나는 지금도 이렇게 통일교회 선생 노릇 해먹고 있는 거예요. 저건 죽지도 않고 죽을 생각도 안 한다고 그러지만, 나도 죽을 생각도 안 합니다. 죽었다가 또 올 걸 뭐. (웃음) 경계선이 없다구요. 지금 살아 있어도 저나라에 왔다갔다하고 죽어서도 여기 왔다갔다할 거라구요. 통일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기도 가운데서 선생님을 다 만나고 살거든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하고 만나 가지고 살아요? 통일교회는 다르다구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벌써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처녀 총각이면 처녀 총각,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들이 가서 으스스하게 되면, 한번 관계돼 있고 인연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보고 싶어합니다. 따라가고 싶어한다구요. 자기가 밥을 안 먹더라도 먹여 주고 싶다 이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요? 하나님은 문선생 굶게 놔 두겠어요, 안 놔 두겠어요? 「안 놔 둥니다」 하나님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

다 주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도 도둑질한다는 말은 없지만, 그 말은 극단적인 말이에요. 천번 만번 억천만 번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놀음까지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그래서 내가 욱먹으면서도 세계를 전부 다 점령해 나오잖아요? 맞고 빼앗아 나오는 방법입니다, 전법이. 나를 쳐라 이거예요. 내가 한국에 올 적마다 안기부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저 양반 또 왔으니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지?' 합니다.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웃음) 내가 문제를 일으키나요? 자기들이 일으키지 자꾸자꾸 일으켜야 넘어가겠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미국 가면 미국도 나 때문에... 7, 8월쯤 가게 되면 '진짜 레버런 문이 미국을 말아먹게 되었구나' 하게끔 되었다구요. 다 해 놓고 왔습니다.

내가 일년 동안만 인공위성을 타고 공중에 좀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왜 그러냐 하면 KGB(소련국가안보위원회)가 나를 전부 사격하고 있다구요. KGB의 워싱턴 본부에 통일교회국이 생겼다는 것을 내가 안다구요.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내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예」 결사적입니다. 결사적이라구요. 참사랑을 위해서는 결사적이어야 됩니다. 결사적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을 못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길을 가야 할 텐데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나의 남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여자 가운데 무엇이? 마음이 앞장서 가지고 몸뚱이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참사랑의 법도에 있어서 기어(gear; 톱니바퀴)로 말하면, 이빨이 맞아 가지고 소리가 안 나고 마모가 생기지 않고 딱 도수를 맞춰 돌아갈 수 있는 사랑의 완성적, 뭐라고 할까? 걸작품, 그런 것입니다.

한 남성 한 여성을 이 땅 위에 내세우는 날에는 세계는 평화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의 세계에서 재림이니 뭐니, 불교로 말하면 미륵불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재림주니 뭐이니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입니다. 그거 하나의 표준이 뭐냐? 하나의 완전한 남자, 하나의 완전한 여자입니다. 그런 남자와 여자가 나오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도 그 가운데서 놀아나고 지금까지 요사스럽고 부잡스러운 모든 행동,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모든 문제도 그 가마솥 안에서 다 녹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가마? 이론적 지식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이론도 없지만 두루뭉수리한 사랑의 길을 찾아갈 거예요? 「사랑의 길」 응? 어느 길? 오늘은 박사님들이 안 왔나요? 박사님들이 안 왔구만,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에 신비한 조화의 등지가 있어

세계의 모든 젊음이 가운데 새로운 족속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젠 태풍이 불어도 가는 거예요. 시계 바늘이 기후가 나쁘다고 스톱하나요? '아이고 답다. 조금 쉬어 가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24시간 딱 맞춰 돌아가야 할 텐데 답다고 24시간 안 돌아가고 23시간 돌아가면 되겠어요? 틀림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4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 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싫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싫다고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무슨 힘이나? 「사랑의 힘」 그거 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부정할래도 사랑의 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안 그래요? 그 맛이 얼마나 좋다고요? 머리끝만 하더라도 거기에 한꺼번에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4백조이상 되는 세포가 한꺼번에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사사건나겠지요? 세계적인 압사사건이 날 거라구요. 비로소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의 내밀적(內密的) 신비한 기관이 최고의 발동을 해 가지고 '내가 있음을 자랑하노라!'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옷을 짜는 아낙네는 말이예요, 스웨터를 짜는 데 있어서 아무리 힘이 들고 손에 피가 나더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표정을 한순간 보기 위해서 뜨개바늘로 엮는 일을 몇년이라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일생 동안 독수공방 생활을 하더라

도 수절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영원히 스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영원히 공격할 수 있는 동시에 영원히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신비한 조화의 등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등지 가운데 풀겨 사는 사나이, 그 등지 가운데서 태어나는 아들딸, 그 등지 가운데서 놀음놀이 하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의 살림 동산에 찾아와 가지고 구경하고 싶고 만져 주고 싶고 속삭이고 싶다면, 그런 우주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 우주의 주인공을 겨냥 가지고 상대역으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치적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단다면... 그것이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문선생이... 음? 나 똑똑합니다. 대통령들 몰아다 교육하려고 그래요, 세계에서 대통령 해먹던 녀석들을. 알겠어요? 그만하면 똑똑하지요?

그러한 문선생이 일생 동안 뽀박을 당하고 수난길을 가면서도 이 길을 끌고 나오다 보니, 세계에서 이제 문선생 따라가자는 패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급변합니다. 몇 년만 두고 보라구요. 통일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화장터가 있으면 산 사람을 잡아다가 화장해 버리지 않고는 처치 곤란할 정도로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 공산당들과 싸우는 비밀 게릴라 부대 부대장이 선물을 보내 왔다고 하더구만. 지금 '흑인들의 메시아는 당신이요' 그러고 있대구요. 전부 내손을 필요로 하고,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더라구요. 자기네 대통령은 안 믿는대구요. 미국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 한국도 그럴 것입니다.

남북을 통일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남북 국경선을 전부 다 자멸시킬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하고 우리하고 맞대 가지고 이론 토론하자 이거예요. 미국과 일본과 중공 나서라 이거예요. 선진국 나서게 해서 광장에 모아 가지고 세계의 모든 언론계들과 이론 투쟁을 하게 해서 쓸어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놀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학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사상을 교재로 쓰고 있는 대학교나 신학교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 목사들, 난 그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뭘하고 있는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털어 내면 전부 다 뿡뿡뿡할 수 있는, 뺏어 나갈 수 있는 수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차마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양심이 취하고 몸이 취해서 끌려가야

군자는 정도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도를 가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에게 별 주기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도(求道)의 길을 가게 해줘 가지고 길을 열어 주려고 하고 있다구요.

이번 달만 해도 4백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올 것입니다. 오늘이 19일이지요? 오늘부터 출발하나? 「미국에서 일본으로 내일 출발합니다」 응. 2백 30명, 한 달에 6백 명이 동원되어 올 것입니다. 미국 목사들이, 그 사람들이 쫓겨 패들이 아니예요. 대학원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기성교회 집사 짜박지가 '통일교회 이단이야' 하면 그것이 통해요? 저 뭐 목사 짜박지들, 4년제밖에 안 나온 그것으로 통해요?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의인이 자기나라에서 대접을 못 받는 다는 말과 같이 얼마나 나를 미워했어? 임자네들 그거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세계가 얼마나 미워했어? 미워해도 내가 참았어요.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펀치도 세다구요. 펀치도 있어요. 보통으로 그저 한 대 맞으면 툭 떨어져 나갑니다. 운동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쥐어 잡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암만 똥똥하더라도. 그럴 수 있는 사나이가 모듬매를 맞고 못난이 놀음하고,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잘났기 때문에, 너무 잘났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는 날에는 마지막입니다. 내가 치는 날에는 그 조상이, 그 일족이 걸려들고 그 나라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소련 공산당까지 내가 해방하려고 합니다. 뭣 갖고? 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논리, 사랑의 논리를 기준삼고. 그것이 하나님주의요, 레버런 문주의입니다. 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하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고독이 점령할 수 없고, 사망의 물결이 그 앞에 무색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습니다. 공산세계가 총 단합해 가지고 레버런 문 제거운동을 하고 있지마는 나는 내 갈 길을 압니다. 내 갈 길을 알아요.

이 혼란된 세상을 수습할 대안이 어디 있으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세계를 대표한 하나의 남성 여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 양심이 취하고 몸이 취해서 끌려간다면, 그런 길을 가는 그 두 분이있다 할 때는 남자는 그 남자를 따라가고 여자는 그 여자를 따라가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지면 나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세계문제는 해결되

통일교회도 지금은 세계적인 종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천만이라는 수는 벌써 넘어섰습니다. 일본만 해도 지금 승공연합 회원을 모집하면 2천 5백만은 넘어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8백만에서 스톱했어요. 미국도 카우사 회원 1천만을 70일 동안 모집하고서 스톱해 버렸어요. 그것이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바람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벼락이 떨어집니다. 악독한 사탄같이 모든 비법적인 행동으로 인간을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면 나 이상 무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늘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화하려고 하는 놀음을 하고 가는 거예요. 통일교회 냄새가 세계에 풍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 냄새? 「예」 통일교회 냄새는 무슨 냄새예요? 구린 냄새예요, 달콤한 냄새예요?

재미있는 것이, 세계 유명한 학자들, 아카데미 조직을 내가 미국 가면서 시작해 가지고 한 15년 되었는데, 그 이름난 노벨상 수상자, 뭐 한다는 학박사, 세계적인 대표 학자 레테르 붙은 사람들, 전부 다 나하고 친구예요. 내가 이리 오라고 그러면 당장에 날아올 사람들 많습시다. 그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선생님을 따라다니느냐? 통일교회 사람들을 보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학자들이 가만 보니까 '아이구, 사위 삼고 며느리 삼으려면 저런 사람을... 아이구, 손자 며느리 손자 사위는 저런 색시 저런 총각으로 한번 맞아 봤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고 명예가 있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집에 이런 딸이 있고 이런 손녀딸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전부 다 해줄 테니 앞으로 결혼해라' 암만 그래도 통하지를 않아요. 돈을 암만 쥐도 통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어도 못 가집니다. 인연맺고 싶어도 못 맺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부모님을 통하지 않으면 가질 길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 흠통소니(빠져 나오기 힘든 구렁)길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레버런 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그거 통일교회 새끼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날 닮아서... (웃음) 아무리 돈을 주고 황금 보따리를 갖다 준다 해도 절대 관계 안 맺습니다.

돈은 말이예요, 환드레이징하면, 한참 벌 때는 한 사람의 책임량이 한 달에 만 팔천 불, 이만 불 돌파합니다. 그런 놀음을 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앞에 일년 동안 수고한 표창을 주는 데는 말이예요, 황금덩이를 갖다 준다 해도 싫다는 거예요. 돈이니, 세계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반지니 뭐 다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자기가 한 달 이내에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나? 선생님 사인이라는 거예요. (웃음) 선생님 사인 한 장이 가치로 말하면 몇억 불 이상 나갈 수 있는 내용물이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내가 공인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편네를 내가 싸인해야 되거든요. 통일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수 없이. (웃음) 채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시집 장가 가라구요. 이놈의 간나 자식들, 내가 꼬대기를 잡아다 시키겠다 이거예요. 뚜쟁이 노름도 선한 의미의 뚜쟁이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알락달락한 오색 가지 사람들이 수두룩이 모여앉아 가지고 나에게 눈을 맞추어 가지고 '나도 봐 주소' 이려고 있더라구요. 암만 가래도 싫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니까 '아,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니 사고가 났어요. 사고 반대가 무엇인가요? 나 한국 말 잘 모르겠는데, 사고 반대가 뭐예요? 「안심요」 그건 사고 반대 아니지. 사고 반대가 뭐가? 「경사요」 뭣이? 경사? 그래 그 경사는 좀 비슷한 것 같구만. 하여튼 사고 반대라구요.

보라구요. 이번에도 쌍을 맺어 주는데 45초에 한 쌍씩 맺어 주었습니다. 눈을 세 번 깜빡깜빡하면 45초입니다. 얼마나 버락 같은 가요. 선생님이 얼마나 사람을 빨리 측정해요? 척 보면 압니다, 벌써. 벌써 아는 거예요. 짜가닥짜가닥 맞춰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맞춰 놓고 떡 쌍쌍이 내세우니까, 어찌먼 그렇게 잘 어울릴꼬! (웃음) 평이 그거예요. 응? (박수) 알았어요? 「예」

가정의 수가 암만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된 사랑, 하나님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 나왔다면 그 뒤를 따라가서 살 길이 있을싸! 나라가 암만 크더라도 맹목적으로 눈을 감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살 수 있으면 모든 세계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점령해? 나를 점령하자. 남자 여자를 점령하는 수법은 세계에 챔피언입니다. 선생님을 알고 나서는 도망 못 갑니다. 알고 난 후에는 못 간다 이거예요. 선생님은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선생은 연구해도 알 수 없어요. 어린애 같대구요, 어린애. 내가 어린 애기놀음도 잘 한다구요. 그저 철딱서니없는 놀음도 일부러 한다구요, 일부러. '잘났다는 녀석 아주 쫓아 버려야 할 텐데' 그럴 때는 일부러 못난녀석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욕도 퍼붓고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작전이예요, 작전.

선의의 싸움, 맞고 빼앗아 나오는 작전을 하고 있는 통일교회

자, 앞으로 한국이 문선생 따라갈 것 같소, 안 따라갈 것 같소? 「따라갑니다」 여기 기성교회 집사 있어요? 기성교회 집사는 빠지라구요. 집사러 다니는 것이 집사인지 모르지. 소개업자 앞잡이, 여기 장로 부인들, 혹은 장로인 사람들 왔거들랑 똑똑히 알아 두라구요. 기성교회 가서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빨리 통일교회 와야지, 안 와 보라구요. 기성교회는 세계 종교에서 1960년서부터 14년이 넘으면 다 끝

장이 나게 되어 있다구요. 그때서부터 14년까지, 신흥종교에 있어서도 1974년까지가 하늘이 세운 한계선입니다. 복음교회, 나장로, 무슨 박장로 다 꺼져 갔지요? 뭐 조용기 목사가 나보고 이단 괴수라고 큰소리했는데, 두고 보라는 겁니다. 이단 괴수가 이기고 살아 남나, 네 진단이 잘못되었나. 그건 다 꺼져 가는 거예요, 다.

지금 미국에서는 종단장들이 나를 모셔다가 비밀리에 회합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 알아요? 옛날 니고데모처럼, 몇천만을 거느린 종단장이 뒷문으로 나를 찾아와서 의논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의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몇몇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여기 기성교회 노회장 총회장이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전에서 푸푸-. (웃음) 어렵 없어요. 그들이 나만큼 유명한가요? 난 세계적입니다. 못나고, 나쁜 괴수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자기들 눈에는.

내가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간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만나기로 해서 안 만나 주게 되면 사흘 이내에 벼락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런 놀음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 나라도 그렇지요, 이 나라도. 내가 반대하면 시시하게 그렇게 반대 안 해요. 불쌍한 한국, 손뭉테가 없기 때문에 이려고 있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 한다면 웃어 보라구요. 웃어 보라구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는 내 손이 필요할 수 있는 날이 눈앞에, 꼭대기 뒤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이 한국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든 것입니다. 북한을 해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국민을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소위 선거 (남북총선거)가 벌어지면, 이북에 들어가서... 이북이 2천만이면 우리 4천만 가운데서 2천만을 동원해 가지고 일대일로 저들을 설득해서 전부 다 녹여낼 수 있게끔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둘러야 된다고요. 난 알고 있습니다. 그 놀음을 해야 됩니다.

그래, 대학 교수들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해라! 선의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고 빼앗아 오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쳐라! 대학 가서 '한 번 쳐 봐라. 너희들이 한 번 쳤다고

해서 후퇴 안 해. 백 번 천 번 계속한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말입니다. 내가 명령을 하게 되면 백 번이 아니라 천번이라도 학교가 수업하지 못할 만큼 계속할 거라구요. 이래 놓으면 젊은 놈들 전부 다 의분심이 나서 '이놈의 소수의 자식들을 제껴 버리자. 통일교회가 뭘 잘못했느냐?' 하게 되고, 이래서 대학생들을 전부 다 돌려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선의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예」 요, 깔딱스럽게 생긴 손대요. (웃음) 그래, 그 머리가, ㄷ대기가 세? ㄷ대기가 빨라서 죽어! 속병이 나 죽어! 그게 무슨 싸움이야? 그게 싸움이야, 그게? 보라구요. 나는 미국의 1,750개 언론계가 전부 다 총동원하는, 그런 압축된 주파가 몰아치는 자리에서도 코웃음치며 싸워 나갔습니다. 법정투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차 버린 것입니다. 왼발로 차 버린 것이고, 뒷발로 뒤로 차 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구. 이 자식들아!' 이래 가지고, 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졌다고 손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앓사리 (あさり; 깨끗이) 합니다. 이미 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들이 갈기는 것입니다. 일년 반 동안에 미국에 있어서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목사들이 못나서 그렇게 몰려오겠어요? 내 바람에 와서 다 걸려들었지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35만 명에 대해서 10톤짜리 트럭, 길이가 10미터 가까운 트럭으로 백 대의 트럭에 해당하는 재료를 보내준 것입니다. 감옥에서 목사들한테 '이거 읽어 봐라. 이놈의 자식들' 하니 그들이 다 공부한 것입니다. 반대하는 레버런 문에 대해서 공부 안 할 수 있어요? 읽어 보니 문제가 크거든요. 레버런 문을 연구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준비를 감옥서부터 다 해 가지고 이 놀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미치지 못하는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정화하자

내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6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건 지금까지 미국의 정계, 경제계가 모릅니다. 미국을 살리

자고 나서 가지고 대학가에서 기수가 된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좌익이 미국의 대학가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지만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보수파가 주도적이 됐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누군 줄 모릅니다. 레버런 문의 꼬봉인지 모른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큰소리할 만한 때가 왔습니다. 내가 큰소리하게 될 때 통일교회 사람들은? 응? 나 따라 큰소리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야 돼요. (웃음) 여러분이 큰소리하면 사람 잡아요. 나라 망칩니다. 땅구덩이를 파고들어가라 이거예요.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거들랑.

세상이 전부 다 나를 환영할 때 나는 비행기 타고 저 히말라야 산 깊은 곳에 가서 중이 될지 모릅니다. 되겠다는 것은 아니예요,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뭐 천 가지 길이 있는 것이지요. 농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농사도 좋아하거든요. 지금 우리 배가 오대양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내가 오대양에 배 타고 끄 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레버런 문을 찾느라고 야단할 것입니다. 세계에 이름이 나거들랑 그다음에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주의자입니다.

큰 사랑은 온전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통일교회가 유명해지고 통일교회 때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꽃피게 됩니다. 꽃이 피게 되면 여러분의 꽃의 색깔이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는 향기가 풍겨야 됩니다.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응? 「예」 성숙기에 들어가서 꽃이 피게 될 때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꽃이 나와야 되고 향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통일교회 진수의, 숨은 사랑의 꽃을 피우고 숨은 사랑의 향기를 풍길수 있는 이런 사랑의 분(꽃가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향기로 세상을 정화작업하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세상을 정화하자, 대학가에도 농촌에도 도시에도 학계에도. 이 향기가 진동하게 될 때에, 그 세계에서는 탄식할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자기 자체를 중심삼고 만년 주체가 되겠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올라가서는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서는 올라가는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나는 한 때를 맞았으니 지금은 내려가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만년역사를 주파수와 같이 살
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남녀노소 총동원해서 북한 해방하러 출전할지어다

내가 40평생을 수난길을 걸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두고 70이 가
까와 오지만 40년 동안 수난길이었습니다. 이제 70이 넘으려고 하니까, 7수
완성수에 이르니까 이제는 8수 시대를 향해서, 80 시대를 향해서 가야 합니
다. 통일교회 세계,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거기에 있어서 8수를 대해 가지고
는 새로이 1수(一數)로 출발해야 됩니다. 옛날같이, 모르고서 이 길을 개척하
던 거와 같이, 알고 나서도 모를 때와 같이 그래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나? 열매가 되거든 땅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
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 한 일생의 주기를 아름답게 끝마치고 가야만
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기준으로부터 본향의 세계, 영원 무궁한 본국, 본향의
세계에서의 이상적 생존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참된
길은 그곳까지 입니다. 지상만이 아니예요. 여기서부터 영원히 계속할 수 있
는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통일교회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인생문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고생한 사람이 여기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계시냐, 그 유무에 대한 것을 내가 만져 보고 체험하기 전에는 못 믿습니
다. 살살이 헤쳐 가지고 이론 체계를 중심삼고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지성인이라도 3박 4일이면 교화시키고 남을 수 있는, 3박 4일이 아니라 하
루면 교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이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무기
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걸 대한민국이 모
르고 있다구요. 모르니까 이제는 알게 할 거예요. 누가 나와서? 대한민국 사
람이 아닙니다. 서구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가 남북이 통일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된 나라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시아를 연합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창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는 남북을 통일해도 곤란합니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참된 개인시대를 거쳐서 참된 민족, 참된 국가시대에 순응의 도리를 개문해야 할 때가 왔으니, 우리 통일교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총동원해서 이 남한 민족을 거느리고 북한 민족을 해방하러 출전할지이다! 이것이 참된 길을 달려가는 마지막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되겠어요? 「가야 되겠습니다」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시지.

오늘은 419의거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419는 젊은이들이 '새길로 가자'고 주장하던 날입니다. 요때에 새 길을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이 천지에 자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 도]

아버지, 지금 때에 있어서 인류가 허덕이며 찾아야 할 길은 뿌리를 찾아가는 길이옵니다. 뿌리 중의 뿌리는 생명도 아니요 사랑이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한 것도, 그 시작도 이 사랑 때문이었고 이 피조세계를 갖추게 된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돌고 돌면서, 신음하면서 탕감의 길을 거쳐온 것도 참된 사랑의 길을 상속하기 위한 것임을 아옵니다.

여기 통일교회 무리들, 각양각색의 모습이 모여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고 몸이 다르지만 사랑을 중심삼고는 너나할 것 없이 공통분모로서 이것을 영원히 영원히 지니고 가야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분모와 더불어 영존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다 높고 보다 큰 소원인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의미에서 사랑을 중심삼은 참된 길을 따라가야 할 이 놀라운 것을 알고 나서, 이 시간부터 그 길을 위하여 민족 앞에 세계앞에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지도자가 되고, 선구자, 개척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쌍수를 들어 맹세한 그들의 앞날을 지키시옵고, 이 시간서부터 별다른 자기 자신을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전진에 전진을 다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들딸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에 전세계에 널려 있는 통일의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금 후에 전국적으로 계획한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응당히 있어야 할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다짐하고 나갈 줄 아는 무리가 되게 하시고, 그길에는 기필코 승리의 결과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짜여지고 엮어져 나온다는 것을 알고, 순순히 순응의 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무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아진 그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무리들이 되기를 재삼 다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오늘, 협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발한 통일교회

우리 통일교회는 인간의 뜻에 의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세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절대적 신인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 신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종말시대, 최후에 남아진 한 단체로서 전세계에 영향을 미쳐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인의(人意)에 의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의(神意)에 의해서 출발한 종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일교회를 창시한 이 본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드는 뜻은 내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이 뜻을 받들고 따라 나오면서 실천한 모든 것도 내 자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이러한 과거가 아니고, 또 현재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복귀섭리라는 엄청난 뜻의 내용을 중심삼고, 이 복귀섭리는 재창조 원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구원섭리를 완성시키기 위

한 사명으로서 내 자신이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부터 33년 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가 1954년입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나이로 말하면 서른 네 살 되던 때입니다, 서른 네살. 만 서른 네 살을 맞는 그런 해입니다. 선생님이 난 해가 1920년이니까 20년을 중심삼고 34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다 이겁니다. 이런 뜻적인 입장에서 33년을 지나 34년이라는 것은, 복귀섭리에 있어서 예수님이 왔다가 뜻을 성사시키지 못한 내용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섭리적 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나이 서른 네 살에 출발해서 교회 나이가 서른 네 살을 맞이하는 시대가 오늘, 1987년 5월 1일입니다.

선생님이 34세를 맞는 그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교단을 편성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 민족을 앞에 놓고 교회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운동의 기반이 통일교회인데, 이 통일교회의 기반을 중심삼고 34년을 맞이하는 때에 있어서도, 이것을 우리는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섭리의 판도를 확정짓는 때로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통일교회가 33년을 지나는 1987년 이후에 세계는, 예수님이 33세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모든 뜻이 세계적으로 재현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상을 맞이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통일교회의 탕감복귀 원리를 중심삼고 볼 때에, 로마를 중심삼은 유대 나라와 같은 판도가 오늘날이 통일교단을 중심삼고... 교단형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삼고 볼 때에 종족적 기반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족적인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종족적 가인 아벨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탕감복귀노정에 있어서 절대 혼자서는 이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탄세계가 먼저 개인으로부터 가정, 전세계의 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가려내고, 이 세계를 소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늘편 아벨이 나와서 가인편을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발전에서, 하나님께서 복귀섭리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내용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세상을,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관하는 외적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편의 아벨적인 존재가 나와서 외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것을 소화해

서 아벨적인 일을 대역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는 데서만이 반드시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원리관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렇게 볼 때에, 지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에 그 섭리의 뜻을 중심삼고 예수님의 종족적 가인 아벨이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나 하면, 요셉가정과 사가랴가정, 세레 요한가정이 하나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요셉가정을 아벨로 해 가지고 사가랴가정과 세레요한가정이 완전히 하나됐다면, 그 가정은 종족적 판도를 기반으로 한 섭리의 터전으로서 자연적으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 두 종족이 완전히 하나되게 될 때에는 그 종족을 중심삼고 모든 씨족들에게 영향 미치는 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외적으로 전개시키는 데 있어서도 반대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족적 기반, 두 가인 아벨 종족기반이 형성되어서 완전히 하나됐더라면, 예수님은 세레 요한의 기반과 시대적 사명을 중심삼고 아벨적 입장에서 가인적인 입장에 있는 유대교의 새로운 판도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레라는 그 식을 중심삼고 새로운 민족 대이동이 형성되어 들어가는 환경이 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에, 세레 요한과 요셉가정이 하나됐더라면, 이것은 그냥 그대로 무리 없이 기성 유대교와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레 요한을 중심삼고 요셉의 가정과 하나된 그 가정이 종족적 아벨권이 되어서, 국가적 기반인 유대교권을 아벨적 입장에서 자연히 소화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뭐냐? 세레 요한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세레 요한가정이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부모의 뜻을 품고 왔다 하더라도, 그 복귀과정에 있어서 실패한 자녀의 기준을 복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결혼 전에 타락한 그것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민족적이요 국가적인 기반을 이루어 놓지 않고서는, 세계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루어 놓지 않고서는 부모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대교와 이스라엘이 하나되고, 그다음에는 요셉가정과 세례 요한 가정이 하나되었더라면 여기서부터 로마를 향해 갈 수 있고, 유대 나라와 유대교가 아벨적인 자리에 서 가지고 가인적인 로마를 소화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발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와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는 데는 어떠한 자리에서 돌아갔느냐 이겁니다. 참부모의 자리에 서서 죽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책임수행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자리에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책임을 인계받아 가지고 대행함으로써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갈 수 있는 종족적 기반을 재차 편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돌아갔다 이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지 않고 종족적 기반을 재편성하면 요셉가정을 대표한 가인 아벨 종족기반을 연결시켜야 할 공식노정의 사명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간 것이 아들의 자리에서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책임 못 한 것을 복귀하기 위한 과정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영적 관계에 반영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직접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않아요.

창조원리에 의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정적 인연을 거쳐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대등한 자리에서 몸과 마음이 일치된 그런 아들의 자리에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대우주, 창조된 이상세계 전체를 대표한 아들로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반대하고, 유대 나라가 반대하고, 유대교가 반대하고, 세례 요한 일파가 반대하는 입장에 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책임 수행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

어가지 못하고, 오늘날 낙원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이 뜻을 세워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뜻을 못 세우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역사시대에 연장시켜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나? 양자입니다. 양자의 종교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끝날에 가서-예수님이 승천하기 전부터 그랬지만-재림한다는 뜻을 남겨 놓고, 끝날에 재림해 가지고 다시 본연의 뜻을 이룰 것을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묵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잔치를 중심삼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재림시대의 역사적 표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2차대전 직후에 출발한 통일교회

그럼 재림시대까지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세계적 판도에 있어서 아벨적인 기독교문화권 기반을 중심삼고 가인적인 사탄세계 판도와 대치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소화해 가지고 전세계를 아벨권 판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드는 때가 끝날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가인 아벨의 역사적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종결은 가정적 기준이 아니에요. 세계사적 기준에서 종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결이 이루어진 것이... 자유세계의 기반 위에 기독교문화 배경을 중심삼은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중심삼고, 하나의 아벨권을 중심삼고, 전세계 가인권을 비로소 하나로 규합시킬 수 있는 이 놀음이 뭐냐 이겁니다. 2차대전 직후에 자유세계의 승리, 미국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한 기반이 닦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존속하는 것은 기독교와 더불어 존속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와 같이 세계적인 아벨권 국가로 등장한 것은 미국 국민이 잘나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중심삼고 아벨 일족으로부터 아벨민족, 아벨 국가들을 규합해 가지고 그것을 빼서 하나의 세계적 기독교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아벨 국가를 형성한 것이 미국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은 단일 국민이 아닙니다. 구라파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구교와 신교의 싸움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적인 기준으로 보면 구교는 가인적이요, 신교는 아벨적입니다. 종적 가인 아벨 문제를 두고 보게 되면, 구교는 가인의 자리에 있고, 신교는 아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를 중심삼고 구교를 소화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교가 지금까지 신교를 반대해 가지고 나왔지만 그 구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신교를 중심삼아 가지고 이것을 새로이... 구교 내의 새로운 뜻을 이어받은, 구교 가운데는 아벨과 가인의 문제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데, 그 아벨권을 빼 가지고 하나의 대륙에 집결시킨 그 나라, 그 기반이 미대륙입니다. 신교이상을 중심삼고 독립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은 구교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1960년에 들어와 가지고 비로소 케네디가 대통령이 한번 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신교... 신교를 중심삼은 세계적인 아벨적 대표국가다 이겁니다. 이 국가를 중심삼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대전쟁을 거쳐 나가면서 세계를 포섭할 수 있는 놀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세계를 하나 만들 수 있었던 그 한때가 2차대전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그 2차대전 직후인 1945년도, 그때를 중심삼아서 통일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워진 통일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소명을 받은 문 아무개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아벨적 세계 대표 국가기반을 중심삼고 하나된 통일형성, 비로소 종교문화권을 중심삼고 세계가 하나로 규합될 수 있는 그런 시대권, 그 찰나를 중심삼고 해방과 더불어 통일교회는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과거를 생각하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방되기 직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신사참배를 중심삼아 가지고 1945년 8월 17일만 되면 기독교의 대학살을 하려고 일본정부가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17만에 가까운 사람이 학살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

께서 8월 15일을 중심해서, 사흘 앞두고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운데도 신사참배를 환영한 기독교와 신사참배를 반대한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종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인적 기독교와 아벨적 기독교가 있었다구요. 신사참배를 환영하던 교파와 지하에 들어가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지하운동을 하던 한국의 두 교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야 했습니다. 이것을 연결시켜야 했다는 거예요.

통일교회라고 부르게 된 이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것은, 지하의 교회와 지상의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중심삼고 규합할 수 있는 그런 놀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한 그 모든 교역자들은 국민으로부터 규탄받는 것은 물론이지마는, 지하에서 활동하며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고생하던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순응해야 될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뜻 가운데에 이미 복귀섭리를 전부 준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덴복귀를 위한 시온파니, 박동기파니, 그다음에 철산의 뿔인가, 김성도파니 하는 여러 가지 복귀파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오지 않는다. 사람으로 온다' 이렇게 복귀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도 구약적 복귀운동을 하는 파, 신약적 복귀운동을 하는 파, 또 참부모님 올 때에 맞을 수 있는 특별한 새로운 통합적 복귀파, 이 세 종류가 전부 다 표면상에 나타났다가 이겁니다.

그들이 서로서로가 하나돼야 될 텐데, 서로서로가 자기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적 복귀파는 구약적 복귀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고 하고, 신약복귀파는 자기들 중심삼고 하나된다고 하고, 신령한 복귀파인 성약적 복귀파는 자기를 중심삼고 하나 만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면도상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기독교의 지금까지의 기성관념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놀음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약적 복귀파는 신사참배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도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이게 재건파가 된 거예요. 극성맞지요. 전차를 타더라도 일반사람 옆에는 타지만, 만약에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 재건파가 아닌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이 앉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뒤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구요.

그러나 이런 평면도상에 나타난 모든 것을 소화하고, 지도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아벨적 입장에서 가지고 유대교를 포섭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사참배한 모든 기독교를 중심삼고, 새로운 하나의 신교를 세운 사람들이 나와서 포섭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라 이겁니다. 포섭되어서 구약시대의 신령파는 신약시대의 신령파를 따라가야 되고, 신약시대 신령파들은 성약시대 신령파들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성약시대 신령파는 무슨 결의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탄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신령되신 주님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와야 된다고 한 거예요. 다르다구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전개되는지 모르는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의 여기에 서 있는 문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모든 종단의 책임자들에게 가르쳐 주어 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 책임자, 그다음에 신약적 책임자, 그다음에는 구약적 책임자를 연결시키는 놀음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후의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 선생님은 해방 전에 이미 그런 운동을 한 거라구요. 그런 운동을 하면서 전부 다 신령한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해방되자마자 전체 우리 통일교회 요원들을 중심삼고 전부 방문시켰던 겁니다. 방문시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말이에요, PWPA (세계평화교수협의회)와 같은 조직이 있어서 무슨 박사님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예요. 존경받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 보내는 것이 아니예요. 제일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영통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거 딱 보면 미치광이 같아요, 미치광이. 딱 미치광이라구요.

출발은 마찬가지로요. 악신의 역사나, 선신의 역사나 출발은 마찬가지로요. 다만 결과가 다릅니다. 떨고 야단하고 뒤넘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악신도 신령역사를 하는데, 결국은 역사해서 어디로 들어가는냐? 자기 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세계의 이익으로, 하늘과 땅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꺾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삼고 개인적인 이익으로, 자기 가정을 위주리한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꺾여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교파를 중심삼은 그 교파가 통일교회라면, 우리 통일교회도 신령한 역사를 했다 할 때는 말이에요, 통일교회의 이익을 위주리한 그런 신령함은 깨진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는 출발은 같은 모양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세계를 표준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해방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는 끝날까지 못갑니다. 자기 욕심만큼 가다가는 자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데려가게 되면 그 시대의 환경을 가누어 가지고 연결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신령과인 에덴복귀과는 자기가 신약시대의 에덴복귀과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규합해야 할 책임이 통일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의 이름은 그때부터 통일교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이런 놀음을 하는 것이, 선생님 뜻에 있어서 무슨 교파나 만들고 규합시켜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 '이 나라에서 뭐 해먹겠다. 세상의 무엇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통일교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가인 아벨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들어와 가지고 은혜받아 야단하고 말이에요, 별의별 패들이 다 벌어진다구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릅니다. 동과 서가 하

나의 중심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야 될 텐데, 중심이 안 나오니 전부가 부딪쳐요. 가운데 와서는 다 싸운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동과 서에서 역사를 하는 것은 중심을 찾아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이 안 나타나게 될 때는 이 전부가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부딪치고 동과 서가 부딪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횡적 기준 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영적 세계의 배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가지고는 이걸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 전후 3년을 중심삼은 탕감복귀역사

그런 혼란시기인 해방 전후를 중심삼아서, 더우거나 3년 기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제일 복잡하였다는 거예요. 허호빈씨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온다고 해서 열두 제자도 데려다 놓고, 집도 다 지어 놓고, 살림살이도 다 준비해 놓았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중심삼고 준비한 것이지, 자기 교단을 중심삼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적 에덴복귀과라 하더라도, 그 에덴복과 중심이, 박동기면 박동기를 중심삼은 것이 그 중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박동기는 오시는 주님을 중심삼은 상대역이지. 자기를 중심삼으면 모든 것은 전부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다 깨져 나가는 거라구요.

여기 박장로패들도 그래요. 뭐 무슨 '감람나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뭐하는 거예요? 뭐 신앙촌, 천국촌 만든다고 그러는데, 누구 중심삼고? 박장로 중심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세계를 중심삼고 가야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는 문 아무개라는 사람이 복잡다단한 영적 배후의 세계를 수습해서 이만큼 살아 남은 것입니다. 깨지지 않은 가운데 모든 종교 종단들이, 모든 신령한 집단이 웅가당텅가당 깨져 나가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에덴복귀과나, 신약시대의 에덴복귀과, 신령한 에덴복귀과, 다

깨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깨진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해서 수습해 나온 것입니다. 하늘이 공을 세웠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사탄 앞에 참소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에덴복귀과를 만들어서 남아진 것이 뭐요? 신약시대 에덴복귀과를 만들어서 남아진 것이 뭐요? 성약시대의 신령한 에덴복귀 역사를 하던 과들을 중심삼고 남아진 게 뭐요?' 하면서 사탄이 하늘에 참소한 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켰습니다. 하나의 식구라도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식구라도 연결시키는 놀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적 신령한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요, 신약적 신령한 집단의 역사가 조건적인 중심존재와 연결되어 성약적 신령 단체의 조건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때는 아무 곳, 어디서든지 데려다가 '이 사람은 구약적 신령한 단체 대표로 들어온 것이다' 하며 찾아 세울 수 있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탕감복귀역사는 그렇게 공식적입니다. 만약에 신약적인 에덴복귀과가 전부 반대하고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한 사람 데려다가 신약적 에덴복귀의 대표자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끔 영계는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또, 성약적 에덴복귀과를 중심삼아서 그들이 받들지 않더라도 거기에 한 가지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귀섭리의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의 지상 에덴복귀 구원섭리를 한 것이 실패가 아니고, 중심존재로 연결하는 놀음을 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그런 패들이 다 들어왔다구요. 저 박장로 패, 무슨 뭐 나장로 패, 기성교회 패, 천주교회 패, 박동기 패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귀섭리를 위해 뿌려 놓은 것은 거두어야 됩니다. 거두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잎과 가지가 번성한 것은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준비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중앙의 결실적인 존재는 그 잎과 가지에서 영양소를 받아들여 가지

고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갖추어진 씨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통일교회는 하늘이 벌여 놓았던 잎과 가지에서 모든 새로운 영양소를 집약시켜서 결실을 맺었다구요. 누가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 높음을 한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까지 가진 아벨 탕감복귀역사를 중심삼아 가지고 선생님이 해 나온 것은, 그와 같은 판도의 공식적 발전을 중심삼고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해 나오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아벨적 입장에서 해 나왔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에덴복귀과를 횡적으로 벌여놓은 그러한 기반 밑에서 사람을 보내어 전부 다 연결을 시키려 했는데, 그곳 간부들은 반대했다구요. 간부들은 반대했지만 그 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예요, 자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차원이 높다 이거예요. 구약시대 복귀과들이 보기엔 자기 대표자를 중심삼고 연결되어 있는 그 간부진들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통일교인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근본이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데, 차원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빼내는 역사 높음을 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우주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입하는 통일교회

그러니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통일교회는 혼자 출발하고 말이야, 우리는 벌써 교단적으로 몇 년씩이나 뿔뿔이 났고, 감옥생활을 해 가지고 오늘날 전국에 조직을 갖고 있는데, 뭐 통일교회 문 아무개 중심삼고 하나돼야 돼?'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하면 깨지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할 길에서 만나지 않으므로, 바늘 끝과 같은 것이 맞대서 만나 가지고 이 둘을 잡아매어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 (몸짓으로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심) 바늘 끝이 여기서 정당한 코스를 통해서 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코스를 중심삼고 이렇게 합류하면 안 된다구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상대적 기준에서 순응하지 않으면 다 깨져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 대했던 그런 말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들이 통일교회를 환영하고,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별나지요. 하나님의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수년 동안 기반 닦은 것을 아무런 공도 안 들인 패들이 와서 자기들이 주체라고 하니, '이단이다. 사탄 마귀다'하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라구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탄마귀라는 결정을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단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보기에 틀린 것이면 하나님 보기에 틀린 것입니다. 사탄이 아는 것이면 하나님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옳은 것이 아니냐. 옳기 때문에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하늘편에 있었더라도 반드시 사탄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단들에게 선생님이 세 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통고했지만, 이 연결하는 놀음은 안 하고 반대했던 모든 집단들은 지상에서 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세웠던 기반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수년간 하나님이 뿌려 놓은 그 모든 기반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런 것은 전부 통일교회에 와서 붙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축복했던 기반만큼 반드시 조건적인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실체적탕감복귀의 기반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구교, 신교 혹은 성약적인 신령집단들이 갖춘 것을 중심삼아 가지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반대해 나왔지만은 반대한 것들은 물러가고, 통일교회는 점점 커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적 기반에 있어서 그들을 소화하고, 그들을 가르쳐 주고, 그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이런 놀음을 한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통일교회가 우리 교단을 망치고 전부 다 통일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길은 구약시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거치고 성약시대를 거쳐 심정의 세계까지 발전해 나갈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결국 하늘은 어디까지나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나되어서 역사를 시작

했기 때문에, 선생님을 치면 거기서부터 맞고 빼앗아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작전은 가인 아벨 작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맞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 앞에 같은 형제가 있을 때, 형님이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무 잘못도 안 한 동생을 치게 되면, 부모는 어느 편을 드느냐 하면 대번에 동생 편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천리원칙입니다. 천리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권보다도 아벨권을 세워 가지고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다 부모 앞에 효도하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은 하나의 세계를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가족 생각 안해요. 가족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민족을 생각해야 되고, 민족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겁니다. 여기에는 국가관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족관을 초월해야 됩니다. 종족관을 초월해야 된다고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통일교회는 무엇을 중심삼고 나왔느냐 하면 개인관도 갖고 있고, 가정관도 갖고 있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관도 갖고 있지만, 우주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우주관을 가지고 이 우주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입한다 이겁니다.

또, 그 기준을 이룰 때까지는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반항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반항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이 바빠서 가는 패들입니다. 이러한 탕감노정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로 말하면, 선생님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만큼 사탄이 반대역사를 해 나온 거예요. 가정파탄주의자, 사회파탄주의자, 모든 나쁜 이름을 다 갖다 씌우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말들을 다 갖다 씌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반대하지 않고 하나가 됐으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나에게 다 돌려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악마가 만일에 주도권을 쥐게 될 때에는,

그러한 대표자 앞에, 역사시대에 자기가 전법으로 쓰고 전략으로 쓰던 수법을 가지고 혼돈시키고 승리를 다짐하던 모든 비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없는 비참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종족적 기반을 확정해야 했던 1960년까지의 7년간

그러니까 어느 누가 욕하지 않는 사람 없고, 어느 누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2차대전 직후에 기독교가 신령한 집단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되어야 했고, 그 신령한 집단들 중에 성약적 에덴복귀파와 신약적 에덴복귀파가 하나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벨권이 되어 가지고 구약적 에덴복귀파와 하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는 외적 신사참배를 한 지금까지의 기성교회를 수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 한국에 진주(進駐)하면서, 8군 사령관—그때는 미군정관이 아놀드입니다—아놀드 군정관을 중심삼아 가지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체를 장악해 가지고 전부 다 수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 신사참배 했던 기성교회 대표들은 전부 다 어떠한 패들이냐 하면, 외국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가서 유학한 사람들 등 똑똑한 층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각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결국 전부 다 일제의 앞잡이들, 이런 패들이예요.

결국은 미 군정부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누가 통역관이 되었느냐 하면, 목사하던 사람이나 목사와 관계되어 가지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다 통역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역관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의 아벨권 중단 형성을 해오는 역사적 기반을 무시해 놓고, 이들이 나라를 중심삼고 하나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일교회를 따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국가정세는 복잡한 정세로 흐르게 된 거예요. 어느 누가 수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 혼란상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한 때를 위해 우리가 탕감조건을 세운 기반이 있기 때

문에 발전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 다 속은 썩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쓸 것이 없을 만큼 썩어 나온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번지르르하지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1950년대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독한 자리에서, 어느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통일교회를 시작한 것은 말이에요, 평양에 가서 기성교회 믿는 줄짜나, 신령한 집단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을 빼내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빼내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빼내기 운동을 하려면 그들이 있는 신령한 단체의 지도자 이상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의에 있어서나,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통일교회의 과거 역사에 선생님이 탕감복귀의 노정을 걸어나오는 데 있어서, 그러한 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구요. 비참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피땀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의 겹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결사적으로 피땀 흘린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신령한 집단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 그다음에는 기성교단에서 그래도 잘 믿겠다고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고 신앙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빼내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때는 자유분방한 시대였습니다.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교파들이 전부다 혼란되니까, 잘 믿는 곳이 있다면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이것을 새로이 규합하기 위해서는 있는 정성을 다해서 피땀을 흘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신령역사가 그야말로 순수한, 자기 체험한 이상의 것을 전달시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통일교회가 개인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가지고 가정적 환경으로서, 그다음에는 종족적 환경으로서, 그다음에는 이 국가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1954년을 중심삼고 1960년까지 7년간인데, 이 기간에 종족적 기반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종족적 기반을 못 이룬 것을 반드시 탕감해 가지고 이 기반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했느냐 하면, 통일교회를 중심삼아 가지고 1954년부터 강력한 반대역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전부 다 국가가 뿔뿔 뭉쳐 반대하는 데 있어서 이후 7년간 이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되었다구요. 아무리 정부가 반대 하더라도 통일교회를 없앨 수 있는 기반이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마음대로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환경으로 넘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후에 1960년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성혼식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하면, 7년간 기독교문화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4천 년간 유대교문화권에 있어서 종족적 판도를 이루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종족이 없으면 민족으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종족적 판도를 중심삼아 가지고, 유대 나라와 유대교를 중심삼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로마, 세계 시대로 가야 할 그 길을 가져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통일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1954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적 박해를 넘고 뚫고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957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통일교회 그때 식구들은 전체 전환했어요. 1주일씩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을 중심으로 총동원해서 40일전도 민족 공격시대로 들어갔던 겁니다.

1960년부터 7년간의 복귀섭리

그러면서 애국하는 패, 남북을 중심삼고 애국할수 있는 패, 북한을 극복할수 있는 애국자들, 남한 극복이 아니예요, 북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애국자는 통일교회다 하는 기반을 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한일이 참 많았습니다. 적은 수를 중심삼고 국가적인 영향을, 전민족을 넘어서 남한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지고 통일교회는 발전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60년대 성혼식을 중심삼고 비로소 착륙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상시대의 착륙이.

그래, 통일교회는 뭐냐 하면 여러 교파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벨적 입장에서 여러 교파의 가인들을 끌어들이고 가인 아벨이 하나된 패입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잡도(雜道)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원리를 중심삼고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라를 대표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나? 전국에 종교적 대표자를 전부 다 연결해서 규합했다는 그 기준 밑에서, 종족적 기반만 확정되는 날에는 민족과 연결될 수 있는 내적 탕감기반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1960년도를 중심삼고 부모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는 제 아무리 반대해 보았자 반대하면 할수록 반대하는 편이 망하지, 반대받는 통일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를 받을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반대를 받을수록 통일교회는 세계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 성혼식을 중심삼은 부모의 날로부터 자녀의 날, 만물의 날, 하나님의 날을 7년 기간에 제정했어요. 1960년도를 중심으로 부모의 날을 책정했던 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장성기 완성급에서 7년간 올라가야 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를 중심삼아서 7년간 모든 가정들을 이끌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향했지만, 부모님의 가정은 이 가정을 이끌고 7년을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비공작을 했다고요. 자녀의 날을 만들고, 만물의 날을 만들고, 하나님의 날을 만들고, 그런 판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판도를 만든 가운데 1965년을 중심해 가지고 세계에 연결시키는 성지 택정을 했던 거예요. 땅의 기반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세계 사람을 규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안팎의 탕감조건을 짜 나오면서 이 7년간에 하나님의 날을 책정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아담 해와의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 날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을 가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원통한 날들이었습니다. 지상세계, 사탄세계에서 별의별 축하의 날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을 중심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탄을 중심삼은 축하의 날이었어요. 나라를 세운 건국의 날이라든가, 혹은 주권자의 생일 날, 그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자극할 수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의 날을 갖고 자녀의 날을 가졌으니, 부모와 자녀가 하나되어 가정적 기반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계적 판도를 연결시켜 가지고, 세계의 종족권을 확대시킨 그 기반 위에 하나님의 날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960년부터 선교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선교로부터 미국의 선교로... 이것은 구라과 선교 기반을 중심삼아서 조건적인 기반이지만, 이러한 기반내에 연결될 수 있는 세계적 판도를 짜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에 있어서 1960년도까지의 7년 기반에 있어서는, 그런 전체 앞에 추방된, 발 붙일 수 없는 환경을 뚫고 올라왔던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님이 비로소 착륙을 하여 부모님을 중심삼아 가지고 섭리의 방향을 가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의 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자녀의 날,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자녀의 판도가 땅에 생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주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딸 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사위시대 기반을 중심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할 수 있는 지상의 기지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날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책정함으로 말미암아 7수, 1968년 1월 1일을 중심삼아서... 이것은 뭐냐 하면, 장성기 완성급에서 7년 기간을 거쳐 가지고 간접주관권 내에서 직접주관권내로 들어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을 중심삼은 판도가 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관계된 모든 씨족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36가정으로부터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전부 다 이것이 씨족편성입니다. 430가정을 중심삼은 것은 4300년에 해당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430가정을 중심삼아 가지고는 모든 민족의 성씨는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길을 뚫으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세계로 웅비할 수 있는 하나의 섭리적 기반을 중심삼고, 세계를 향하여 진출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삼은 섭리권이 벌어져야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국가기준까지 사탄이 갖고 있지 세계기준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민족을 갈라 가지고 국가기준을 넘지 아니하고는 세계를 통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하나 만드는 그 기준을 놓고 국가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축복기반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라구요.

하나님의 날을 설정한 후의 복귀섭리

그래서 비로소 1968년을 중심삼고 하나님의 날 설정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배후에 하나님의 가정들이 연결될 수 있는 판도를 다 꾸며 놓았던 겁니다. 세계로 갈수 있는 판도를 연결시켜 놓고야 세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30가정 가운데 비로소 일본을 개재시킨 거예요. 구보끼 회장이 대표라구요. 세계적 시대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탕감적 조건을 세워 가지고 세계의 판도를 짜 나가는, 이런 승리의 발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8년 1월 1일은 통일교회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요, 구원섭리에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이 공히 기뻐할 수 있는 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내 날'을, 또 인간도 '우리의 때'를 주장할 수 있게 된, 역사시대에 처음 벌어지는 그런 날이예요. 그때, 1968년을 중심으로 전체 국가를 중심삼고 3년 반 동안, 3년노정을 중심삼아 가지고 대가정동원을 한 것입니다. 세계적 판도를 닦기 위한 탕감조건을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반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1973년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전부 다 그 판도를 꾸며 나갔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1976년을 중심삼고 세계적인 대격돌시대가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세계적인 대격돌시대인데

대한민국의 격돌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개재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을 중심삼은 아들과 양자가 개재할 수 있는 시대이지, 하나님이 개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재할 수 있는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을 설정한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싸우는 그때 그 싸움은 이미 하나님을 중심삼고, 아들의 자격과 종의 자격과 세계적인 자격을... 하나님의 복귀섭리에 있어서 수많은 종단을 중심삼고, 수많은 교파와 가지각색의 미신파들까지 모든 대표적인 파들은 전부 다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아마존강의 근원지에 도달해서 보면, 산의 골짜기마다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전부 다 흘러 가지고 지류와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체적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볼 때에도 통일교회가 서 있는 곳은 그 아마존강의 하구와 같기 때문에 그 위에는 수많은 종단들의 길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상섭리의 하나님의 대운동권으로서, 사탄세계의 대방어전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세계의 방어와 공산세계의 방어라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세계와 민주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말해도 백 퍼센트 믿어야 하는 것이 신앙

오늘 통일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1954년의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게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복귀섭리의 내용을 말하게 되면, 세계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전부다 이야기했다구요, 어느때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그거 누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나라는 한 사람을 중심삼고 세계를 요리해야 했습니다. '반대하는 기독교도 요리해야 되고, 반대하는 미국도 요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산당까지 요리해야 된다. 이것을 내 손으로 한다' 했는데 그거 누가 믿겠어요?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꿈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뜻은 레버런 문의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탄세계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 재창조의 섭리권을 사탄이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극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재창조의 판도권을 침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한 자리에는 반드시 사탄세계는... 기름을 떨어뜨리면 문이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이 그렇게 된다구요. 이게 우물쭈물해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했다가는 통일교회가 지탱해 나오지를 못해요. 알아야 돼요.

33년 전, 1954년도에 그렇게 극악하게 반대하고, 세계 전부가 소란을 벌이고, 이런 환경에서 '뭘야!' 이러면서 냅다 치는 것입니다. 냅다 치는 거라구요. 냅다 치면 이 대한민국을 넘어 가지고 미국 땅 끝까지 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이 이게 뭘야' 하면서 미국 행정부를 치게 되면 이 미국을 뚫고 나가서 우주까지 나간다, 이런 신념을 가졌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무겁다면 제일 무거운 분입니다. 무겁다면 제일 무거운 분인데, 그 무거운 분이 등에 타게 돼도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어야지, 무겁다고 생각하면 참소받는 것입니다. 이런 논법이 어디 있어요? '제일 무거운 분이기엔 죽고 못 갈 텐데' 하면서 무겁다고 하면 탕감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도 '무겁지 않아. 안 죽어, 안 죽는다'고 하면서 지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박사님들, 그런 것 다 모르지요? 선생님과 함께 천국 가려면 다 알고 가야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이 제일 세상에 무거운 분인데, 그 무거운 분이 어깨에 올라 타 가지고 가자고 할 때에 무겁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무겁지 않다고 해야 돼요. 사탄이 옆에서 '무거워 못 가, 못 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무거운 것을 지고 어떻게 가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까짓 게 암만 그래 봐라'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타협이 없어.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겁지 않다고 하면서 쓰러지지, 무겁다고 하며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이 조건을 못 건다 이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지 못할 것을 말해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도 백 퍼센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입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사탄까지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빙자하는 날에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은 전부 하나님의 뜻이니, 사탄의 간교함을 속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믿게 됐다' 하게 되면 사탄이는 90퍼센트 100퍼센트 못 올라갑니다. 100퍼센트 90퍼센트까지 후퇴해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갖고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몇십 배, 몇백배 축복해 주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잡히려면 모진 투쟁의 역사를 가려 가야

박보희 ! 「예」 그런 신앙관을 가졌어? 「예」 응? 「예」 뭐야, 뽀뽀스럽게? 언제나 일을 이렇게 하라고 해도 말이야, 자기 하는 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그렇다구요. 자기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알뜰히 하려고 하고, 선생님이 하는 것은 적당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영계에 가서 다 걸립니다. 똥바가지를 써서 벌여 놓은 것을 다 치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못 하는 날에는 억만 년 걸려도 '참부모의 이름이 원수구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사명을 '아니오' 할 것을 '예' 하게 된다면 걸리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이름이 원수다 이거예요. 제일 좋은 말이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한 지옥에 거꾸로 꽂는, 억천만세에 한을 남겨 놓을 수 있는 원한의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응,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예요. 입을 다물면 벌릴 자가 없어요. 손을 쥐면 펴자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펴요. 그런 결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

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세계를 33년 동안에, 4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을 중심삼고 재탕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회 패들이 말이에요,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을 누구 하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구요. 선생님이 60년도에 부모의 날이 설정될 때까지의 설교집을 전부 보라구요. 전부 다 예수님을 중심삼고 말했지, 선생님 중심삼고 말하지 않았다구요. 복귀노정에서는 예수님이 하지 못한 것을 해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그 사탄의 입회하에서 '내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으니 죽임을 당한 그 모든 한을... 네가 이제 후퇴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자식아 ! '그럴 때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입증을 세워 나가는 놀음을 예수님 대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잡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모진 투쟁의 역사를 가려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누가 아느냐 이거예요.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임자네들이 알아요? 임자네들 눈에는 배고프면 보이는 밥덩이가 하나님이지요? 거지같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신령한 사람들이 문선생에 대해서 '도대체 문선생님은 어떠한 사람이요?' 하고 기도하게 되면 통곡을 시키는 겁니다. 헛바닥이 뺏뺏해지고, 벨뿔지가 틀리고, 눈물 콧물 입술이 다 말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헛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하늘이 그만큼 통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통곡을 하더라도 선생님을 이해 못 합니다. 선생님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지상세계에서의 일이지만, 영계에 들어가 보면 영계는 전부다가인 패들이예요, 가인 패. 그러므로 아벨이 들어가 가지고 영계를 통일하지 않고서는 지상통일을 못 하는 것입니다. 윤박사 그런 것 알아요? 윤박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종의 종, 영적 세계에 종적인 가인 아벨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종의 종에서부터 종으로, 양자로, 서자로, 쭈욱 복귀노정을 거쳐야 됩니다. 영계의 부모님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대로 문 아무개를 참부모라고 불러서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석가모니가 내 말을 듣고, 예수가 내 말을 듣고, 공자가 내 말을 듣는 다고 하면 '에이, 그 문 아무개 미친 녀석 ! '그럴지 모

립니다. 이놈의 자식들 ! 나는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봤느냐 이겁니다. 이놈의 자식들, 보았어? (웃음)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이거 알아? 알지도 못하고 입을 벌려 가지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들이 망하겠나, 내가 망하겠나? 저기 이박사, 생각해 봐요. 알고 실천해 가지고 승리한 기반이 깨져 나가겠어요, 모르고 반대한 기반이 깨져 나가겠어요? 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계를 통일하는 권한을 가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세워 가지고 전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계에서 종의 종, 종의 대표다, 종 종의 왕자다, 양자 종의 왕자다, 서자 종의 왕자다, 직계 아들 종의 왕자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복귀하는 것입니다. 영계에 있어서의 탕감복귀 발전을 해야 된다고요. 종적인 가인 아벨을 중심삼아 가지고 나중에는 뭐냐 하면 하늘나라의 총리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예수보다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축복하듯, 그런 전수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관권을 전도시킨다는 것은 영계도 지상세계도 미쳐질 수 있는 주관권을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뭐 문선생은 세례 요한이고, 자기가 주님 해먹겠다고 하는 별의별 백정 간나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웃음)

재림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공인을 받고 나와야

백정도 백정다운 패면... 이건 뭐야? 사기 중에 그런 왕 사기가 없대요. 하늘나라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문선생은 세례 요한이고, 내가 문선생 대신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니 나를 모셔라' 이려고 있어요. 이 미친 것들, 통일교회 패들, 이 떼거리들, 이놈의 자식들! (웃음) 내가 그런 것 가르쳐 줬어? 자리를 못 찾고 왔다갔다하며 똥내를 피우고 다니는 쌍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웃고 있어요. 해먹어 봐! 재림주님 해먹기가 쉬운 줄 알아? 해먹어 보라는 것입니다. (웃음) 나에게 누가 '재림주님이 거느리는 저 말단

노동자가 될 거야, 탕감복귀의 노정을 가려 가는 재림주 해먹을 거야?' 하고 물으면 '나는 저 말단의 재림주 통치시대의 노동자가 되지, 재림주는 싫다'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말이 쉽지, 쉬운 일이에요? (웃음)

똥을 싸더라도 피똥을 싸요, 피똥을. 피똥을 몇 바가지 싸는데도 해결 안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달꾼들이 와 가지고 제치고 해먹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해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나요? 천만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인을 받아야 돼요.

공인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상세계에 대혼란이 벌어져 40일간 뒤님이치다가 다 때려부수고, 승리의 패권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버런 문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정날 때까지는 혼란입니다. 서로가 제일이라며, 예수도 '문 아무개 네가무어냐'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까지도 '네가 무어냐'고 전부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이 옳은 것인지,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몰라요. 거기에는 '내가 이단자'라며 하나님이 몰아 치시는 거예요. 그걸 꺾어 가지고 하나님의 어인(御印)을 받아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최고의 자리로부터 저 말단 종의 자리까지 통한 그 인연을 거친 그 자리에서 왕권의 전수식을 받고 나오지 않으면 지상통합운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건달꾼들이 요즘에도 '문선생 망한다, 망한다' 하는데 문선생 망했어요? '통일교회 망한다, 망한다', '문선생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는데 문선생 실패했어요? 통일산업을 만들었다고 '아이구, 종교단체가 기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뭘해? 돈 벌려고 하니 망한다 망한다. 실패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예요? 대한민국에서 그거 안 했으면 큰일났을 겁니다. 이 나라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선민의 조국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국의 권위를 세워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권위의 배경을 누가 창건하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 대우가 자동차 만들며 큰소리치지만, 통일산업 없으면 따라지가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망신 바가지 쓰는 거예요. 왜? 외국에 로얄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왕 노릇 하며 천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통일산업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대를 못 하는 거예요. '집어치워라, 너희들 생산 라인 우리가 전부 자작한다' 이거예요. 그런 기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것은 싸고 좋으니까... 그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통일산업이 전부 다 웅가당, 발길로 차면 곤란할 것입니다. 대우도 웅가당 되고, 전부 다 야단이 벌어질 거라구요.

그 척추 산업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통일교회 문선생입니다. 내 나라는 5천 년 이어 나온 전통만을 이어받은 내 나라가 아니예요. 섭리적 새로운 전통을 세워야 할 내 나라를 위해서 피와 살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30년까지 가야 돼요. 30년을 넘게 되니까, 작년부터 적자를 면하고 흑자가 벌어진 거예요. 금년 3월에 판결 나기까지 34년 걸렸습니다. 티타늄 공장도 뭐 어떻고 어떻게 별의별 소리를 했지만, 요즈음에 와서는 너무 이익이 나서 큰일났어요. 그 돈으로 거지들을 전부 모아서 집들 지어주면 좋겠구만... 그것 다 실패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자가 나와서 오늘 이런 이야기 합니까, 성공자가 나와서 이야기 합니까? 「성공자요」 실패자요? 「성공자입니다」 그래 사나이로 말하자면 지독한 사나이예요. 역사 이래에... 지금에 와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남자로 태어난 레버런 문은 역사 이래에 지독한 사나이예요. 지독하다면 지독한 사나이라고요. 끈질기다면 누구보다도 끈질긴 사나이입니다. 신경질로 말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신경질로, 폭탄의 뇌관과 같은 그런 신경질을 가진 레버런 문이 이렇게 40년 동안 숯검정이 되도록 참았습니다. 그 얼마나 분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펄펄 불이 붙어서, 풍로로 그저 몇천도 불어대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 있더라도 모르는 척 하는 그런 놀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문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요?' 하고 물으면 그를 울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어도 네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 레버런 문이다. 그렇게 울고불고해도 그가 걸 어간 길을 네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 레버런 문이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레버런 문이 지독한 사람이지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럴까, 악착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악착같다는 말은 끝나나 있지만, 이 복귀노정의 '악착같이'는 수천 년이 물고 돌아가는 것입니

다. 일생이 아니에요. 수천 년을 물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천 년을 전부 물고 도는데, 그 끝이 말릴 때 남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아는 레버런 문의 생애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편네가 눈에 보이겠어요? 자식이 보이겠어요? 부모가 보이겠어요? 보라구요. 세계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의 해방문제가 왔다갔다 하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응, 무엇이 보이겠느냐구요. 오로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슨 모험이라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포탄과 같이 들이 쏘는 거예요.

망해 들어가는 소련과 미국

자, 34년 전인 1954년에 이 뜻을 세울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길을 걸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뒷골목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으스스한 골목만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사람을 안 만나야지요. 그때 대구에서는 한달 동안에 열 세 번씩이나 이사를 했다고요. 거기 가서 골목마다 내가 나타나면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성교회 사람이 사진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얼굴만 보이면 '문 아무개 나타났다'고 야단이었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다' 하게 되면 그 동네의 교회 가까운 곳에 집이 있을 거라고, 그 교회에서 매일같이 나발을 불어요. '이단 괴수 아무개 추방하라'하고 야단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으르렁거리며 추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낮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반대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공산당 몰아내라', '하늘의 배반자를 몰아내라' 그럴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요.

요즈음에 대학가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통일교회 몰아내라' 그럴 때 몰려서 쫓겨나면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니까 넘어가지...

두 시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역사를 다 이야기 못하겠구만. 그래 요즈음에는 범일동을 성지라고 해서 미국 목사 200여명이 와 가지고 눈물의 바위에서... 그게 눈물의 바위는 눈물의 바위입니다.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서... 복귀섭리의 뜻이 한국에 있는 것만이

아니예요. 한국은 이미 내가 문제시하지 않아도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국은 내 말 안 들으면 망해요. 여기 위정자들 귀가 아프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두고 보라구요. 내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단언을 내려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 33년, 34년 이때가 옴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찾아 정리를 해야 할 시대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민 교육을 목표로 해가지고 출발해야 할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3월 30일까지 모든것을 끝내서 5월을 중심삼고 결정적인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걸 반대하게 되면 미국을 들어서 공격하게 할 것입니다. 국민연합을 한국에서 전부 다 반대하면 아시아국민연합을 만들 것이고, 세계국민연합을 만들 것이다 이겁니다. 섭리의 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반대 하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받던 레버런 문 혼자 세상에서 불쌍히 몰렸지만, 그 사탄마귀가 몇 백만 년 쌓아 올린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뚫고, 오늘날 이세계에 있어서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이 40년을 하나님은 뭘했느냐? 그렇게 강하던 미국이, 내가 1965년도에 미국에 가 보니까 손톱이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전부가 그때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당당한 때입니다. 복귀섭리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푸... '이놈의 나라 얼마나 가나 보자' 이걸 내가 일어서서 때려부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소련 공산당 스탈린의 확장정책을 중심삼아 가지고 50년대 발전해 온 그런 환경을 보고, 저놈의 소련을 전부 약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내가 기반이 없으니, 기반이 없는 반면 하늘이 때려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을 때려서 허물어 치우고, 소련을 때가 오면 허물어 치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 창립 30세를 넘어서면서 소련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세계의 멸망은 미국에 간 날부터 선포한 것이고.

안 내려가면 복귀섭리의 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소련을 수습할 자가 없어요. 소련이 제 아무리 공산당 이론을 중심삼고 세계제패를 꿈꾸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중심으로 부르조아세계를

소화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전부 다 망상이고 망동이며 망언입니다. 그건 이미 실패되어 공나발로 지나가는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소련 내의 세계를 주도하는 소련 공산당을 놓고 볼 때, 공산당 최고 간부들은 공산당원이 아닙니다. 공산당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그들이 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쵸프가 지금 서구사회에 대한 개방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중공은 정치체제의 변질을 들고 나오는 시대에 들어 왔다구요.

자, 이렇게 공산세계를 실험 필하고, 민주세계도 미국식 민주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민국에 들락날락하면서 이루어 놓은 민주주의가 뭐예요? 망할 주의예요, 망할주의! 미국이 민주주의 해서 공화당 민주당이 지금까지 무얼 했어요? 40년 동안 미국을 망친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국가 체제에 있었으나 지금은 똥개가 되었다구요, 똥개. 그래서 미국 사람은 전부 다 냄새가 난다고 오지 말라고 '양키 고 홈(Yankee, go home; 양키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때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자민당이예요-을 움직일 수 있는 있는 기반을 뒤편고,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뒤편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누구도 우리의 진군 대열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CIA면 CIA, FBI면 FBI가 원조해야지... 막기만 해봐라 이거예요, 누가 깨지나. 옥살박살이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빠른 데 있어서 전부... 북미가 망할 것이고, 남미로 기리까에 (きりかえ;바꿈)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백인들은 쫓딱 망할 거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교회가 하는 일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한 것

구교는 빛이나 하면, 구교는 라틴문명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는 앵글로색슨족이예요. 이들이 싸워 가지고 신교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틴 민족을 중심삼은 구교가 책임을 못 함으로 전부 다 옮겨졌거든요. 지금 남미의 싸움이 뭐냐 하면 앵글로색슨 민족 대 라틴 민족의 대결입니다. 이걸 섭리상으로 볼 때, 아벨권 신교 국가인 미국 앞에 라틴 국가

인 구교는 지배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한계선 시대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대로 뒤집어 박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울라(AULA;중남미 통합기구) 를 창설해 가지고 미국 전체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놀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탕감복귀원칙에 의해서 하나의 세계적 판도를 맞추어 이를 때에, 그 세계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기반을 닦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쿠스(ICUS;국제과학통일회의)를 창설한 거예요.

다방면의 모든 분야, 즉 과학기술의 최고 첨단을 점유하고, 언론계에 있어서 왕자의 자리 참여문제, 금융계 등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금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한 세계의 모든 난문제를 놓고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제시한 그것이 이제 세계적 사건으로 높은 산맥이 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런 문은, 여기 서 있는 오늘의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는 세계 만민의 생각 가운데 주인공으로 점유해 들어가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또 역사 이래에 종교의 간판을 내걸고 단시 일 내에 이런 세계적인 판도를 닦아 가지고 선진국가 앞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에, '이분은 살아 있는 성인이다'하는 명사를 붙여도 부끄럽지 않을 내용이라고 학자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전엔 독일의 구교를 대표한 잡지에 신학자가 썼는데 말이예요, '레버런 문은 살아 있는 성인이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럴 만하지요? 이항녕박사, 그거 인정해요? 「예」 그거 그럴 만하다구요. 예수가 뭘했어요? 공자가 뭘했어요? 레버런 문이 아니면 세계가 살 수 없다고, 레버런 문을 따라가야 다 산다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구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메시아시대가 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녀석들이, 당대에, 몇십 년 전에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사명을 했어요, 못 했어요? 역사적이예요, 그게 뭐예요? 찬양할 만한가요, 안 한가요? 「합시다」 노벨상 같은 것을 나한테 가져오면 차 버린다구요, 원발로. (발로 차심. 웃음) 틀림없이 나한테 노벨상 주겠다고 찾아와 방문할 겁니다. 그러나 노벨상 협회를 내가 상주어야 될 거예요. (웃음. 박수) 나는 상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름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가요. 여기 통일교회의 모든 책임자들은 말이에요, 내가 창시자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창시자는 잘난 사람이 안 합니다. 창시자는 그 시대에서 못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그렇다구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제안을 그 시대에 똑똑한 학자나 박사님들이 하겠어요? 못난 사람인 통일교회 문 아무개 같은 사람이나 하지요.

그러나 나 못나지 않았대구요. 못나지 않고 어떻게 이 노릇을 하느냐?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 계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냅다 갈기면, 갈기는데 이걸 안 받으면 그 뒤에는 태산이 쌓여 올라오는 것입니다. 벽돌담이... 그래서 무니들이 들어갔다 하면 사탄세계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문만 잠그면 못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갈 때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가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졌습니다. 통일교회에도 가짜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대구요. 이제 한번 문을 닫을 때가 올 겁니다.

꿈같은 사나이가 33년 전에 나타나서 꿈같은 이야기를 하던 것이 꿈같이 흘러가 버릴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버런 문이라는 사나이가 오늘날 실용주의를 논하는 미국 사회에서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공산주의의 크레믈린 궁전 내부에서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유명해졌다 이겁니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났습니다」 잘났더라면 그렇게 못 하는 것입니다. 못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웃음) 정말입니다.

아들딸의 심정의 교류가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에 인연이 됐다.

나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제발 내 말들으면 네가 잘살고 잘먹고 그럴 텐데 왜 그러냐'는 것입

니다. 내가 너를 잘못 낳아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머리가 나쁘니, 뭐 건강이 부족하니, 얼굴이 못생겼니? 남자로서 그만하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텐데, 이거 잘났는데 잘난 녀석이 왜 이 놀음을 해? 내 말만 들으면 더 잘날 수 있는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어머니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응? 어머니 말씀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구요. 효자된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말입니다. 어머니가 책망하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경계예요. 김경계라는 여인의 아들이 여기 있지만, 당신의 아들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피와 살과, 내 세포는 미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찬양할 수 있는 세포로 등장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품고 사랑하지 않을수 없는 왕자의 권한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왜 요사스럽게 그러느냐 이겁니다. 들이 까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영감도 아니고, 자기 시아버지도 아니고 나예요, 나.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서는 말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불효지요. 세상으로 보면 불효요? 그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라면서도 그랬다구요. 동네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선포하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 떡을 잘하지요? 궁금하면 떡을 합니다. 그것도 먹을 것이 있어야 떡을 하지, 떡이나 해먹어요? 죽도 못 쑤어 먹는 판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떡만 하는 날에는 '3분의 1은 나눠요'하는 거예요. 미리 어머니에게 '떡 하는 날에는 절반 이상 없어질 줄 알아요' 하고 통고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갖다 숨겨 놓든지 들추어 가지고 절반 이상 내가 먹을 거예요'그러면 '어떻게 먹을 거야?'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든 나쁜 일은 하지 않을 테니 설명 그만두라구요'하면서 가지고 나옵니다. 시골 가게 되면 등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떡을 갖다 놓으면 고양이와 올라가 전부 먹으니까, 겨울 같은 때는 시루 떡을 갖다가 거기에 척 채워놓고 주위에 있는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전부 나누어 줍니다. 그런 놀음을 했다구요.

누가 못살아 밥을 굶는다면 못 견뎌니다. 뭐 생겨나기를 그렇게 생겨났으니 할 수 없어요. 어디서 밥을 못 먹었다면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웃동네에 그런 소문만 돌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는 거

예요.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든지, 쇠로 잠근 곳간을 열고라도 전부 다 밤에 날라다 주는 겁니다. 이미 통고한 겁니다. '쌀이 없어졌거든 내가 가져간 줄 아세요' 이미 통고한 거예요. 뭐 이려고저려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 망나니 같은 자식, 이 망할 자식' 그러지 말고, '쌀이 없어졌으면 내가 알아서 했느니까... 나쁜 일은 하지 않소' 하고 통고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예요. 우리 집이 그때 못살지는 않았어요. 양봉을 하는데, 수백 통의 양봉을 했습니다. 양봉하게 되면 그 속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원판대기, 초로서 해 가지고 원판대기를 딱 박아 놓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 벌들이 전부 다 밀을 물어다가 등지를 틀어 가지고 꿀 저장할 곳을 만듭니다. 집은 자기가 만든다구요. 원판, 딱 판을 대 가지고 그걸 만드는 그게 비싼 거예요. 그것을 캐비닛 같은 데에 쌓아 놓으면 찾아가서 문을 열어 가지고 웅가당탱가당 전부 다 (손벽을 치심) 짓이깁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 기름이 없어서 불을 못 켜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 집에 초를 놔두고 있으니 촛불이라도 켜게 해야지, 석유는 못 주더라도... 그래 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다 짓이겨 가지고 일일이 배급을 주는 겁니다, 배급을. 그러니 그때 당시에 돈으로 얼마 하는지 그때는 내가 철부지였는데 알아요? 아, 그래서 결국 아버지한테 혼쫓이 났지. (웃음) 혼쫓이 났지마는, 절대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몇 번 당해 봤는데, 결국 끝장을 안 보고, 중간쯤 가다가 끝장날 것이 뻔하거든, 내가 그것을 다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구요.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전부 따지자면, 집을 팔아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들고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아버지 말하는데 대답도 안 하고 그게 뭐야!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래 때려라 이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겁니다. (웃음) '쳐라! 쳐라!' 아프다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시간 이상 들이맞았습니다. 들이맞다 보니 기절을 해서 그자리에서 쓰러졌다 이겁니다. 이게 아들이 벌떡 나가자빠졌는데, 이거

큰 상처 생기게 됐으니, 아버지 어머니 체면이 어디 있어요. '아이구! 큰일 났구나' 야단이 났던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몇 시간만에 깨어났는데, 어머니 하고 아버지가 앉아서 울고 있다가 '너 살았구나' (웃음) 그러던 얼굴이 눈앞에 선합니다.

옳은 데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서도 절대 누가 못 꺾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어머니도 그래야 할 텐데, 어머니는 그만한 배짱이 없다구요. 그래 내가 죽고 악마들이 대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이 많대구요.

자, 그러한 소질을 타고났기에, 그 소질을 따라서 하늘이 나를 이용한 거지요. (웃음) 하나님이 이용한 겁니다. 세계의 인류가 40억, 그때는 20억 정도 인데 그때에 아무리 눈을 밝히고 봐도 복귀섭리의 탕감노정을 위해 씨먹을 자는 통일교회 문 아무개밖에 없거든요. 문 아무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잘 이용한 거예요. (웃음) 이렇게 이용당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일을 해 주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레버런 문의 일을 해준 결과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하냐, 레버런 문이 성공했다고 하냐요? 답변해요. 레버런 문이 성공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성공했다고들 해요? 「레버런 문이요」

레버런 문이 성공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섭섭하겠지요? (웃음) 응, 안그래요? 섭섭하실 테니 내가 가라사대 '제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했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야, 야! 내가 성공한게 뭐야, 네가 성공했지'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 주고받는 아들딸의 심정의 교류가 비로소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인연이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종단이 된 통일교회

자, 그래서 33년 전에, 해방후 14년이 되나요? 1945년이니까, 10년이구만. 1945년부터 10년, 10년의 세월을 중심삼아 가지고 그 기반을 닦는

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나장로 기도원에 갔다가 쫓겨나 가지고... 그러다가 올라와 가지고 협회를 창립했던 거예요. 내가 교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시다. 이름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고 했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은 거라구요. 교파를 초월한 초교파적인 면에서 운동을 하려는데,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통일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나장로가 낫나, 박장로가 낫나, 신령한 사람들 누가 낫나 봐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단으로 취급하던 모든 사람들이 꺼져 갔습니다. 그 때에 진단이라며, 자기들이 참단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다 꺼져 갔지만, 이단으로 취급받던 통일교회는 이제 세계적인 종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초종파적인 입장에서 통일교회를 연구하고, 수많은 종단들이 통일교회 레버런 문의 지시에 따라 자기 종단의 고개를 넘어서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판도를 꾸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레버런 문의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어제도 살아 있고 오늘도 살아 있고, 그럼 내일은? 「살아 있습니다」 내일은 잠자겠지. (웃음) 영계는 잠이 없어요, 24시간. 어제도 살아 계셨고, 오늘도 살아 계시고, 내일은 어때요? 「살아 계실 겁니다」

여기 오야마다, 오야마다! 「예」 왔구만, 일본에 있는 책임자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장부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책임을 자기 몸뚱이와 팔을 잘라서라도 감당하겠다고 믿고 나아가는 데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금방 누가 아멘 했어요? (웃음) 김박사가 했어요? 누군가 구석에서 아멘 했는데, 김 박사예요? 「아닙니다」 김박사가 했어야 감리교 간판이 사는 거예요. (웃음)

이제는 내가 일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도 말이예요,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만나겠소'할 때, '아니야,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니야. 조금 있다가 만나자'하면 '예, 그렇습니까?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욕을 못 합니다.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욕을 해왔으니까... (웃음) 욕을 할 처지가 안 된다 이 말입니

다. 안 만나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아무개가 만나자고할 때, 그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일 때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만나자고 사정해도 안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을 못 합니다.

미국의 언론계라든가, 세계의 언론계도 그렇습니다. 요전에 로스엔젤레스 타임즈가 워싱턴 타임즈의 특집 기사를 냈는데 말이예요, 그러기 위해서 편집국장인 데 보그라브를 만나고, 박보희를 만나 보고 했는데 그 괴수가, 그뿌리가 레버런 문이거든요. 그래, 레버런 문을 얼마나 만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150여 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 보고 취재했지만, 통일교회의 문선생, '레버런 문 취재합시다'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왜? 이놈의 자식들! 언젠가는 반대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만나자구,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의 장단에 춤추는 내가 아니야... 그런 전통이 이미 다 섰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만나게 돼 있지, 너희들이 부르는 데 내가 보따리 싸 가지고 왔다갔다 안 한다 이겁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말해도 그렇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레버런 문 만나겠소' 해도 '아니야, 내가 만나고 싶을 때에 만나' 그러지,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며 '아이구, 좋다' 안 합니다. 또,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지요. 내가 필요할 때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잘났다는 교수님들을 전부 다... 이제는 일하기 좋을 때가 왔다고요.

그렇게 30년 세월, 30년이라도 일생 가운데 잠깐입니다. 10년 세월 잠깐이라구요. 그렇게 욕을 먹던 레버런 문이... 1950년대, 1952년인가 한참 사건이 났을 때, 시경에서 우리를 조사하던 녀석이 하는 말이 '한경직 목사가 한국의 제일이니, 당신이 그 교회로 합해 버리면, 통일교회가 그 교회를 믿으면 좋을 텐데, 당신 혼자서 그래 봐야 누가 알아주느냐고 침을 흘리면서 말을 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무시를 당해도 그런 무시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경에 갔는데 보니까 그 자식이예요. '어휴, 유명해졌구만. 옛날에 내가 조사할 피의자로서 취급받던 사람이 유명해졌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대답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했다구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반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 치안국장이라는 녀석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어땠고 어땠고... '이 자식, 네가 죽거든 너의 아들 딸을 불러서 무덤을 파 버릴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뭐 어땠고 어땠고...

새로운 민족적 전통을 확정짓는 사명을 해야 할 우리들

그런 지난날의 사연이 많습니다. 알겠어요? 분하고 억울한 사연이 많아요. 내 성격에 참을 수 없었던 기가 막히는 사연이 많았지만, 혀를 깨물고 가인의 세계를 점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개인이 아니요, 가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가인의 세계를 소화해야만 됐습니다. 씨! 얼마나 쓰냐 이거예요. 빙산만한 쓴 것을 녹여야 돼요, 입에 넣고. 하나님을 망하게 하고 인류를 망친 억천만세 원한의 대 원수인 악마, 이 악마를 말없이 굴복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 40년인 1985년도까지는 내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서부터인가? 1983년인가? 1983년을 중심삼고 비로소 공격 명령을 내리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이지요. 1985년을 중심삼고, 이제는 통일교회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공산당도 이제는 전부 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전이 아니라 공격전이에요. 그때부터 공격전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 개인적 공격시대, 가정적 공격시대, 민족적 공격시대, 그다음에는 교파적 공격시대로... 이제는 세계 민족편성을 위한 교단적 공격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전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잡아 와서는 목사들을 굴복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뭔지 알아요? 미국의 대통령을 끌어 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데려다가 눈물의 바위에서 통곡을 하게끔 해 가지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치나이다'하고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가인 아벨...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같이 반대하는 기성교회를 내가 잃어버린 탕자와 같이 취급하면서 지금까지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면 반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통일교회 패들은 전부 다 직계의 자녀의 자리를 주고, 원수의 자식들인 목사들을 모아다가 닭 잡아 먹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리밥도 안 먹여 주더니, 왜 저들은 닭 잡아 먹이느냐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전부 찾아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변연히 알고, 기성교회 자신들이 취해야 할 금후의 하늘에 대한 태도, 세계를 대한 태도, 통일교회를 대한 아벨권의 태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비로소 갈 길을 가려 갈 수 있는 세계, 가나안복귀노정이 벌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초민족적이에요. 오색인종이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여서 하늘 본국을 향해서 광야...

이 40년 기간이 얼마나 혼란시대예요, 세계가? 사방에서 태풍이 부는 광야시대로, 인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보호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는 대로 들이맞는 거예요. 뽀뽀 전부 들이맞는 거예요. 지어진 모든 건물, 모든 거처가 전부 다 바람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풍비박산이 될 수 있는 환경의 대변천시대를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3일 성별기간을 통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돌로 성전건립을 준비할 수 있는 3일 기간을 거쳐 가지고 상륙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가운데 새로운 준비를 해 가지고 천국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나안 천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는 가나안 복귀 40년노정을 거쳐와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륙, 즉 만주별판, 이것이 한국민족에게 있어서는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마찬가지로인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방황하던 40년의 그런 생활습관을 가지고서는 안 되

는 겁니다. 또, 애급에서 살던 풍습과 습관을 가져서는 안되는 거예요. 새로운 건국, 창건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전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전통을 확정지어야 할 사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올 줄 알아야

그러한 때가 오니 3년간을 준비해 가지고 1987년 오늘, 남북통일국민운동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통합운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가지고 이후에 국가의 줄거리를 세워서 모든 전통적인 사상을... 애국사상이 있어야 건국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건국사상이 있어 가지고 하늘나라를 새로이 건국하는 놀음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오게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도 1년 동안 선생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불이야, 물이야, 닭아라, 볍아라!' 해 가지고 이·통 지부장까지 전부 다 편성했다구요. 협회장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상으로 통일교회 사람들은 총동원해야 되고, 그때 선생님의 바쁜 마음 이상 여기 책임자는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다 허깨비들이예요! 다 허깨비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라구요. 축복받은 2세대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부모들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왜 망했느냐? 그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수세계 담너머에 있는 난가리가 부러웠고, 그 쌀독의 쌀이 부러웠고, 그 집에 저장된 돈이 부러웠다 이겁니다. 주인으로 왔다, 이놈의 자식들아! 그러다가 가나안 복귀를 못 하고 망했어요. 건국을 하지 못하고 망국지민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박보희가 있지만, 내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40일 동안 이 녀석을 들이친 것입니다. 이스트 가든 선생님이 있는 데를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식당이 있는데, 불과 5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면서 이러

면서(표정을 지으심) 눈을 껌벅껌벅... 그거 생각나?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휴, 통일교회의 제일 비천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자리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박보희, 이놈의 자식,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에 와서 자꾸 올라가겠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이놈의 자식아! (웃음)

어디 나서서 이야기하라면 좋아하고... 선생님은 안 나서요. 선생님은 될 수 있는 한 안 나서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너무 유명해서 큰일났다고요. 이 유명한 보파리를 팔아먹을 수는 없고, 통일교회 교인한테 쥐야 할텐데 주자니 받을 녀석들이 없다는 겁니다. 팔아먹어서는 안 되겠으니 할 수 없이 몇몇 탕감적인 인물을 세워 가지고 박보희나 광정환이를 유명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올라가서는 전부 다 선생님 등을 타고 큰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컸다고 춤춘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때에 선생님이 '아이고 변소에 가야겠다' 하면 폭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웃음) 변소가 제일 나쁜 곳 아니예요? 거기 따라가겠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이고 나 내려간다' 이래 가지고... 더 올라가려다가는 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한 것입니다.

그때 혼났지? 「예?」 혼났어, 그때? 「예, 혼났습니다」 덴버리 갔을때도 죽을 뻔했지, 죽지 않았다고. 이놈의 자식!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웃음) 이제는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올 줄도 알아도 됩니다. 선생님도 그런 거라고요. 덴버리에 처해 가지고는 어디로 가느냐? 나발불며 일선에 나서는 겁니다. 해방 직후에 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천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자신과 하나님의 위신을 생각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 환영하는 목사들, 미국의 저명한 지도층을 중심삼고 깔아뭉개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는 똥개새끼 마냥 제일 아래, 밑창에서부터 전부 다 엮어 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려갔다기 기반 닦으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작년 1년 동안에 선생님이 많이 유명해졌지요? 「예」 옛날에는 '문 아무개 그놈의 자식'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저 국민의 모듬매를 맞아야 돼요. 별의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

문 아무개가 그다음엔 문선생이 됐다고요. 요즘에 문선생이 '선생 선생'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 듣기 싫어하니까, 문총재, 문총재가 됐습니다. 이 총재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될지 알아요? 뭐가 되겠어요? 「아버님」 아버지 돼서 뭘하노? (웃으심)

세계 왕들을 데려다가 내가 교육하는 대장이 될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왕 말이 났으니... 우리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대회를 끝낸 후의 일입니다. 그때 거기 5대 신문사인가, 6대 신문사인가? 국장들 전부 다 불러다가 이스트 가든에 모아 놓고, 내가 세 시간을 들이겠다고요. 듣기 싫은 소리만 했어요. 그때 그들은 전부 다 잘났다고 하는 께들 아니예요? 편집국장들이니까...

그때 내가 닉슨 대통령을 교육하려 했는데, 말 안 들어 가지고 망했다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나한테 교육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번 했더니, 이 줄개들이 왕왕 거리는 거예요. 문 아무개 뭐 어땡고 어때? (웃음) 똥개식으로 잘 짓더니 다 꺼져 가더라고요. 다 꺼져 가더라 이겁니다. 나만 남았어요, 나만.

요즘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안기부에서 왔으면 기분 좋지 않을 거라고요. 짓으러 왔지, 왕왕왕왕... 짓어 보라구. 잘 짓어야지, 주인 오는데 도둑놈인 줄 알고 짓었다가는 전부 매맞아 죽어. (웃음)

통일교회와 하나되게 되어 있는 제3세계권

아이구, 이거 두 시간이 지났구만. 우리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보따리를 정리해야 되겠구만. (웃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는 힘이 세다구요. 요즘은 내가 찢찢매는 걸 뉘. (웃음) 지금까지는, 남자에게 여자들이 찢찢맷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탕감복귀 원칙에 있어서 남자가 세계적인 대표로 찢찢매 줄 수 있는 여성을 이 땅 위에 남기지 않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웃음. 박수) 엄마 기분 좋지? (웃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웃음)

자, 그래서 33년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34세 때에 통일교회를 만든 것이 33년을 지내 놓고 보니, 67세가 되고 보니 통일교회 창시 당시 무명

이었던 한 청년이 세계적이 유명한 걸작품이 되었다 이겁니다. 거인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레버런 문에 대해서 자이언트(giant), 거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워싱턴 같은 데에서 '자이언트' 하게 되면, 그것은 레버런 문이라고 자기들 말 가운데서 그런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이언트' 하게 되면 벌써 이 레버런 문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신세를 지고 있는 한국 사람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거인보다 큰 것이 무엇이에요? 거인보다 큰 게 뭐냐구요. 거왕밖에 안 남았다구요, 거왕. (웃음) 거인보다 큰 게 거왕이지. 거왕이라는 술어는 지상에 없지만 레버런 문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거왕 출마를 위해서... (웃음) 사실이라고요. 내가 누구 말듣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가르칩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요? 내가 그들을 지도하게 돼 있지. (웃음) 안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런 문 사상은 이제 세계적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좌우가 다 기진맥진했지마는, 머리가 옳고 척추 신경이 옳바르게 될 때에는 정상적인 힘과 방향만 제시해 놓으면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는 선생님이 새로운 말인 두익(頭翼)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익, 헤드 윙(head wing; 두익)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중심삼고 생각해 보면 알아요. 좌익, 우익이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세계적인 국가기준에서 세계적인 분립역사를 하려고... 거기서부터 좌익과 우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좌익 우익이 거기서부터... 이것이 세계적으로 열매 맺혔다 이겁니다. 반드시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주님이 옵니다. 주님이 와 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예수가 죽어 갔으니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천상천하에 모든 소원성취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세계권이 지금 전부 다 바라바(빌라도 법정에서 살아난 자)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들 제3세계권이 전부 다 통일교회 문선생이 쌓아 놓은 혜택을 그냥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산세계가 반대하면 반대할 수록 제3세계권은 레버런 문하고 푹푹 뭉치게 돼 있다

구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는 말이예요, '아이구! 흑인가의 왕초가 레버런 문이요, 서반어계 왕초가 레버런 문이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로부터 실제 예물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내가 원치 않은 예물이다'하게 되면, 그것을 불 땔 수도 없고, 불도 못 때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 줄까요? 「예」 상을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창고에 들이쌓을 거라구요.

이제 부락마다 상을 주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군마다 상을 주려고 할 것이고, 편마다 상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마다 상을 주려고 할 것이고, 나라마다 상을 주려고 할 것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쌓을 데가 있어요? 박물관을 지으려면 한국보다 더 큰 박물관을 지어야 할 텐데. 이제 그럴 때가...: 그런 거예요. 상이란 상은 다 레버런 문에게 주고 싶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구요. 그건 단 하나 레버런 문이예요. 믿어져요? (웃음) 응, 믿어져요? 「예」 내 한 몸, 나 자신도 못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지 못하는 말도 믿으니, 믿을 수 있는 말은? 「.....」 믿을 수 있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구요. 「더욱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물어 볼 것도 없다구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공산권 해방

자,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뭘할 거예요? 남북통일을 해 가지고 내가 대통령 해먹을 것 같아요? 내가 남북한 대통령 해먹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해먹겠느냐 말이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내가 가르쳐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놀음을 할 것입니다. '야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웃음) 그때 가서는 '야, 이 녀석아!' 해도 통한다구요. 그때 가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닙니다. (웃음)

'아이고, 문선생이 뭘 해먹겠다고 생각하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만들어 가지고 뭘하려고?' 그따위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거 얼마나 복잡해요? 똥 묻은 김일성이하고 싸워야 할 테니

말이에요. 나는 그 놀음 안 한다 이겁니다. 그 놀음은 여기 대통령이 하고, 나는 만주 벌판에 들어가서 중공을 거느려 가지고 소련하고 싸워서 소련을 요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연해주로부터 요동 반도까지 전부 다 우리 한국 땅 아니예요? 조국광복 해야지요? 「예」 복귀 하려는 한국 땅이 어디까지예요? 삼천리반도 두만강, 압록강까지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고, 레버런 문이 중공에 야심을 가지고 접근하네'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밤이 아닌 낮이에요. 다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구요. 그러면서 뭘하느냐 하면 일본을... 췌 찬다는 말을 뭐라고 하나요? 일본을 거머쥐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미국을 거머쥐어야 됩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머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일등 부자들입니다. 하나는 서양에서 일등부자이고, 또 하나는 동양에서 일등 부자입니다. 그들은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태평양 바다에 쓰려고 해도 쓸 데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쓸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뒤통무니 따라가니까. 그러니 쓸 데라고는 지금 중공하고 시베리아밖에 없습니다. 시베리아에 투자하자...

그 투자 건설은 누가 해주느냐? 레버런 문이 과학기술을 갖다 투자해서 만들자 이겁니다. 그 대신 만들어 주는 데에는, 개발하는 모든 요소에 한국 사람, 중공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3국 사람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들이 송나라 시대의 연해주, 그 막대한 땅을 전부 다 점령한 것이 아니냐? 내놓으라는 거예요. 찾자 이겁니다. 그래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3형제가 되면 그다음에는 아시안(Asian; 아시아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야, 이놈! 소련은 서구 녀석이야, 백인종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어를 해야 비로소 소련을 해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레버런 문의 표제가 뭐냐? 남북통일이 아니예요. 아시아 연합을 중심 삼아 가지고 세계통일을 향한 공산권 해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를 해방한다구요. 「공산권입니다」 공산권 해방, 이것을 빨리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해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한 거예요. '너희들, 민주당 4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민주당 공화당이 전부 다 미국을 망쳤지 않았느냐,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여기에 대해 자신이 있거든 변명해라 이거예요. 이 나라의 기독교를 전부 다 추방해 버리고, 인본주의 물본주의 체제를 중심삼아 가지고 황금만능주의로 세계를 제패하다니... 그러기 위해 돈을 갖고 보니 어떻게 됐나요? 전부 다 신경마취만 추구하다 보니까 마약을 먹어야 되고, 성개방 운동이 벌어진 거라구요. 그래 갖고 모두 로마와 같이 망해 들어가는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까지 합해 가지고 10년 후에는 1억 국민의 목숨이 몽창 나가자빠지게 됐습니다.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기독교를 중심삼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주도적 역할을 통일교회가 이미 판도를 짜 가지고 행진하고 있다구요, 행진! 점점 커질 거예요. 불쑥 세계가 변하도록... (박수)

여기에 CIA줄개 새끼들 왔으면 다 보고하라구. (웃음) FBI도... 내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레버런 문은 멋진 사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 미국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통에 창칼을 들어 일자로 찢 버릴 용자는 레버런 문밖에 없다'고 다들 좋아한다구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거든요, 바른말 하는 것. 바른말을 하고 망하면 싫어해요. 바른 말을 하고 득세를 하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나라를 구할 길이 없어

자! 그만큼 됐으면 나도 이제는 옷깃을 여미고, 어깨에 힘을 주고 '에헴-!' 이렇게... (박수) 내가 30년 전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소장하던 녀석을 잡아다가 처넣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 나라의 간신배들을 앞으로 전부 다 정의의 감옥에 데려다가 교육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교회를 팔아 가지고 남북통일하자 이거예요. 나 레버런 문은 한남동 저택을 팔아 가지고 남북을 통일하자는 그러한 주의자예요. 여러분 통일교회 패들은? 여러분 어떠한 패예요?

자, 오늘 내가 협회창립 33주년의 날로서 한마디 할 것은, 나라가 위급한 비상사태에 머물게 될 때는, 나라가 죽어 넘어질 수 있는 때에 있어서는 나라를 구하려는 국민이나 애국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앞장서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나라를 구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천리요, 철칙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남북을 통일해? 공산당이 얼마나 지독한 줄 알아요? 나는 공산당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김만철 가족이 나와 가지고, 엇그제 나흘간의 보도를 죽들어 보았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40년 동안 등골이 휘어지도록 피와 살을 전부 다 착취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분심이 없어요. 지나간 하나의 상시 있을 성싶은 얘기를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공산주의의 가르침에 물들었던 그 물을 누가 씻어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한 땅에 와 가지고 환경적으로 교훈을 받고 전부 다 북한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뼈에 사무치는 투쟁심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투쟁심을...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명이 의분심에 불타 가지고 일소할 수 있고, 일시에 소탕할 수 있는 그러한 불을 누가 붙일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경제체제의 부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호화스런 자동차나, 경제부흥이나, 과학기술의 발달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상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의 역사적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정의의 내용의 결론을 알아야 돼요. 이런 원칙의 세상을 유린해 오던 악마의 소굴이 저곳이기 때문에, 천년 만년의 환을 버리고 복수체계를 청산지어야 할 운명길ियो, 운명을 넘어서 숙명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태어났어요. 이게 숙명이예요. 운명은 개척할 수 있으되, 숙명은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

이를 뜯어고칠 수 있어요? 그것은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숙명조건, 앞으로 이 복귀의 사명을 등에 지고 나갈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이것이 운명이 아니요, 숙명적 사명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 길을 가고 있으니 그 전통을 올바르게 받아야 돼요. 내가 이 길을 걸어 나올 때 몇 번이나 생명을 포기했었고... 생명을 걸고 대들고 나온 거예요.

거대한 미국을 중심삼아 가지고, 넥타이를 잡아 쥐고 이번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미합중국이 원고가 되고, 레버런 문 개인이 피고가 되어 미합중국과 싸우는 거라구요. (녹음 잠시 끊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미국의 권위와 역사적 배경을 중심삼고 권위를 행세했지만, 그 권위는 하나님이 공인하지 않아. 레버런 문은 하나님의 정의의 도리를 밝히기 위해서 공격했지만, 최후의 결판은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덴버리의 1년 8개월도 못 되는 중에 미국의 여론이 이렇게 돌아갈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자, 지금까지는 그런 각오, 뭐 뜻을 위해 죽고 뭐 어쩔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 저 미대륙을 3년 동안에 들었다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조그만 땅에서 3년 공생애노정을 걸을 때, 교회가 전부 다 하나돼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치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미합중국 대륙이 전부 다 하나로 단합돼서 나를 몰아쳐라 이거예요. 치는 날에는 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처라 이거예요.

이제는 통일교회를 반대할 자가 없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미국을 살리는 놀음을 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도 감옥에서 만들고, 전부 다 법정에서 출정하면서 만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7개 단체를 만들었어요. 다들 모르지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러한 단체를 결성해 가지고 이제는 선거 전후를 중심삼아 가지고 미국에서 어떠한 폭발적인 분화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앵글로색슨족이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놀음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닦아 나온 것입니다. 반대받는 환경에서 욕을 먹으면서 그런 기반을 닦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기반을 닦았어요.

이제 통일교회를 대한민국의 누가 반대해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어요? 먹을 것 못 먹고 굶주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피땀 흘려 나온 것입니다. 여당을 중심삼고 지금까지, 이박사 시대로부터 공화당 정권에 이어 지금의 전정권 시대까지 오면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말이에요. 나라가 잘못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울타리가 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별의별 모략질을 혼자 뒤집어쓴 겁니다. 별의별 천대, 별의별 손가락질을 다 받아 왔다구요.

그것을 복수하려 한다면 웅가당맹가당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기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것은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생쥐가 밭지만 독을 깨뜨릴까봐 그런 거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일본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레버런 문을 중심삼아 가지고 키워 나온 거예요. 키워 가지고, 레버런 문을 중심삼고 세계적 판도가 커감에 따라 세계를 전부 다 제거시키는, 세계를 무너뜨리는 이 놀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황공한 일이에요?

나 하나님을 중심삼고 자유세계를... 자유세계를 그렇게 수천 년 동안 키워 나와 가지고 하나의 천국기반으로 형성해 나오고, 배양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도와준 기반을 중심삼고 통일교회의 레버런 문이 가는 데 그것이 방해가 되겠으니, 15년 동안에 땅에 떨어진 거라구요. 그러한 놀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통일교회를 위해서. 누구 때문이에요? 레버런 문을 위해서. 그리고, 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로마와 나라를 넘어서 영향권을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통일교회는 이 교단이 창설된 후 34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계적 판도를 중심삼고 통일천국을... 이 세계적판도를 중심삼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나 로마와 같은 그 시대를 중

십으로 탕감시대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반대할 자가 누구야! 미국의 기독교 목사들을 중심삼고, 통일교하고 미국 기독교하고 하나되게 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하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벨권 중심삼고 공산권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3년만 외교정책적으로 원조 안 한다면 공산당은 왕창... 3년도 안 간다구요. 5년 이내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짰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미국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미국 자체가 지금까지 40년간 자유세계의 수많은 국가를 지원해 왔지만, 요즘음 와 가지고는 무역역조니 똥이니 해 가지고 미국의회에서 수입을 삭감하기 위한 정책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도와주던 미국이 세계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외국을 도와주어, 처음으로 위신을 세울 수 있었던 한국을 자기 나라 앞에 세워 가지고 중공의 개척을 위해 후원하지는 않고 말이에요, 무역역조라 해 가지고 수입을 방어해? 망할 자식들,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 레버런 문의 생각은 중공을 내가 췌 차고 한국의 기반을 어떻게 중공으로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일본 사람을 업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미국이 아니더라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남미를 가지고 지금 방향적 혁명, 방향적 무역권의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미라든가, 제3세계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지 말고 아시아식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해방 후에 폐허가 되었던 일본이나 한국이 아시아를 중심삼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해 나오면서 선진국에 동참할 수 있는 기원을 만든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서구식 민주주의가 아니예요.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던 방향성 무역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울라(AULA;남미통합기구) 를 창설한 거예요.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전부 다 묶어 가지고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을 중심삼아 가지고 제3세계의 자원을 한 길로 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일이건 미국이건 선진국가는 전부 다 '똥' 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내 말 안들은 것이 원통할 것이니, 두고 보자 이거예요. 방향성 무역권 제시를 할 수 있는 좋은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금년도 표어인 조국통일은 역사적인 선언

자,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표어가 뭐예요? 「조국통일」 조국통일이예요, 조국통일. 이것은 역사적인 선언이예요. 선생님이 40여 평생을 중심삼아 가지고 전생애를 투자한 것입니다. 모험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결실을 가지고 남북에 걸고, 남북을 통일해 가지고 아시아의 핵이 되고, 세계의 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정부도 못 하고, 김일성도 못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핵이 될 수 있어요? 현정부가 할 수 있어요? 김일성이 할 수 있어요? 현정권 책임자들은 못 하지만 국민이 단합할 때는, 레버런 문의 말을 듣는 날에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정부도 두말하지 않고 레버런 문에게 협조하면 복받을 것입니다. 반대했다가는 두고 보라구요. 내 생애가 그렇듯이, 나를 반대하던 사람은 남아진 사람이 없어요. 공화당이 망하기 전에 내가 전부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월 3일이 넘으면 위험하니, 그 전에 가서 통고해라'하고 내가 지령을 내린 거예요. 통고 후 2주일 전후로 해서 전부 다 옥살박살 깨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지도의 책임을 진 레버런 문이 지금까지 이러한 세계적 공방전을 하고, 무수한 반격을 받으면서도 망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신음하는 그 자리에다 하나님은 같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하는 그 역사는 영원한 역사요, 하나님이 같이하는 그 전통은 영원한 전통으로 인류사에 깊은 뿌

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레버런 문을 통해서 이어받을 전통이 무엇이나? 레버런 문은 철석같은 사람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을 들이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방향성이 확고합니다. 그 위치가 틀림없는 철두철미한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묻고 싶어요. 시덥지 않게 쌍꺼풀 만들어 가지고 별의별 것 다 보고, 자기 새끼 자기 여편네만 중해? 나라가 없으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찾고 난 후에, 세계를 찾고 난 후에 통일교회를 자랑해야돼요. 갈 길이 영원한 미래를 앞놓아 나가는, 운명이 재촉하는 행보의 걸음을 스톱시킬 것이냐, 전진시킬 것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전진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복지에 4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전부 다 40년 전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년씩 걸려서도 요단강가에 왜 못 왔어요, 왜?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자기를 위하니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연의 뜻과 일치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준이 차기를 바랐는데 40년 가 가지고도 안 되니, 일대의 선조들을 전부 다 독수리 밥이 되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2세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가 전부 다 독수리 밥이 된 게 아니에요? 임자네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통일교회도 마찬가지로의 운명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편네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합니다」 남자끼리 꺾테기, 남자의 탈을 쓴 녀석들이 대답하라고요. 여편네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해요? 「……」 이놈의 자식들! 왜 입을 다물고 있어? 그 웃는 상통 보겠다는 게 아니야! 심각하라고요. 사내 녀석들 전부 다 대답해 보라구. 자, 여편네를 더 사랑해요, 뜻을 더 사랑해요? 「뜻을 사랑합니다」 손들어 봐요. 틀림 없겠지요? 「예」

오늘 내가 여러분을 당장에 전부 다 전국에 배치한다면 이동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오늘 이날의 기념으로서 전부 다 전국에 배치하더라도 기분 좋은 거라고요. 이의가 없을 거라고요. 또 여편네들! 남편을 더 사랑할 거예요, 뜻을 더 사랑할 거예요? 「뜻을 더

사랑합니다」 뭐야? 크게 대답해요. 뜻을 더 사랑해요, 남편을 더 사랑해요? 「뜻을 더 사랑합니다」 소리가 왜 제각기 놀아? 다시 시작! 「뜻을 더 사랑합니다」 왜 작아, 작아, 작아? 뒤에 꿈무늬에 붙어 가지고 바가지 굵겠다고 말하려고... 다시 더 크게! 뜻을 더 사랑할 거예요, 남편을 더 사랑할 거예요? 「뜻을 더 사랑합니다」 죽어도 소리가 그것밖에 나지 않는 모양이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전부 다 축복해 줬지요? 「예」 그렇지요? 「예」 선생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오늘 여기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간나 자식들! 내가 욕을 하더라도 당당합니다.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대를 가지고, 여편네나 며느리가 잘못하고 앉아 있으면 지저대는 거예요. 모가지들 이렇게 지저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부르트면 집안 문중에 부끄러워서 이걸 가리게 돼 있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졌다고 선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한테 욕을 좀 먹었다고해서 '아이고, 통일교회 문선생이 왜 그래!' 하면서 동네방네에 다니며 욕하는 문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욕을 먹고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땅에 고개를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하라구요. 33년 동안 쌓인 이 체증이 내려가게끔 말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조금은 동조를 하는 모양이구만.

우리는 본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나이예요. 이북 동토(凍土)를 구해야 돼요. 내가 이북에서 삼팔선을 넘어 설 때 기도했습니다. 내 손으로 자유세계를 수습해 가지고, 자유세계를 규합해 가지고 북한을 해방하겠다고 기도한 날이 엇그제 같아요. 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준비를 해 나온 것입니다. 공산당을 내 손으로... 그렇게 인류를 백주에 속여 먹어, 이놈의 자식들! 정의의 칼이 무섭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환고향(還故鄉)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내 고향, 이북이 그리워요. 대한민국이 그리운 것이 아니예요, 이젠. 대한민국은 이미 여기에 닳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북을 해방해야 되겠다구요. 그래서 내

고향 땅에 가서 공산당에게 학살된 우리 부모의 무덤을 찾아 좋은 곳에 모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씨의 종중이 빗남을 만민이 찬양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6천만뿐만이 아니라 세계 40억 인류가 이것을 승리의 복지로서, 모든 역사적 전통의 본원지로서 추앙할 수 있는 기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선생님이 고향을 한번 가 봐야지요? 「예」 선생님 고향이 누구 고향이에요? 「저희들 고향입니다」 뭐, 뭐, 여러분의 고향이라고? 이 전라도 녀석들, 저 경상도 녀석들인데? 이 강원도 녀석, 경기도 녀석, 전부 누구 고향이야? 「하나님의 고향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고향이야? 선생님의 고향이지... 결국은 누구의 고향이야. 「내 고향입니다」 맞아, 맞아요. 우리 아버지의 고향이 내 고향이요, 내 아들딸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3대를 걸고 넘어져야 된다고요. 3대를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위기대가 그렇잖아요? 3대가 걸려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이고, 아담 해와는 부모이고, 아담 해와의 아들딸까지 3대가 이 땅위에 정상적으로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 망했으니, 우리는 고향이 달라요. 유리고객, 고향이 없어요. 정착지예요. 고향이 아니라 정착지예요. 그 정착지는 4천 년, 5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유리고객 하던 정착지였다고요. 그 정착지를 지나서 고향을 찾아가는 운명길에서 허덕인 것이 인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착지를 빨리 차 버려야 돼요. 거기에다 성을 짓고, 왕궁을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환고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 선생님이 살던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지요? 「예」 나는 눈에 흰한테, 여러분들은 어때요? 「흰합니다」 (웃음) 도깨비 같은 녀석이! 뭐가 흰해? (웃음) 거기 가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명실공히 남북의 문이 열리게 될 때는 동서격차의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이 교류될 수 있도록 길을 다 닦았다고요. 동양과 서양이 분립돼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권을 레버런 문이 서양세계에 가 가지고 주도적 판도를 엮었기 때문에 조수가 달라졌습니다. 동양을 따라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1978년이예요. 그때서부터 일본이 아시아에서 득세하는 거예요. 1988년까지, 명치유신이 120년 전이니까 일천팔백 몇 년인가요? 1868년

명치유신을 중심삼아 가지고 1988년까지 120년간 일본이 복귀의 터전을 위한 섭리권 내에서 지금까지 자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잘 보호해서 키워야 할 텐데, 점령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탄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전부 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것은 선생님이 일본을 해외권으로 세웠으니까 저렇게 됐지,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예요? 「고향 땅입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예요? 「고향으로 갑니다」 응? 「고향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예요? 「고향 찾으러 갑니다」 가나안 복지, 즉 본고향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계에 서게 되면,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 지구성이 전부 자기 고향입니다. 저기 가 가지고 이 지구성 가운데 자기 할아버지 조상 기지에 가까운 곳일수록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가 복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사상교육을 해야

일본과 한국, 그다음에 지금 천사장권이 중공이라구요. 대만은 그 책임을 못 하고 통일교회를 반대하다 보니 저렇게 된 것입니다. 전부 통일교회를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요놈의 자식들! 너희들이 천사장 권한을 빼앗기는 줄은 모르고... 이제는 중공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유도하는 거예요. 국제 평화고속도로를 선포해 가지고 전부 다 중공을... 그때에 선포를 했으니 망정이지, 그때 선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프로그램에 의하여 하늘이 미리 알고 그렇게 지령을 떨어뜨리게끔 다 했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다 해 나가는 거예요.

또,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겠다 하니, 현정부는 '국민은 내가...' 이래요. 국민이 나라 것이지 정당 거예요?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 국민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당도 그렇게 애국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적 국민을 규합하고, 당신들은 가인적 국민을 규합해서 둘 다 하자구요. 누가 잘 하는지, 누구한테로 몰려가는지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누구한테로 가겠어요? 「아벨편으로…」 아벨편으로 가게 돼 있지.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손해나지 않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구요.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는 사나이입니다. 미국을 끈 떨어진 주렁박마냥 발로 차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가지고도 지금 버젓이 살아 남아서 큰소리하고 다니는 사나이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한국에서 큰소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큰소리는 누구한테 시킬 것이냐? 여러분한테. 기분 좋지요? 「예」 알겠어요? 「예」 누구한테 시키겠다고요? 「저희들한테요」 그 대신 생명을 내놨어요? 「예」 남북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25동란도 300만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서도 하지 못한 것을 통일하겠다고는 패들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 될 것 같아요? 어렵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사상교육을 해야겠습니다. 국민사상, 이것을 신앙화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박사부터 그런 신앙운동을 하고, 김박사도 해서 전부 다 생명을 각오해야 돼요. 이제 닳을 내려 짐을 풀고, 나발을 불고, 잔치를 해야 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통일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할사, 안 할싸? 「할싸」

오늘은 기념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을 성취하고, 선생님의 소원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생의 사명으로서 생명을 각오하고 이 일을 감당할지어다. 「아멘!」 자, 그렇게 할 사람은 양손을 들어서 오늘의 창립 기념일을 빛냅시다! 아-멘 「아-멘!」

[기 도]

사랑하는 아버지, 레버런 문이 하나님을 몰랐던들 세상에 누구보다도 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공산당이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이미 세상의 악한 독재자가 됐을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후대하신 하나님을 안 그날부터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통회와 만민해방을 위해 간구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 가운데에서 불쌍한 대한민국을, 이 한반도를 아시아에 있어서 불쌍한 민족으로 남겨 놓고 그 어느 시대에도 잊을

수 없는 시련곡절과 비참상의 고비길을 넘나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끌고 나온 것은 통일교회 원리에서 가르쳐 주는 탕감을 위한, 세계적 탕감을 위한 역사적인 준비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조상들이 하늘을 향해서 비참하게 죽어간 애원의 소리가 흘러간것이 아니고, 진정 이때를 마련하기 위한 하늘에 충성을 다하는 기도의 음성과 같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어받아 오늘의 통일교회는 개인으로부터 민족,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인 천운을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해방의 기치를 드높일 수 있는 시점을 맞이하여, 오늘 1987년 5월 1일을 기하여서 새로이 여기에 전국의 책임자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고 쌍수를 들어 맹세를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국자들의 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한 위에서, 그 이름이 부활적 가치로 역사에 빛날 수 있는 터전으로 남아짐으로 말미암아, 민족정기의 소생과 더불어 국가해방의 기원이 성사된다는 것이 역사발전의 원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뜻을 알고 이 문(文)이라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해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한해도 갔고, 십년도 갔고, 수십 년도 갔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름없는 무명의 한 청년이 세계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만국의 위정자들이 눈길을 모아 희망의 터전이 동녘 땅으로부터 돌아 올랐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음성이 사방으로 들려지는 것을 느끼웁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때에, 이 모든 황공무지한 당신의 후대하신 사랑의 은사를 저희들은 허리를 굽히고, 몸을 굽혀 감사할 줄 아는 무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협회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책임자들, 통일교회 간부들이 마음을 모으고 무릎을 모으고 머리를 가누고 시선을 갖추어 가지고, 아버지 앞에 쌍수를 합해 맹세하였습니다. 맹세한 이 무리들이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철부지한 어린 것들을 처음 불러 세웠을 때보다도 더 희망적이에요, 더 소망적이에요. 이제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환경의 터전이 되었고, 당신

이 이들의 행동적인 조건을 중심삼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적 탄감권을 갖춘 승리적 발판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려워하지 않고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귀일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에 연결될 수 있는 시대상을 목전에 놓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 줄장부들이 되지 말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앞에 놓은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날, 저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겠다고 쌍수를 들어 아버지 앞에 맹세하였사오니, 이것을 망각하는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날과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러한 3시대를 걸고 지난날은 내려간 때였지만, 이제는 오늘날을 중심삼고 내일을 향해 올라갈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천국을 향하여 기세도 당당하게 북한해방을 표준으로 아시아의 연합운동을 제기하는 새로운 이 희소식이 만국에 뻗쳐 흘러갈수 있게끔, 잘 싸우는 무리, 잘 이기는 통일의 무리들로 선두에 내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통일교회에 연관된 남한의 모든 조직은 이 단일 목적을 향하여 전체를 결집시켜 가지고 총진군할 것을 이 시간 책임자로서 지시하고 명령하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절대 순응하고 절대 복종할 것을 결의했사오니, 아버지께서 중심이 되어서 이들의 생활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허락하신 그날과 승리의 천국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무덤을 남기고, 후손이 송배할 수 있는 조상으로서 만국에 자랑할 수 있는 조상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기념스러운 이날을 축복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뻗어지는 7년노정을 아버지, 지켜 보시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 충효의 도리를 다할 것을 각오하였사오니, 길이길이 받아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

남북통일의 기수가 되자

향토학교 선생들은 안 왔지?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나? 「예」

남북총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북한

승공연합에서는 이북 5도에 대한 조직을 다 했나요? 「시군 조직은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그러나 읍면 조직은 일부가 돼 있습니다」 이북은 남한과 행정조직 수를 같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못 되지? 「여기에 나오는 행정조직은 이북에서 만든 것이 아니구요, 옛날 것입니다」 이북에서 편성한 그것이 필요하지, 옛날 것은 있으나마나라구요. 「정확한 군 경계선 같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잘 모릅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안기부, 정보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의 책임문제로구만. 그걸 모르다니... 「도(道)의 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해서 5개 도인데요, 지금 이북에서는 9개 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9개 도인데 자강도, 그리고 뭐 황해남북도가 있다면서? 「예, 양강도도 있습니다」 그래, 양강도도 들어가고... 「예」 그렇게 되어 있구만.

그러니까 행정편성을 대한민국과 같은 수로 해서 지금까지 훈련한 거라구요. 그건 뭐냐면, 총선거시대를 대비한 거라구. 해방 이후, 내가 내려

온 때가 1950년이니까, 그들이 정부를 세워 가지고 3년 만에 남침했다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1948년에 정부를 수립해 가지고 1950년도 6월25일 날, 채 3년도 못 된 기간을 중심삼고 남침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그런 기동성 있는 부대를 3년 동안에 양성하여 해치웠다는 거예요. 군대를 편성하여 남한을 부산 가까이까지 밀어제꼈다구요. 그렇게 침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훈련과 더불어 배치기반을 중심삼아 훈련을 한 거예요.

벌써 정부수립 하면서부터 남한해방을 주장해 나왔어요. 지금까지 40년동안 주장해 나오고 있는 거라구요. 일보도 양보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복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주장하는 모든 체제 내용이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이론적으로 강화할 때는 전부가 반대를 했다구요. 머리를 이뤘다구요. (행동하심) 그러나 점점 조여 가지고 지금은 머릴 흔들다니? 이젠 말도 못 할 경지에 들어간 거라구요.

국민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전부 다 첩자라구요. 소년들은 학교에서 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하게 되면 학교에서 상을 주게 돼 있다가구요. 남자나 여자나 학교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비밀리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임자가 있어 가지고 당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래 놓고는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가서 물어 보라' 이렇게 하는 거라구요. 딱 물어 보면 반동분자로 걸릴 수 있는 대답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전부 가려 놓는 거예요. 학부형들을 중심삼고...

저기에 있어서 학부형들을 자기들 편인지 반동분자인지 전부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딸을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들딸은 누구를 믿느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믿는 것보다도 학교 선생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삼고 완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를 배경으로 해서 학교 중심한 체제를 만듦으로써 김일성이를 아버지라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학생들에게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보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보고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간해 놓으니 그렇게 되는 거라구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누굴 더 믿느냐? 학교 선생을 더 믿게 돼요. 그래 놓고는 국민학생도 조직에 들어가게 해서 활동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또 친척이 오거든 무슨 말을 했는지 전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친척이 왔다 갔으면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하는데,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적지 않고 보고하게 되면 기합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조그마한 아이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전부 듣습니다. 누나가 듣고 동생이 듣고는 '나는 이런 말 들었는데 너는 요런 말 들었느냐고 해서 둘이 합해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보고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반동색채를 띤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불순분자, 이색분자라고 해서 배급량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뻥하게 틀린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가만있는 거예요. 입을 가졌더라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야기하다가 들통나게 되면 배급량이 줄어들어 가거든요.

남한해방을 위해 조직·사상·군사면의 준비를 해온 이복

거기에서는 밥을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구요. 밥을 여기처럼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밥을 배부르게 한번 먹어 보느냐 이거예요. 옷 같은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무슨 옷이 문제겠어요? 신을 신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밥만 먹을 수 있는 생활이면 최대로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그 모든 것은 전부 남한 침투를 위한 군사비로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남 삼팔선까지는 아마 길을 잘 닦아 놓았을 것입니다. 내가 50년대에 흥남감옥에서 나오면서 잘 봤어요. 우린 그런 면에 관심이 많거든요. 다리를 어떻게 놓았느냐 하면, 벌써 연장할 수 있게끔

해 놓고 다리를 놓았더라구요. 2차선 정도로 말이예요. 2차선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군사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북은 시멘트가 많으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두껍게 했더라구요. 관심이 있어서 파 보니까 말이예요. 탱크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게 해 놓았더라 이거예요.

그때 50년대에 내가 나오면서 감명받았어요. 교량 같은 것도 30톤 탱크가 이동해도 관계 없게끔 전부 다 놓았더라 이거예요. 흥남에서 나오는 길은 동해안에서는 중요한 간선이 될 수 있는 도로인데 벌써 군사도로로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지요. 그걸 보고, 이걸 남한 침공을 위해 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부를 세우면서 소련 극동정책에 의해 KGB의 배후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남에서 나오는 비료 같은 것을 전부 어디로 가져가느냐하면 소련으로 가져갑니다. 비료하고 무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 무기는 소련에서는 10년, 20년 지난 것들이예요. 그걸 전부 바꿔 오는 거라구요, 싸니까. 그래 가지고 삼팔선에 배치되고, 남한 침공을 위하여 훈련하는 데에 소모됩니다. 고급 군장비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 군사 중장비를 준비해 나온 거라구요. 그런데 무엇 갖고 중장비를 준비해 나왔느냐하면 비료입니다. 그래서 흥남 비료공장의 비료를 전부 다 소련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몇 차씩 실어 나릅니다. 그것이 전부 무기가 돼 가지고 와서 삼팔선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걸 내 다 알고 있었다구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이동할 수 있는 군사도로를 확장해야 했었다구요.

그걸 50년대에 이미... 흥남에서 평양까지 나오는데, 아스팔트가 없으니 시멘트 콘크리트로 교량을 놓고, 도로공사를 전부 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요전에 김만철씨 아들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예요. 그보다 더 하면 더했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 밤 열두 시에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라구요. 아이들을 집에 절대 두지 않는다고요. 집은 뭐냐? 반동분자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본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보면 가정이 온상이라고 했어요. 가정이 착취의 원조라고 했다고요.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취미를 절대 못 갖게 합니다. 학교에서 전부 안고 그런 교육을 해 나가는 거예요. 너희 집이

마음을 두고 살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집과 완전히... 그래 놓고는 김일성을 아버지고 딱 붙여 놓고 교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북한에 대처해 가지고 우리가 해방하겠다고 나선다는 것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해 왔고 남한을 해방시키겠다는 정신무장을 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정치공작, 이런 것이 전부 무장되어 있다구요. 일단 내려오게 되면 그날부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작대원으로 딱 짜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민청(民靑)이 들어가 있고 말이에요. 전부 다 적위대가 있어 가지고, 향토방위권같은 것이 조직되어 가지고 전부 협력하고 협조하게 돼 있다구요. 젊은이들과 군대가 연결돼 있어요. 당이 움직여 모든 사회를 감시해 나가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남한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북한을 그렇게 알았다가는 어렵도 없어요. 그런 북한을 해방하겠다고 나서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북은 제멋대로 안 돼 있다구요. 전부 일색(一色)이에요. 하나밖에 모른다구요. 남한해방, 이것을 위해서는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임자네들 그런 생각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거예요.

북한해방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북한을 우리가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크다구요. '민간활동으로 밀가루 같은 것을 실어다가 남한 국민의 이름으로 줄 테니 배고픈 사람이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끔 문을 터라' 그래도 이북에서는 '아니다. 남한에서 암만 밀가루를 갖다 주더라도 우리의 정부기관을 통해서 배급해 주도록 해라' 이러지, 절대 마음대로 나눠주게 못 한다구요.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갖다 주면 현재의 배급양만 나누어 주고 그 외는 군량미로 저장해 둡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요.

내가 줬다고 이북 국민들이 잘먹고 배부르게 살겠거니 하는 것은 꿈 같은 이야기라구요. 만일 배급하는 길을 전부 다 터놓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명령일하에 전국이 딱 가려지지 않아요. 배급제도로 완전히 죽을 만들어 놓은 그런 체제 하에서 마음대로 밥을 먹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집집마다 태산 같이 쌓아 놓을 수 있게끔 생겼다고 해도 정부관리 체제내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개인에게 자유허가를 안 해준다구요. 허가하게 되면 조직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배급으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소련 같은 나라도 공산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5개년 혁명 과정 이내에 그 방대한 지역을 전부 모가지들 조른 것은 배급 제도였습니다. 반동분자들은 배급의 3분의 2밖에 안 줘 가지고 풀물도 못 췌어 먹게 해서, 5년 동안에 영양실조로 누래 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 놓고는 교육을 하고, 열성분자에게는 배급량을 늘리고 그래서 소련 혁명을 완수한 거라구요. 5년 이내에 다 해치웠어요. 조직편성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복을 보라구요. 3년 동안에 정부수립 기반을 닦기도 어려운데, 남한을 침략해서 점령해 가지고 남한까지 통치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다 확립해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얼마나 빠른가. 손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카프(CARP;원리연구회)가 지금 뭐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떠?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1950년대에 벌써 함흥에서부터 평양까지는 고속도로였다구요. 탱크가 달릴 수 있게끔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더라 이거예요. 남한은 고속도로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에 했거든요.

북한엔 시멘트가 많이 생산되니까 벌써 군사도로를 준비해 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지금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뭐 더 말할 게 없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휴전 후 몇 년이 됐나? 34년이 됐는데 그간에 무슨 짓을 못 했겠어요? 땅굴을 파고 말이에요. 그 땅굴이 지금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한 20개 된다는 말도 있지만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다른 거 아니예요. 남한해방입니다. 적화통일이예요. 이걸 중공도 그렇게 사주했고,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해방이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을 움직이게 되면

태평양시대에 있어서 주역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생각대로 된다면 일본 공산당하고 아시아 공산당은 소련에 속하지 말고 새로이 연합공산당을 만들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약소국들 말이예요. 중공에 예속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은 적화권 내에 모여 가지고 새로운 약소 민족 연합체형태를 만들어서 소련에 브레이크를 걸고, 미국에 브레이크를 걸자고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괴가 미국에도 침투공작을 하잖아요?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말이예요. 중공과 연합전선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북에 대한 승공조직은 새로운 행정조직에 맞게 다시 해야

그런 면에서 북괴가 자체 내의 기반 강화도 해 나왔지만 국제적으로 선전을 남한 못지 않게 한다구요. 전세계에 널리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자유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를 대해서 지도층, 장관들, 국장급까지 전부 다 교육하고 있다구요. 김일성에 대한 잡지가 그들의 안방에 다 들어가 있다구요. 해방 이후 몇 년이예요? 39년을 그런 놀음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남한은 이게 뭐예요? 자체도 양당으로 돼 가지고 여당, 야당이 싸우고 있으니 말이예요. 허리가 부러지고 동강이 나게 됐는데도 싸움을 하고 이런 판이예요. 거기는 명령 일하에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싸울 때 휴전되기 전까지 말이예요, 여기선 비행기로 공격했다구요. 그런데 이북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탄을 일선까지 어떻게 나르느냐? 백주에 트럭에 싣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다 이거예요. 차가 달릴 수 없습니다. 전투기 때문에 나를 수 없어서 전부 야간에 나르는 거예요. 야간에 어떻게 하느냐? 전부 반 조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디서 나른다는 조직이 돼 있어요. 함경북도에서 삼팔선까지, 황해도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엔 강경이면 강경에서 신의주까지, 이렇게 조직편성이 되어 있어요. 부락에서 부락으로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 해만 지면 총탄, 대포알을 나르는 거예요. 배당된 수자, 어느기준까지 날라야 되는 거예요. 밤만 되면 전부 일선을 향해서 포탄을 나르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 올 때까지 포탄을 옮기는 거라구요. 몇십

리씩 옮겨요. 자꾸 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만 싸도 포탄이 모자라지 않아요. 총력적인 군사훈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있는 사람이나 전방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두가 병사와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적을 무찌르는 데 국가의 힘으로 무찌른다고 하지, 군대의 힘으로 무찌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총력전입니다.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휴전 직전에 얼마나 포를 쏘 대는지, 포탄 불이 밤이면 말이에요, 이건 뭐 천하를 무너뜨릴 것 같았다구요. 미국이 그렇게 포를 쏘 대도 거기에 대항해 오는 이북도 절대 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언제 다 날라오느냐? 그냥 생산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구요. 전부 이런 조직편성을 통해서 날라온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국민 전체가 병사라 이거예요. 전군 전국민 무장화란 말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남한해방이라는 것을 중심삼고 뿔뿔 뭉쳐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 하나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나 하면 미국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주해 있으니 지금 이렇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다 해방했다 이거예요. 휴전이 절대 이렇게 오래 되지 않는다고요. 3년도 못 돼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든지 그 놀음을 한다 이거예요.

대학가에서 의식화운동하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미국은 돌아가라 이거 아니예요? 반미운동... 미국정부에서 무역억조를 시정하기 위해 보호 무역정책을 들고 나오는데, 그건 전부 반미사상을 코치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시한 거라구요. 길러 나온다고 하면서 배후에서는 다 빼앗아가는 거라구요. 빼앗아가고 자기들에게 이익될 것만 전부 드러내 놓고 있다고요, 이놈의 자식들이.

그래도 미국은 낫지. 소련 같으면 그 이튿날부터... 이북에서는 말이에요, 소련이 진주해 가지고 한달 이내에 공장의 기계를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갔다구요. 전기 도란스(トランス; 변압기)를 다 떼 가고, 모터도 전부 떼 가고, 수풍발전소 발전기도 다 떼어 갔다구요. 완전히 옮겨 가지고 간거예요. 시베리아에 옮겨다 두는 거예요. 자기들의 점령국가가 커 가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파괴뿐만 아니라 폭파되기를 바라니까-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 완전히 떼어 가는 거예요. 흑암천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남한에 내려오면 가만히 뒤돌 것 같아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한 북한을 중심삼고 우리가 앞으로 북한해방을 해야 하는데, 국민연합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외교활동도 해야 되고, 스파이 공작활동도 해야 됩니다. 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행정부가 북괴 행정부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면(圖面) 한 장 못 빼앗아 와서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북에서는 오늘 대한민국의 책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안방의 비밀까지 다 알고 방송하는 판국이라구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몇십 년이 돼도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걸 뭐 덮어 놓고 지게 마련이라구요. 「우리 행정부나 정보부에서 이북의 행정구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야 있겠지. 「알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북 5도 도민회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나온 사람들이 과거 행정구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 살던 곳이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거든요. 지금 편성한 것은 과거 조직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공연합에서는 과거에 편성되었던 것은 노랑이면 노랑색으로 그리고, 지금 새로이 편성한 것은 빨강으로 해서 구역배당을 전부 다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으로는 북한을 해방할 수 없어

정부가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건 벌써 생각이 없다는 거라고요. 북한과 관계를 끊고 못 오게 하고, 언제나 방어만 해 놓고, 사람은 얼씬도 못 하게 하고 국가 체제를 끌고 나가자는 사고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북한을 해방해야 됩니다. 어차피 남한은 경제적으로 부흥되어 생활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젊은 놈들이 사치를 하고 연애바람이 불고 프리섹스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는 북한에서 틀림없이 들고 나온다고요. 표체를 그렇게 해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죽어 가면서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냅다 조인다고요,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혁명이론은 발전이 없어요. 혁명방법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딱 공식적이예요.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공산주의가 남아있는 한 그 공식은 마찬가지로입니다. 행정체제에 대한 명령계통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행정조직에 대한 변화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산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논리적 체제 변경일 뿐입니다. 행정적 체제 변경은 가져올지 모르지만 실제 사회제도 변경은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공의 어려움이 그거예요. 체제를 어떻게 변경시키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저 상부에서부터 말단까지 연결되어 있는 체제를 변경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정치적 사상체제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한 부분은 되지만 전체 분야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던 젊은이들이라든가, 체제기반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을 도입해서 공산주의 조직체제 이상의 조직체제에 접붙이기 전에는 공산주의 체제 변경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북한을 대하여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구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여러분은 의식구조를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남한에 있어서 기성세대들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 관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 공작하기 힘든 게 그거예요. 전부가 정보요원이 되어 있다구요. 중고등학생도 물론이라구요. 중고등학생도 민청에 가입해 가지고 전부 훈련을 받습니다. 정치훈련을 전부 받는다고요. 사상훈련을 중심삼고 정치훈련까지 다 받는다고요. 그것이 사회와 동떨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사회체제와 일치되는 행동적 현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용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계선을 넘고 있는 공산당의 잔혹함

공산당들은 전부가 새빨간 거짓말장이입니다. 내가 형무소에 있을 때

그 소장이라는 녀석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김일성 수상께옵서 채소자들에게 매일 소고기하고 이밥을 몇 백 그램을 쥐서 이렇게 잘먹기 때문에, 기름기를 먹기 때문에 튼튼해서 넘치도록 공장에서 일을 잘한다'하고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들이... 보리밥도 안주고 옥수수밥, 밀도 아닌 모밀밥을 줘요. 모밀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3분의 1이 갈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먹이면서 '수령님이 어떻고' 이려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손가락질 하지만 매일같이 그러니까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고 웃지도 못합니다. 웃으면 전부 그것이 보고돼요. 옆에서 스파이가 듣고는 보고하는 거예요. 왜 웃느냐는 거예요. 큰 웃음을 했다가는 당장에 왜 웃었느냐고 하면서 다음날 불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웃었느냐 이거예요. 이유를 말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반성문을 쓸 때까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반성문을 안 쓸 수 있어요? 밥 먹고 살아야되잖아요. (웃으심) 모가지들 딱 졸라매고 있으니...

홍남의 비료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중노동입니다. 사회 사람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돼지고기를 실컷 먹어야 돼요. 돼지고기는 기름이라도 기름이 녹아 내려가요. 소고기는 기름이 엉겨 가지고 모여 있지만 돼지고기 기름은 흘러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세척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료성분이 엉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돼지비계를 그저 만판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열 사람의 책임량이 하루에 1,300가마입니다. 8시간의 책임량이 1,300가마인데, 사회 사람들의 3분의 2, 한 반 되는 것을 먹고서... 고기가 어디 있어요? 밥이라도 실컷 먹었으면... 아침 밥이 선생님같은 사람은 세 손가락이면 그만입니다. 세 손갈 양밖에 안 됩니다. 입을 크게 이렇게 해서 세 손가락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먹고 8시간 중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채소자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안 그래요? 채소자들이 아침밥을 먹고 공장에 나가는데, 공장까지는 6킬로미터입니다. 6킬로 되는 거리를 걸어가게 되면 헛다리가 쳐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덟 시간 노동을 해야 됩니다. 책임량이 1,300가마예요. 그런

데 그런 상태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130가마를 10미터 옮기래도 못 옮길 일입니다.

그런데 비료 가마니에 비료를 넣고 저울에 떠서 묶어 가지고 끌어내다가 트럭에 실어야 합니다. 자꾸 비료를 퍼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터를 잡으면 안 됩니다. 한 10미터, 15미터 저 밖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정도 되는 거리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련 배에 싣는 것입니다. 몇만 톤씩 싣는데 그걸 매일 계산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틀리는 날에는 문제가 커요. 국가간의 외교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 책임량은 절대 완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 못 하면 2급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2급으로 떨어지면 밥을 절반밖에 안 줍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못 하게 되면 새끼 꼬는 데로 갑니다. 가마니를 꿰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마니를 꿰매려면 구멍을 잡아서 새끼로 꿰매야 됩니다. 그러니 새끼가 필요해요. 이 새끼를 꼬는데 가게 되면 밥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를 써서 일하러 나가는 것이 뭐냐 하면 밥 한덩이 때문입니다. 밥 한덩이를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남들과 같이 밥 한덩이 받는 것이 제일의 희망인데 그것의 절반을 받고 3분의 1을 받게 되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악에 받쳐서 죽을때까지, 밥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서 죽게 될 사람들에게는 밥이 구세주입니다. 밥 한덩이는 세상에 나가 집 한채하고 바꾸고도 남고, 자기 여편네하고 밥 한덩이 하고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것입니다. 그러니 밥을 먹다가 죽으면 그 사람 입에 있는 밥을 빼 먹습니다. 환장도 그런 환장이 없습니다. 밥 먹다 돌이 있어 딱 뱉아 놓으면, 거기에 밥 한 알이붙어 있으면 돌은 버리고 그 한 알을 다른 사람이 주워 먹습니다. 뭐, 생지옥이지요.

그러면서 반동분자는 소리없이 전부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1년에 3분의 1, 천 명이 있다면 4백 명이 뒷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3년내지 4년이면 다 죽는 것입니다. 다 가는 거예요.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기름기가 다 빠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써 나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다는 말이... 무자비 정도가 아니에요. 무자비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선이 있잖아요? 한계선이 있는 무자비입니다. 냉혹한 것에도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계선을 넘고 넘었다 이거예요.

공산당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개의치 않아

선생님은 그런 세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세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6가정, 72가정, 430가정이 개척전도 나갈 때 절대 돈 가지고 못 나가게 했어요.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부 빼앗았어요. 가는 차비밖에 못 가져간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북에 가게 되면, 이북에는 벌써 거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한 부락에서 다른 부락에 가게 돼도 절대 혼자 못 들어갑니다. 한 부락에서 마음대로 왔다갔다 못 해요. 자기 친척한테도 못 갑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아들이 살고 있는 부락에 가려면 반드시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횡적 연락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래 놓고 종적인 명령만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편네라고 있어서 처가집을 갈 수 있나... 사돈네 팔촌, 자기 아들딸도 못 찾아간다구요. 여름에는 전염병이 돈다고 소문을 내서 전부다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한대구요. 누가 주사 맞으러 가나요? 주사 맞으면 가면 그냥 뒤요? 들입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가려고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주사 안 맞고 돌아가겠다고 하게 돼 있지, 주사 맞고 가겠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북에서는 본래가 가겠다고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전부 꼬치꼬치 캐고, 그다음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당책임자에게 아무개가 간다고 연락해서 거기에서 오케이해야 돼요. 한번 어디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예 거기서 나 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멧돼지 새끼도 먹이를 찾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멧돼지나 개새끼만 해요? 개새끼만 하나구요.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이남에서 이북으로 간첩으로 갔다가는 감쪽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

리고 증명서가, 무슨 당의 증명이니 민청의 증명이니 해서 십여 개가 된다구요. 요즘은 열 여덟 개가 된다고 그러더구만.

그러니 거동하려면 그런 모든 여건을 가려 가지고 그걸 밟고 넘어가야하고, 자기를 공인하게끔 해서 넘어가야 하는데 저쪽에서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건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틀에다 박아 놓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르게 움직였다가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횡적 관계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통일'에서는 지금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며 반대하고... 이놈의 간나 자식들이 노동조합이니 뭐니 해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남한의 녀들이 그런 걸 아느냐 말이야! 어디 노동자가 뭐 어떻고 어떻게 해? 이북 노동자들이 반동을 일으켜? 최루탄, 뭐 데모를 해? 어렵도 없다는 거예요. 하라 해도 못 합니다. 했다가는 배급량을 철수해 버립니다. 자기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여편네 굶기고, 자식 굶기고, 어머니 아버지를 굶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급제도를 중심삼고 완전히 목을 조르고 있다구. 전부 코 케인 소예요. 코 케인 소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비참한 거라구요. 40년 동안 터를 잡고 새빨강게 된 판도를 중심삼고 우리가 싸움하고 있다는 사실...

공산당은 목적달성을 위해서 거짓말, 수단방법을 개의치 않습니다. 모략 증상은 보통입니다.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사람이 우선 환경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남에서 이북을 침공했다고 선전해 가지고 전세계 국가에서는 북한이 남침했다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 남한이 북침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인데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지요. 순전히 악마예요.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북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런 걸 다 배우라고... 이놈의 자식들! 내가 학생시절에 공산당 이론을 공부한 친구들과 이론투쟁도 해보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싸워나오고 있는 거라구요. 공산주의가 어떤지 세밀히 안다구요. 감옥조직

이 공산당 조직에서 제일 치밀한 조직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생님은 자아비판을 안 했어요. 2년 8개월 동안 자아비판서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말없이 1등 노동자가 돼야 했던 거예요. 살아 남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조금만 후퇴하기 시작하면 살아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챔피언입니다. 나를 못 당한다구요. 비료를 담는 데서도 내가 1등이고, 끄는 데서도 그렇고, 묶는 데서도, 또 트럭에 싣는 데서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표창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1등 노동자 상은 안 받아도 괜찮으니 자아비판은 내 못 하겠다 이거예요. 임자네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구요.

공산당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더 강하고 철저해야

여러분은 공산주의자들을 만만히 봤다구요. 공산당이 망하려면 자체내에서 고급관리들의 싸움이 벌어져야지, 외부와의 싸움 가지고는 안 망합니다. 안 무너져요. 무너지면 분산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게릴라전법을 다 배웠다구요. 없으면 도둑질해 먹는 거예요. 통일교회에서는 없으면 도둑질해 먹으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도둑질해 먹으라고 가르쳐 주지 못한다구요.

공산당은 도둑질이 보통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겁탈하는 건 보통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적이 아니고 뭐랄까, 미끼예요, 미끼. 부락에 가서 소 같은 것도 도둑질해다가 산에 가서 때려 잡아먹고 사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부자가 가게 되면 길목에서 있다가 돈 뺏고 죽여 버리는 거예요. 혁명과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순분자들, 불응하는 분자들은 처단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에 그들이 가는 데는 어디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한으로 간첩을 보낼 때, 돈주머니 씌워 보내는 줄 알아요? 쓰리(すり;소매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쓰리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

다. 그래서 어떻게든 쓰리 오야붕(おやぶん; 두목)이 되어 한몫을 떡 해놓고는 자기는 직접 선두에서 안 서지만 부하들에게 직접 공작대금, 활동비를 대주는 놀음을 하고 있다구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녹음이 잠시 끊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 15년 간에 저렇게 망하게 된 것은 전부 다 북한의 그런 작전에 의해서입니다. 돈을 가져와서 나쁜 행동만 하는 거예요. 겁탈을 하든가 탈취를 해 가지고, 그걸 중심삼아 가지고 전부 다 그런 불의의 돈을 가지고 공작자금으로 쓰고, 그걸 중심으로 점조직으로부터 선조직으로 연결시켜 지하조직 확대운동을 해 나오는 것입니다. 히피 이피들 전부 그 놀음이에요. 머리 기르고 전부 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통일교인들에게 머리 기르지 말라고 하는 거라구요. 원수들이 자유세계를 망치기 위한, 부패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꾸며진 그런 모양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복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복을 해방하려면, 해방할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철저하고 더 무서워야 돼요. 씨름에도 이기려면 힘이 세야지요. 힘이 세고 강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질겨야 됩니다. 힘이 세고 강하고 질겨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복의 그들 이상으로 힘이세요? 김일성을 아버지라 하고 수령님이라고 해 가지고 몇천 번 몇만 번 죽기를 맹세한다구요. 학습시간에서도 매일 선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복에 있어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정식 당원, 국민학교에서부터 훈련이 돼 가지고 민청을 중심삼고 훈련되고, 그다음 정치공작반으로 편성돼서 군사훈련까지 다 펼한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책임자를, 그런 젊은 사람들을 대치해서 이길 자신이 있어요? 누가 강해요? 통일교회 패들이 강해요, 그들이 강해요? 어디, 누가 강하겠어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강합니다. 쇠로 말하면 망치로 많이 맞은 것이 강한 거와 딱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 남는 한 매일같이 열 시간 이상 훈련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하냐 말이에요. 강하고 질기고 힘이 세야 돼요.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정부와 협의해서 빠른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해안

선을 경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토치카를 공격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포에 맞아 배가 깨지고 죽고 사는 놀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원 호프(One Hope)를 만든 것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5백 마력으로 70마일 속력으로 나간다고요. 해질녘에 포 장치하고, 기관총 장치해서 후루루릭 들어 때리고 돌아 나오는 거라고요. 젊은놈들, 그런 훈련을 따끔하게 시켜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내 녀석들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들을 못 당합니다. 그들은 여자들도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여자들도? 전부 다 그런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에 완전히 승리하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청년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새로운 부류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부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로운 부족이...

그래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면 북한국민하고 남한국민을 합쳐서 끌고 가자 이거예요. 손대오! 「예」 반대하더라도 북한국민과 남한국민을 합해서 끌고 갈 수 있어야 남북한을 통일하지, 남한이 반대한다고 주저앉아도 안 되고, 북한이 반대한다고 주저앉아도 안 된다고요. 남한과 북한이 반대하더라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 북한의 반대하는 패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실력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그건 이론적이라고요. 그러지 않고는 완전한 승리를 바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바랄 수 없다면 출발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요.

북한을 해방하겠다는 녀석들이, 나라가 위기일발에 서서 망하는 것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나라를 살리겠다고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은 으레히 죽어야 돼요. 더 죽어야지요. 더 희생하겠다는 각오 밑에서 새로운 나라의 부활의 기반이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인 역사발전의 원칙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국민이 살고 나라를 살리는 법이 없다고요. 어느 누가 하나 죽어야 돼요. 죽은 터전 위에, 희생의 터전 위에 나라가

숫아올라오게 돼 있지,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에서 나라를 살리면서 나도 그냥 그대로 살겠다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기 때문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데는 어떻게 희생하느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과같이 살다가 병이 나서 죽느냐, 직격탄에 맞아 희생해 죽느냐 이거예요. 우린 직격탄에 맞아 죽자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통일교인들에게 고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에게도 그런 훈련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전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서 엑스 무니(ex-Moonie; 통일교회를 믿었던 사람들)가 되었지만, 나가서 반대는 하지만 자기가 문선생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보람된 것이 뭐냐 하면 어디가든지 경제문제,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립할 수 있는, 자주적인 사나이가 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임자네들, 책임자들이 테테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자로서 내가 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길러 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제주도도 가 봤는데 제주도 해안선이 전부 175마일이라든가? 제주도에 군대가 얼마 와 있다가요? 2개 대대라고 그랬지요? 2개 대대면 1, 500명밖에 안 된다구요. 1개 연대만 들어가게 되면 그거 언제든지 함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중공이예요. 태풍이 불게 되면 중공의 어선들 몇 백 척이 서귀포에 오잖아요? 불과 50미터, 100미터 이내에 전부 들어온다구요. 이거 뭐 열댓 척, 한 스무 척이 들어오게 된다면, 몇개 연대가 전부 다 연안에 들어박혀 있다가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요즘엔 중공하고 북괴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안심 못 한다구요.

소련으로 치면, 소련 함대가 쪽 오다가 동지나 가까운 데서 어선 한 백척을 갖다 놓고, 소련 함정에서 몇천명이 전부 다 어선을 타고 있다

가 태풍이 불어온다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누가 방어해야 되느냐? 군대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민이 해야 돼요. 그러니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 가지고 몇 백 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토치카 대신 전부 집이라도 지어 놓고 말이예요, 방울을 딸랑딸랑하게 하

든가 해서 줄만 닿게 되면 알 수 있게끔 주위를 전부 엮어 놓아야돼요. 첩첩이 해 놓아야 됩니다. 제주도를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언제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데서, 경비요원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데 가서 시중(市中)에 집을 사서 내가 딱 자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놀음 하지, 김일성이 같으면 그런 놀음을 하겠나? 소련이 김일성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그런 거 알아요? 소련 공산당이 지금까지 나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팠다구요. 어찌면 자기들이 아픈 데를 그렇게 격파해 버리느냐 이거예요. 중미, 니카라과 문제에도 내가 손을 댔고, 아프리카 문제에도, 남아연방문제에도 내가 손을 대고 있다구요. 아프리카 남아연방정부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젠 살 길이 없다고 자기들이 자탄하고 있다구요.

성공적으로 치러진 중공에서의 안보대회

이번에 중공에서 있었던 안보대회를 통해서 중공이 완전히... 중공에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이번에 안보대회를 하지 않았어요, 3월 20일부터? 미국의 유명한 전략가들, 그들은 대학자들이지요. 그런 전략가들과 국방성과 국무성 사람들, 세계적인 대학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중공 출신들을 중심삼고 소련에 대한 전략대회, 대소전략대회를 한 거예요. 중공과 미국이 앞으로 정치방향을, 소련에 겨누는 그런 대외전략회의를 내가 주도한 거라고요. 백악관에서는 어떻게 레버런 문이 그걸 했느냐고 했고, 국무성에서는 어떻게 자기들이 못 하는 걸 레버런 문이 하느냐고 하면서 그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국방성에서도 '어디 그럴 수 있느냐? 중공이 그럴 수 있느냐? 자기들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레버런 문

의 말을 듣느냐하며 가는 날까지 반대를 했다구요. 갔다 와서 국회에 전부 보고하게 돼 있는데, 비행기를 타러 나간다고 해도 전부 믿지 않았습시다. 갔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옛날에 미국 행정처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중공에 회의를 갔다 오면 언제든지 이용당하고 왔다구요. 그래서 레버린 문도 이용당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중공 고위층이 하자는 대로 하고, 프로그램에 돼 있는 대로 움직여 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이 되어 채이고 나온다 그렇게 생각했다구요. 그걸 내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계약을 다 했다구요. 회의한 모든 내용은 즉각적으로 나오자마자 우리 ISC (International Security Council; 국제 안보회의) 에서 공개 출판해서 세계에 뿌리자고 말이에요. 출판해서 뿌리면 소련에 대한 중공의 외교정책이 다 드러나는 거지요. 미국에 대한 정책, 세계에 대한 정책, 소련에 대한 정책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뿌리게 돼 있는데, 그걸 뿌리면 중공자기들이 큰일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끄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출판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차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령을 했다구. 못 하게 하는 날에는 즉각 뒤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뒤로 돌아올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는 우리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삼고, 세계 언론을 중심삼고 전부 다 거꾸로 불 거라구요. 중공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여파로 10년 내지 20년 외교정책에서 뒤떨어진다고요.

그러니 미국 대사가 춤을 추는 거예요. 미국 대사가 불이 달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치면 큰일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문선생이 회의를 주선하는 데에 있어서 미국 대사가 불을 켜고 밤낮 뛰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요? 미국 대사들은 이 사람들 대해 자기들은 꼬봉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스승이거든요. 줄개가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공에서 열 몇 시간이나 싸웠어요. 비행기 표를 사 놓고, 돌아설 것같이 해 놓고 약속 안 하면 비행장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쁜 거라. 표 사서 와 버리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라구요. 그걸 안다구요. 그러니 불이야 불이야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중공이 유명하다구요. 자유세계에서 오는 모든 국가기관 간부들을 그렇게 전부 때려 잡은 거라구요. 그러니 중공에 대한 보고는 자유세계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라구요. 돌아와서 상원위원회에서 보고하니깐 '아휴, 우리들도 못 하는데 레버턴문이 어떻게 이걸 해왔나' 이러더라구.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못 하지만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중공의 외교정책에 관한 모든 것이 이 논문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바람에 중공과 미국이 안보회의를 통해서 소련에 대처하게 됐습니다.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소련이 원흉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됨으로써 중공 자체가 소련과 타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외교무대에서 있어서 줄을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런 놀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북이 남침을 못 하게 할 기발한 아이디어

이번에 통일산업방문 사절단이 13명이나 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초청해서는 못 오지만 내가 초청해서 온다구요. 독일에 있는 우리 공장으로부터 일본을 돌아서, 중국 대표부를 통해 한국 대사와 사바사바 속닥속닥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구요. (웃으심) 그러니 한국정부에서는 입이 터져 가지고 '아이코, 이런 북이 어디 있나' 이러다구.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박사예요. 최고 기술자들입니다. 와서 우리 공장을 시찰하고나서 하르빈에 자동차 공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구요. 지금 나하고 절충하는데, 중공법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법을 고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전에 안보회의를 할 때에 책임자에게 얘기한 것이, 안동현이 소련과 가까운 거리이고 북한과도 그런데, 이놈의 김일성이 철이 안 들었으니 안동현 북쪽에다 2개 사단은 관두고 2개 연대만 배치하라고 이야기했다구요. 뭐 북괴가 북경까지 와 가지고 야단하고, 그러면 왜 머리 아프게 외무장관들이 만나 주고 야단하느냐, 연대장이 만나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거 기발한 아이디어인

데!' 이라고 있더라구요. 2개 연대만 배치해 놓으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요?

삼팔선에다 군대를 배치해요? 2개 연대만 이렇게 해 놓고 협박만 하게 되면 탱크부대와 남한 침공을 위해 배치된 모든 부대를 북방방어를 위해 돌려대야지, 별수 있어요? 그런 놀음을 해야 된다고요.

중공이 정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의용군을 살 것입니다. 사서 1개 사단만들면, 1개 사단이면 3개 연대인데 말이예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심심하면 훈련한다고 하면서 압록강 건너서 팡팡 하는 거라고요. (웃음) 의용군 사자는 거예요. 내가 월급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교포입니다. 180만이 우리 교포이니 사람을 사더라도, '중국 군대에는 못가더라도 의용군에는 가라' 이래 가지고 내가 돈을 주어서 사람을 사서 의용군으로 1개 사단을 만들 것입니다. 중공에 나쁠 게 있어요? 소련하고 전쟁할 때 썩 먹으라고 하면 중공은 허허허 하게 돼 있지, 외면하게 돼 있어요? 이래 놓고는 훈련한다고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서 하루에 팡팡 몇 방씩만 쏘라 하면 김일성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뿐이 아니예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내가. 알겠어요? 「예」 한국교포들 훈련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일년에 돈 일억쯤 주면서 하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1개 연대 아니라, 몇 개 사단도 좋아할 거라고요.

이렇게 떡 해 놓으면 남한 침공하기 전에 북방을 방비해야지, 이놈의 자식들! 북방변에 있는 패들에게 김일성이 총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집이 가만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이렇게 준비해서 몇 개 사단만 만들어 놓으면 참 멋지다고요. 이북 북방에서 팡팡 훈련하게 되면, 중공은 안 하지만 한국 180만 교포들이 군사훈련을 한다는 데 소련이 어떻게 하겠어요? 소련한테 집적거리고 김일성이한테 집적거리고, 이러면서 중공의 보호를 받으면서 클 수 있는,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지가, 몇 개 사단을 전부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떨 것 같아요? 말해 봐, 이 녀석들아. 남한을 침략하겠다는 탱크부대를 북방으로 돌려야 되겠나, 안 돌려야 되겠나? (웃음)

그다음에는 중공을 방문하는 이북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못 간다 이거예요. 김일성이가 원수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뇌하는 거라구요. 반대로 이중첩자를 만들어 자꾸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그런 노릇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승공운동의 사령관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그래, 누굴 시켜서 할 거예요? 사령관인 레버런 분이 가면 되겠나? (웃으심) 누굴 시켜서 할 거예요? 그래도 통일교회에서 믿을 수 있는 패들은 승공 연합 도지부장하고 여기 젊은 카프(CARP) 책임자들 아녜요? 그 외는 어디 누구 있어요? 안 그래요?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이 사령관 노릇을 해야 할 텐데, 중공에 가서 고위층과 척 꼬임다리를 하고 앉아서 담배연기를 슬슬 옆으로 뿜으면서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외교 할 능력이 있어, 이놈의 자식들? 그들은 점잖게 빨고 있는데 말이지. 저들은 한번 뻑 하게 되면 한참 있다가 여기서 한 대 반쯤 피울 때까지 계속 연기를 후욱 빨고 있다가 한 10분쯤 후에 뻑- (웃음) 그렇게 앉아있는데, (웃으심) 그런 사람들을 녹여낼 자신이 있어, 이놈의 자식들아? 왜 웃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구. 중공이 10억이라구. 10억이 한 등지에서 살려니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겠나 이거예요. 어려운 일을 얼마나 극복했고, 참는 일도 몇천년 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라구. 북방남방 5색 가지의 아시아 족속이 모여서 저만큼 10억이 넘도록 등지를 틀고, 그래 가지고 거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판국을 틀 때까지... 요거 조그만 동네에서 날쨌 녀석이 자리 잡는 것에 비할 것 같아요?

만년 역사를 꾸며 가지고 앉아서 지금 담뱃대를 물고 있다구요. (웃으심) 그러니 담뱃대가 한 발이 아니라 몇 발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빨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이 열 번 빨 때에 한 번 빠니, 생각은 남은 열 번 결정할 때 한 번 결정한다구요. 이렇게 느린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저 민족이 저렇게 10억이 남아 있지, 한국 사람같이 대 깎기 장사처럼 그렇게 빨라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구요. 세 녀석이나 남아 있겠어요? 뭐 싸움하고 보따리 싸고 전부 동서남북으로 헤어졌지요. 그

러니까 담뱃대가 한 서너발은 돼야 될 거라고요. 그걸 한번 빨려면 얼마나 숨 차겠냐? 밑창에서부터 전부 다... 이래 놓으니 인내력을 길러야 되고, 또 빠는 시간이 기니 참을성이 많아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한 중공 사람과 어깨를 겨루고 날개를 치면서 할 수 있어요? 응?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번번이 말려 들어가기 마련이고 번번이 당하게 마련이라고요.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중공

선생님이 그런 중공에 지금 추파를 던지고 있잖아요? 미국에 추파를 던지고 일본에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자유세계에 있어서는 말이예요, 레버런 문의 추파가 제일 멋있다 이거예요. 제일 관심사입니다. 왜? 국가간의 추파는, 국가간의 외교문제를 연락하려면 국법이라는 흑이 달려 있어서 이 흑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레버런 문은 그 흑이 없어요. 내가 결정하면 다 결정이 돼요. 법이 없거든. 외교법이 없어요. 이제부터 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나 혼자밖에 없거든요. 내가 결정하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국법보다 나은 거지, 뭐. 간단하고 멋지다 이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익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 중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건 뭐 뽕 먹고 알 먹고, 도량치고 가재 잡고, 누나 좋고 매부 좋고, 뭐 춤추는 운세가 다 벌어진다고요. 그러니 날 안좋아 할 수 없어요. 과학자대회 때에 중국의 교수들이 8명이 왔는데 그 대표가 나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하, 중공에서는 당신이 서구사회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아오' 이렇게 껏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에이 녀석아, 그게 네 말이지 전 중공 사람들의 말이나?' 그랬더니 '아니요, 아니요. 전부 그렇소'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웃으심) 선생님이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대신 가서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한번 물어보자구. 자신 있어, 없어? 이것들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호랑이 새끼가

되라니까 고양이 새끼 돼 가지고 육만 먹어? 콩지 짝어 버리고, 다리 짝어 버리고, 모가지를 짝어 버려야지요.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밥은 같은 밥을 먹는데 언제 일본을 내 옆구리에 차고 풋볼처럼 차 보고, 미국을 꿰어 차고 윈다리로 차 보고, 중공은 걸다리로 한번 차 보겠다, 그런 생각이나 해봤어요? 해봤느냐 말이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걱정이라, 걱정이라구요.

누굴 시킬꼬? 서용원이! 「예」 엉뚱한 서용원이. (웃음) 입은 웃으면서 눈은 딱 올라가고 말이야, 중공 사람 사촌은 되겠어. 자신 있어? 「예」 내가 이북 간첩단 책임자리를 주면 하겠어? 「예」 대답이 시원찮구만. 해야 되겠다구. 이렇게 떡 해 놓으면, 내가 외교단도 파송할 수 있다구요. 한국 국민연합은 안 되지만 일본하고 연합한 국민연합을 만드는데 안 돼요? 그건 하게 돼 있다구요. 이런 이야기가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구요. 우리의 당면한 과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체국의 권위를 갖지 못하면 비참하게 돼

공산세계의 체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망하지 않으면 후퇴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게 중공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의 사상체제 밑에서 체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공산당 이상 체제를 갖춘 내용만 갖다 딱 집어 넣으면 그 체제를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잡아 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찬스가 왔다구요. 중공이 지금 후퇴하더라도, 저걸 전부 붕괴시켰다가는 큰일나는 입니다. 문제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의 수뇌들은 레버런 문 사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세계,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사회의 역센 환경무대를 밀어제끼면서 그런 틈바구니에서 본연의 자체의 체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자체력을 가진 레버런 문 사상, 그것은 그들이 평가할 때 그럴 듯한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의 중공

국민이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돼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들이 '통일교회 교인들이 중국에 와서 교육해 다오' 할 때, 교육할 자신 있어요? 통역관 놓고? 통역관을 놓고 하려면 죽지...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서양 사람을 놓고 통역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요. 중국 자체가 그렇잖아요? 큰나라의 경우에는 통역관을 놓고 해도 알아주지만 이 조그마한 한국의 사람이 중국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사촌 취급이나 하겠어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주도하겠다고요? 어때요? 아시아를 주도하겠다는 선생님의 사상이 한국의 통일교인들과 흡사한 그러한 내용이예요? 통일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갖추지 못한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문제가 크다고요. 어떻게 교육하겠어요? 통역관을 놓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데려다가 해 달라고 할 게 뭐예요? 서양 사람 데려다가 시키는 것이 말을 잘 들어 좋을 텐데.

자기 나라보다 조그만 나라, 옛날에 속국이었던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통역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미국 사람 데려다가 가르치는 것이 낫겠어요?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만일 통역을 쓴다 하면 미국의 통일교인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국제적인 무대에 자주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재료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을 통일한 후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북을 통일해서 북경정부가 말해도 듣지 않던 김일성을 추방해 버리고, 남한을 해방하겠다고 하던 그들의 꿈무늬를 차 버리고, 도리어 허리를 꺾어 버리고, 북한을 평정한 그런 무엇이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남한의 여러분을 데려다가 쓰려고 할 것 같아요? 일본에도 통일교인이 여러분보다 많은데 뭐. 그러니 일본 사람을 쓴다고요. 그러나 남북을 통일하고 난 후에는 일본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산당을 정비하면 현재의 일본 통일교회 교인들보다도... 국가 체제를 중심삼고 주구(走狗)가 되어서 서로 싸우던 소련과 중공을 실제로 정비해 놓고 승리의 실적을 갖고 나타나면 일본 지도층도 한국의

통일교회 지도요원을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걸 못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버티고 서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일본 사람도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국 사람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남북을 통일하고 나서게 되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독일이 필요로 할 것이고, 영국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영향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절대로 필요하니 우리가 필요한 민족으로서 주체국의 권위를 갖출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필요한 아무런 무엇이 없다 이거예요.

그때는 같은 원리책을 번역해 가지고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대학원을 졸업한 것입니다. 두 시간 이내에 3백 페이지의 책의 골자를 빼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지 않고는 대학원을 졸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 시간 이내에 원리 골자를 빼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이걸 캄캄천지라구. 그들에게는 책만 갖다 주면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미국 교육제도가 그래요. 미국 교육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는 미국 사람들이 더 핵심골자를 잘 적발해서 잘하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을 더 거두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대학은 다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는 그들을 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체국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남북통일만 하면 당당히 세계에 나설 수 있어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남북을... 공산당 중에서도 북한이 제일 극악한 공산당입니다. 그럼, 종교 중에서 제일 순한 종교가 통일 교회예요? 극악한 공산당을 잡아먹으려니 더 극악하다고요. 극악이 아주 뿔뿔이 동서남북 8방에 극악, 극악, 극악, 전부 극악뿐이에요. 이래 가지고 잡아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북한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양단되어 있는 나라는 한국하고 독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남북 통일되면 동독 서독은 반드시 통일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동독 서독이 불러간다고요. 가서 완전히 우리 말대로 해서 동서를 통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이지 뭐. 그러한 전통적인 내용을 가져야 앞으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네 아니면 안 되겠소. 당신들 아니면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소'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한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앞으로 세계로 도약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5천년 역사가 케이프 케네디(Cape Kennedy; 우주 로켓 발사기지) 모양 인공위성을 날릴 수 있게끔 기지를 만들어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북한을 평정해야 합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을 평정한 기준 위에서, 기반을 닦아서 인공위성 기지를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천하무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소련 공산당이요 뭐고 할 것 없이...

김일성이 지독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볼 때 하나님도 지독한 대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독한 사람에 대해서 지독하게 이길 수 있는 내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회 교인들은 지독한 공산당을 앉아서 소화할 수 있는 요술동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큰소리를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너희들이 어디에 가서 큰소리를 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한테? 통일교회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일본 식구들에게 지고 있다구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큰소리를 할 거예요? 그들은 24시간 밴(van)을 타고 북해도로부터 가고시마까지 다니면서 집집마다, 편답(遍踏)을 하면서 환드레이징을 하고 있다구요, 뜻을 위해서.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다 학교를 졸업했지요? 「예」 졸업했지요? 일본은 전부 다 훈련입니다. 통일교인은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그 사람들은 매달 120만 엔씩 벌어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 책임분담이라구. 여러분은 월급을 선생님한테서 받고 있어요, 아니면 월급을 선생님한테 주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미 졌다구요. 횡적인 활동기준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미 뒤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패들을 데려다가 어디에 내세울 수 있어요? 세계무대에 내세울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아무런 내용이 없다구요. 단 하나, 그런 내용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남북통일을 해서 승리적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일본에 대해 당당코 나설 수 있고, 미국에 대해서도 당당코 나설 수 있고, 서독 아니라 어디든지 당당코 나설 수 있는, 그런 훈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훈장이.

또 레버런 문 자신도 세계적으로 소란을 피운 것은 뭐냐? 공산주의를 처단하고자 한 거예요. 소련 공산당보다도 김일성 공산당이 더 지독해요. 그래서 세계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대로... 이제 곧 너희 나라 공산당부터 처치하고 나서 세계를 구하겠다고 말을 하라는 반문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반문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신을 세울 수 없게끔 코너에 몰리는 거라구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 '내가 내 나라에서 제일 극악한 공산당을 처치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 나라의 공산당을 방어해 주마' 말이 이래야 논리적으로 짝이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채여 버리게 된다구요. '자기 나라도 해방 못 하면서, 공산당을 뭐 어때? 집어치워! 너희 나라가 가서 해방해!' 이렇게 된다구요.

소련해방을 위한 전주곡이 북한해방

김일성의 기반이 세계의 공산당을 업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미국을 업고, 일본을 업고, 중공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묘한 것은 한국이 4대 강국의 한 복판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4대 강국이라 하면 미국, 일본, 중공, 소련 아니예요? 뭐 영국, 독일, 불란서도 있지만, 그런 나라는 나팔 불면 북치고 팽과리 치는 정도로 생각하지 주역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런 4대 강국 가운데 딱 서 가지고 내가 이 4대 강국의 코를 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코를 꿰 수 있지, 그들이 내 코를 꿰지는 못한다구요. 내

코를 켜지는 못한다구요. 안 그래요? 이미 실험을 펼쳤다구요.

공산당도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정부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레버런 문의 사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미국 정부도 살아 남기 위해서는, 공산당을 처치하기 전에는 미국이 존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부 코를 켜려고 한다구요. 그들이 나한테 코를 켜었지, 내 코가 켜었어요? 대한민국에 내 코를 켜이겠나, 나한테 대한민국이 코를 켜이겠나? 어떻게 생각해요? 여당 야당 암만 싸워 보라구. 내 말이 아니면 안 된다구요. 사실이니까 들이 대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코를 켜 수 있는데, 그들의 코를 켜어 뭘하자는 거냐? 공산주의를 처치하고 소련까지 해방하자는 거예요. 소련을 해방하기위한 전주곡이 뛰고, 그 실험무대가 어디냐? 이게 남북한 통일입니다. 알겠어요? 「예」 여기에는 미국이 끌려들 것이고, 일본이나 중공까지 가담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서 사격을 하게 되면 다 맞게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이쿠! 이거 뭐 남한은 잘사는데 북한을 해방해서는 뭘하나?' 그러지요? 안 그래요? 남한 잘사는데 북한의 문을 열어 놓으면, 그 못 사는 떼거리 2천만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그거 해서 뭘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남한은 그거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세계문제 해결의 모체가 되어 있는 한국

남한이 뭐예요? 아벨이지요? 「예」 동서남북, 동서분립, 그다음은 남북격차, 이 모든 것이 사상적 분립입니다. 서구사상과 동양사상은 다르다구요. 분립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남북간의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평준화시키느냐? 이건 세계적으로 역사시대에 있어서 난문제입니다. 혼란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차대한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로 남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이라기 보다도 숙명입니다. 운명은 우리가 새로 개척할 수 있지만 숙명은 개척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자식간을 어떻게 혁명을 할 수 있어요? 부자지관계는 숙명적입니다. 부처의 관계는 운명적입니다.

그건 다시 개조할 수가 있어요.

한국을 가만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한국이 세계적인 문제 해결의 모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를 보게 되면, 서양이 잘살았습니다. 서양이 세계를 지배해 나왔다고요. 그리고 남북을 보게 될 때 어디가 잘살았어요? 북이 잘살았어요, 남이 잘살았어요? 북이 잘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한은 그 반대가 됐다 이거예요. 남한과 북한을 볼 때 어디가 잘살아요? 「남한이 잘살니다」 또, 한국 근대사를 중심삼고 볼 때 어떤 편의족속들이 한국을 지배했느냐? 동쪽 편이 지배를 했어요. 평양을 움직이는 것도 동쪽 편인 함경남북도입니다. 알겠어요? 남한을 움직이는 것도 동쪽편인 경상남북도예요. 딱 반대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동서분립의 반대로 되어 있고, 남북격차가 반대로 되어 있으니, 둘다 연결시켜서 품을 수 있는 해결형의 모델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예요.

남북을 통일한다는 것은 통일교회에 있어서 몸과 마음을 통일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 남북을 통일했다 할 때는 격차문제는 평준화되는 거예요. 해결돼요. 동서분립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무엇을 가지고 문명기반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은 혈통문제, 심정문제, 사랑문제에 있습니다. 알겠어요? 사랑의 터전 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근본적인 것을 혁명할 수 있다구요. 그래서 서구 사람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 집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합동결혼은 근본적인 세계문제 해결 방법

하나의 사랑의 유대로써 모든 것을 엮을 수 있는 힘은 문선생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현재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동서양 사람을 서로 결혼하게 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지요? 흑인과 백인, 혹은 아시아인하고 흑인을 하나로 묶고 심정권으로 평준화시킨 사람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대한민국이라 하게 될 때, 대한민국이 그런 기반 위에 선다면 그 누구가 이것을 변천시킬 수 있고 혁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도 혁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결혼 때는 말이예요, 일본 사람과 백 퍼센트 결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백 퍼센트 결혼했다구요. 이복하고 이남이 통일하려면 경상도 패와 함경도 패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라구요. 그 말이 그 말이예요. 알겠어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백 퍼센트 결혼하는 거예요.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를 얻어야 될 것이고, 일본 남자는 한국 여자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시켜서 한일(韓日)의 족속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응? 「참부모님 이름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니깐 곤란하다구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녀석들이니 참부모를 무시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라구요. 이놈의 자식들! (웃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치가 그렇잖아요? 이 녀석들이 앉아 가지고 하는 놀음들이...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구.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에덴동산으로 돌아가서 아담가정과 친족의 인연을 맺고 싶은 것이 모든 인류 족속들의 최고의 소원인 것을 난 알아요. 안 그래요? 복귀시대에 있어서 조상과 가까운 자리에서 혈연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최고의 희망이 아니겠느냐?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중심으로 결혼하는 데는 세계의 족장 패들을 불러다가 해야 돼요. 알겠어요? 아프리카 족장하고 한국 여성 노동자하고 결혼하고, 영국 여왕의 딸하고, 한국 노동자하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별수 있어요? 만일 공주가 통일교인이 된다면 내말을 듣게 돼 있지, 여왕 말을 듣겠어요. 하늘나라와 제일 가까운 아담직속 족속에 제일 가까운 그런 계열의 패들과 결혼하고 싶은 것이 인류의 조상은 물론이고, 그 후손인 세계 만민의 공통적인 소원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하니, 한국 여자는 아프리카 남자와 하라고 해도 하고, 서양 남자와 하라고 해도 하고, 일본 사

람과 하라고 해도 하고, 공산당 남자도 좋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세계가 우리나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선생님과 가까운 선생님의 손자 손녀들하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결혼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래요, 안 바래요? 「예, 바랍니다」 그거 어디 물어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만민에게 '한국 백성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안 싶으냐' 하는 물음은 같은 공식에 의해서 물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앞으로 한국 6천 만이 복귀만 되면 세계의 1등 부잣집 아들딸들하고 전부 결혼하는 거예요. 이래 놓으면 한국에 세계의 복이... 그 일등 아들딸들과 결혼한다면 그 아버지가 가졌던 재산은 누구 것이 돼요? (웃음) 웃지 말고 그런 것 생각해 보라구요.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아들딸의 것」 30년 내지 40년만 기다리면 다 죽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엔 싸움하지 않고도 자연히 한 줄에 매달리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보물은 한국에 다 갖다 쌓겠다고 하더라도 보물을 쌓을 곳이 없어요. 저 섬나라, 영국에다 갖다쌓으라고 하는 말이 생기고, 거기도 좁으니 미국 대륙에 갖다 쌓으라는 이런 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되는 거예요. 싸워 가지고 되겠어요?

통일교회를 믿기만 한다면... 선생님을 통해서 결혼하는 것을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아느냐구? 알아? 이놈의 자식들아. 「예」 왜 그게 최고의 희망이에요? 응? 어째서? 이 건 하늘나라의 황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은 혈통을 더럽히지 말라

박판남 ! 「예」 왜 머리가 그렇게 하얗게 됐나? 부부싸움을 많이 한 모양이지? 여러분 가정에는 말이예요, 3개 국 이상 4개 국의 핏줄을 연결시켜 4위기대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내가 봐도 이상한 것은 문씨네 딸들을 결혼시켰는데 전부 서양 사람하고 했어요. 문씨네 딸들인 줄도 몰랐다고요. (웃음) 그런데 가만 보니 문씨네 딸들이야. 어떻게 시키다 보니 전부 다...

선생님에게 축복 안 받은 사람 손들어 봐. 몇 녀석 없구만. 그 외는 다 선
 생님을 통해서 축복받았지요? 「예」 세계 인류의 소망은 여러분과 축복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희망이예
 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똥개같이 더럽혀서는 안 되고, 더럽히면
 큰일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 가지고 더럽혀 놓으면 더욱 곤란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만국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혈통과 순결한 핏줄을 남겨 가지
 고 세계에 새로운 가치를 뽐고 있을 내야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통해서...
 그것이 최대의 소망이예요. 그러나 사탄이 그것을 먼저 알고 이 세상을 전부
 망국지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랑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파탄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상홍! 최상홍의 여편네가 어떻게 생겼던가? 응? 좀 때렸나? 「아닙니
 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 성격에 주먹질 했겠지. 응? 곱상하게 생겼나?
 「예」 곱상해서 안 때렸나, 자기 마음에 쪽 들어서 안 때렸나? 누구같이 생
 겠나? 그래도 요즈음은 간판이 좀 근사한데, 옛날에 건들건들할 때는 며칠 있
 다가 날아가겠지 했더니 여지껏 붙어 남아 있는 걸 보면 용하다구 (웃음) 여
 러번 도망가려고 했겠지, 뭐. 왜 대답을 안해? 축복받고나서 몇해야? 「20해
 됐습니다」 그동안 바람피우고 싶은 생각 없었어? 「없었습니다」 빛이 없었
 을까, 이 녀석아! (웃음) 최상홍 같은 사람이 순수한 핏줄을 갖고 있다면 그
 건 놀라운 사실이지. 그거 생각해 보라구요. 순정을 바쳐서도, 순정의 생명을
 바쳐서도 못 살 그런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일족을 한꺼번에
 전부 제물로 삼아도 인연지을 수 없는 그런 가치적 기준이 축복이라는 거예
 요. 그렇게 귀한 것을 모르고 제멋대로 해 가지고... 영계에서는 용서할 도리
 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통일교회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남북통일

자, 통일교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위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남북통일」 남북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도 다스리지 못하는 작자들
 이 뭐 세계의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게 타당한 이론이라구. 타당하고 정상적인 이론이라

이겁니다. 이것은 진리로서 영원히 남아질 수 있는, 주체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요. 안 그래요? '자기 하나를 평정하지도 못하면서 통일교회가 뭐 세계를 하나 만들고 세계를 지배해? 자기 나라도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이런 평을 내가 들을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대받으면서….

선생님이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환영받음과 동시에 자기 나라를 세워 가지고 세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시대를 맞이 위해서 이번에 돌아온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이게 심각하다구요. 그러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 노아가정처럼 아들딸을 축복해서 탕감조건을 딱 세워 놓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옹성같이 세운 우리 일족 기반을 몽겔 자가 없어요. 사탄이 침범한 것은 그들이 전부 엇갈려 있었기 때문이지, 참부모의 아들딸로서 하나된 그런 기준에 있어서는 누구도 침범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에 와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은 대학가예요. 2세들과 대학 교수들입니다. 교수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학생들은 뺑깡을 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수와 학생을 합친 교학통련을 만든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 전에 만들어 놓고 이걸 또 뭐야? 바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학통련을 만들어 놓고 연합운동을 통해서 대학가를 연결시키는 놀음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통일교회 패들을 선생님이 데려와 가지고 세계적 운세를 연결시켜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학가가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짝 운이 열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정부가 배짱이 있어서 냅다 불어 버렸으면, 피를 흘리더라도 밀고 나갔다면 한꺼번에 다 끝났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배포가 없더라구요. 선생님은 지금 그런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부가… 공산당식이 뭐냐 하면 둘 간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공산당은 원수와 원수끼리 둘이 싸움을 하게 해 놓고는 자기는 쪽 빠져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전술을 적용하려고 그런다구요. 그걸 내가 안다구. 정부가 기성교회하고 통일교회하고 싸움 붙여 놓고는 자긴 쪽 빠지려고… 선생님은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구요. 위에는 후퇴하면서 아래는 공격을 하는 그 작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통일교회가 했다 이거예요. 싸워 나갔습니다.

지금 건대에서 부딪히겠구만. 손대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건대가 내 말대로 잘해야지, 이놈의 자식들. 내 말을 안 들으면 똥가당똥가당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의 한 70명 되는 연합 패들 요전에 전부 정지작업을 해서 항복을 받은 녀석들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좌익패들도 한번씩 다 타진해 보고 교파 싸움하는 데는 가담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을 선생님은 이미 건대에서 몇 차례 치렀다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꼭대기로부터 쪽 훑어 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뭘하는지 임자네들이 알 게 뭐야? 선생님이 외국에 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구요. 요전에 건대에서 난장판이 벌어진 것도 사탄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요. 23억 손해 봤어? '24억 손해 봤어야 할 텐데, 23억이어서 틀렸구만' 내 그랬는데... 한 24억 원 손해 봤을 거라구요.

살림살이를 떨쳐 버리고서라도 남북통일운동은 해야

그래 이렇게 선생님 말을 들어 보니까 남북통일운동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살림살이를 다 떨쳐 버리고서라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살림살이같은 것은 다 팔아 버리고 이북에 가서 자리 잡자 그 말입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내가 이북 가서 자리 잡아 줄게, 그 말이라구요. 이북 사람들이 이남에 와서 자리를 잡고 이남 사람들이 이북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탕감복귀가 아니예요? 그래야 북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북에 가서 살겠다고 자원해서 가는 놀음이 벌어지면 이북이 해방되는 것이고, 이북 사람들이 자원하지는 않았어도 이남에 와서 안 있을 수 없게 되면 그게 바로 탕감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탕감을 했으면 적어도 이제는 이남 사람들은 말이에요... 원래

는 이북이 아벨이었다구요. 그런데 남한이 아벨적 기준을 대표한 혜택을 입었으니, 가인의 입장에서 혜택을 입은 남한은 이제 북한을 대해 아벨적인 책임을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해서 북한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북한에 정주할 각오나 자기 종씨를 옮길 각오를 하는 남한국민이

될 때에 북한은 틀림없이 남한과 하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탕감복귀원칙이 그래요.

남한에 기독교가 많이 생긴 것은 북한 사람들이 이남에 내려와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남한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남한의 기독교는 북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 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벨들이 내려와서 가인 패들을 완전히 아벨국가와 하나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독교로 완전히 뿔뿔 뭉치게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래 가지고 하나되었으니 이제 가인적인 입장의 북한에 아벨적인 입장의 남한이 가서 전부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 북한 사람이 가기 전에 몰래 도망해서라도 남한 사람이 앞서서 가야 됩니다. 그런 놀음이 벌어지면 틀림없이 북한은 해방되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볼 때, 남한의 4천만이 북한에 가려고 하고 북한의 2천만이 남한에 오려고 한다면 누가 이기겠어요? 「남한요」 힘으로라도 남한이 이길 것입니다. 여기 경상도 패들 손들어 봐요. 이북 패들 손들어 봐요. 이북 패들은 몇 사람 없지요? 이북 패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만. 남한패들은 전부 다 북한으로 진군!

원리적인 관으로 보게 될 때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어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의붓자식 취급을 받으면서 탕감복귀한 것입니다.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북한 사람들이 전부 쥐고 있습니다. 정주영씨도 북한 사람인가, 남한 사람인가?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이 1등 부자라구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 올 때 뭘 가져왔어요? 금보따리를 가져 왔겠어요, 피난 보따리를 가져왔겠어요? 「피난보따리」 피난 보따리만 가져왔다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더라면 1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내

가 다 양보한 거라구요. 내가 통일산업을 해서 돈 벌었으면 벌써... 그러나 선생님은 세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면 봉지나 만들어 가지고 돈 벌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 나라의 등뼈를 만들려고 했지요.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경제권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전부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남한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은 기독교문화권입니다, 기독교문화권. 완전히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경상도 같은 곳에 교회가 있었나? 완전히 교회화시켰기 때문에 남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안 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회에 가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동일화, 평준화됐다구요. 그러나 이제 북한이 평준화가 안 되었으니 북한을 평준화하려면 남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의 돈보따리를 싸들고 이북으로 가야 됩니다. 이북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조상들이 전부 추운 곳을 피해서 따뜻하고 양지 바르고 안전한 곳에서 살겠다고 남한에 내려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한에 살던 패들은 북만주까지 추운 데를 찾아가야 탕감복귀가 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이남 사람들은 자진해서 이북으로 갈 생각을 해야

경상도 패, 전라도 패들, 지금까지 한 차례씩 잘해 먹었지요? 지금까지 누가 해먹었어요? 경상도 패가 해먹었지요? 이전에는 황해도 패가 한번 해먹었지요? 이박사가 황해도 패라구. 중부지방이 해먹었고, 지금은 동부지방에서 해먹고 있으니, 이젠 전라도 지방만 남았구만. 내가 어디 사람이예요? 난 전라도 사람이라구. (웃음) 전라도가 끄트머리니까, 공짜 좋아하는 전라도 사람들을 저 시베리아까지 자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통일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지 뒤집을 줄 알아요? 요만한 구멍에서 완전히 뒤집어 빼야지요? 안 그래요? 벌커덕 뒤집어 놔야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탕감복귀원칙에 의해서 전라도 사람은 제일 추운곳에 보내고, 경상도 사람은 제일 싸움 많이 하는 곳으로... 잘 해 먹었으니까 싸움을 해야지요. 전부 다 총대 들고... 군대 장성급은 전부 경상도 사람 아녜요? 「예」 총대 들고

전부 소만국경 파수병이 왜야겠다구요. 해 먹은 것만큼 전부 탕감복귀를 해야지요. 섭섭한 이야기지만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잘 해먹어라, 이놈의 자식들! 기름져라 이거예요. 내가 그 기름 때를 다 긁어서 만국을 해방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구요. 무서운 사람이지요? 「예」 무서운 사람을 앞에 놓고도 무섭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무서운 사람이면 무서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라구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무서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알고 아시아에 있어서 요놈의 복귀... 내가 김일성의 감옥에 앉아가지고 '이 자식아, 두고 봐라. 내가 40년 이후에는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놈의 자식' 그러고 앉아 있었다구요. '내가 이려고 앉아 있지만 기를 쓰고 하늘의 모든 기력을 다 발휘해 가지고 기반을 닦아 돌아올 때, 이놈,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콩밥을 내가 맛있게 먹겠다. 분하다고 하며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이치는 다 그렇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알싸, 모를싸? 「알싸」 남한 패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구요? 「북한」 북한만가요? 시베리아까지, 그리고 저기 만주접경 하르빈 북쪽까지... 그래서 내가 하르빈에다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정착해서 살 때 여러분이 밥을 굶게 되면 먹여 주려고... 「고맙습니다」 (웃음)

그리고 또 일제때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은 만주에 피난 가서 고아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촌들 아네요? 그 말이 맞다는 거라구요. 거기에 가 보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평안도 사람은 없어요. (웃으심) 경기도 사람도 없습니다. 대다수가 어디 사람? 할라꾸예요, 할라꾸. 할라꾸가 뭔 줄 아세요? 평안도에서는 전라도 사람을 할라꾼이라고 합니다. 에이, 이 녀석, 왜 웃음을 기분 나쁘게 웃어? (웃음) 진짜 할라꾼인 모양이군. (웃으심) 전부 다 그패들이

국도를 따라서 신의주까지 걸어가는데, 그때는 대다수가 우리 집에 들러 갑니다. 국도에서 우리 집까지 한 5리밖에 안 되거든요. 20리 안팎에서는 밤에 잠을 자려면 우리 집에서 자라는 소문이 났었다구요. 문 아무개 집에 가면 떡여 주고 자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아주머니의 궁둥이를 찾습니다. 전라도 아주머니들의 궁둥이를... 이전 매일 같이 동네를 다니면서 빗을 팔고 이리다가... 만주를 가려면 하룻밤이면 넘어갈 텐데 일주일도 그만이에요. 떡 잘 때만 되면 사랑방에 들어왔다구요. 그러니 경우가 틀렸으니 '이놈의 아주머니 여기에 왜 와?' 하면서 궁둥이를 찾지. 그렇게 전라도 아줌마들 궁둥이도 많이 차고, 경상도 아줌마들 궁둥이도 많이 찾다구요. 그때 궁둥이를 많이 찬 그 값을 내가 탕감하는 모양입니다. (웃음) 자, 이거 전라도 패거리들 해방해야 되고 경상도 패를 해방해야 합니다.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원하는 세계가 안 이루어져

자, 이렇게 볼 때, 전라도 패 경상도 패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베리아」 맞아요. 시베리아로 가야 돼요. 전부 시베리아에 가려고 하게되면 뭐 김일성이 문제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벌써 30년 전부터 계획한 것입니다. 30년 전부터, 벌써... 알겠어요? 「예」 황, 뭇인가? 황 현수, 어때? 알겠나? 「예」 전라도 패들 앞장세우고 경상도 패들을 앞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상도 패들 잘 해먹었지요? 지금도 잘 해먹겠다고 하다가 설사가 나서 야단하고 있잖아요? 하는 놀음이 그래서 안 됩니다. 남북을 생각한다면 초민족적인 배포를 가져야 되고, 초국가적인 배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남한을 중심삼고 경상도가 뭐 어떻고 전라도가 뭐 어때요? 그건 망해 들어가는 거라구요. 망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운세가 한 국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베리아 만주까지 가자! 그래서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의 여러분의 동포를 해방해야 됩니다. 북한은 소생이고, 만주는 장성, 시베리아는 완성

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해방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세계 해방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세계 해방 기틀은 내가 이미 만들어 놓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북한해방, 교포 해방... 시베리아에도 교포가 있지요? 「예」 거기에는 전라도 꽤나 경상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기 위해 들어간 애국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국가적이라고요. 그리고 소련에도 다 갔다구요. 그런 패들을 해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조국광복의 새로운 아침이 시베리아 별판에서부터 시작하여 천하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노랫 가락이 만주를 거쳐 한반도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조국광복의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를 통일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세 아들이 있다면 그중에서 제일 아벨이 누구예요? 장남이 아벨이예요, 차남이 아벨이예요? 「차남입니다」 차남이 아벨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 가운데에서 언제나 차남이 중앙에 있습니다. 차남은 중앙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동서를 그을 때도 둘째번이 중앙입니다. 남북을 그을 때도 중앙입니다. 중앙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속적으로 관계해 줄 수 있는 것이 둘째 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공이 장남이라면 한국은 차남이고 일본은 삼남이예요. 그런데 일본은 3남도 되지 못하고 삼녀예요, 삼녀. 삼녀기 때문에 삼남측에는 들어 가지도 못합니다. (웃음)

아, 일본은 여자 아니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발도 말이예요, 통발이 아니고 발이 갈라졌다고요. 이것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것이예요. 여자가 가랑이를 벌리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여자들은 절개가 없습니다. 오야마다는 뭐 그런 것까지 기록하나, 이것아! (웃음) 한국 말 배우라고 해서 알아들으니 곤란한 것이 많다고. 일본 여자들은 걸을 때도 발을 땅에 끌고 다닙니다. 땅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

로 일본은 여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게다가 신고 걷는 걸 보라구요. 전부 다 이렇게 저으면서 다닌다구. 양반이 이렇게 젖고 다니나? 여자가 이렇게 젖고 다니지. (웃음) 땅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은 남성적이고 일본 사람은 여성적 입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라구요. '왜 문선생이 통일교회 만들어 가지고 한국은 아담이라 하고 일본은 해와라고 했을까'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일본 사람끼리 모여 항의를 하자고 연구를 하다가 입이 딱 다물어졌다구. 알고 보니 여자라구, 여자. 여자입니다.

이걸 누가 하나 만들어야 된다구? 「한국」 한국이라구요? 어째서? 중앙에 있으니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3천리 반도가 말이예요, 7천리 반도는 되어야 됩니다. 7천리 반도라면 중국의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멀리까지 갈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졸본 부여 시대의 고적지를 보관하고 있다구요. 중국 사람들도 한국의 조상들이 살았다고 문화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중공 사람을 전부 잘살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싸워서 뺏는 것이 아닙니다. 싫다고 해도 찾아가라고 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찾자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만 세계를 요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억 이상의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먹고 남는 것은 쌓아두지 말고 전부 새끼 치라구요. 통일교회 여러분들은 먹고 남고, 먹고 남고, 자꾸 남으라구요. 선생님 같이 말이예요. (웃음) 그렇다고 교회에서 벌어 먹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벌어먹어야 됩니다. (웃음) 내가 그렇게 많이 낳았지만, 임자네들에게 돈벌어 달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벌어 먹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새끼를 많이 쳤으면 벌어 먹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갑자기 붙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머리 좋은 아이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세상 아이들도 잘났습니다, 전부 다. 벌써 얼굴 생긴 것이 달라집니다.

아시아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이 남자상입니다. 여자는 왔다갔다해서 안 되지만 남자상은 점점 잘생겨 갑니다. 힘을 쓰고, 아시아나 세계로 용

솟음칠 수 있는 기백이 되면, 천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면, 나비가 봄에 꽃을 보고 찾아오듯이 전부 다 와 붙어 가지고 그 후손을 통해서 번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이념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 낳은 아이보다 아래로 갈수록 아이들이 더 지혜로워요. 아주 더 영민하고 머리가 좋고 더 영적입니다. 정진이란 해도, 쓱 와서는 '오늘 왔다 간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빠 그 사람 가까이하지 마세요' 이런데요. 너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 '다 아는 게 있지요' 이런데요. 벌써 그래요. 우리 애들이 전부 그래요. 은진이나 인진이나 전부 영적으로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내심이 보이고 말이에요, 어른어른한다는 거예요. 영계의 영인들이 와서 일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계와 가깝다구요.

그건 누굴 닮아서 그렇겠어요? 어머님을 닮아서 그렇겠어요, 아버님을 닮아서 그렇겠어요? (웃음) 「부모님을 닮아서입니다」 아니, 누굴 닮았느냐고 물어 보는데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이럴 때는 말하기 싫어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해야지. (웃음) 아직 철이 덜 들었다구. 어머님이 없잖아? (웃음) 때를 봐야지. (웃음) 생긴 것을 보라구요,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를 닮아 났나. 전부 다 아버님을 닮아서 그렇지요. 체격들이 얼마나 커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분이 어머니인데... 거 누굴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으면 작아야지, 더 커지는 법이 있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어머니보다 크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아버님요」 그렇지! (웃음)

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들게 됐다구요. 쓱 볼 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벌써 알고 말해요. '아빠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 왜 해요?' 이래요. 아, 내가 해명해야 할 답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빠 이래서 이러지요?' 이런데요. 자, 이러니 곤란할 때가 많아요. 쟤까닥

맞춰 대는데 말이예요. 그러니 점점 아이들이 무서워지더라구요. 야- 저거 저... (웃으심) 나보다도 더 무서워져요. 앉아서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내가 떨하고 있는지 다 알려구요. 우리 은진이는 기도는 안 하지만 몽시를 받는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한국에 무슨 일이 있으면, 벌써 한국에 무슨 일이 있겠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다구요.

그러니까 임자네들이 정성을 선생님같이 들으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접붙은 하늘이... 하늘은 죽지 않았다고요. 뭐 오늘도 하나님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말이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쓸 만한 종자를 찾아다닙니다, 쓸 만한 종자. 안 그래요? 여기있는 사람들은 종자 다 받았어요? 아이가 셋 이하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전부 다 셋 이상 있냐? 셋 이상 되는 사람 손들어 봐요. 아이고, 이거 다 종자들 받았구만. 못된 종자들 다 받아 놓고 왔군. 오늘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종자를 받았으면 좀 나왔을 텐데. 임자네들, 교육은 철저히 하라구요. 손자시대에라도 복을 접붙일 수 있게끔 말이예요.

여기, 결혼한 패 중에서 애기 못 낳은 사람 손들어 봐요, 애기 없는 사람. 손대오는 본래부터 그런 거고. (웃음) 벌써 이름이 '손대오'예요. 이것은 손 안 댔다는 말이라구요. 손대라 하면 안 대겠다는 겁니다. '손을 대오, 손대 보소' 이거 아네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이 이름을 '손대오'했으면 벌써 아들 딸이 많았을 텐데, 저렇게 홀쭉한 사람을 누가 손대 보겠어요? 그러니 아들딸이 없지. (웃으심) 그래, 손대오 이름을 뭐 '손안대오'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그래야 양자라도 생기지. 그렇잖아, 손대오! 잘난 집의 잘살고 이름난 가문의 잘난 남자가 손대오 하면, '웁소' 이럴거라구요. 그러나 집도 못 살고... 어머니 아버지 다 있냐? 얼굴 상조차 족제비 얼굴처럼 딱 생겨 가지고 손대오 하니 누가 손을 대겠냐? (웃음) 그러니까 외로운 것이 더 좋아, 손대오는. 그 대신 일을 많이 시켜 가지고 탕감복귀하는 거라구요. 그래서 지금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잘 논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것으로 탕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대오. 이제 양자 하나 마련할래? 「예, 아버님께서 주시면...」 내가 줄 게 뭐야, 그 어미 아버지가 줘야지. (웃으심) 아이고,

얘기를 많이 했더니 내가 아주 뭐 등줄이 생기고... 이거 안 되겠다구, 얘기를 관둬야지.

자, 어디로 가자구? 「시베리아」 시베리아라는 말은 뭐냐? 일본 말로 하면 스베리(すべり;미끄럼), 미끄럽다는 것이예요. 시베리아 하면 미끄러지는 집이란 뜻입니다. '시베리' 하면 미끄러지는 것이고 '야(屋;실내, 집)' 하면 집입니다, 미끄러진 집,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에 가서 미끄러지면 일본에 가서 걸릴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일본에 가서 걸리면 일본사람들이 전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이 시베리아에 가게 되면 일본 사람도 전부 우리 한국 따라서 시베리아에 갈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좋아하고 싸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남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 중원천지 좋은 대륙을 전부 다 뒤로 하고...

문씨 문중에 내려오는 전설

문홍권이! 「예」 공자님 말씀에 문씨 가문에서 뿔이 나온다고 했다고? 「성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보라구요. 「예」 그것 가지고 왔나? 「예」 난 그것이 공자님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 저 녀석 도깨비 같아서 말이야. (웃음) 거 그만두고 이야기해. 「예. 문씨 유적들이 많은데 그 유적들마다 전해 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습니다. 남평에도 그렇고, 공주의 증시조 문충숙 공묘 있는 데도 그렇고, 산청의 문익점 할아버지 묘 있는 데도 그렇고 아주 확실하게 전해지는 얘기인데 문중에서 성인들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홍권씨의 얘기가 약 20분간 계속 됨)」 문씨들은 전부 다 이복으로 보내야 되겠구만.

여기 교구장들 왔지요? 「예」 문홍권에게 이야기했지만, 종중교회장이라 해 가지고 교육해야 되는데 혼자서 40만 명을 어떻게 교육하겠나? 그거 못하니까 앞으로 도지부장을 중심으로, 그 관내의 문씨 교역장을 그도의 종중 책임자로 세워서, 문씨 교육의 책임자로 세워서 확대시켜야 되겠다구요. 문홍권은 특별한 수련회가 있으면 가끔씩 순회도 하고 해서 본부와 연결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조직편성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되면 교회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40만 문씨들, 문씨는 옛날부터 길을 가다가도 동네 근방 십리 안팎에 문씨가 있다고 하면 찾아갑니다. 또 같은 문씨가 찾아오면 반드시 밥을 해먹이게 돼 있고 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평안도 고향에 있었을 때에도 문씨들이 만주로 가다가 찾아왔다구요. 그러면 반드시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시를 해 가지고 밥 해먹이고, 비용을 쥐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문씨는 그렇게 종족관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인가, 리틀엔젤스회관에서 문씨 종친회를 했는데 나를 종친회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인 수가 한 3천 명 돼요. 거 문씨들 꽤거리가 많아요. 경상도 꽤, 전라도 꽤 등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 40명 되는 꽤거리 장들이 대표가 되어 자기 휘하에 있는 중요한 간부들을 3천 명 정도 모아 가지고 종친회를 한다고 하면서 나를 초대했어요. 내가 그 초대에 응하냐? 제발, 우리가 특별히 할 테니까 한번 와 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나에게 무슨 이름을 줬느냐 하면 종장, 종친회의 어른이라 해서 종장이라는 이름을 주기로 정했나?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말을 하다 말고, 40명은 단상에 앉고 그다음 3천 명은 아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들 앞에 아예 따진 거예요. '여기 40명이 전부 지방 대표들인데, 대표들이 나에게 종장이라는 이름을 지어 줬는데 나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지었소, 사실 전부를 위해서 지었소?' 그렇게 물어 본 거라구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문홍주, 이 사람은 장관을 한 사람이고 해서 내가 잘 알거든. 그래서 '영감, 날 이용해 먹기 위해서 지었소, 사실이 그렇소?' 하고 물었어요. 그래 자기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게 돼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 전부 그렇소?' 하니 '그렇소' 이래요. 확인했지요. '그렇다면 손드소'하니 손들었거든. 종친회 간부들 40명이 전부 손을 들었대구요.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장인데 이들의 말은 나를 기쁨으로 종장을 세웠다는데 당신들도 그렇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손드소'했더니 와 하고 3천 명이 다 손들었어요. '그러면 종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겠소, 안 해야 되겠소?' 이랬어요. 그렇게 걸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웃음)

그때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소, 순종하지 말아야 되

겠소?' 이러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손드소' 하니까 손 다 들었다구요. '그러면 종장의 이름으로 5억을 대출 테니까, 종친회에서 뜻이 있는 똑똑한 청년들이 공부 못 하고 있으면 장학금으로 하시오. 5억은 내가 내놓을 테니 5억은 여러분이 벌어서 만드시오' 이랬다구요. 종장 책임을 해야 되는데 5억이 문제가 아니라구요. 40만 명이 한 그룹으로 들어오는데 5억이 문제예요? (웃음) 50억도 작을 텐데, 그렇게 딱 해서 묶어 놓았다구요. 종친회에서 5억을 중심으로 회의하고 관리하려면 종장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5억 모금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못 하면 내가 조직을 만들어서 할 것이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직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조직편성을 다하고 그다음엔, 부산 대구, 8도에 전부 다 조직편성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의 문씨 종족은 모이시오하고 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올라올 거라구요. 전부 모여 가지고, 본부에 전부 모여 가지고 '문충채 생일날 축하파티 하자' 하면 '술 값은 내가 내겠소' 해서 몇 억 내놓으면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문씨 가문의 전통

이제는 전부 줄줄이 꿩이 돼 있어요. 명태가 구멍을 내서 만들어 놓은 그물에 들어가듯, 전부 다 구멍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는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오면 전부 다 꿩이 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3분의 1은 그만두고라도 30만은 틀림없이 내가 전도한 것이 된다구요. (웃음)

그렇게 해 놓고 작년에 문흥권을 불러 놓고, '야, 너를 문중교회장으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시푸동해 가지고, 서울 교구장 하던 사람인데 무슨 종중의 교회장 하게 되면, 차도 없고 뭐 어떻고 어떻다고 하며, 이려고 있더라구. '이놈의 자식이 해보지도 않고 기분 나쁘게. 해봐라, 이놈의 자식이!' 이랬더니 씩씩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출발했다구요. 협회에 가서 보면 책상도 없고 뭐 자리도 없는데 무얼 어떻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그랬어, 안그랬어, 이것야? 「차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어도 사실이 그렇잖아? (웃음) 사실 이야기지, 전부다. 「그때는 염려스러워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신나 가지고, 차가 뭐야? 차가 없어도 좋다고 뛰고 있다구요. 그거 그럴수밖에. 서울에 있는 10만 명의 문씨들이 전부 자기 명령에 움직이는 게 환하거든.

문씨들을 보니까 중요기관에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똑똑하니까. 문씨가 머리가 좋다구요. 또 고집도 여간 아닙니다. 못살긴 못살아도 그 고집은 땅고집이라구요. 전라도에 가도 변하지 않고, 만주에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어요. 선생님을 닮아서, 종장을 닮아서, 이런 문씨들을 잘되도록 한 구멍에 몰아넣어 가지고 교육해서 쓰면 말이예요, 이 총칼보다 강한 대포 아니면 고사포가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문씨가 참 양반입니다. 이조시대에는 벼슬을 하지 않았어요. 벼슬을 못한 게 아니라 하지를 앓았다는 거예요. 과거도 안 봤다구, 일부러. 그걸보면 뼈다귀가 있는 족속이지요? 절개가 있는 패들이라구요. 그래서 나같은 사람이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자기 이웃 마을과 같이 생각하고 큰덕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지나가다가 문씨 집에 오게 되면 밥을 대접하게 돼 있다구요. 이걸 어느누구든지, 처음 보는 사람이든 누구든 배고파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선생님 가문의 전통입니다.

겨울에 평안도는 추워요. 보통 영하 17도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영하25도까지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거지들이 와서 있으면... 연자방앗간이 있는데 싸라기 나가지 말라고 요만한 구멍 하나 내고 전부 다 막는다고요. 겨울에는 숯불을 담은 조그만 거 하나 놓으면 거기는 아주 온돌방보다 더 뜨겁다구요. 그 연자방앗간이 우리 것인데 언제나 한두 녀석은 거기에 정주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세상천지를 암만 돌아다녀봐도 이 집만큼 밥 주는 곳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거지하고 친했다구. 그러다 한번은 '이놈의 간나 거지, 오지 말라니까 와!' 이래 가지고 전부 쫓아낸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병신 부처가 있었는데 그중 남편은 눈이 안 보이고 여자는 말을 잘 못하는 반병어리에 절름발이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의가 좋은지 소경 남편을 끌고 다니면서 동냥해서 먹고, 부처끼리 그야말로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에도 그랬고, 이게 3대를 걸쳐서 빌어 먹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대 2대 때까지도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여기 와서 그러느냐고 하면서 쫓아 냈어요. 이름이 뭐냐 하면 윤금석이에요. 이름도 안 잊어버렸다구. 그 거지 이름이 윤금석인데, 내가 그랬다구요. 내가 철이 들어 가지고 지방으로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오니깐 겨울에 말이예요, 그 거지도 저 먼 데 가서 빌어먹다가 자기가 정든 우리집 연자방앗간을 찾아오다가 우리 마을 한 2킬로미터 앞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깐 얼마나 섬뜩한지... (웃음) 내가 학교 다니면서 매일같이 윤금석이 죽은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그러던 것이 엇그제 같다구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아버지도 거지들이 밥 달라고 하면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상을 그저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 어머니 싫다고 그러시면서 말이예요, 거지들에게 밥 주면서 싸움도 여러 번 하는 것을 봤다구. 아무리 정성껏 새로 밥 지어서 드려도 물어보지도 않고 거지에게 밥상을 들고 나가서 갖다 주니 말이예요. 밖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한 5분만 있으면 밥을 갖다 줄 텐데도, 이걸 뭐 밥 달라는 소리가 나자마자... 거지들을 떨게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뜨거운 국을 마시겠느냐 하면서 상 채로 갖다 줬다구요. 그렇게 지낸 집안이였다구요.

선한 일을 계속하는 집안은 망하지 않아

팔도강산 모든 사람에게 밥을 먹여 준 그런 문중에서 태어난 선생님은 또 세계 만국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밥을 해먹였어요? 임자네들도 여기 와서 밥 먹지요? 「예」 미국 이스트 가든, 벨베디아 어디든 세계 사람이 오게 되면 전부 밥을 먹고 산다구요. 밥을 먹고는 말이예요, 인사도 안 하고 간다구요. (웃음) 그랬으니 망할 줄 알았지만 망하지 않고 문씨성이 세계에 이름 났다구.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보우하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만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씨

중친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구요. 문씨 종장으로서 여러분 통일교회 간부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거라구요. 알겠어요? 「예」 잘 대접해야 된다구. 찬밥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불에 데워서 뜨겁게 했다는 조건을 세워 가지고 대접하라 이거예요. 찬밥을 그냥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씨가 여러분 조상들, 친척들을 먹였다구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전부 많이 얻어먹고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났다구요. 이십 리 안팎에는 거지가 가게 되면 '문 아무개네 집에 찾아가소' 이럴 정도로 이름난 집이었다 그거예요. 그게 선생님 고향 집이었다구요. 그런 놀음을 하다 보니 가문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와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족속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전부 증명된 사실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먹고 남아서 그런 게 아녜요. 먹고 남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먹지 않고 굶으면서 한 것입니다. 못살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평안북도 지방의 결혼풍속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것은, 8남매를 다 결혼시키다 보니 말이에요... 이북에서는 결혼하는 방법이 남한과 달라요. 남한에서는 장가가면 신랑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큰상 받고는 색시 데려오지요? 그러나 이북 결혼식은 그렇지 않아요. 대가집에서 결혼하게 되면 신랑이 색시 집에 가서 잔치를 사흘을 합니다. 사흘 동안 병풍 뒤에 신랑 자리를 잘 꾸며 놓고 신랑을 모시고 사흘이 지나야 비로소 그 자리를 거두는 거예요. 돛자리 위에 병풍을 치고 큰상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첫날은 큰상을 받는 거예요. 아침도 큰상을 받고 점심도 큰상, 저녁도 큰상이예요.

점심때의 큰상은 뭐냐? 동네 젊은 사람들이 와서 단자라는 것을 쓰게 합니다. 신랑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얼마나 실력 있나 해

가지고 문구를 써서 답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답을 못 하면 별로 들어내기도 하고 틀기도 합니다. 이래 놓고는 장인 장모를 틀어 가지고는 돈을 내게 해서 한탕 먹는 것입니다. 그런 풍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이 참 멋진 나라다 이겁니다. 그게 좋은 풍습이라구요.

사대부 집에 종들이나 동네 사람이 어디 자기들 멋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갓집의 규수가 자라는 것은 전부 보거든요. 어디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하면서 동네 도둑놈 같은 젊은 녀석들이 짝사랑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구요. 그런 사람들이 담 안에 들어와서 시집가는 걸 어떻게 엿보거나 하겠어요? 회심풀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단자가 오고 신랑이 오면 문을 열어제끼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별의별 젊은 놈들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신랑을 들어 메기도 하고 두들겨 패 가지고 얼마를 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신랑이 오는 날, 큰상부터 들어 옮겨 가는 거라구. 그것부터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소갈비로부터 뭐... 부자면 부자일수록 상은 높은 것입니다. 몇 자 상, 이래 가지고... 후들면서 회심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몽둥이로 들이때면서 '이놈의 자식이 안 왔으면 짝사랑이라도 하고 담 너머로 얼굴이라도 보고 생각이나 할 텐데, 이놈, 네가 와서 관심 갖고 있던 여자를 도둑질해 가는구나' 이러면서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 한국 풍습이 참 멋지다구요. 신랑이 와서 하루를 지내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그런 놀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방네 사람은 전부 모이지요. 그래 가지고 뭐 사위가 잘났느니 어드렁다느니, 사위가 자랑스러우면 한턱 내라는 거예요. 장모보고 내라 하고 장인한테 내라하고 색시에게까지도 내라고 하네! 또 색시는 남자들이 다룰 수 없으니까 아줌마들이 달라붙어서 짓이겨 댄다구. 이렇게 동네 잔치를 제2차로 하고, 또 작은 잔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야단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잔치를 한다구요. 알겠어요? (웃음)

장가를 간 그날로 바로 색시를 안 데려갑니다. 보통 일주일 있는데 어떤 사람은 40일까지 있어요. 「처가집 기둥 뿌리 뽑겠네요」 뭐, 처가집 기둥뿌리를 뽑는다고? 장가갈 때 그렇게 실컷 먹고 대접받지, 언제 대접받겠어?

(웃음) 보통 일주일,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3일, 3일도 아니예요, 4 일입니다. 그렇게 4일만에 돌아오고 5일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하느냐? 색시가 시집을 갔으니까 시가에 들어가야 될게 아니예요? 서울과는 달라요. 촌색시들이 들어가게 될 시집 문중을 알게 뭐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구요. 서울 같으면 결혼하게 되면 방 하나 얻어 가지고 세간 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러나 대갓집 층층시하에 들어가는데 색시가 신랑집 가풍을 몰라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가풍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신랑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엔 할아버지 누구로부터 삼촌 누구하면서 7촌까지 관계된 모든 친척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설명하느냐 하면 시집을 때 인천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버선 한 켤레 라도 해오라 그 말이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랑이 색시네 집에 가서 그렇게 머무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시집을 때 신랑 가문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게끔 시나리를 해 가지고 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옷 싸이즈는 어떻게 하면서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랑이 한번 보고 안 되겠으니, 장가가서 해올 것 애초에 뭐 생각 안 했으니 처음엔 장가가는 것만 좋다고 생각했지, 그런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신랑이 신부집에 한 번 가서는 되지 않으니 갔다 와서는 또 갔다 오고 세 번 네 번, 길게 되면 일년 반도 걸립니다. 이렇게 장가를 가서 색시를 데려오는 데 3년 걸린 집도 있다구요. 그 동안에 전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시가 시집에 오게 되면 사흘만에 자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걷고는 그집 문중 사람이 됐으니까 큰 삼촌집으로부터 작은 삼촌집 뭐... 대갓집은 그렇잖아요? 딸레 (떨거지)가 많으면 그래야 돼요. 순서대로 큰아버지 집으로부터 작은 아버지 집까지 쪽 다닌다구요. 종조부가 있으면 종조부 집부터 쪽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반상계한다고 해 가지고 소(小)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보통 잔치하는 것보다 잘 하는 거예요. 인천간에 전부 모여서 한바탕 작은 잔치를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음을 하면서 측 한 바

귀둘게 되면 그 가문의 모든 인친을 다 알게 됩니다.

「건대에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잘 끝났나? 「예」 잘했구만. 잘했다구. 그래, 이쪽은 좀 비켜요, 비켜. 다 일어서라우! 이쪽으로 오라구요. 왼쪽은 다 비워요. 먼저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오고 새로 들어온 때는 이쪽으로 다 오라구요. 자, 앉아요.

여덟 형제를 결혼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신 어머니

평안도식 결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덟 형제를 결혼시키느라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 문중의 가풍도 있고 위신도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 가지고 먹지도 않고... 장날이면 어머니는 괜히 장에 갈 일도 없는데 왔다갔다하면서 장이라는 장은 다 찾아다녀요. 가서 뿔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갈 때 쓸 물건을 하나 둘 정성스럽게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성이ら구요. 그러니 귀중물품 보관하는 곳의 문을 열게 되면 오색 가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호집 같아요. 거기에는 비단 치마 저고리감이 없나, 양단 포대기 이불감이 없나, 별의별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딱 번호를 먹여 놓는 거예요. 번호가 1인 것은 받아들 것, 그다음 2인 것은 누구 것... 다 시집 장가 혼수감으로 번호를 쪽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일생이 얼마나 처량해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상놈들이 짠 값싼 광목 같은 것을 사다가 장가 보내고 시집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성 어리게 해 가지고 보내야 돼요. 열두 새 이상, 보름 새를... 보름 새 묶는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처녀들은 그런 거 모를 거라구요. 보름 새가 뿔이고 스무 새가 뿔인지, 그런거 알아요? 무명 짜는 거 알아요? 말만 들어서 모를 거라구요. 한 새가 몇 오라기냐면 스무 오라기입니다. 스무 오라기니까 열 새면 2백 오라기입니다. 아래 위로 있으니까 4백 오라기가 됩니다. 아래 위를 꿰매니까 4백 오라기가 돼요. 둥그렇게 달린 것이 2백 오라기지만 4백 오라기가 되는 거예요. 바디질을 해 가지고 매서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렇게 넣고 해 가지고 넣고 찐다구요. 그러니까 갈래 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가름새줄이 많기 때문에 그제 얇아야 됩니다.

또 물레질을 하려면 목화에서 씨를 빼야 됩니다. 토리개로 씨를 빼고 그걸 타 가지고-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구만-밀어서 실을 뽑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물레에다 틀어요. 우리 고장에서는 토갱이라고 그래요. 잣으로 토리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같은 굵기를 중심삼아 가지고 수백 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필이라 하면 대개 마흔자입니다. 보통 이남에서는 스무 자로 하지만 이북에서는 마흔 자가 한 필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참 힘이 좋았대요. 선생님같이 장사였어요. 뭐, 난 장사는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는 장사처럼 생겼대요. 보면 둘레가 커요. 본래 장사 가문이라구. 그렇기 때문에 베를 짜더라도 보통 2배이상 짜는 거예요. 열두 새 40자 베를, 사흘이면 한 필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루에 열 석 자 이상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구요. 짜그닥 짜그닥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놀음을 하면서 수백 필의 무명을 짠 거예요.

평안도에서는 여자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시집가기가 힘들어

선생님 같은 사람은 결혼한 것도 개척한 것입니다. 내가 다 개척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신세를 안 진 거라구요. 절대 신세 안 지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개척이라구요. 결혼도 갑자기 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두 달 이내에 무명을 10여 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놀음을 하니 일화가 참 많아요.

이북 결혼식에 대해 나중에 온 분들은 못 들었지요? 여기는 다 들었대요. 못 들었으면 그만두라구. 이렇게 결혼식날 동네방네 잔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한번 했다가는 집을 팔게 되고 그러니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구요. 사돈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름 있는 가문이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색시가 시집에 가서 시집의 옷을 못 입게 돼 있다대요. 일생 동안 입을 것을 다 해 가야돼요. 자기 입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가의 어른이라는 어른,

사돈의 팔촌까지 옷을 한 벌씩 다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농이나 뒤주 같은 것을 소 좌우편에 실은 것을 한바라라 하는데, 그런 것을 20마리, 40마리의 소가 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가 한번 가고 싶지요? 그 대신 색시네 집에서는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뭘 갖고 시집 보내나? 땅을 팔아서라도 보내려고 하지만, 딸 살리기 위해서 땅 팔았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사돈이 그런 소문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나는 거거든요. 소문이 나도 시집 보낸 후에 나도록 땅을 주고 돈은 미리 다 받아다 쓰고, 딸이 시집간 지 3개월이 지나면 그때서야 땅 문서를 넘겨 주는 거예요. 이런 놀음을 한다구요.

우리 집으로 말하면 딸이 여섯이었고, 형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어머니가 열 셋을 낳았다구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낳았는데 그걸 보면 그게 내력인가 봐요. 아이를 많이 낳는 내력이 있다 이거예요. 죽은 형제도 많지만, 열 셋 가운데서 여덟이 남았습니다. 딸 여섯을 시집 보내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그거 참 시집가는 날 보게 되면 딸로 태어난 것이 참 원한에 사무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들은 장가가면 여자가 반대로 해 와야 한다구요. 그러니 평안도에서야말로 진짜 아들이 필요하지, 남한에서는 아들이 필요없다구요. (웃음) 뭐 장가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없잖아요? 평안도에서는 아들 몇 명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웃음) 없는 게 없습니다.

대바르고 현명했던 성진 어머니

사돈집에서 해 오는 것이 만동서, 작은 동서, 몇째 동서 것까지 해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야, 너 이런 게 있나' 하면 '아이고, 내게 있어요' 이럴 정도로 없는 게 없대구요. 일식 (一式),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오는 것입니다.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몇 죽을 해 오는 거예요. 양말 같은 것은 몇백 죽 해 오는 거예요. 뭐, 내의도 일생 동안 입을 것을 해 옵니다. 그걸 다 못 입으니까 아들딸들 옷도 사달라고 하지 않고, 시집올 때 해 온 것을 뜯어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애기 낳았다고 시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어떻게, 뭐 옷감이 없다고 얘기를 못 하게 되어 있다구요. 알겠어요? 그런 걸 보면 평안도에서는 여자로 태어나 혼자 힘으로 시집을 가기가 참 힘들어요. 선생님 집

에도 딸이 많았어요. 여섯이 있었는데 그 여섯을 시집 보내려고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대바르고 현명했던 성진 어머니

아들 중에서는 둘째 아들이 제일 잘났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러니 천하에 이름난 부자들이 딸을 주겠다고 전부 증매장이를 놓고 왔다갔다하게 했지만 다 끊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밤인데 증매장이가 이리이러한 색시가 있다고 하길래, 그런 색시같으면 한번 만나 보겠다고 해 가지고, 서울에서 가 가지고 밤에 내리자마자 밤길 70리를 잠도 안 자고 걸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새벽이 됐더라고요. 그때가 왜 정매이니만큼 신작로에 도로포장을 하려고 돌멩이 이런것을 쌓아 놓았었다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밟아서 들이박혀야 땅이 물렁물렁 안 한다 이거예요. 조그만 자갯돌을 심어 놓고 포장하지 않은 그런 길이었다고요. 구두를 신고 70리 길을 가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해요. 발목이 안 아프나, 발가락이 전부 부풀고... 구두는 평지에서 신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몹시 걷기가 힘들더라고요. 몸뚱이는 무거운데 뽀쪽한 데서 발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걷다가는 빠기 쉽다 이거예요.

발바닥에 눈이 있나, 없나? 그렇게 밤길을 비틀걸음을 하면서 별의별 놀음을 다 하면서 갔어요. 동이 터서 먼 발치의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 되자 주막집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여기 아무개네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바로요 앞집이라고 해서 보니 좋은 기와집이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어요. 자, 이거 선이고 뭐고 잠이 와 죽겠더라 이겁니다. 서울서부터 한잠도 못 자고 그렇게 왔으니... 그 주막집에서는 아무개집 사윗감이 왔다고 벌써 소문이 나 있어요. 어디 어디서 신랑감이 온다더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해도 주막집에서는 아무데서 왔다고 하면 벌써 아는 것입니다. 방을 내라고 해서 한잠 자려고 채비를 했는데, 주막집 아주머니가 재빨리가 가지고는 성진이 외할머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래저래 신랑하고 사돈될 사람들이 와서 자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게 되면 문중에 손해가 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주막집에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가문의 아들이고, 또 어머니도 가고 그랬는데 문중을 대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입장이었다구요. 그러니 그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딸이 전부 나와 가지고 싹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이럴 수 있느냐, 기차를 타고 와서 연락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밤길을 어떻게 왔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을 한번 했습니다. 나이가 스물 네 살인데 얼마나 장가를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밤잠도 안 자고 왔겠느냐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딸을 가진것도 걱정이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농담을 하던 때가 엇그제 같да구요.

거기서 머물게만 할 수 있어요? 저녁도 든든히 안 먹어서 배도 고프고 그러니 할 수 있어요? 선보러 와서 그러니 처가집도 안된 거지. 에라 모르겠다 장모될 사람을 불러 가지고 '선이고 뵈이고 지금 잠이 와서 죽겠소. 방 하나 내시오' 그래 놓으니까, 맘머느리가 거처하는 방에 그 맘머느리가 시집올 때 해 온 아주 큰 양단 이불을 펴 주더라고요. 에라 어떻게 되든말든 모르겠다 하고 잔거예요.

어머니는 중매장이 노친네하고 아랫방에서 자고 나는 옷방 몸채-몸채는 주채 집, 안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자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시작했는데, 이틀 밤을 못 잤으니 코를 고는데 얼마나 잘 골았겠나? (웃음) 뭐 모든 집안 사람, 뭐 사돈네 팔촌 그저 모든 귀가 나발을 대고 무슨 소식을 들으려고 주목하는 판인데, 그 한복판에서 자고 있으니... 신랑이 자는데 언제 깨나, 언제 깨나... 언제 깨다니? 피곤해서 자고 있는 사람이 뭐 열 시를 알아요? 이렇게 자다 보니 열한 시가 넘어 열두 시가 됐네. 아침에 닭을 잡아 준비한 국은 굳어지고 기름덩이가 뜨게 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주고 먹으라 하면 문제가 생기겠으니 할 수 없이 또 다시 닭을 잡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웃음)

이렇게 되니 중매장이 노친네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언제 깨겠느냐고 해 가지고 점심을 새로 한 거라구요. 그래 가지고 한 시에 깨서 점심을 먹었다고요. 얼마나 많이 잤어요? 그때가 12월인데 낮도 짧고 그런 때에

새벽에 가서 한참 자다 보니 오후 한 시쯤에 일어나게 됐다구. 그 다음엔 뭐, 밥을 갖다 주는데 체면이 뭐예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체면이 있겠어요? '나, 밥을 많이 먹을 테니까 아침밥 점심밥까지 다 가져오소. 먹다남은 것도 갖다 주소' 이래 가지고 먹기도 잘했다구요. 상에 올려 놓은것을 전부 번번하게 뜯어냈지. 닭 다리를 뜯어 먹다가 뼈를 벽에다 탁... 뜯던 닭 다리가 벽을 치던 것이 엇그제 같да구요. (웃음) 덜렁 떨어진 그걸 그냥 버리면 안 되겠으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에다 씻어 가지고 껌데기를 벗겨 놓고 고기를 먹던 생각이 엇그제 같다구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지요? 「예」 이놈의 몸쓸놈의 자식들을 모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버릇이 나빠질 텐데... (웃음)

그렇게 장가가기가 힘들고 시집가기가 힘들어요. 한번 사돈 맺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성진이 어머니가 똑똑한 여자라구요. 아주 대바르고 집안도 괜찮아요. 최씨네 문중 하면 정주 고을에서 이름난 문중이거든요. 거기의 중가집 딸이라구요. 중매장이가 그러는데 내가 스물 넷째라는 거예요. 신랑을 구하려고 신의주로부터 뭐 어디 어디, 몇백 리 안팎에서 잘난 남자는 다... 성진 어머니 집도 기도하고 다 영통한 패들이거든요. 벌써 선생님 사진을 보고 기도하니가 영계에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참 가르침 많이 받았어요. 동서쪽에서 큰 거울이 나타나 하늘 북판에 와서 하나된단다가, 그 가운데 태양이 떠올라 가지고 세계를 비추는데 천지 동서남북의 별과 달이 쪽 둘러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달빛이 비쳐서 만국이 꽃밭으로 화했다든가 말이에요. 그들이 꿈같은 그런 계시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기도를 해보니 그렇게 되니 그 여자가 딴 남자에게 맘이 있었겠어요? 죽어도 내 사랑이라고 하게 돼 있다구요.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1년 반을 기다렸어요. 간다 간다 하고는 안 갔어요. 그랬는 데 시집을 간다고 했으니 얼마나 문중에 소문이 났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름난 남자였어요. '최씨 문중의 제일가는 사위다'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위들이 와서 겨루어 보려고 사위 가진 최씨네 친척들이 전부다 모였었다구요. 동물원의 무슨 원숭이 잡아 놓은 거 모양으로 보기 싫은 상판들이 뺑 둘러앉아 가지고 뭐 이려고 이려고 그러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받아 넘기거든요. '당신 할아버지는 나하고 친척이 되는

지 모르겠지만 좋지 못하게 살았겠구만'하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박수를 치느냐? 맞거든요. 몇 사람 심리분석을 해서 관상을 봐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럴 것이고, 당신은 이제 홀아비가 되겠구만, 이놈의 영감!' 그러는 거예요. 친척인지 동네 쌍놈 영감인지 알게 뭐야? '심통이 나쁘구만!' 그러면 박수를 한대구요.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최씨네 딸은 내 상대도 못 됩니다. 내 상대는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뜻 있는 그런 여자라야만 되는데 그런 여자가 암만 해도 최씨네 문중에서는 태어난 것 같지 않군요'라고 농담을 하면서 말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동네방네 어른들이 전부 나를 보러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예요. 문을 열어 놓고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저녁에 장모와 처남 될 사람을 불러 놓고 '이 집에 닭 몇 마리 기르오? 내가 닭 값은 2배 이상으로 쳐 줄 테니까 닭을 있는 대로 잡으소. 이 굶주린 늙은이들에게 잔치나 해줘야겠소. 사위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선보러 온 아무개 사람이 잔치하고 갔다는 소문이 나면, 나에게도 나쁘지 않고 이 문중도 나쁘지 않을 것은 틀림없으니 닭 있는 대로 잡으시오. 한 백 마리 잡으시오' 이랬대구요. 이러니 안 잡겠다고 할 수 있어요? 못 하겠으면 그만두라고, 내가 동네사람 시켜서라도 사다 잡을 거라면서 크게 시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배포가 있나 보려고 닭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이러니 닭을 안 잡게 돼 있어요? 있는 닭 전부 다 하고, 사돈의 팔촌네 닭까지 몇 마리나 될까? 한 50마리 잡았을 거예요. 잡아 가지고 너도 먹고 물러가고, 너도 먹고 물러가라 이거였어요. (웃음)

이래 놓으니 하루 저녁에 다 친구가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 문씨, 문서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거 아주 난 남자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난거라구요. 시골 바닥에 완전히 소문이 나고, 동네방네 전부 다, 군이 떠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선전한 겁니다. 그다음 색시는 나중에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시험해 본 거예요. 요즘 우리 통일교회 여자들은 참 복도 많지. 요즘은 눈만 깜빡깜빡 하다가 알지도 못하고 시집가거든. 성진이 어머니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내가 7년 동안 수련을 시켜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독수공방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이야기를 그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야기한 대로 했어요. 그 바람에 반대하고 떨어지고 그랬지만 말이예요.

이래 가지고 약혼날을 결정을 몇 시에 하느냐 하면 밤 열두 시가 넘어서 동네 사람들 다 가게 하고... 장모하고 중매장이 노친네도 똥줄이 달았지. 신랑이 하루밤 자고 나면 갈 텐데, 하는 놀음을 가만 바라보니 재미있게 이야기만 하고 색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이예요, 밤 열두 시가 돼도 대답하지 않고 말이예요, 자리해 놓아도 올라가지 않을 눈치가 훤히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니 장인 얼굴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틀림없이 일찍 갈 텐데, 신랑 녀석은 신부에 대해서 좋은지 싫은지 국물도 없고 냄새도 안 피우네...

그래 놓고는 색시를 불러들여 앉혀 놓고 면담을 한 거예요. 난 이 집 처녀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딱 잡아뗐 거예요. 한 시 반 정도까지 결점이 무엇이고 뭐가 어떻다고 전부 다 퍼붓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팔도강산을 주름잡을 사나인데 언제 집에서 편안히 살림살이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죽 퍼붓고는 '이 집 처녀는 그런 남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새 모양으로 등지에 넣어놓고 기른 색시가 그런 박자를 맞추겠나 이거예요. 그 말에 처억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혼인이 틀렸다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가서야 비로소 두 시쯤에 약혼할지 모르겠다고 한 거예요. 문중어른들 승낙없이 어떻게 혼자 와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는 같이왔지만 아버님,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결정을 못짓겠다고, 통고할 때까지 며칠 기다리라고 딱 해 놓은 거예요.

이래 놓고 색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새파래지더라구요. 그건 뭐냐? 그 색시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또, 장인 장모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새파래지고 말이예요. 사흘이나 나흘 후에 대답을 하겠다는 건 날아간다는 말이라구요. 눈치들을 보니까 제삿상에 소금 뿌린 것같이 아주 심각하더라구요. 나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말이예요. 그런 역사를 남긴 거예요.

그다음에는 두 시가 넘어서 그렇게 답변하고 일어서려니까 중매쟁이 노친네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계시더구만. 세상에 낫다는 남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어머니한테 승락을 받아 놓고는 왜 이러느냐고... 그렇잖아요? 어머니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중매장이 노인네 말이 맞다고 나에게 예스나 노냐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중매장이 노친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당신들 전부, 하면 좋겠소?' 이래 가지고, 어머니한테도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하자는 대로 하자고 했다구요.

그러니까 새파랗게 돼 가지고 뽕뽕 뭉쳐 있던 장인 장모하고 딸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더라구요. 여자의 변덕이랄까, 돌멩이같이 뭉쳤던 그 얼굴이 활짝 퍼지더니 반가운... 나를 척 보고 눈이 마주치니까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걸 보면 성진 어머니가 난 여자예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시골에서 자란 여자가 물론 학교는 다녔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눈이 마주치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다는 걸 보고 내가 '이 여자는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구요.

배포도 컸던 성진 어머니

참 이거 사연이... 내가 어찌다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나? (웃음) 잘 걸려들었네, 이것들! (웃음) 그래, 좋아요, 젊은 놈들은 관심이 많을거니까, 걸려들어도 내가 일을 시켜 먹을 테니...

이래 가지고 12월달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어머니 아버지도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지,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게 되어 있지 않았대구요. 그땐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한 때였어요. 하르빈 저 위에 해란이라는 곳, 그때 말로 과이라고 했어요. 거긴 러시아 사람, 몽고 사람, 중국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을 하려면 아시아에 있어서 러시아 말, 중국 말, 몽고 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주전업에 취직을 했어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부임날까지 받아 가지고 고향을 나왔어요. 그 바람에 약혼을 했지만, 그때 가만 보니까 정세

가 좋지 않겠어요. 만주를 들어가면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만주전업으로 부임할 수 있게 임명장을 받았지만, 안동 지점장을 만나서 내가 이리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 가겠으니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 수속을 밟기 위해서 안동현에 갔어요. 안동현을 갔다 오는 도중에 곡산-정주에서 신의주를 가자면 다음 다음 역이에요-으로 갔어요. 거기 갔다가 나오던 길에 약혼만 해 놓고 결혼도 하지 않은 신랑이 처가 집을 간 거예요. 앞으로 장인 장모 될 분들을 찾아간 거라고요. 색시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무리한 놀음을 안 해요. 색시집을 찾아가는 것은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재미있다가보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동에서 나오는 차가 늦어서 해가 누엣누엣 넘어갈 때에 내렸어요. 역에서 시오리가 되는데, 걸어가니 밤이 되었던거라고요. 그때가 바로 눈이 내리던 때였어요. 최씨네 문중에서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만 한 신랑이 집에 찾아가는 것은 결례로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과 누님을 통해 연락을 해 놓았는데 형님이 만주전업에 연락해야 되는데 그만 깜박 잊어버렸네. 그걸 모르고 찾아간 거예요. 약혼한 총각이 결혼도 안 했는데 찾아오니 문중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집에는 약혼만 한 신랑이 왔다갔다한다... 이러니 좋지 않거든요.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찾아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만취남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우리 최씨 문중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이 찾아와서 이러는 법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문중에서는 나를 맞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거 보면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지. 아무리 그 무엇이라도 전통적인 기준을 중심삼고 한 것이니까. 팔도강산을 주름잡고 일본 천지를 주름잡고 다닌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건 사리에 맞는 말이라서 '아 그러냐고 그랬다구요. 그래서 이왕 왔던 바에... 작은 처남댁이 그 앞에 세간 나서 있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기회에 왔기 때문에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원래는 이리이러한 내용 때문에 날짜를 정하러 왔는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바람으로 신발도 벗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뒤로 돌아서 나선 거예요. 나서서 70리 길을 밤에 돌아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때는 기차도 없거든요. 시골에 기차가 하루에 한두 번 있지 매시간 있나요? 그래서 70리길을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함박눈은 내리고 아주 시적인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장모가 돌아와서는 큰 난리가 벌어졌어요. 장모가 와보니 문제가 크거든 이걸 파혼이 벌어진다고 이래 가지고 아들을 대해 책망하고 작은 아들을 불러 가지고, 어디 그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되니까 성진 어머니가 그걸 알았거든요. 큰집에 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두말하지 않고 차림을 하고는 나선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구요. 뭐 만나서 이야기나 해봤나? 약혼할 때 자기가 척 고맙다는 인사 하고는 갈라졌는데 말이에요. 자기 집에 왔다가 문전박대받다시피 하고 돌아갔으니 틀림없이 파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백발백중 파혼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집에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문중에서도 문중을 찾아온 사윗감을 박대했으니 여기에 찾아왔던 아들의 면목과 문중의 위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문중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파혼되는 것은 결정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장인 장모나 처남 전부가 내가 떠난 다음에야 그렇게 알지 않을 수 없었다구요.

이렇게 되니까 성진 어머니가 책임을 지고 말이에요, 처녀 몸으로 혼자, 어머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오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뒷문으로 나선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2킬로미터쯤 갔는데 어떤 여자가 '여보' 하고 부르는 거예요. 밤에 어떤 여자가... (웃음) 이게 무슨 요사스런 도깨비나 몽달귀신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난 그냥 걸어간 거지요. 달려오더니 내가 왔다고 이르는 거예요. 누군가 보니까 성진 어머니거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집의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의 성격을 그때 내가 알았어요. 자,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아주 배포도 크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입장에서 무슨 얼굴로 처가집에를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지. 안 간다고 하니까 50리길을 따라나선 거예요. 정주까지 50리 길을 밤을 새우면서 따라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엇그제 같아요. 자기 오빠가 위수술을 했는데 개의 위로 대치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정상적이 아닌 이런 신경질을 내서 집안에 불화를 가져 왔다는 그런 역사를 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 집안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고 하면서, 그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세상에 누가 신랑에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이 기독교 집안으로서 교회를 지었고, 서양 사람까지도 모실 수 있는 이런 집안이고 그런 오빠들인데, 그런 일은 자기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장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뭐 설법이 아주 이력이 났더라구요. 50리를 따라오면서 설득한 거예요.

50리를 걸으며 딱 이렇게 밤을 새워 왔으니 잠이나 잤겠어요? 피곤한 가운데, 나는 모른척하고 가만 있는데 성진 어머니가... 여잔 그래야 돼요. 선생님 왼팔을 끼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러지겠는데, 눈은 내리고 할 수 있어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자고 해서 처음으로 만나서 그렇게 끼고는 50리 길을 걸어왔다구요. 그게 생생하다구요. 50리를 걸어왔지만 아침에는 집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禮)로 말하면 안 그래요? 총각이 결혼도 안 한 처녀를 데려다가 하룻밤을 지냈다면 문제가 크다구요. 그러니 소문 안 나게 새벽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집안 어른이 알면...

그래서 돌려 보내려고 하니까 성진 어머니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정주읍에 사는 삼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침 밥을 해 달라고 해서 먹이고 차 시간에 맞춰 보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네 집에 가서 인사를 했어요. 삼촌네 집에 들어가서도 밥을 하는데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여기에서 그냥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본가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가야지 그냥 가면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려고 잡아떼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웃음) 못 간다는 거예요. (웃음) 자 이거, 그래서 삼촌 어머니더러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고 제발 큰 집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삼촌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우리집에서 일주일 있다가 갔습니다. 그거 보통 여자가 아니라구요.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인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지어 가지고 시아버지 될 사람과 시동생 될 사람들의 밥을 다 차려 놓고 그러면서 반대하지 못하게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화해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완전히 묶어 놓고는,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젠 파혼해도 좋소' 이거지. (웃음) '파혼해도 좋다. 마음대로 하시오' 이거라구요. 자, 일주일 지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짹짹하고, 배포가 크고 사리도 짜여 있고 그렇거든. 어머니 아버지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훌쩍반한 것입니다. 작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보면 배포가 대단하다구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주머니에다 넣고 소화하려고 반대까지 했던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통일교회를 반대한 이유

그러나 통일교회 여자들 가운데는 그런 여자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배포가 없어요, 지금 어머니 말이예요. 성진 어머니 하는 말이, 통일교회 원리가 말하는 주님이 문선생이라면 자기는 그렇게 안 모신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패들 보면 전부 이단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기는 주님은 이렇게 이렇게 모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원칙에 의해서나 성경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렇게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빵점이다 이겁니다. 푸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 그렇게 살면서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이라지만 하늘이 보낸 아들의 사명을 가졌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환하게 알아요. 하루에 성경 다섯 장 이상을 읽지 않으면 안 자는 거예요, 기도도 두 시간 이상 안 하면 안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계시를 받아 가지고 훤히 알게 알아요. 전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모하고 재건교회에 있었으니 완전히... 주님이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내가 이야기를 쭉 해주면, 주님이 사람으로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만 보니, 통일교회 패들 거지 떼거리같이 들어 앉아 있는 걸 보니 안 되겠거든. 자기 일생을 망칠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이 남편을 모시기 위해 자기가 그렇게 모험을 해 가지고 기반을 닦았는데 가정파탄시킬 것이 뻔하니까 혁명을 하는 겁니다.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갈라치우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오게 하기 위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난 모르는 척하고 가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뭐 바가지를 굶고 별의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말을 듣나. 여전하... 그래도 정 안 되니까 파탄을 시키기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고소를 하고, 부산 북부서에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앞으로 기독교를 망치고 세계를 망치는 원흉이 될 테니까 이 사람을 그냥 뒤흔어 안 된다, 제발 데려다가 가두어 놓고 죽이든지 뺄하든지 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통일교회를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그런 연유에서 통일교회를 반대한 것입니다.

가정을 끌고 다니며 하늘 일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아

내가 이북에 가는 바람에 그야말로 7년 동안 혼자 있게 내버려 둔 거예요, 7년 동안. 그건 내가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그건 혼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진이를 낳았는데 왕자와 같이 키웠어요. 일곱 살 때까지 업어서 길렀다구요. 자기가 장사를 하고 별의별... 상도동에 옛날 내가 살던 집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4월 달에 내가 이북으로 갔어요. 금천에 트럭으로 쌀 가지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 길로 니꾸사꾸 짊어지고 집 떠나 이북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가 돌아오지 않으니 객지에 나와서 친척도 없이 고생한 것입니다. 그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가는 길에 대해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역사시대에 책임해야 할 여성으로서 전통적인 그런 내용을 지니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간을 별의별 놀음을 다 한 거예요. 서울에는 인천간도 없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시골에서 온 여자가... 쌀도 이틀 먹을 것밖에 안

남았거든요. 서울에 썬이 귀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북에 가서 없 어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애기는 낳은지 며칠 안 됐지... 그러니 뭐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겠지요. 기가 막힌 거라구요. 하늘같이 믿은 남편이 소 식도 없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하늘 일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라고 예고하지 않아요. 길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겠어요?

남한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했지만 연락을 안 한거예요. 딱 봉쇄한 거예요. 7년 동안 평양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고 이 운동을 하느라고... 기성교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런 속에서 싸움을 하는데 언제 그 렬 사이가 있어요? 가정을 위주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쟁리의 터전은 이루 어지지 않았고, 기성교회는 반대하고 미국을 중심한 세계적인 판도는 어긋나 이지러져 버린 그런 판국에, 교회 기반도 없는데 가정이 무슨 문제예요? 그렇 게 해서 개척시대를 거친 거예요.

그때 평양에서 말이 많았어요. 제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은 전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마치 곡식 거두는 모양으로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 교 회가 반대를 하고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자기 교인들을 도둑질해가는 이리 같은 사람이라고 반대하는 때거리들이 안 나오나, 뭐 별의별 놀음이... 그런 사연 속에서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할 꺾박을 받은 거예요. 공산당하고 짜 가지 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놀음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싸움을 해서 승리하여 이북에서 기반을 완전히 닦은 거예요. 이북에서 승리의 기반을 닦아 그걸 이 남까지 연결시킨 후에 집을 수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가정 을 끌고 다니면서 일하게 되어 있지 않다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 축복받은 가정들, 나라도 복귀가 안 되었는데 가정을 끌고 다니면서 냄새 피 우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다구요. 마찬가지로 이치라구요.

통일교회가 40년 수난길을 가게 된 이유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남편을 대해 가지고 자기 소망 이 없을 것 같거든. 또 자기 어머니는 재건교회 패와 한 때거리가

되어-재건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요-전체가 뭉뚱 뭉쳐 가지고 이단시하고 충동질하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충동질을 했다고요. 사탄새끼 같은 그런 원수한테 붙어 살게 뭐냐고 하면서 어머니도 그저 딸한테 충동질하는 거예요. 딸도 맨 처음에는 충동질을 안 들으려고 했지만 하도 그러고, 또 기독교 무리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내가 하는 놀음이 자기들이 소원하는 주님이 왔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전부 이단 같지요. 반대로 가는 것 같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 마음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 가문이 조금만 협조했더라면 성진 어머니가 그렇게 안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안 되었으면 통일교회는 40년의 이런 수난길을 안 가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뜻을 다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이랬으니 자기 어머니하고 큰 처남, 작은 처남하고 셋이 면회 와 가지고는 협박공갈하는 거예요. 이혼서 쓰라고 말이예요.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년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3년 만 기다리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의심하던 이런 것이 다 지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석 달만에 내가 나오니까 또 외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하면서 사인해 줬어요. 자기들이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갔다고요.

반대하던 사람들을 구원해야 대한민국이 구원돼

그런 일이 벌어진 때가 언제인가? 1955년이지. 뭐 가정이니 뭐니 돌볼수 있었겠어요? 성진이네는 절간살이나, 고아원살이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1960년대까지 새로이 기반을 닦은 거예요. 탕감적 노정의 기반을 닦아 가지고 국가와 대치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반대하는 그 자리에서 기반을 닦는 거예요. 그게 7년이 걸렸어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협회를 창설한 게 해방 후 14년이 걸려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예요. 장성, 완성, 7수 14년만에, 1960년도를 중심삼고 성혼식을 한 것입니다. 성진 어머니가 반대를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몰려 가지고 탕감복귀해 나간거

예요.

성진 어머니 최씨가 큰 복을 받을 건데... 이름도 최선길이에요. 먼저선(先) 자, 길할 길(吉) 자. 이름이 남자 이름 같은데, 어떻게 최선길이라고 했겠어요? 영계에서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먼저 길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먼저 길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라구요. 최씨네 문중에서 그랬기 때문에 최씨를 중심삼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최원복이도 그런 면에서 아주머니들을 대표해 가지고 탕감노정을 걸어가야 되고, 최봉춘도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저렇게 됐어요. 최씨가 문제입니다.

그다음엔 최성모, 이득삼씨 남편이 최성모예요. 최씨가 전부 받들어야 할 텐데도 최씨가 선생님을 고발해서 감옥에 넣었다 이겁니다. 반대했으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서... 최씨네 가문을 중심삼고 뜻을 세우려던 기반이... 최성모 하면, 공화당시대에 박대통령을 중심삼고 이래 가지고... 요즘에도 최씨 있잖아요? 「최순영...」 최순영이 패들이 전부 사탄 역사를 하고 있는 거라구요. 성진 어머니를 중심삼고 반대하는 인연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씨들이 문제입니다.

인과의 법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문제가 벌어졌다구요. 그렇지만 그 가문을 죽여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원수, 가인적인 자리에 돌아갔지만 포섭해줘야 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해방시켜 줘야 할 책임을 해야만 대한민국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섭리가 그렇게 복잡한 거라구요. 그러니까 최봉춘도 자기 정신이 아니예요. 자기가 뭐 2세 책임자로서 선생님의 뜻을 인계받아서 뭘 해먹겠다구? 해먹어서 될 게 뭐야, 이놈의 자식들!

7년노정을 가야 했던 어머니

어머니가 그런 자리를 잡고 반대한 그 해와의 기준을 탕감해야 되기

때문에 7년노정을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통일교회 여자들한테 단련을 받은 거예요. 여자들이 잘못된 모든 것에 대한 탄감노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나이 어린 어머니가 참 선생님을 하나님같이 믿고, 아버지도 없이 남자를 만난 것도 처음이었으니 할아버지, 아버지, 오빠 이상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끌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일가족,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오빠들이 있고 사돈네 팔촌 뭐 이렇게 수두룩했으면, 대갓집 문중의 딸이었다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얼마나 문제가 생겼겠어요?

그리고 장모인 홍씨 할머니가 있었지만, 내가 결혼하고도 3년 동안 정문 출입을 못 하게 했다구요. 뒷문으로 출입해라 이거예요. 내가 장모를 갖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장모가 있어요? 아담이 장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문 출입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뒷문으로 출입해라 이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 법이지요. 홍씨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 방안에 있다가도 정문에서 내 소리가 나면 뒷문으로 도망가기 일췌였다구요. 그할머니가 훌륭한 것이, 모든 것에 대해 계시를 받아 그걸 일일이 보고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외로운 자리에 있으니 벌써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사람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영계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린, 만 17세의 어머니를 얻은 거예요. 세상에 40이 넘는 남자가... 통일교회 떨레들 가운데서 박사된 여자가 없나, 무슨 뭐 훌륭하고 세상에서 잘났다는 패가 많다구요. 선생님이 자기들 또래 되는 한 서른 덧살, 삼십 대와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통일교회 모든 사람이 모시는 데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고 말이예요. 우리 성진이와 나이가 세 살 차이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래야 되느냐 이겁니다. 17, 18세가 넘으면 안 됩니다. 20대 미만이어야 돼요. 20대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어머니를 택한 것입니다. 어머니 후보자가 많았어요. 여자라는 패들은 전부 어머니 되겠다고 경쟁이 붙었다구요. 열두 살서부터 80노인까지, 전부 자기들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 주인이야'

이거예요.

이건 영계의 봄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는 거였어요. 그런 바람이 불어오니까 쓸바귀도 꽃이 피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자라는 여자는 전부 봄바람에 꽃이 되는 것입니다. 만여성이 공개적인 후보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아담, 완성한 남성 대표자는 모든 여성들의 희망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바람이 분 것입니다.

그러니 열두 살 이상의 철든 여자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기 상대라고 말이에요. 영계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부 가르쳐 줘요. 에덴동산에서 선생님하고 처녀 총각으로서, 오빠와 같이 살다가 반지를 끼워주는 것, 결혼식하는 것까지 다 보여 주는 거예요. 열두 살 이상에서부터 70살 이상까지 전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심정평준화 기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만여성을 대표한 심정적 통일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일된 전체에서 한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어머니를 간택할 때에 있었던 별의별 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거 젊은 놈들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지 모르겠구만. 응? 오늘 어떻게 이상하게 말이 나왔군. 이제 그만두자. 재미 있어요? 「예」 밥 먹는 거보다도? 「예」 공부하는 거보다도? 「예」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요? 「봄바람」 무슨 봄바람? 「……」 인류역사 가운데 여성세계에 비로소 처음 부는 봄바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자라는 여자는 선생님을 보기만 하면 전부 다 자기 남편이 뺨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원리를 듣고 난 후에는 연애결혼을 했더라도 일주일 못 가서 버리고 차고 나오게 돼 있다구요. 사랑하는 남편이 취직을 해서 직장에 갔는데도 제발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 오게 되면 뺨같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은 모르지요?

여러분은 행복한 여자들입니다. 봄바람이 불기 때문에 타락한 여성들

에게는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힘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밧줄에 얽어매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게 돼요. 밧줄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뿌리에서부터 폭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앞에서 사탄세계의 남편이 어디 있으며, 아들딸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사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별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성별기간. 성별기간에 들어와서 부부생활 하게 되면 여자는 틀림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통일교회 역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이 직접 주관하는 거라구요. 성별식은 못 해도 선생님이 상대를 준비했으면, 천만 여성을 대표한 거기에서 빼도 부족하니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까와옴에 따라서 천만 여성에게 부합된 그 사랑을 소수 여성이지만 거기에 퍼붓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생리적으로 말이에요. 동물들, 소 같은 것도 그래요. 번식기에는 암소는 생리적으로 변화가 벌어져 가지고 그저 숫소를 치고 담이건 무엇이건 차고 제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말이에요, 그런 힘 이상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의 힘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녹음이 잠시 중단됨) 어떻게 사는가를 다 보여 주는 것입니다.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다 알게 돼요. 환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일치하게 될 때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의 문이 전부 열리는 것입니다. 앉아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나가자고 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산보 삼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 아기씨들,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웃음)

통일교회 할머니들은 지금도 선생님을 보면 영영 울어요. 그 가슴을 억제시킬 수 있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보게 되면 사무친 그 마음이 지금도 불타고 있는 거라구요. 그 마음이 영계와 연결된 그 기준, 뭐랄까 사랑의 공기와 같은 그분위기 이상의 세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

니다.

이것이 종적으로 할머니, 어머니, 딸, 3대가 하나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3대 여성이 하나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어머니가 가는 데는 딸이 희생해서라도 어머니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의 터전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놓고 싸우지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싸우는 사랑은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교인들은 선생님이 성혼식을 한다는 것을 다 계시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선생님이 40세에 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는 자기 딸레들, 며느리라든가 손녀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선생님에게 소개하면서 자기 집안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삼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적 터전 위에서 어머니를 모셔들이겠다는 입장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선생님을 체쳐 놓고 자기들만 위주한 그런 판국에서, 여기에 놀아나는 선생님이 아니라구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별의 별 패들이 다 있었어요. 전부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3년 반 내지 4년 동안 계속한 거예요. 4년 동안 선생님이 심리분석과 감정을 해 가지고 미래에 있어서 통일교회의 심정적 터전이 될 수 있고,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만민이 축하할 수 있는 여성을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신약신앙자로서는 대표적인 여성이었던 성진 어머니

40살에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20세를 못 넘은, 18세 미만, 한국 나이로 하면 열 아홉 살이 안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진 어머니도 열아홉 살에 약혼한 거예요. 그런 걸 다 보여준 거라고요. 보지도 않고 사진만 보고 성진 어머니는 그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내가 계시를 받고 당신이 이런 남편인 줄을 아는데 어떻게 모시지 않고 어떻게 따라

가지 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 가지 가르쳐 줘도 다 옳지만 한 가지는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 한 가지 길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구름 타고 오지 사람으로 온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도 영계에서 사람으로 온다고 안 가르쳐 주거든. 5퍼센트만 말해 주거든요. 자기 고집을 부린 거예요. 동양법에 있어서는 여필종부(女必從夫)라고 합니다. 이놈의 간나들이 말이예요... 성진 어머니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성진 어머니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랬다구요. 반대지요? 해와가 아담을 끌고간 거와 마찬가지로 제3차 아담시대에 있어서도 성진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나를 끌고 가려 했다구요.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큰일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왕창 깨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랬다면 통일교회 원리에 풀어 놓은 3차 아담완성기반이 지상에 확립된다는 그런 논리는 설사 있었다라든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가정을 다 버리고라도 원칙을 세워야 할 하늘의 길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중심삼고, 다 버리고 선생님은 나간 거예요. 선생님 앞에 백 퍼센트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도 약혼 당시에 네 시간 이상 시험을 치렀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물어 보면 환했어요. 놀랍다구. 그런 의미에서 신약 신앙자로서는 대표적인 여성이예요. 신앙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했거든. 내가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 건 그 여자가 왜정 때 신앙 때문에 감옥살이까지 했기 때문이예요. 그것을 알고 내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몇 살 때에? 열 여섯 살 때에.

하늘의 사랑의 봄바람이 불었던 초창기

하늘의 봄바람이 불면 여성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리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척 길을 나서면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나 하겠어요? 청과동에 없으면 서울 시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떻게 찾아가요? 찾아가는 데는 발이 저절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

의 힘, 사랑의 줄거리는 그렇게 임박하는 거예요. 발이 찾아가는 거예요. 화신백화점에 갔다 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문 없이 어디 가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집주소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사랑의 힘이 이렇게... 사랑의 길을 가는 데는 어디든지 안 통하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찾아가는 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직방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혼자 있더라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재미있지요? 그게 믿어져요? 그런 세계를 알아요?

선생님이 대구에 있을 때는 한 달에 열 세 번도 보따리를 싣 적이 있었어요. 매일 보따리 싸게 돼 있으니 가르쳐 주기도 귀찮아요. 들락날락 찾아오니 내가 쫓겨나거든요. 가만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른줄 알 건데,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머물 수 있는데, 이걸 부사스럽게 드나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사하게 생겨서 이제는 누구도 모르게 살짝 이사하여 산비탈 조그마한 초가집에 방을 얻어 가 있으면 말이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여기 있다던데'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웃음) '이 방에 있다는데' 이라고 열고 들어오면 내가 있거든요. '이놈의 늙은이 여기는 뭐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보고싶어 울고불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시로 '그렇게 보고 싶으냐?' 이러더라고요. '보고 싶고 말고요. 백번 죽어도 봐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나서라' 해서 왔다는 거예요.

발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있는데 발이 걸어왔다는 거예요. 발이 그렇게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뿔이 안내한다구요? 발. 무슨 발? 사람의 발이에요. 개 발이 아니라고요. (웃음) 여자의 발이지. 대구에는 그런 인연 가운데서 지내던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다 갔지요. 한분인가 남았다고 하던데... 그런걸 생각하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는 가고 새로운 역사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구요.

6천 년의 봄은 한 번 오는 거예요. 어느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해와를 중심삼고 사춘기라는 건 한 번이라구요. 혼인 결정을 할 때까지 봄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복귀섭리를 중심삼고 수천년, 수만 년의 역사

를 거처와 가지고 비로소 한국 땅에서 그 봄바람이 분 거예요.

이화대학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380명의 여자 대학생들에게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루에 80명씩 보따리를 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나오지를 않나, 목욕 간다고 해 가지고 뛰쳐 나오지를 않나... 이놈의 간나들한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왜요! 못 나가면 나 죽여 주시오. 죽여 주시오' 이랬다구요. 이놈의 간나들, 내가 왜 너희들을 죽이겠나? 학교는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곁에서 똥냄새가 나고 발구린 냄새가 나도 그것이 구수하다는 거예요. 학교는 죽어도 가기 싫고, 밥도 모래알 먹는 것 같고 뭐 죽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한번 미쳐 봤어요? 여기 여자들이 지금도 그런다면 내가 일을 못 해 먹지요. 이런 떼거리가 있는데 내가 길을 나서면 차 앞바퀴에 전부 엎드려 가지고 '날 죽이고 가소' 이리케 돼 있다구요. (웃음) 매일 사고가 나고 말이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한번 뺨긔했지.

모든 여자들이 시기하는 과정을 상처 없이 거쳐 온 어머니

이래 가지고 통일교회 역사에서 어머니를 난데없는 데서 빼왔으니까 아무도 그분이 어머니 될 줄을 몰랐다구요. 어머니를 누가 결정하느냐? 승도 할머니는 '아이고! 어머니는 내가 결정을 해야지요' 그랬어요. 이놈의 할머니. 아담 해와를 결정하는 것은 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는데 누가 결정해, 이놈의 할머니야! 그 할머니가 선생님은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놈의 늙은이... 늙은이 말을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늙은이 말 들으면 늙은이하고 살자고 할 텐데... (웃음) 그 할머니도 선생님의 상대는 자기라고 그랬거든. 자기가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70년 재군이 할머니는 7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사다가 바르고 곱게 연지를 찍지 않나, 베니를 바르지 않나, 손톱에 메니큐어를 바르지 않나, 이 놀음을 하고 앉아 있더라구요. 선생님 보기에 좋으라고... 내가 그런 거 좋아할 게 뭐야? 망할 할머니, 발길로 들이차고 그래도 안 되겠기에 빗자루를 거꾸로 잡고 들이패는 거예요. 그런 성화를 받으면서... 선생님의

끄대기(끄덩이)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붙들고 안 놓아주는데 어떡해요. 물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걸 다 수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어머니를 모셨으니, 어머니를 고와했겠어요? 세상의 궁전에서든 시기하는데 말이예요. 이걸 시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시기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인류역사에 있어서 여성들이 시기한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3년 동안 결방살이 시킨거예요. 절대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말이예요. 3년노정을 거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으르릉으르릉 거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 짧은 간나가 우리 선생님을 빼앗아 갔구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름거리는 것을 전부 코치해서 그 할머니들이 '아, 과연 어머니시시다' 하고 모시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 책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기하는 여자들이 자진해서 자연 굴복하여 무릎을 꿇고, 일국을 넘어서 천하만국을 넘은 우리 어머니라고 하늘 앞에 축수를 드리고, 과거의 죄를 사해 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운동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중년 아주머니들, 그 다음엔 열두 살 이상의 처녀들이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3년 걸린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괘시하듯이 결방에 들이고 사니까, 할머니들도 아주머니들도 제발 모셔들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3년만에 어머니와 같이 살았다고요. 여러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그 이튿날 같이 살고 싶지요? 탕감복귀 원칙은 그렇게 다짐해 나온 것입니다. 역사를 분별시켜 나온 거예요.

그래 나오니까 성진 어머니가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가르침을 받느냐 하면, 말하자면 선생님이 변소에 가서 무슨 변을 봤는가 하는 것까지 다 알더라구요. 성진 어머니가 반대를 하게 될 때 사탄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여자가 방문했으면 어떤 여자가 방문했다고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통일교회 식구들이 오글보글하면서 누가 극성맞게 선생님을 사모하는지 다 보이거든. 그러니 성진 어머니가 화병이 안 나겠어요? 복장이 뒤집어지지. 그럴 때 나한테 회개하고 순응하면 그만인데도 그건 싫거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뭘하는지 환하니 아는 거예요. 성진 어머니가 환하게 알고, 또 통일교

회의 해와 후보라는 패들이 전부 환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필하고 있는지. 성진 어머니가 아는 것은 반대하기 위해서고, 통일교회 여자들이 아는 것은 나를 지원하기 위해서예요. 통일교회 여자들의 바람을 성진 어머니 혼자 바람으로 대했으니, 그 얼마나 밋살스러웠겠어요? 이걸 불로 살라 버리고 도끼로 꽤 죽이고 싶을 만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반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런 과정을 어머니가 거쳐 나왔다고요. 알겠어요? 상처 안 입고 거쳐왔어요. 봄동산에서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전부 방풍 놀음을 해야 했어요. 이러이런 일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가려 나온 거예요. 그거 보면 남편으로서 훌륭한 남편이지. 그렇잖아요? 여자를 그렇게 출세시키기 위해서, 생애를 바쳐 모든 공을 다 퍼부어서 여자가 편안한 길을 갈 수 있게끔 가려준 그 남편이 훌륭한 남편일싸, 나쁜 남편일싸? 「훌륭한 남편입니다」 우리 아가씨들, 그런 남편을 얻으면 좋겠지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공을 들인 선조의 후손이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요.

남편 위해 흘린 눈물이 부모 위해 흘린 눈물보다 많으면 불효

이제는 어머니를 다 존경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존경해요? 「예」 요즘엔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 청춘시기가 있지요? 자기 마음대로 활짝 뻗고 싶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철들 때부터, 아기를 열둘 이상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0년동안에 그렇게 안 낳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열두 지파를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게 되면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라도 수를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역사를 보면 유교시대 때에 첩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한 때를 위해 준비한 거였어요. 그랬으면 통일교회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젊은 청춘시대에 매해 애기를 낳은 거예요. 열 셋

을 낳았나? 20년 동안에 그렇게 낳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3차7년 노정이내에 역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 여자들은 어머니 앞에서는 전부 다 어디 마음대로 산보도 가지 못하고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산보 가 봤어요? 뜻의 사명을 중심삼고 만민 여성해방을 위해서, 자기 중심삼은 생활이라는 것은 일편도 없었다 이거예요. 공적인 생활을 중심삼고 남편을 따라오기에 참 기가 막혔겠지요. 그렇지만 남편이라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어머니가,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가려 줘 가지고 이만큼 되게 해 가지고 이제 세계무대에서 지장 없이 일부종사(一夫從事)할 수 있게끔 기반 닦아 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부 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그것이 축복 기반으로 세계에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적 유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적 유대를 중심삼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일교회 교인들은 선생님을 대해서 방향성 심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한국에 가게 되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 서 전부 다, 아침에 태양이 동녘에 올라오게 되면 모든 초목들의 순이 자기도 모르게 그 쪽을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 사랑의 심정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선생님에 대하여 방향성 감각을 일치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선생님이 좋아요? 「예」 아, 선생님 처음 보는데, 이 간나들 처음 보는데, 뭐. 상통들을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좋아요? 「예」 그거 무슨 병이 들었느냐? 사랑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은 안 들었지만 감염이 됐다고요, 감염. (웃음) 그래서 우리들은 탄 족속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정을 붙이고 재미있게 살수록 지옥으로 가까운 걸을 가지만, 통일교회에 들어와서는 힘들기는 하지만 재미를 들이면 들일수록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반대라고요.

그것이 자기 중심삼은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중심삼고, 하나님을 중심삼고 그런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삼고 재미있게 살다 지옥으로 가지만, 통일교회는 가정과 세계를 품고 재미있게 살수록

전부 다 비상천(飛上天)하는 거예요. 천상세계, 하늘나라의 왕궁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알싸, 모를 싸? 「알싸」

여러분의 눈들이 얼마나 그 사랑을 위해서 눈물지었느냐, 방향성 감각을 중심삼고 부모를 얼마나 그리워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통일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그리워하기 전에 부모를 먼저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그 터전 위에 남편을 사모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부모를 위해 흘린 눈물보다 많으면 불효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불효가 돼요? 설명은 못 하지만 다 알았겠지요? 「예」

우리, 저 무슨 패들? 특전대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순전단요」 순전단? 순전단인지 뭐 정선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래 알아들었어요? 「예」 무엇이 불효가 된다고요? (웃음)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어요? 「예」 못 알아듣지는 않았어요? 「예」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

방향성 심정권이 갖추어져 있는 통일교회

통일교회 교인들은 방향성 심정이 이미 그 가슴에 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척 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벌써 알아요. 기도를 하면 선생님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식구들도 말이예요, 미국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자기들도 모르게 쓱 한국으로 벌써 몸뚱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 이상하지요? 방향성 심정권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주적입니다. 지금 그 위대한 힘의 작용이 타락세계에 바람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통일교회의 영신이 못 됩니다.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그 방향성 감각이 앞으로 부모님이 축복해 주게될 때 어떻게 되느냐? 서로서로의 수직적 방향성 앞에 상대적, 평행적 방향성이 90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대해서 같은 정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90도가 되는 것입니다. 수평선 심정권이 돼요. 이렇

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앙선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들 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생겨나면 수직권을 중심삼고 횡선이 벌어져가지고 원형의 판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들딸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싶어서...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찾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느냐 이거예요.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으면, 남편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린 것보다도 더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부모는 더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 해와, 자식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을 찾아 부모로 모시기 위해서 역사시대에 눈물을 흘린 것보다도 더 흘리지 않았다'예요? '더 흘렸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우시고 그렇게 슬퍼하신 하나님의 심정권을 대신해 가지고 지상세계에 있어서 자식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는 데는 남편에 대한 이상, 또 부모님에 대한 이상 흘리더라도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종적이예요, 종적. 상충이 안 벌어져요. 한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효자인가

자식을 하나님 이상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자식이 세계의 아들이 되게 해 달라고 마음으로 축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그들을 대해 눈물어린 소원의 마음으로 빨리 커서 세계를 통치해 달라고 하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천지대도의 즐기다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경시키면 하나님의 이상권이 파탄되는 거예요. 알싸, 모를 싸? 「알싸」 암만 자식이 부모를 그리워해도 부모가 자식을 그리워 하는 것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통일교회 원리가 좋지요? 「예」 통일교회 원리를 아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 행복한 부모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부모를 모시면, 부모 위에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지옥 가는 원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천당에 직접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사탄편이 됐으니 그 옆에는 오지만, 수직관계에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핏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는 혈통전환식이라든가 하는 이런 복잡한 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 대등한 자리에, 옆에 있던 것이 대체해 들어와서 대응품으로 연결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으니 예수를 자기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양자의 자리에 들어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계대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원칙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중심삼고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인연이 묶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사내들, 이 도둑년 같은 간나들, 시집 장가 가고 싶어서 '아이구, 선생님은 왜 축복 안 해주나, 축복' 하지만... (웃음) 하나 묻고 싶은데, 자기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이상 효도할 수 있는 심정으로 부모를 대한 역사적 탕감기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싶어요. 그거 자신 있어요? 어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미완성품 아니예요? 타락한 그 주제에 '난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것보다 내마음대로 할래' 하는데,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아담 해와, 일대일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공통 천리, 천칙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해와 자신이 '아, 나 그 남자 말고 딴 남자 찾아갈 거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대일입니다. 통일교회 원칙은 부모님앞에 일대일이예요. 부모님이 택정한 여자 남자는 싫어도 오케이, 좋아도? 「오케이」 좋아도 오케이? 「싫어도 오케이」 싫어도 오케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효자냐 하면 말이에요, 싫은 것을 좋은 것보다 더 오케이할 줄 알아야 효자입니다. 자기 일생의 귀중한 사랑을 희생시키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그런 사람은 천상세계의 어디 가든지, 사방의 열두 진주문이 있다면, 거기에 막혀 있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

린다 이거예요. 어때요? 재미있는 말 한마디 들었지요? 선생님이 땅에서

결정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결정되는 것을 알아요? 「예」 우리 흥진 아가가 영계에 갈때, 예수는 올드 크라이스트(Old Christ;나이 많은 예수)고, 우리 흥진은 뉴 크라이스트(New Christ;새로운 예수) 라고 결정을 해서 천상세계에 보내니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전에 영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모시고 다니는, 왕관을 쓴 어린 동양 분이 누구냐'고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갖다 보여 주면서 이런 분이 아니냐고 하니 '아이구! 틀림없이 이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세계 6대주에서 지금 공인되고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상대를 맞아야

선생님이 한번 결정하면 이렇게 무서워요. 결정하는 데는 선생님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천리원칙을 중심삼아 거기에서 상대적 가치를 인정한 후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효자예요, 좋은 사람인데 결혼하는 것이 더 효자예요? 「싫은 사람…」 싫은 사람인데 결혼하는 것이 효자라고요. 그러니 '통일교회에 전부 다 미인 여자가 들어왔다면 내가 전부 추남을 얻어 줄 것이다' 할 때, 그걸 환영해야된다 그 말이라고요. 또 남자들은 말예요, 미남이 들어왔으면 추녀를 얻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역사시대에 못난 여자가 많았는데, 그 많은 못난 여자들의 마음을 해원해 주고 풀어주는 것이요, 탕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만여성을 해방할 수 있는 탕감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결혼해 보겠다 하면, 하늘의 높은 자리에 기록될 수 있는 사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맞습니다」 맞아요, 글러요? 「맞습니다」 합당한가, 안 한가? 「합당합니다」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라는 것은 도피하기 위한 변론이예요. 궤변이예요. (웃음)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나이가 되어 길을 갈 때는… 선생님이 그랬다구요. 40대가 되어 갈 때쯤에는 길을 가다 절룩절룩하는 여자를 보면,

'저와 같은 여자하고 하늘의 뜻이 있어서 하라면 해야지. 이 시대를 위해서보다도, 다음 시대에 있어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면 그 고귀한 하늘의 소명받은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해야 돼요. 오케이 하는 것은 후손, 자손 만대를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그런 걸 다 합격해야 돼요. 싫다 하는 조건 가지고는 부모님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자로 말하면 깍짓동같이 생긴 여자들도 있거든요. 배에 올라가려면 이게 아래에서 1미터쯤 되는 여자...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라구요. 그거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웃음) 자, 그런 여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싫다고 할 거예요, 좋다고 할 거예요? 그거 다 패스해야 돼요. 이런 여자를 상대로 결정한다면 싫다고 하는 남자는 천상세계의 중심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성성상의 남성 여성을 부인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맺으면 일생 동안 결인이 돼서라도 봉사하는 길을 가고, 그 아내가 병실에 누워 있다 죽더라도 그를 위해서 봉사하여 하늘의 아들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천상법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시집가고 싶고 그런 여자에게 장가가고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것들, 대답이나 하라구. 이 도둑놈 같은 녀석들. 저기 저 보기 싫은 얼굴들도 있구만.

사랑의 힘은 위대해

그래, 성진이 어머니에 대한 말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말과 봄바람 얘기 들었지요? 「예」 여러분도 봄바람 불어요? 봄바람 불어요? 전부 다 그래요?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잠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거 사실입니다. 밥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잠잘 것도 잊어버리고 춘추동도 잊어버리고 아침 저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까꾸로

가요, 전부 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변화무쌍합니다.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180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거룩한 것

그렇게 되면, 하늘의 심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두 세계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요즘 영통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본래 하늘의 심정권에 서면 두 세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영계를 알고, 이렇게 하면 지상세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 것도 알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겠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의심해요? 청맹과니가 돼 있으니 코끼리 다리를 잡고는 '아이구 이거 기둥 같고 뭐 어땠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자, 그렇게 생각할 때, 통일교회 역사가 얼마나 알긋어요? 거룩한 것이예요, 알긋은 것이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뭐요? 알긋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합니다」 그런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웃을 때에는 그저 입이 찢히고 눈안에서 눈곱이 튀쳐 나오게 웃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거룩이 별것 아닙니다. 최고의 자연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머리카락이 내려왔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이렇게 떨어지나요? 응? 아, 내 여기에 뭐가 좀 묻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지 않나요? 이놈의 자식들! 이 자연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참 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통일교회에 들어와 보면 말이예요, 사랑에 취하게 되면 새가 날아가면 '야야야 왜 가노? 나하고 말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밥을 먹으러 가는구나. 아, 짹을 찾아가는구나. 안 다구요. 벌써 알아요. '너 그렇지?' 하면, '그래 그래'하는 답이 들립니다.

그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바윗돌을 보면, 바윗돌하고 '야, 너 바윗돌안에 뭐가 있노?' 하면, '뭐가 있기는 뭐가 있어? 바윗돌 가운데 내가 있

지' 그러는 거예요. 혹은 보물이 있으면 '보물이 있지'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요령요령한 족속으로 살고 있지' 하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박혀 있어?' 하면, '숨은 사랑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다' 요런 대답을 하더라구요. '왜 그렇게 박혀 있어? 몇만 년 몇 억만년씩 숨어서 그렇게 박혀 있어?'하면, 숨은 사랑의 최고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져요? 몇억 년씩 기다리다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랑의 주인공을 만나게 될 때는 노래를 할 것이고 춤을 출 거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날을 위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그렇게 지루하더라도 하늘의 사랑을 그리는 그 자리는 지루함을 망각해 버린 자리기 때문에, 천년 만년 몇억 년도 기다리는 장기적인 대기상태에 버려지더라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져요? 바위 보기에 미안하지요? 어때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뭐 순전단 일을 하는 것을 못 참아서 '아이구, 결혼을 했는데 그놈의 신랑이 왜 안 오나?' 하고 야단이에요, 이것들. 그것은 날라리 패 사랑이에요. 깊은 뿌레기가 없어요. 바윗돌 사랑, 바윗돌 사랑이 얼마나 멋져요! 알겠어요? 똥 하고 있지만 천하를 주름잡는 놀음을 하고 있더라 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깊은 사랑이 있을소냐, 없을소냐? 어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를 보고도 '이야, 놀랍구만! 놀랍구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디 쭉 가더라도 행복하지요, 어디 가더라도. 그런 고귀한 인간입니다.

그러한 본성의 심정권을 잃어버린 이 타락의 한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 이 거예요. 이 타락을 격파해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 칼이 있다면 한꺼번에 쏘살 같이, 쏘살보다도 뭐라 할까, 그 번개같이 잘라 버리고 격파시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윗돌 사랑

여러분, 축복받았지요? 안 받았어요? 그런 마음 있어요? 전부 다 이 타락의 탈을 쓰고 뒤뚱거리는, 뭐라고 할까, 지옥의 행로를 떠나지 못하

는 요사스러운 무리들이여! 그런 때도 여러분 중에 있을 게 아니예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성싶어요, 없을 성싶어요? 「없습니다」 선생님 말을 들을 때는 없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있어요. 그 말은 있다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말할 때는 전부 다, 충신 아닌 사람이 없고 효자 아닌 사람이 없고 용사 아닌 사람이 없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니 비용사 비충신이 다 된다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것이지요. 가짜가 될 수 있는 소질이 풍부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같으니라구. 잘 알고 내가 물어보는데 빼면 용서받을 것 같아요?

그래, 오늘 건대에서 잘 싸웠어?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확 붙어 버렸어요? 아, 난 혼자도 세계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건 뭐... 「무혈일승했습니다」 무혈일승? 「예」 무혈일승이 아니라 그거 뭐야 자연일승했다고 그러지. (웃음) 자연일승이지, 무혈일승이라는 말이 있나 어디? (웃으심) 말이라는게 참 재미있는 것이지요?

천년사를 초월하는 사랑의 맥박

그래, 어디까지 왔나요? 끝날 때가 됐지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통일교회의 여러분이 모르는,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의 사연이 얼마나 복잡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한강만 해도 뭐... 저 세계의 아마존강 같은 강은 말이예요, 그것이 출발해서 흘러 가지고 큰 하구로 해서 대해(大海)로 들어갈 때까지 사연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폭포가 되어 떨어져요. 떨어지는 데 큰 물줄기를 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히 혼자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도 들이맞아야 됩니다. 옥살박살이 돼야 됩니다. 자기 정체고 뭐고 다 없어지는 자리에서 떨어져 아뜩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누어 가지고 또 출발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런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대해에 들어가서도 스톱하지 않습니다. 대해에도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조수를 따라 5대양을 무대로 해 가지고 천태만상의 사연을 남기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

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여행 행로가 물질계의 행로보다 못할소냐, 더할소냐? 더할소냐, 못할소냐? 「더합니다」 더하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세상에 누가 행복하다고 하겠느냐? 그 사연들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사연들은 사랑을 찾아갈 때에 있어서는 천태만상의 미를, 맛을 느낄 수 있는 곡절의 고비들이다 이거예요. 비참해 보이지만 사랑으로 소화시키고 난 후에는 귀한 가치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양광석보다 더한, 천지를 비추는 빛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알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소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맛이 그 즐기 가운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정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노정이라고 할 때, 그 인생노정을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예요, 행복한 사람이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수난길을 거치고 곡절의 길을 가 가지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랑하는 그 물건을 대해서도 명령하기에 주저할 것 없고, 자세를 드러내기에 부끄럽지 않은 권위를 가진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지금까지 40평생을 고생했지만 말이에요, 고생한 선생님 같지 않지요? 얘기할 때는 젊은 사람과 똑같지요? 사랑은 언제나 젊어요. 사랑의 박자는 언제나 젊고 사랑의 맥박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37도 5분이라는 이 온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의 맥박은 천년사를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 (본부교회에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심)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뭘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살아 있다는 얘기를 세 시간 가까이, 두 시간 40분동안 얘기했는데, 얘기를 할 때 늙은이처럼 허리를 꼬부리고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같이 얘기했어요? 「젊은 사람같이 했습니다」 미국이 팡팡 할이만치 들었다 놓았다 할 때 어때요, 기분이? 젊은 사람 걸음걸이예요, 늙은 사람 걸음걸이예요? 「젊은 사람요」 사랑의 박자는 천지의 대맥을 울려낼 수 있는 힘을 작동하는 거예요. 뭐 늙어서 말소리는 작지만 그 맥에 힘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 여러분이 학교에 가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데, 그것은 다 요사스러운 사건이에요. 이 대해의 물결 가운데서 즐기치게 천하를 주름잡으면서, '하! 멋지다'고 할 수 있고 한쪽의 그림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행로라는 것을 미처 몰랐더라 이거예요. 그걸 안 사람은 태어난 것도 아멘, 살아가는 것도 아멘, 죽어가는 것도? 「아멘」 아멘. 영계에 가서 보니까, 눈이 둥그레지고, 천년을 아-멘- 해도 싫지 않다는 거예요. 천년을 계속해도 싫지 않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과거 현재 미래도 통일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 봤어요? 하루도 안 가 가지고 신경질을 내고 땅강아지 새끼처럼 똥을 싸고 오줌을 싸 갈기면서 그저 자기가 싸 놓은 똥 오줌 냄새도 싫다고 도망가는 패들...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거 문선생님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사나이가 말이에요. 내가 멋진 사나이예요? 멋진 반대가 뭐냐. 고약한 사나이예요? 응? 여러분보다 내가 멋진 사나이 같아요, 남자로 볼 때 말이에요. 잘났다고 하는 그 서울대학교 패들 여기 다 모였겠구만, 이놈의 자식들. 내가 잘난 사나이 같아, 못난 사나이 같아? 「잘난 사나이입니다」 난 못난 사나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말하기를 잘난 사나이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잘난 사나이 되는 거예요. (웃음)

그렇기 때문에 노랑 머리에 시퍼런 눈을 가진 미국 패들도 전부 다 선생님을 참 좋아한다구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참 좋아합니다. 여기 주동문이 왔나, 어디? 주동문이 월드 앤 아이(World and I) 잡지사를 통일교회패들 한 백명 가량 데리고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놀란 것은 선생님은 무슨 재간이 있는지 그저 15년 동안, 만 14년 동안에 미국애들 전부다... 미국이 그렇다구요. 담당 교수가 한국의 유명한 교수여서 그 문하생이 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도 방문 안 해요. 기억도 안 하는 그런 미국이에요. 한국에 오더라도 찾아보지 않는 것이 미국 풍습인데, 그러한 미국의 전통문화 배경에서 자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돼서 14년동안에... 뭐 가만 보니까 선생님한테 칭찬도 안 받거든요. 육을 들입다 먹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이라면 그저 팔으로 메주를 썬다고 해도 오케이 하고 말이예요, 전부 다 솜방석을 짚어지고 불에 들어가라고 해도 이의가 없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 '그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니 도망갈 수도 있지만, 도망가 보면 사흘도 안 돼서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하는 말이 병에 걸리긴 걸렸다는 거예요. 거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무슨 병이예요? 망할 병이예요, 흥할 병이예요? 「흥할 병요」 망할병이 아니예요. 흥할 병입니다.

그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 사회, 종족, 민족을 초월해서 통일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은 과거도 통일, 현재도 통일, 미래도 통일이라는 말이 공통 술어로 증거될 수 있는 사연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씨들이 말이예요, 좋은 신랑 얻고 싶다는 심정 보따리를 떡 가슴에다 품고 다니게 되면 동네방네의 남자들은 밤잠을 못 자고 전부... (녹음이 잠시 끊김) 이럴 수 없으니 주둥이가 학 주둥이처럼 늘어진다구요. 학은 그리워하는, 사랑의 님을 고대하는 이런 공상가의 대표입니다. 고개를 들고, 먹지도 못하고 대공을 노니는 것입니다. 어때요? 인간이 그렇게 고귀한 사랑을 위해 학과 같이 돼 가지고 살다 죽었으면 나쁜 데 가겠어요? 영계에 가 가지고 지옥 가겠어요, 천당 가겠어요? 어때요? 대답을 하라구요. 어떻게 돼요? 천당 가겠나, 지옥 가겠나 말이예요. 「천당 갑니다」 물을 게 뭐 있어요? 천당 가지요.

아이구, 내가 앉아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엉덩이가 아파서 죽겠다. (웃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만두자 그 말이지요? (웃음) 아, 왜? 그렇게 통하지 않으면 뭘 해먹겠어요? 육감이 동하고 철감이 동하는 이상적인 사랑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보이는 사랑만 찾아가지. 엉덩이가 아프다는데도 또 부러먹을래요? 좀 쉬어야지요? 종일 이야기했더니 머리가 뺏뺏한데...

내 이런 얘기 하면... 내가 한 십대 소년 같으면 한번 프로포즈하고

싫을 만하지요? (웃음) 안 그래요? 서양 여자들 보고 '내가 지금 50이 넘고 이래도 나한테 프로포즈하는 거 승인한다면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봐' 했더니 '저요, 저요, 저요' 이러더라구요. (웃음) 다 그럴 거예요. 어머니는 눈 감게 하고 말이예요. 다 이러더라구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예요. 서양 여자들은 솔직하지 그렇게 음흉스럽지 않다구요, 중국 여자처럼. (웃음) 내가 그 서양 여자들한테 배웠다구요. '아! 그런 거로구나'하고 말이예요.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분 나빠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해요, 왜? 전부 다 그렇게 좋아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망쳐 놓기 위해서 그런가요? 살려 주기 위해서라구요. 다르다구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따라지가 됐어도 난 걱정을 안 했어요. 돈 한푼 없는 따라지가 돼서 길가에서 혼자 낮잠을 자더라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인 여자들도 있다구요. 내가 그렇게 되면 미인 여자들이 전부 다 보자기를 싸와 가지고 승교를 만들고 나를 메어 가려고 할 거라구요. 그거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문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천지조화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천지에 그런 그 주인이 있느냐 하면,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가씨, 총각들도 날 좋아하겠지? 「예」 좋아하겠지? 「예」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그걸 섭섭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옳을싸, 그를싸? 「옳을싸」

대한민국을 사랑하라

그래, 여기 뭘하러 왔어? 이놈의 자식들. (웃음) 왜 웃어? 뭘하러 왔어, 여기? 여기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요」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님요」 문안도 안 하고 다 이렇게 와 앉았어? 이놈의 자식들, 버릇들이 없어... 누가 오라고 했어? 「발이 왔습니다」 발이 왔어? 이놈의 자식들. (웃음) 그러면 발을 잘라야지. 그래도 머리들은 잘 돌아가는구만, 발이

왔다고 하는 것 보니. 진짜 발이 왔어? 「예」 아무 말도 안 듣고? 이놈의 자식들... 듣고 오지 않았어요? 그거 발이 왔어요? 듣고 왔지. 듣고 왔지요? 「예」 발이 온 거예요, 그게? 아예 낙제, 빵점 맞을 그런 대답을 왜 해요? (웃음) '왜 왔어?' 하면 선생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 듣고 왔다면 꼼짝 못하고 선생님이 입을 다물 텐데 말이에요. 발이 왔어? 이것들! (웃음) 왜 왔구요? 「선생님이 오라고 하셔서요」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오라고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칭찬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을까, 욕을 퍼붓기 위해서 오라고 했을까? 이 두가지 중의 한 가지겠지요. 그래, 젊은 애들은 칭찬해 주면 버릇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나빠진다고 했어요? (웃음) 그래, 여러분들은 어떠냐면... 젊은 애들은 칭찬해 주면 말이에요, 지나가던 양반이 떡 만나가지고 '그 아들 좋다. 그 아낙네 아름답구만. 이집 주인 가문이 번창하겠는데' 하고 칭찬해 주면, 그걸 듣는 어머니 아버지가 '여보, 지나가는 양반님, 젊은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면 못쓰게 돼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도 못 하게 하잖아요? '고양지고' 하고 칭찬을 하기 전에 책망을 하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 선생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칭찬을 할까요, 책망을 할까요? 「책망을...」 왜 '책망을, 책망을'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웃음) 왜 얼굴이 시뻘뻘해요? 웃으면서 '책망을 하시옵소서' 이래야지. 내가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책망을 하겠어요? 책망도 못 하겠고 칭찬도 못 하겠으니 내가 입 다물고 얼굴을, 뭐라 할까, 싸 잡은 때, 그거 뭐라 그러더라, 박제한 것처럼 해 가지고 버티고 앉아서 들여다보는 쏘아 잡은 매새끼 모양으로 말이에요, 잡아먹을 것 같은 인상을 하고 버티고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응?

어떻게 할까요? 책망을 할싸, 칭찬을 할싸? 「책망하십시오」 한 시간쯤 할까요, 열 시간쯤 할까요? 「열 시간쯤요」 백 시간쯤 할까요, 영원히 책망할까요? 「영원히」 그러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요. (웃음) 영원히 선생님한테 책망받고 천국 가는 종자는 없더라 이거예요. (웃음) 책망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칭찬도 하고... 얼룩덜룩한데, 검둥이 보다도 흰 것이 조금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걸 모두 합쳐 놓으면 뿌옇게 되거든요. 뿌옇게 되면 중간에 가 머물 수 있다 그 말이라구요. 그건 괜찮지요, 뭐. 여러분은 그렇잖아도 뿌연 세계에 살잖아요. 천국에 살아요? 여러분은 그 이상 새까만 세상에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내가 뿌옇게 만들면 고마울 것이지 말이에요. 어때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생님이 여러분을 여기 모아 놓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 해줬어요? 무엇? 「향토학교 얘기로요」 향토학교 얘기 말고 또 했지요? 「반 지부장 교육 십만 명…」 또 그다음엔, 그다음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가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라고 그랬지요. 응? 누구나 향토학교를 만드는 것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향토학교를 만들고, 무슨 뭐 통반조직을 편성하고, 뭐 반 지부장 교육하고 하라는 모든 것이 뭐냐? 대한민국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좁은 데서 넓은 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두께와 넓이를 크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한이면 남한 사람들이 나라를 진짜 사랑한다면 남한만 사랑해야 되겠어요? 「아니요」 북한을 먼저 사랑하고 남한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문증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손이 되려면 자기 직계의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들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증을 술가해서, 모든 횡적 기반을 다 거느려 가지고 그 표준에 언제나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사랑을 지녀야만 종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나 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남한에 살지만 북한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동서분립, 남북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우리 통일교회 패들은 대한민국 남한에 살지만 남북이 통일권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을 그려 가는 껍데입니다. 남북이 통일 안 된 것은 내 몸뚱이가 절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절반 동강이 난 것과 같은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이 없어질 때까지 치료를 해주어 가지고, 종으로 횡으로 아픔을 느끼지 않고 '이제부터 복지의 나라를 영원히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아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교구장들을 모아 가지고 말이예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동서의 분립이예요. 동서의 사상적 대치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역사는 동서로 분립되어 있다구요. 그래 가지고 서양문명이 동양문명을 치리해 나왔습니다. 동서문명의 분립, 그 다음에는 남북의 빈부격차, 이게 문제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 세계환경에서 이러한 분립적 격차 때문에 비애가 교류되어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개인적 행복을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가족의 행복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건 세계사적인 문제예요. 과거의 성인들도 이 문제에 걸렸고 현재의 성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는 미래의 성인들도 태어나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의 숙제가 돼 있다 이거예요. 숙명적 길로 남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숙명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숙명적으로 태어났다구요. 부자의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습니다. 못 바꾸는 거예요. 숙명은 그냥 그대로 백 퍼센트 받아들여야 됩니다. 싫건 좋건 백 퍼센트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서 남북을 사랑하고 하나로 통일된 세계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이것은 숙명적인 수치예요. 수치입니다. 병신이에요, 병신.

여러분은 이복에 대해서 알아요? 이복에 대해선 관심 있어요? 「예」 전부 다 해방 이후에 태어난 껍데 아니예요? 몇 살 된 껍데요? 30대 미만이고 스물 셋, 스물 넷 된 껍데이지요. 해방 이후의 산품입니다. 이복에 가 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지요? 이복이 있는 줄은 알아요? 「예」 얼마나 알아요? 모르다시피 안다는 거예요. (웃음) 이거 웃을 얘기

가 아니예요. 사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르다시피... 모르는 게 더 많지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다시피 알고 있다는 그 자체를 누가 신임할 수 없어요. 그건 불신임당할 수 있게 알고 있는 기준이예요.

공산당 김일성의 앞잡이가 돼 가지고 말이예요, 의식화 운동을 하는 자민투, 민민투 패들... 민민투 패, 자민투 패, 하나는 레닌 패 김일성이 패 해 가지고, 공산주의 패들 자기들끼리 싸우지요? 여러분은 김일성을 봤어요? 김일성을 알아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깜깜 천지라구요. 이래 가지고는 전부 흐지부지예요. 이놈의 자식들, 이북에 가서 살다가 와 보라는 거예요. 김만철의 아들딸같이... 김만철의 아들딸을 불러다가 저 서울대학에 가서 전부 다 자민투 투쟁위원이 되라고, 의식화운동의 선두에 서라고 하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그들은 야간 도망을 해왔다고요. 북한의 자기들 말로 잘사는 환경에서 야간도망을 해온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참 자유스럽고 자유가 팽배해 있는 이런 자유천지인데, 거지 패들만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거지 패들이 예요?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북한에서는 남한이, 국민이 전부 다 굶어 죽고, 강통을 찬 거지 패들이 행렬을 지어 다니면서 우루루 소동판이 벌어져서 감을 못 잡는 곳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가서는 절대 죽어도 한국에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가면 모가지를 잘라죽인다고... 그런 북한을 알아요?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적다 이거예요. 그것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소리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북한을 사랑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북한을 진짜 사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라구요, 북한을 진짜 사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어렵도 없어요. 어렵도 없다구요. 어렵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남한을 진짜 사랑했어요? 북한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고 말이예요. 해방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모르니까 괜찮다지만, 여러분이 남한은 사랑했어요? 한번 따져 보자구요. 사랑했어

요? 아 여러분들 말이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별어다 준 밥을 먹고 학교 다니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이 걸려들어 통일교회에 들어왔지, 여러분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봤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잡초라도 붙들고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리며 '해방된 남한에서 살지 못하고 통일된 세계에서 못 사는 불쌍한 남한의 모든 산천초목이여!' 하면서 사랑해 봤느냐 이거예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못 해봤습니다」 이번에 다녀 가지고 사람이 많이 늘었으니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것들. 똥개새끼만도 못해요. 똥개새끼도, 암만 칠칠한 개도 자기 주인집 안뜰에서는 똥을 안 옐다 이거예요, 바깥구석에 가서 싸지 똥개새끼만도 못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뭐 어떻고 어떻고... 뭘 위해 지금까지 일했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해 봤어요? 이웃 사촌 사랑해 봤어요? 이웃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불쌍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에게 자기 밥을 안 먹고 도시락을 싸서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모자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거지모양으로 빌어서 그런 사람 도와주고 말이예요, 이웃 사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 봤어요? 건달들같이 자기가 편안하면 세상이 다 편안한 줄만 알고 있다구. 자기가 나쁘다고 세상이 다 나쁜 게 아니예요. 나쁘고 좋은 것이 얼룩덜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고기압이 있으면 저기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연이치입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이 평형을 취해야 돼요. 서로 상응하고 서로 대응해야 돼요. 연체적 관계를 중심삼고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적이예요. 이상적이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부른 것을 감사할 줄 알지 전부 다 배부르면 배부른 것을 어떻게 감사할 줄 알겠어요? 배가 고파 본 사람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감사하지요.

너는 채수 없이 왜 여기에 와 앉았나? 일어나 저리 도망가라구, 침이 튀니까. (웃음) 그래, 이웃 사촌들을 얼마나 사랑해 봤어? 이것들아! 까놓고 얘기하자구. 뭐 사랑하고 뭐 어떻고, 동족 사랑하고 뭐하고 하는데, 까 보면 뭐만도 못해요. 칠첩반상 위의 요만한 접시에 들어가 있는 된장 덩이만큼이나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수치를 느껴야돼요,

수치를.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자아를 중심삼고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를 느껴야 돼요. 거울을 보나, 자연을 보나 수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만물 전체가 참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수치스러운 자기 스스로를 가눌 수 없어서 몸부림을 쳐 봤어요?

여러분들, 분 바르고 해서, 뭘 매니를 바르고 못생긴 것을 요렇게 해 가 가지고 미인이 되어서 남자를 속여서라도 시집 잘 가야 되겠다고 그저 궁둥이를 휘젓고 다니지요? 솔직한 얘기 아니예요? '내가 어떻게든 대학은 들어가야 돼, 어느 대학이라도 졸업장을 가져야 시집갈 때 대학 나왔다는 조건적인 핏말이 되겠으니, 그래 가지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거 아니예요? 많은 돈을 써 가지고... 시집가면 그만이에요? 왜 그만이에요? 남편을 섬기는 데 있어서 대학출신자로서 남편을 섬길 줄 알고 모실 줄 알아야지, 지성적인 생활감정을 통해서 생활을 리드해 가지고 남편이 가는 길에 있어서 높고 낮은 길을 가려 줄 줄 알아야지,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돼야지요. 왜, 신세만 지고, 전부 다 아프다고 뭐뭐 골골하면서 사랑만 받자고 해요? 그 따위 사랑은 썩어진 사랑이예요.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을 나온 그런 기준에 서야지요.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안팎이 깊고 넓고 높아야지요. 반듯해서는 안 돼요. 시적 감정도 간절해야 되고 말을 할 때는 우미(優美) 한 말을 골라 하면서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지성적인 머리를 가진 아낙네가 되어야지요. 안 그래요?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돼

여러분들 볼 때 여자로서 어디 멋대가가리가 있어요? 멋대가리 없이 생긴 여자들이 대학 나와서 멀쩡하지요. 이걸 초겨울 일본 무우 대가리 언 것과 마찬가지로요. 보기에는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전부 얼어 버렸다 이거예요. 무우 언 것은 개도 와서 안 물어 뜯어요, 물었다가도 경경하고 도망가게 돼 있다구요. 고양이 새끼도 그 옆에 가서는 꼴보기 싫다고 똥도 안 누는 거예요. (웃음) 정말이예요. 내가 그 세계를 얼마나 잘 아는데... 고양이가 사실 영리하다구요. 고양이는 똥 놀 자리를 잡

아 쥐야 똥을 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똥을 넘어가 가지고 주인이 모르는데 가서 싸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싫은 일본 무우 대가리 얼어 붙어있는데 가서 채수 없이 똥을 누어요? 여러분들 뭐 전부 다 그래 가지고는, 나 좀 보라고 하겠나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버리고 가는 님은 뭐 어째요? 나를 찾아온 님은 고운 님이고 버리고 간 님은 쌍님이에요? 수작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자라면 사랑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 동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집을 가 가지고 어떻게 일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대부의 층층시하의 집안에 시집 가게 된다면, 거기에 며느리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층층시하의 심정권을 맞추고 살 수 있어요? 뛰쳐 나오고 그러겠어요? 그러한 자세를 갖는 패들은 나라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가정의 층층시하는 대한민국 남한이면 남한 판도의 모든 죄악들의 표본을 갖다 놓은 것이다, 나에게 역사상에 빛나는 참다운 여성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우리 대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떨거지들을 하나 둘 감동시켜 녹여 나갈 수 있는 보람 있는 생활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족을 사랑하는, 일국을 사랑하는 대신 일족을 사랑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집가겠다는 여자, 한번 손들어 봐요. 왜 웃어요? 불리하면 웃으면 다 돼요? 그게 여자의 병폐라 이거예요. 불리하면 웃으면 다 되거든요. (웃음) 이것들! 그러했다는 역사가 있고 그런 배포를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적 사랑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지금 당장에 죽어 가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어요. 아줌마 아저씨가 있다구요. 형님 누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짝차 있다구요.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시하면 되느냐? 땅덩어리를 붙들고 그저 입맞춘다고, 키스한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간판을 붙여 주기 위해서 주신 본거지가 가정입니다. 가족제도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시집을 가 가지고는 그 층층시하 고조로부터 전부 날리리 동동으로 할아버지들이 나를 반대해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일 무서운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일 나쁜 게 누구예요? 시형 시조카 할 것 없이 전부 반대하는 패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패들을 눈물로 감동시켜 가지고, 망해 들어갈 수 있는 못된 이 민족을 대표한 이 무리들을 민족 전체가 환영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개조해 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대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애국자 이상의 자리에서 들어가야

또 그런 가문의 장자면 장자로 태어났으면 어려운 환경을 개척하기 위해서 밤이야 낮이야 쉬지 않고 눈물을 연잇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그들의 안녕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위하여 있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가정을 사랑한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을 대신해서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는 통일교회 문 아무개로, 통일교회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구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 이상의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날부터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했어요. 감옥에 가게 되면 뭐 할 게 있어요? 밥 먹고는 말예요, 뭘하겠나요? 아침에 쥐똥만한 밥그릇에 밥을 달랑 얻어먹고는 말예요, 아침 먹고는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먹고는 말예요, 이러다가 또 점심 달랑 먹고 저녁까지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간이 많아서 걱정이예요. 할 일이 없어도 함부로 잠을 잘 수 없거든요.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없으니 전부 다 '뭐 어쩔고 뭐 어쩔고'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도 뭐, 30명이 있으면 30일이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며칠이면 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뭘하느냐? 그다음에는 서로서로의 결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어쩔고, 누구는 뭐 어쩔고... 자기가 좋다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전부 다 빵구가 나니까, 그다음에는 전부 다 '쌍것 뭐, 그 간나 뭐 어떻게 어떻게, 그놈의 자식이 뭐 어떻게' 하면서 남의 흉을 보는 거예요. 별 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구요. 대한민국 전국의 비참사가 거기에 전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요지경관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책임지지. 내 말 좀 들으소. 내가 얘기해 줄 테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느냐면서 소설 이야기를 해 달라면 장편소설을 엮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명작을 쓰는 문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 이야기를 할 때는 시를 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동화 얘기를 할 때는 전부 다 표정을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도 밍지 않지만 표정도 밍지 않은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면 웃거든요. 헤헤헤 웃고 말이예요, 여자들 같으면 웃다가 오줌이 나와 가지고 '제발 그만두소. 싸니다, 아이구' 하면서 오줌 싸는 것까지 내가 봤으니, 그만 했으면 뭐 잘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나? 웃다 보니 참을 수 없어서 오줌이 찝끔 나왔다 이거예요. 찝끔 나오고 그다음엔 싹 터져나왔다 이거예요. (웃음) 똥똥한 아줌마들이 그러는 걸 내 눈으로 많이 봤으니, 그만하면 말 팔아먹고 살 만하지요, 뭐.

그다음에는 매일같이 두 시간 이상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보면 목이 쉬고 그러는데, 뭐 먹을 물이나 있나... 그래도, 감옥에서도 제일 비참한 곳인데도 자기들에게 물이 생기거나 국이 있으면 국을 절반만 먹고 절반을 남겨다 부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이 교류되는 것이지요. 자연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사기꾼, 무슨 깡패 대장, 살인강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고 나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랑의 감화권을 어떻게 남기느냐 하는 거지요.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거의 다 승복을 했어요.

사랑의 심정이 넘쳐 흐르면 바위틈에서도 꽃이 피어

덴버리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나올 때는 떼거리 전부가 선

생님이 나가는 것을 환송하려고 언제 나간다고 날짜를 적어 체크하고, 몇 시에 나가니 길에 나가자고 하고 그러니 소장녀석이 보기에 큰일나겠거든요. 문 아무개가 나가게 될 때 그곳의 2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다 본다고 나오면 야단이 벌어지겠으니까 여덟시에 나간다고 해 놓고 일곱시에 탄 데로 빼 가지고 내보냈다고요. 내가 떠난 후에 그걸 알고 난동이 벌어진 거예요. 항의가 벌어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지나가는 손님으로 알았던 아시아의 한 사람이 백인 사회에 있어서 포악하고 흉악한 그 사회에 들어가 가지고 1년 기간에 그들과 눈물의 교차를 이루면서... 지금도 찾아오는데, 난 오지 말라고 합니다. 나와선 나를 못 만나게 돼 있지요.

미국을 사랑할 수 있는 전단계로서... 그들은 그리움에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 주는 마음을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가까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맨 처음에는 나 혼자 저 식당 구석에 가서 혼자 앉아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석 달이 지나니까 내가 가는 데,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가면 잘 앉는 그 자리에 가서 벌써 미리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보면 내가 앉을 자리도 없게끔 다 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자리로 가서 앉으면 그 자리를 내 버리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놀음이 벌어져요.

그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요」 왜 좋아해요? 왜? 어째서? 인심은 천심이예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생각해 주고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의 갈 길을 명시해 주려는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예요. 사랑의 심정이 넘쳐 흐르면 거기에는 꽃이 피는 거예요. 찬바람이 불더라도 바위틈에서 꽃이 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저 북극의 빙산세계에서도 꽃이 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얼음 안에서도 꽃이 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자리, 감옥에 가 가지고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옥의 한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은 미국 2억 4천만을 사랑했다는 조건적 입장에 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천지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싫어하는 감옥의 죄인들을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표제를 들고 나와서 외치더라도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식 같은 걸 받으면 말이지요, 나도 사식을 받으니까 필요없다는데도 이걸 뭐 좋은 거 있으면 전부다 나에게 갖다 주려고 한다구요. 그 감옥살이가 쉬운 거지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위하는 데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한 것이 그 창조된 물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리원칙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출발은 위하는 심정권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논리를 중심삼지 않으면 위하는 원칙을 절대가치 기준으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세계는 역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형성이 사랑 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순리는 물론이지만 역리까지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옥까지도 천국화할 수 있는 논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밤을 낮보다 더 밝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이 좋아하지요. 응? 빛이 없더라도, 태양빛이 있는 대낮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이예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의 논리는 역리적 논리까지도 순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볼 때, 선생님 말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다 하고... 선생님은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왔는데 한남동 집 보니까 좋지요? 「예」 한국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거예요. 이거 내가 산 것이 아니예요. 내가 사려고 했던 게 아니예요. 내가 가만 있어도 사려고 하고, 사 주겠다고 한 사람들이 산 거라구요. 난 여기 구경 왔다가 걸려 들어간거예요. (웃음) 구경하러 왔다가 걸려들었어요. 정말이라구요. 어

떻게 구경하러 오다 보니 벌써 이게 사져 있더라 이거예요. 누가 샀는지 역사를 말하자면 특별한 사실이 많아요. 구경하러 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잡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를 추방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통일교회 패들 왜 그래요 왜? 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다 가치 있는 곳에 있기를 만우주가 바라고, 그것이 만인이 요구하는 공통심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전(全) 대통령을 전부 다 요즘 뽀뽀 끌어내자고 하지요? '야야, 전 정권 나와라!' 하고 야단하지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의 주인이 됐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고, 남북민족을 사랑하고, 아시아인을 대표해서, 한국민족의 선두에 서 가지고 이 민족을 세계를 지도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땀을 흘렸다면, 그와 같은 사랑의 등불을 드높이 들 수 있는 하나의 선각자가 됐다는 이런 기반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은 순리도 지배하지만 역리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할 수 있는 힘도 사랑에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은 무슨 힘이 있어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힘이 있어서 부활된 거예요. 사랑의 힘을 밟고 치워 버릴 수 있는 주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 악마도 그걸 해방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천리적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예」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현대의 젊은이들

엄마 아빠를 사랑해 봤어요? 엄마 아빠를 진짜 사랑해 봤어요? 새벽일찍부터 자기 위해 사는 엄마, 손이 두꺼비 모양이 되도록 자기 아들딸을 위해 일심봉헌한, 피곤해 있는 어머니의 피폐된 손을 붙들고 통곡해 봤어요? 요것들은 그저 눈을 깜박깜박하면서 어머니를 속여 가지고 자기들 곁가지에 필요한 비용을 빼내기에 급급했지, '엄마 엄마 나 좀봐, 나 요거 필요해, 요거 필요해' 하면서 엄마를 흘태기에 넣어 놓고는 줄라 가지고 웨어 차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뜻 있게 살아 봤어요? 대학을 나오고 대가리통 다 큰 녀석들 이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엄마 아빠가 내 신세를 졌어요, 내가 엄마 아빠 신세를 졌어요? 어떤 거예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엄마 아빠가 내 신세를 진 게 아니라구요. 엄마 아빠의 신세를 내가 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엄마 아빠에 대등할 수 있는 사랑의 동역자가 돼 봤느냐? 못 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20리 되는 장터에 갔으면 한 10리까지는 마중 나가야지, 호랑이가 득실거리고 늑대가 득실거리는 밤길, 어렵고 무서운 환경이라도 개의치 않고 찾아 나서야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사랑의 표시적 행동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있어요? 살살 껌데기만 벗겨 먹고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전부 자기 친척한테 돌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돌리고 나는 좋게, 편하게 살려는, 살짝살짝 다른 사람 등을 타고 자기 편한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 다 이 시대적 감정에 화한 그런 젊은 청년들이 아니예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안 그래요? 조금 달라졌어요? 「예」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놈들 말이에요, 전부 다 할 수 없이 저 뭐가, 향토학교에 처넣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떡 앉아 있는데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나가서 학생을 찾아와야 할텐데 기다리고 있다구요. 찾아가야지 왜 못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벌써 태도가 틀렸어요. 왜 못 찾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동네 누구누구 다 아는 데 말이에요, 두 시간이면 전부 다 다닐 텐데, 왜 못 찾아가요? 그리고 향토학교가 안 돼요? 말로만 그러는 거라구요. '아이구, 교실이 없고, 흑판이 없구만. 교본 교재가 없구만' 이러는 쌍놈의 자식들! 가가거겨를 책 가지고 가르쳐? 책이야 얼마든지 수두룩한데, 책이야. 찌어빠진 게 책인데, 책이 없어? 원리책이라도 풀어 가고, 무엇이든 다 할 텐데 말이에요, 영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일어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데, 책이 왜 없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너 향토를 사랑했어? 향토학교 께들은 오늘 안 모였구만. 「여기 왔습니다」 누가 왔어? 너 영취도 책임자 아니야? 「예」 앉아가지고 오기를 바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께들에게는 사람 보내 주지 마소' 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반대예요. 역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시겠어요? 어떤거예요?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원칙을 두고 볼 때, 누구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앉아 기다리는 사람이예요, 보내 주지 말라고 기도한 사람이예요? 응? 보내 주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구요. 왜 못 찾아가요?

불 같은 젊은이들이 왜 안 찾아가요? 왜 못 찾아가요? 왜 앉아서 먹을것이 없어 굶고 있느냐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아! 세상 애를 가르쳐 주면 점심때가 돼서 그 집에 가면 죽을 먹더라도 같이 먹자고 하지, 내쫓게 돼 있어? 생활문제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형제 아닌 형제의 인연을 맺어 가지고 사돈의 팔촌보다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되면, 민족을 중심삼고 해방의 논리를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미래의 세계관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판국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애국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국경을 넘고 환경을 넘어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도 나이 많은 사람도 끌고 다니며 할 수 있고, 들에 나가서 논갈이하다가 좀 쉬고 있는 아저씨를 대해 가지고도 애국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는 것보다 귀한 것이 민족입니다. 알겠어요? 노는 것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 쉬지 않고 그런 놀음을 하라는 거예요.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을이면 마을의 헛간, 짚으로 똥치기하는 그런 변소간에라도 들어가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예요, 어머니의 사랑.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입장을 가지고 주력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 뒤에는 태풍이 불어와도 절대 사망이 생기지 않아요. 사시장철 태양이 들이쬐어도 사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자가 생길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체가

자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뭐 혼자만 아니지만, 혼자 어디를 가더라도 외로와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자립할 수 있어요. 천 호가 사는 부락이 있으면 그 부락에 가서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신세 지우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신세를 지을 수 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흥하는 길이에요. 내 노력을 통해서 그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 높음을 자진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못 하는 것이 없어요. 산에 가면 산사람이 되려고, 숲속의 것까지 다 배운 사람이라구요. 광산의 동밭까지 농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광산 땅을 파는 데 있어서도 내가 챔피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는 무슨 뭐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일할 줄 모른다고? 그놈의 자식, 그놈의 자식은 불효자식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치쳐 논같이 하는 부모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명년에는 봄이 되기 전에 준비해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하기 전에 내가 갈아치우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력이 있으면 논이 물 때문에 내 어머니 아버지와 싸우는 원수의 눈에까지 내가 물을 대어 주고 물고도 전부 내가 막아야 되겠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땅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느냐.

민족과 세계의 사랑을 다리 놓아 세계로 가게 돼 있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북한 땅은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한 땅은 사랑했느냐 이거예요. 사랑했어? (이때 까치가 깹깹 하고 울었음) 저것 봐요, 까치가 '그렇다. 못 했다. 깹깹 선생님 말씀 옳소'하지요. 까치도 대답하는데 뭐 이것들은 대답 못 하는 거 봐, (웃음) 사랑했어? 그 주제에 뭐 시집가겠다고, 시집가고 싶다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주제에 나 장가가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창피해요? 장가는 왜 가고 시집은 왜 가요? 사랑 찾아가겠다고, 이놈의 자식들. 그거 얼마나 창

피해요?

어머니 마음 속에 밤이나 낮이나 꽃과 같이, 함박꽃과 같이 활짝 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백합화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효자의 마음을 가진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꽃 가운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향기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효자가 왜 못 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랬느냐 이거예요. 형님 동생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우리 형님밖에 없고 우리 동생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놀음을 했느냐 이거예요. 했어요? 여기 아가씨들,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선생님이 미국에서 1,036쌍을 축복했다니까 '이번에 오게 되면 틀림없이 국물을 생각 안 해도 국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이 생겨나겠구만'했지? 이 건달들.

그래, 나라도 생각 못 하고 자기 일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없는 패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뭘해요? 시집 장가는 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뭘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뭐? 사랑이 갑자기 생겨! 이것야!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만 좋겠다는 그 사랑은 남편이 좋아할 리 만무하고 아내가 좋아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 패들이 부부가 되어 살게 되면 그 땅도 싫어서 똥 냄새를 피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연 까지도 전부 다 외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맞을 성싶은가요, 안 맞을 성싶은가요? 「맞습니다」 맞을 성싶어요, 안 맞을 성싶어요? 「맞을 성십니다」 (녹음이 잠시 끊김)

악질분자는 내가 처지할 것이다, 내가 감동시켜서 회개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왜 못 찾아가요? 내 입이 마르도록, 내 혀가 닳도록 이론 투쟁을 해서 내가 그들을 구해 주겠다 하고 왜 못 해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구요. 싸우기 전에 그를 알아야 된다고요. 싸우기 전에 그를 알아서 그를 위해 전후 사연을 논의하고,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형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자리에서 찾아가고, 너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그를 대해 보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예요. 더더욱이나 노동자 농민의 아들들이예요. 배고프고 사랑을 잃은 사람들이예요. 그런 생각도 안 해 가지고, 자기들 좋은 그 기준에서 변치 않고 추구해가는 그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 사람들이 동화될 수 있는 길

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노동관에 가게 되면 사흘 후에는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벌써 흰하거든요, 그 세계가.

이런 사랑, 민족의 사랑의 다리를 놓아 가지고, 세계의 사랑을 다리 놓아 가지고 천상세계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혼자, 부처끼리 중심삼은 사랑은 전부 다 횡적이에요, 횡적. 입체적인, 종적인 모심이 없어요. 민족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세계를 사랑하는 피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요, 그거 다 수평적이에요. 거기에 민족을 안고 사랑해야 하고 세계를 안고 사랑해야만 거기에 아름다운 천하만물상이 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머니를 보게 된다면 '우리 사돈의 팔촌의 누굴 닮았구만. 코는 누구를 닮고 입은 누굴 닮고 눈썹은 누구를 닮았구만' 하고 전부 다 분석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어머니하고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어머니가 얼굴에 다 꿰어 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 보면 참 신기한 거라구요. 이북에서 내가 지도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중간에 떨어졌는데, 얼굴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웃는 것도 80퍼센트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이는 거예요. 신기하고 신기할 정도예요.

참다운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손해가 없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참다운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손해가 없어요. 나라를 위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위하지만 국가적인 기준에서 위하려고 하고 세계적 기준에서 위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자기 앞에 싹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라구요. 또 우리 통일교인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저를 위해 생각하는데 저놈의 자식, 저거 안 되겠구만'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몰골을 하게 되면 그는 물러나게 되고 교차되는 놀음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내가 '저 녀석 안 되겠구만'하는 게 아니예요. 새로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한 그 사람 자신은 벼랑에

떨어져 나가고 이 사람이 난데없이 하늘의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고 바뀌쳐지는 놀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다구요. 자가 수축, 자기가 자동적으로 내외 수축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사랑이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참다운 사랑의 도리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주력이 그를 보호하고 모든 환경의 모든 존재의 힘이 그를 옹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자연히 가려져서 전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산 보람이 있지요. '야!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사는구나. 4천만이 나 때문에 사는구나. 세계가 나 때문에 사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하나님도 나 때문에 사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난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그라미밖에 안 되는 난데. 그런 나와 그렇게 관계 맺고 인연을 두텁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방의 존재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세계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랑이 내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불행해요? 인생으로서 사는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 이 나라를 위해서, 절망상태에 있는 그들 앞에 희망의 꽃이 되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 앞에 기쁨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아버지가 되고 상대가 돼 가지고 위할 수 있는 놀음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보다 아름다운 도리가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하늘이 머리를 숙이고 온 인류와 소망의 세계가, 이상적인 모든 여건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추앙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터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주역을 하고, 그 자리에서 스타가 돼 가지고 그 자리의 판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길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찾아가야돼요. 알겠어요?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애국자는 민족의 모든 서러움을 다각면에서 전부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형제지간이요, 혈육지간이라는 감정이 동할 때 민족애가 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북한을 사랑했다는 것도 가짜고, 또 남한에 있어서 남한을 사랑했다는 것도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교구장 같은 사람은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손수건 하나라도, 돈이라도 1원짜리든 100원짜리든 한 달에 한 번씩 줄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돼요. 내가 백만장자의 아들로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불쌍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 사랑의 마음은 변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하늘의 맥박이 다리를 놓아 가지고 점핑해서, 비약적으로 세계의 희망의 터전이 확대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구요. 보라구요. 우리 애기들이 앓고 그럴 때는 말이에요, 선생님은 거리를 걷는 거예요. 측 거리에 나갔다가 밤에 집에 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애기를 업은 아줌마를 만나게 되면, 지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몽땅 빼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나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주니 묻지 말고 가져 가라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부자간의 사랑의 힘은 모든 병을 격파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려고 측 집에 들어오면 신기한 정도로 애기가 펄펄 뛰는 거예요. 죽겠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구요. 아프던 애가 다 나아가지고... 내가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합니다. 야!

이렇게 우리 집안 살림이 이 세계와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 사랑의 세계와 첩첩이 중첩돼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민족을 대표하고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할아버지로 섬기고, 그 할아버지의 입으로 '너는 손자 중의 손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손자가 돼 보겠다고 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충신의 도리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도리를 인계받을 수 있고, 자기 나라에서 그런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할아버지 이후로 아버지, 아버지 대신 손자가 그 권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할아버지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과 모든 것을 바쳐 노력을 하게 되면 사랑의 그 가정, 그 집안은 망하지 않습니다. 3대가 그런 심정권을 갖게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알싸, 모를 싸? 「알싸」

하나님과 아담 해외에게 그런 심정권이 벌어지고 아담하고 아

담의 아들딸에게 그런 심정권이 벌어졌으면 세계는 망하는 세계가 되지 않았다구요. 천국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유의 주체인 하나님을 자기 몸 이상 자기 생명 이상 사랑하고, 또 상대되는 해와면 해와 아담이면 아담을 상대이상으로서 주체된 하나님 대신자로 사랑하라고 지었기 때문에, 횡적인 면에서 그 이상 사랑하고, 아들딸,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 사랑을 중심삼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삼은 종적 사랑 횡적 사랑을 합한 사랑을 하는 부부가 되면, 그 자리는 천국의 뿌리가 되어 뻗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 가지고는 안 통하는 것이 없어

천국이 판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3대 심정... 통일교회로 말하면 사위기대를 합치면 3대예요. 3대가 있어요. 그것만 되면 이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이 중앙선과 언제나 연결하고 존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방이 그걸 묶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준이 시작되면 그것은 만국을 동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사랑의 원천으로서 이 세계와 하늘땅을 적시고도 남을 수 있는 기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힘이 개재돼 있고 무한한 폭발력이 개재돼 있지요. 영원히 치고 또 밟아 갈 수 있는 기원이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는 혁명이 없어요, 혁명을 할 수 없다가구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 법에 치리받는다가요. 하나님도 여기에 순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창조이상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독재권을 중심삼고는 사랑의 상대적 이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위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존재들이 반응적인 현상을, 상응적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본 바탕이 사랑의 소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예」 대학을 나왔으니까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지금 뭐 소위 동포애로 남한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몇 급짜리나 돼요? 선생님 말 듣고 보니, 몇 급짜리 인가요? 영(零)급도 못 되지요? 체로 이하, 마이너스예요. 이걸 있으나 없으나... 말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게 되면 천하가 내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선생님이 공의의 뜻을 세우고 사랑의 인연을 맺기위한 노력을 하다 지쳐 쓰러져 잠을 자다 손을 보면 손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무슨 빛이에요? 요술의 빛이 아니예요. 사랑의 빛이에요, 사랑의 빛. 여기에는 천하가 다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국에 널리 있는 인간들이 오늘 선생님을 중심삼고 선생님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따라오려고 하고 서로 가면 서로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암흑의 세계 같은 인간세계에서는 빛을 따라갑니다. 생명은, 생명의 요소는 빛을 따라 모든 방향각각을 집중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세계의 양심적인 사랑의 본바탕의, 본성의 방향의 격이 나타나면, 그런 주체격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그 방향을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집 장가를 가 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뭐 가르쳐 주나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부 다 뭐뭐... 메뚜기 새끼들한테도 부처끼리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전기로, 뭐 자석으로 잡아 끌어당겨서 그래요? 자연히 전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예요. 흘러가는 사랑의 물이 있다면 그 사랑의 물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방파제를 만들어 막을 수 있고, 전기도 절연체로 막을 수 있지만, 사랑의 세계에는 절연체가 없습니다. 전기도 절연체는 못 통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리 만리 벽을 쌓더라도, 콘크리트를 했더라도 사랑은 그것을 무난히 통할 수 있다구요. 절대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힘 가지고는 못 뚫지만 사랑의 힘 가지고는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 생명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사랑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지요? 「예」

고차원적인 사랑 이상을 가진 사람이 되면

그래, 여러분도 사랑을 따라가야지요? 여자에게 가슴이 있고 여자의 궁둥이가 큰 것도 다 사랑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자가 태어난 것

이 여자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게 자기 것이예요? 젖이 자기 것이예요? 오늘날 철학적으로 '남자가 왜 태어나고 여자가 왜 태어났나?' 하는데, 간단한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 때문에, 여자는 남자 때문에. 그게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귀한 것은 내 것이 아니예요. 그 주인을 찾아 서로 엇바꿔 가지고 나누어 갖기 위한 것이 결혼이예요. 그렇잖아요? 남자의 것은 여자가 제일 좋아하고, 여자의 것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남자가 좋아합니다」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아무리 못난 여자라도 그건 안다구요.

본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위해 주는 거예요. 생리학적인 분석을 해봐도 그것이 원리예요. 자기 위주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자의 기관 자체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어요? 여자 자기 때문에 젖이 생겨나고 전부 다 생겨났어요? 응? 자기 때문이예요? 생겨나기를 자기 때문에 생겨나지 않았어요. 사랑 때문인데, 남자는 여자 때문에 태어났고 여자는 남자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건 천리예요, 천리. 이 원칙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남자 여자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이게 최고로 고귀한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성년이 돼 가지고 모든 만유의 존재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주인이 돼야 됩니다. 뜰에 기는 모든 벌레도 쌍쌍이지요? 곤충도 쌍쌍이예요. 식물도 전부 다 쌍쌍입니다. 광석도 쌍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 쌍쌍의 사랑을 중심삼고는 어디든지 통할 수 있고, 그것은 어디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걸 무슨 논리로써... 왜 숫놈이 생기고 암놈이 생겼는지는 암만 생물학을 연구하더라도 몰라요. 좋아하기 위해서, 사랑을 중심삼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공동의 소유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문선생이 확실히 가르쳐 주는 진리예요.

그래, 영계에 가 가지고 혼자 살 거예요, 상대와 같이 살 거예요? 「상대와 같이...」 혼자 살면 남자에게 달려 있는 것을 떼어 버리지요. 응? 영계

에 가서는 필요 없겠지요, 남자만 있으면? 그 달린 게 없어지겠어요, 그냥 달려 있겠어요? 생각해 보라구요. 달려 있겠어요, 떨어지고 없겠어요? 「달려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때요? 그냥 그것이 전부 볼록 나와 있겠어요? 움푹 들어가 있겠어요? 대답해 보라구요. 남아 있겠어요, 없어지겠어요? 「남아 있습니다」 뭘할 거예요, 그거? 무엇에 쓰려고? 그거 파 버리고 짚라 버리지. 그건 참된 주인을 만나려고... 저 나라에도 가서도 참된 주인 만나려고 꼬리 치는 거예요.

저나라에 가면 먹을 것 걱정이 없다구요. 먹고 싶다 하면 즉각 먹을 수 있어요. 입고 싶다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고차원적인 사랑 이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중심삼고 모든 만유의 존재를 소생시키고, 모든 차원을 넘어 가지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힘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 전후 좌우 광활한 그 무대를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고 주체적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까매서 발발 기어 다니더라도, 남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위대한 주인이 됐으면 그 주인이 '이럴싸!' 하면 메뚜기같이 발발 기어 다니는 여자라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짝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웃지 못하는 그런 여자도 '웃을싸!' 하면 그 앞에서 천하가 날아갈 만큼 웃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명령하는 모든 것은 즉각적이에요, 직감적인 권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불고기를 억만 년 계속해서 먹더라도 끝장이 없어요. 맛있게 먹으면 말이예요. 또 영원히 입을 다물고 천년 동안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숨 쉴 때 그 숨으로 먹어요. 세포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알아요?

거기에 박자 맞추는 사나이가 되려니... 하나님과 동화할 수 있는 사랑의 이상적인 모든 줄을 잡고, 그걸 잡아채면 전부가 움직입니다, 전부가. 사랑 줄을 잡아채면 세계가 끌려오고 놓으면 세계가 끌려 떨어지는 거예요. 잡아채면 전부 물려들고 나는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말이예요. 그런 힘의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구요?

「사랑입니다」 요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의 매력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사춘기 시절에는 그래요. 암만 사대부 집안이고 뭐고 안방에 갖다 가두어 놓더라도 봄철이 되면 고개를 이래 가지고 담너머로 넘겨다 보는 거예요. 담너머로 세계를 넘겨다 보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렇지요, 그거. 세계에 제일가는 이상상대, 이상적인 영원한 사랑의 기원은 그런 남성 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180도 그냥 그대로 께까닥 들어맞는 것입니다. 께까닥 들어맞아 가지고 획- 돌게 돼 있어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나? 그런 힘이 있으니 여기에 뭐가 부딪치면 깨지든지 똑 부러져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감싸고 구형이 되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는 둥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아니면 둥글게 못 만듭니다. 욕심을 중심삼고 결혼한 패들은 말이예요.

자 그러니, 세계를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우주를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그걸 원해야 된다고요.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인 천상세계를 주름잡아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에 영향을 미쳐 여기서 물으면 대답할 수 있고 보고하면 응답이 올 수 있게끔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멋져요? 이견 뭣 갖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인간이 사랑의 전(殿)이예요.

위대한 사랑의 힘이 있었기에 오늘의 통일교회가 성립될 수 있어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했어? 안 했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서 결론짓자구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한다고 했지요? 「예」 한다고 한 것이, 그거 진짜 한 거예요? 안 한 거와 같은 거예요, 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안 한 것과…」 안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한다고 한 것이 한 것과 같으면 좋겠는데, 10년, 20년, 30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한 것과 같으니 안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느냐 하는 물음에 사랑 안 했다는 답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들 손해나게 되면 뒤로 도망갈 것이 뻔한데, 경제적 타산이 눈앞에 뻗혀 가지고 손해만 나게 되면 뒤로 뺄 것이 뻔한데 말이예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봤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걸알면서도 속아 주는 거예요. 알면서 속아 주는 그 사랑의 골짜기는 얼마나 깊더냐 이거예요. 그 저편에는 어떠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덴버리를 찾아가면서, 덴버리 저쪽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벽이 있는데 그 사랑의 벽이 얼마나 높은 줄 아느냐,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깐 그때 모였던 통일교회 패들은 전부 눈물을 흘렸지만, 선생님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의 행각으로서, 내일 희생되어 가지고 찾아오는 태양빛은 보다 빛날 것이다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 생활환경이 180도 변하는 것이 연구대상이에요. 사랑으로 전부 다 수놓을 수 있는 연구재료로 삼는 거예요. 거기에는 별의별 녀석이 다 있어요. 레버런 문도 들어가 가지고 한 달만 지나고 40일만 지나면... 거기에는 체육부가 있기 때문에 쇠망치가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골을 까서 죽이는 놀음이 빈번해요. 소식도 없이 영계에 가는 거예요. 그런 판국이라구요.

거기에는 마피아 종자가 없나, 살인강도가 없나, 종신형을 받고 죽어나가게 된 녀석도 와 있고 별의별 녀석이 다 있어요. 그들의 감정기준에 있어서 잘못되는 날에는 골로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무시무시한 환경이지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됐다 이거예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지 못한 새로운 판도를 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한 달쯤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굿모닝, 레버런 문' 하고 말이예요. 내가 인사를 안 하고 돌아가도 저기 나타나서 인사를 한다구요. 그거 이상하지요?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뺨도 자기를 잡을 지 안 잡을 지 알아야. 안 잡을 줄 알면 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그래, 선생님이 좋아요? 「예」 좋다고 설명하니 좋아 보여서 좋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뭐야, 이것들. 내가 얼마나 속았어? 얼마나 간사스럽고 얼마나... 입을 나불나불해 가지고 선

생님이 명령을 하게 되면 백발백중 '나는 거기에 죽습니다. 별의별 놀음 다 합니다' 하던 것들이 전부 다 먼저 도망가더라구요. 시집가게 되면 전부 다 도망가고 말이에요. 요즘에 그들을 길가에서 만나면 그들의 눈에 눈물이 어려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구요. 잘난 체하고 돌아가더니 왜 그래? 나는 그런 느낌을 안 받고 이 자리에 잘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어뜨려야 하는 무리가 됐느냐 이거예요. 사랑의 법을 반역한 자신의 마음에 충격이 떨어져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천상세계의 법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무엇이 그런 작용을 하게 하느냐? 「사랑의 힘이…」 위대한 사랑의 힘이… 그런 힘이 없었다면 통일교회는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멋지다면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람 있는 길을 가고 하는 것은 일생이라는 생을 하늘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삶의 기쁨을 알고 힘차고 보람 있는 사랑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나에게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사랑의 전(殿)이에요. 사랑은 차원 높은 박사로서 높여줘야 할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을 아는 우리는 무한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사랑했느냐 할 때 다들 사랑한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사랑을 못 했지요? 「예」 사랑한 것 같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게 선생님 말씀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부터 하라구요. 학교의 교실에서….

내가 학창시절에 변소 가면 선생이 갔다 오면서 길을 피해 주었다구요. 동무들은 전부 다 내가 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죽- 비켜 섰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다 시멘트 돌 위에 서서 소변을 보는데 내가 가게

되면 전부 다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그들을 대해서, 그들의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모든 어려운 일은 나한테 찾아와 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또 집에서 돈이 많이 오면 그걸 보관할 수 없으면 선생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나한테 두었다가 도둑을 맞아도 좋으니까 맡아 달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이놈의 자식아 나도 귀찮아' 하면 '아니야 아니야'라고 해요. 그건 뭐냐? 나한테 갖다 놓으면 도둑질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손이 떨어져서 못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이 인간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주파, 새로운 주기, 파장으로 환경을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대를 개척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무대가 참다운 사랑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예」

선생님이 집을 떠나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첫번째 여름방학에는 집에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집이 그리워요? 얼마나 어머니가 그럽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워요? 선생님 성격에 그저 학교 교문에서부터 하숙집에도 안 들어가고 역에 가서 차표를 사 가지고 고향에 갈 텐데, 그럴 수 있는 성격인데 왜 그랬느냐? 내가 우리 학교에서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을 봤어요. 학교를 지키고 있다 여기에 돌아올 날을 선생보다도 교장보다도 심각하게, 심각하게 40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하루를 지내 나오면서 심각한….

그때는 한국이 일본의 압제 밑에 있었는데 민족해방을 위해서 비록 내뭍은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김구 선생과도 다 연락했어요. 한다 하는 이름난 사람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많이 만나 봤어요. 그들은 다 한계선을 못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갈 길은 따로 있다고 해 가지고 개척자의 길을 나선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내가 동경을 향해 떠날 때 서울역에서부터 부산역까지 달리는 그 기차안에서 눈에 눈물이 어려 가지고 한강 철교를 지나면서 눈물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던 때가 엇그제 같더군요. 내가 실패의 사나이로 끝나지 않겠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민중의 새로운 정부를, 미래의 하나의 사랑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학생 시절에는 노량진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걸어 다녔어요. 10전이면 전차를 탔는데도 말이예요. '갈 때는 반드시 땀을 흘리고 가야 해. 학생들 가운데 편안히 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며 가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땀을 흘리며 가야 돼. 그 십 전은 만 원보다 비싼거야. 내 청춘의 정열을 판 그 값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3천만 민중의 심정적인 모든 정기가 달려야 돼. 하나님은 아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때는 극장 앞을 안 지나다녔어요. 요사스러운 그런곳에는 안 갔다는 거예요. 내가 통일교회의 모든 탕감노정을 다 거치고 전부 다 문을 열어 놓았으니 그렇지 어렵도 없어요. 그런 길을 거쳐 나온 사나이라고요. 알겠어요? 「예」 은혜의 하나님은 전부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무한히 발전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10대 청소년으로서 결의한 결의가 오늘 역사적인 복귀의 한을 넘어 가지고 승리의 천국의 문을 개문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게 될 때, 한 젊은이가 결의한 그 능력은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기쁨을 알고 사랑의 분열만 없는 날에는 천하에 못 할 것이 없는 무한한 저력을 우리단체가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

세계적 탕감기준을 세웠기에 선한 선조들이 지상에 정주할 수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여러분은 젊지요? 「예」 대학을 나왔으니... 여러분이 활개칠 수 있는 무대는 세계적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참다운 사랑을 지닌 사나이 아낙네를 세계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밤도 내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래의 세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 세계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발이 더딘 것을 한하고 내 마음이 미쳐 그 자리에 임하지 못하는 것을 서글프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기도하

기를 '이 소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지애로 세계를 대한 이 사명을 하게 하소. 그 나라의 영들을 동원해서 다리를 놓아 주소'하면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지금까지 영계는 특별한 종교를 중심삼고 종적인 연락 기준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0일금식을 하든가 40년을 정성들인 기반, 못해도 10년 이상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종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의 지상세계가 곧 상대기준의 심정적 박자가 맞을 때까지 관계를 맺고, 그 기반의 박자가 떨어지면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영계가 지상을 주관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일대를 중심삼고 세계적 탕감노정을 개척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영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해방됐어요. 세계적 탕감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지상의 세계적 종교기준을 종적으로 연락하던 선한 조상들이 지상의 모든 종족, 김씨면 김씨 문종과 관계를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종교의 인연을 갖지 않는 수많은 종족권에까지 확대시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에서는 통일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선조들이 나타나 가지고 전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종교들이 지금까지 세계적 판도를 닦아 가지고 심정적 유대로서 종적인 행로를 닦아왔는데 그것을, 횡적 판도를 세계적으로 넓혀 놓았기 때문에, 이 세계 끝까지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영계에 간 선조들이 종족을 중심삼고 비로소 지상에 재림해서 협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흠 처치가 그러한 세계적인 판도를 축소 시킨 기반입니다.

그래서 선한 영들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왔다가 협조해 주고는 돌아갔지만 이제는 지상에 정주(定住)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정주, 알겠어요? 정주라고 해서 선생님 고향 정주가 아닙니다. 영계에 간 선한 영들이 비로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와 활동하는데 선한조상들이 여러분과 같이 살며 협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족복귀가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는 통일교회를 반대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문충재와 과거와는 달라질 수 있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족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심정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각한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열렬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선한 선조들이 재림해 가지고 거들어 준다 이겁니다. 그 선조들이 여러분의 종족을 찾아가 가지고 감화시킬 수 있는 시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이 가인권 흠 처치만 시작하면 아벨권 흠 처치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동적으로 자기 일족이 연결돼 들어오는 것 입니다. 그럴 때가 왔다는 것이예요. 그건 왜? 조상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 입니다. 조상들을 중심삼아 가지고 이 지상에 자기 소유가 있으면 그 관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악한 영들이 분할해 가지고 주관했지만, 사탄이 주관했던 것을 전부 다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일교회에 가라고 명령했는데 안 들으면 병주고 약 주고 하는 거예요. 목을 조르며 '이 자식아, 왜 안 가? 이 자식아 갈래, 안 갈래?' 이렇게 하고 안 가게 되면 발길로 차고 강제적으로 가게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영계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요? (웃음) 심정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심정의 다리를 놓아야 돼요. 부모님이 가진, 하나님이 가진 심정의 다리와 마찬가지로 황적인 동포애, 황적인 세계애에 불타는 젊은이가 있으면 그 젊은이를 중심삼고 그 종족 70대까지 내려와서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70대를 중심삼고 그 일족에 관계된 아들 딸들이 몇십 명이 되겠어요? 그 때거리들이 여러분을 옹위해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판도를 확대시키려니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전도 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조상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 통일교회의 교인이 안 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일교회의 사랑망에 전부 다 씌워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조직해 가지고 만든 망이에

요. 투망 작전이예요. 이게 조직이예요.

그래서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랑의 그물을 내가 잡아당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잡아당기면 하나님이 잡아당기겠어요, 안 당기겠어요? 하나님은 '레버런 문, 잘해라 잘해라. 어이샤 어이샤 어이샤!' 합니다. 내가 딱 한 번 하면 하나님은 백 번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잡아당겨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반대해요? 세계가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사랑의 태풍이 방향성을 가지고 불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놀음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온다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다 '하! 그렇구만. 아아-아멘' 이렇다구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해서 되겠어요? 이놈의 간나들. (웃음) 그렇게 공갈을 받고 차여야 한다구요.

나는 그걸 체험해서 안다구요. 여지없이 채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가는 차여 가지고 나가자빠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구요. 그런데도 안 믿겠어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행동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왜 행동해요? 「필요하니까요」 일족이 사명을 못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나라에 가서 조상들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조상들이 '이놈의 마귀야, 나를 망친 녀석, 이놈의 자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펍박하는 세계에서도 웃음의 날을 보기 위해서 아니 갈 길을 넘나들면서 오늘날 세계무대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예요.

참사랑의 존재 가치를 지닌 자격자가 되라

그 길은 아리랑 고개입니다. 사랑의 내용을 지니고 아리랑 고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통일교회를 중심삼고 한국의 아리랑 노래가 생겨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넘게 되면 아무리 산이 높다 하더라도 못 넘을 고개가 없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겠습니다」

그래, 사랑을 못 했으니 이제부터 사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

습니다」 누구와 같이? 「참부모님과 같이」 참부모님 잘 알아요? 참부모님을 알아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해 줘 가지고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설명 안 해도 압니다」 참사랑을 가진 사람은 설명을 안해도 다 알아요. 그 사랑을 지니게 되면 여러분은 통곡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염없는 눈물이 나올 거예요. 자기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고 영원히 계속해서 통곡할 수 있는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같길은 희생의 길이에요. 이런 것을 느껴 봤어요?

아버님이 사랑하고 그 아버님이 찾겠다는 우리 나라를 생각해 봤어요? 감옥의 길을 마다 않고 가는 길엔 뭔가 길이 있어요. 그 생사의 기로를 개척해 나온 것이, 민족이 갈수 있는 암흑의 구렁텅이를 넘어 가지고 희망이...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세계만민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뚫기 위해서 그러한 사연을 품고 수고한 사연을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나님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알고도 모를 분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데는 중심을 모신 가운데 살면서 조심하면서 사랑을 귀히 간직하면서 모셔야 할 분으로 알고 가는 겁니다. 만세에 이 길은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예」

선생님을 위하는 자리에 하늘에 같이하고, 선생님을 위하는 자리에 세계가 같이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중심삼고는 사탄세계의 그 무엇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자가 되고, 역사적인 체험자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알았으니 부디 이 길을 놓치지 말고... 선생님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맞이했지만, 봄철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서- 가을 겨울도 봄의 사춘이거든요- 가을절기에 봄맞이 하는 거와 같은 기분을 갖고, 저나라에 가서도 내가 그런 존재가치를 지닌 자주적인 자격자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서. 알겠어요?

어디 세계에 가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사돈의 팔촌을 중심삼고, 여러분의 나라를 중심삼고 전차간에서도 버스간에서도 사랑으로... 사랑이 필요해요, 친구간에도. 알겠어

요? 「예」 밥을 먹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씹어 먹어야지요. 동네친구를 사랑하는 데도 눈물을 흘리고, 그 누구를 만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소개해 봤어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을 감동시켜 가지고 선생님이 내 말을 듣게끔 해봤어요? 선생님을 감동시키고 동료들 감동시켜 보라고요. 학교의 기풍을 새로이 만들 줄 아는 젊은이들이 학교에 필요합니다. 그러한 젊은이들을 길러 내는 그 학교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사회는 미래의 사랑의 이상세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보는 관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3차 7년노정을 4년을 단축시켰어요. 1981년까지 간 것이 아니에요. 1976년에 끝내서 단축시켰어요. 그러려니 하고 나서 또 하고, 하고 나서 또 가야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불쌍하지. 열두 시가 돼 가지고도 올라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두 시 세 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을 살리러 온 내가 말을 못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혼자 자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빠요. 잠을 못 자니 차를 타면 잠자는 거예요. 차 안이 안식처거든요. 코를 커어억 골다가, 자기가 코고는 소리에 깜짝 놀라 가지고... 그리고 다녀요. 몸을 가누지 못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어디 가든지 사랑을 심어 놓자 하고 말이예요. 사랑을 뿌려 놓아야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랑은 천년 만년 살아있을 것이 아니냐. 젊은이의 가슴에 꽃이 필 것이고 사연과 곡절이 많았던 덴버리, 그 덴버리에 찾아가게 되면 그곳은 폭발적인 사랑의 씨를 세계에 옮겨 줄 수 있는 중계소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선생님의 철학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던 것을 증거삼고 기초삼아서 세상에서는 기념탑을 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 덴버리에는 8백 명, 천 명 가까운 죄수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전부 수련소로 화할 것입니다. 사랑의 수련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교차로, 비애의 곡절을 논한 그런 정착지가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정착지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꿈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전에 통일교회 교인들이 덴버리 교도소 땅을 사겠다고, 그것이 비싼 땅인데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겨났더라 이거예요. 그거 왜? 장래에 거기에 억천만이 모일 줄을 알거든요. 통일교회의 기념탑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걸 알고, 장사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웃음) 이놈의 자식들, 사랑을 해서 만민을 전부 다 편안히 해주고, 선생님을 소개해서 사랑의 씨를 분배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배급소가 돼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뭐야 이놈의 자식들... 이런 걸 생각할 때, 그거 우스운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선생님 재세시에 가르침받아 사랑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귀해

오늘 저녁에 한 얘기가 전부 여러분의 가슴에 씨로 뿌려져 꽃이 피어가지고 여러분 아들딸한테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뜻 있는 날이 아니예요? 오늘 협회창립 33주년 기념일을 지내 가지고 '아이구, 선생님이 미국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지' 하고 노인이 되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구, 이번이 창립기념일 70회가 됐구만', '아이구, 100회가 됐구만', '500회가 됐구만', '1000회가 됐구만' 할 것이 아녜요?

그런 세계를 넘어가 가지고 끝없는 세계의 영향권이 배가되게 할 수 있는 세계로 바뀌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지가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할 기지가 없어요. 일본 사람이 전부 다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남북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가요. 여기 오야마다! 「예」 오야마다는 당장에 가서 보고할 거라구, '아, 한국에 가니 젊은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소수가 얘기하더라'고, 일본에는 카프(CARP) 수가 많아요.

왜 웃노? 땀이 흘러 근질근질해서 이런다 이놈아. (웃음) 왜 웃어? 너희들을 사랑하느라고 땀을 흘려서 굼는데 이게 무슨 죄야? 무슨 잘못이야? 사랑이면 다, 사랑이면 다 그만이야, 응? 「예」 가려운 데는 굼어야지. (웃음) 땀 흘리면 배 아래로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배꼽 볼까봐 거기는 뭐 할 수 없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데 왜 웃느냐 말이야. (웃음)

재미있지? 「예」 재미있는 것, 이게 세상으로 보더라도 돈냥을 쓰고 들을 만하지요? 입장료를 내고 말이예요. 교회는 입장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거 잘 들어 두라구요.

그래, 뭘하자는 것이냐? 살아 생전에 만날 수 없는 그 한때를 만났다 이거예요. 선생님의 생애라는 것은 역사시대에 한 점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없어요. 한 분밖에 없습시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다시 역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이 보내지도 않거니와 인류역사에 쉽지도 않아요. 선생님이 사는 재세 당시에, 여러분이 동반자가 되고 가르침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엮어 가지고 내일의 사랑의 다리를 놓겠다고 흥분해 가지고 미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귀한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곡조에 맞춰 움직여야

여기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공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에라 모르겠다. 문선생 같은 못난 사람이나 해야지,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은 그거 못가' 하는 배신자도 나올 것이고 별의별 무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분은 어떤 무리가 될 거예요? 전부가 일등공신이 되겠다고 생각하지요? 「예」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일등이 되고 우등생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대학교에 들어가는 전학생의 소원이예요. 그런데 일등이 몇 사람? 「한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등생은 몇 사람 있지요? (웃음) 「뒤에 좀 보세요(어머님이 말씀하심)」 말하는 사람이 뒤에 뭐가 있는지 아냐? (웃음) 사람이라면 방향 감각이 농후한 것인데, 방향감각이 없는 뒤에 있는 사람을 내가 알아요? (웃음) 「여덟 시예요(어머님)」 무엇이? 아직까지 사무가 끝나지 않았어. 지금 서론도 안 끝났는데 뭐. (웃음) 「애기 골라서 또 하세요」 자, 엄마 나와서 한마디 합시다. (웃음. 박수) 이래야 다시는 안 나타난다구. (폭소) 그러니 기분 나쁘지 않고 말이야, 딱 그거 잘했다구. (웃음)

자, 이렇게 볼 때 전부 다 학생들이지요? 학생들을 붙들고, 친구를 붙

들고 움직여야 돼요. 사랑의 눈으로 보고 움직이고, 사랑의 곡에 맞춰 가지고 움직이고, 사랑의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곡조에 맞춰가지고 거동을 하고, 사랑의 곡조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하지는 거예요. 어때요? 「 좋습니다」 내 시선은 만민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그 호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천지의 조화가 내 가슴, 일 개인을 중심삼고 전부 다 유동하는 거예요. 유동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린 모든 노래가락이 전부 다 딱딱딱 사랑의 컴퓨터에, 모든 주파, 모든 파장, 움직이는 모든 것이 따다다닥 컴퓨터에 들이박히는 거예요. 컴퓨터 알지요? 컴퓨터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통곡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움직임, 사랑의 거동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저나라에 딱 가서 컴퓨터를 딱 눌러 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허허 고안지고'라고 안 하는 거예요. 잘했군, 잘했군 지고가 아니고 뭐예요? 고안지고의 반대말이 뭐예요? 잘한지고? (웃음) 잘했군지고요. 잘한지고는 잘하다가 말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거짓이 안 통해요. 여러분들 비디오 테이프 보지요? 「예」 웃으면 웃는 대로 그 실상을 보여 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디오의 시간적 관념권 내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거기는 초시간적 세계입니다. 째까닥 하게 되면 '와' 천년 생활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딱 켜보게 되면, 누가 가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찾아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 가지고는 척 어디 가서 자기는 좋은 데에 갈 줄 알지만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딱 가서 삼각지대에 머무르는 거예요. (웃음) 그때 가서 탄식할 거예요? 내가 영계를 알기 때문에 이런 놀음을 하는 거예요. 영계를 중심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아요. 알겠어요? 「예」

내가 70이 돼 오는데, 이제 얼마나 살겠어요? 살다가 내가 한 꺼풀 옷을 벗고 나서는... 요전에 윤박사가 그러는데, 이 우주의 크기가 210억 광년이 나 되는 크기라고 하더군요. 210억 광년이나 되는 대우주가 순식간에 사랑의 활동무대로 전개된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다이아몬드 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이아몬드 별을 중심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황금이 필요해요? 황금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세계예요.

천국 같 사람을 훈련하는 사랑의 훈련도장은 가정, 나라, 세계

사랑의 천상세계에서의 360도 도수를 맞출 수 있는 자리에는 부러운것이 없어요. 하나님 속에도 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 뱃속에 들어갑니다' 하면 '오냐, 들어와 들어와' 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작은 줄 알았지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점점 넓어져 이게 천하보다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는 답답함이 없습니다. 막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주름잡기 위해서 지상에서...

콤포스 대가리를 중심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벌리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것을 한 자리에서 돌리면 세상이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거라구요. 자, 그래서 천국에 같 사람을 수련하는 수련장이 어디냐? 결론짓자구요. 어디라구요? 각자의 생활무대인 가정이요, 그다음에는 나라요, 그다음에는 세계입니다.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훈련도장이예요? 그 훈련은 학문적 훈련도 아니예요. 군대 훈련도 아니예요. 사랑의 훈련도장입니다. 사랑으로 소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손자가 들어오면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야, 지금 오느냐' 하고, 할머니도 문지방에 와 가지고 '어서 와라' 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문전에 나와서 '어서 와라' 하고 그 집안 사람 모두가 어서 오라고 반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돼야 돼요. 할아버지의 소망이 거기에 연장될 수 있고, 부모님의 소망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고, 형제의 기반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는 소망의 형제요, 소망의 아들이요, 소망의 손자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귀해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버스를 타나 어디에 가나 전부 다 그곳이 훈련장이예요, 훈련장. 여기 한국에 와서 변소간에 들어가다가는 전부 다 걸려 대가리가 깨지겠더구만.

어떻게... 그저 나오는 사람을 보지도 않고 들이닥치니 말이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모두가 그런 훈련입니다. 알겠어요? 어디 가나, 학교에 가도 그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한 도리, 친구에 대한 도리도 미래적인 희망을 뿌려 놓기 위한 사랑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도수가 차거들랑 세계에 대하여...

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랑의 훈련을 갖고, 세계의 훈련을 갖고 지도하기에 세계 만민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나의 공을 칭찬하고 내 사랑의 손길을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애세인(愛世人)이 되어야 하는 거라구요. 세계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소식을 우리 나라에도 갖다 전해 주고 우리 집에 전해 줄 때는, 나라와 가정이 쌍수를 들어 승리의 합성을 지르며 환영할 것입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 가서 싸웠고, 일본에서나 국제무대에 나가 싸웠습니다. 이것을 민족이 환영할 것이고 우리 일족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씨 종중이 전부 다 환영한 것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부활한 영체로서 나를 환영하고 '내 아들이!' 하며 나를 붙들고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뵙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남북을 해방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 해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은 세계인의 요구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요, 우리 부모의 소원입니다.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고 민족의 한을 풀어 드리고 세계의 한을 풀어 드리고 하나님의 한을 풀 수 있는 이 세계사적인 복된 싸움터를 앞에 놓고 주저 할 수 있는 이런 반역적인 사나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진, 전진을 해야 돼요. 밤이나 낮이나 쉼없이 기반확대와 더불어 자기 기반확장에 모든 정력을 투입하는 개척적인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의에 찬 사나이가 남한 땅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보고 못 본체하겠어요? 하나님의 운세가 이걸 빼놓고 돌아갈 수 있어요? 틀림없이 이 운세를 지니고 가야 돼요. 통일교회 운세를 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운세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남북통일과 더불어 아

시아 만민의 통일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일대를 통해서 못 가게 되면 몇 대 후손을 통해서라도, 유언을 남겨서라도 전통적 사상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밤이야 낮이야 어느 때를 막론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애를 소모시키면서 사랑을 뿌렸는데, 뿌려진 그 사랑의 일가가 망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선생님의 일가를 두고 봐도 그것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일생을 두고봐도, 난 망하지 않았습시다. 난 패자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한테 도와달라고 사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지 못해서 안타까와하는 사람입니다. 민족 앞에 무한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 분배의 전령이 되라고 훈시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훈련도장의 첫째는 뭐라고요? 「가정」 그다음에는? 「나라」 사회로부터, 문을 나서면 거기서부터, 그 동네에서부터... 동네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밤에 혼자 가려고 할 때 동네 친구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친구해 주고 동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 수십 명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없거든 아저씨들이 동반해주고 할아버지도 따라가겠다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남기는 생애가 빛나는 생애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알겠어요? 「예」

요즘 문선생이 그렇게 됐다고요. 내가 미국을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가는 데는, 혼자 간다 하게 되면 동반하겠다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레버런 문이 가게 되면, 틀림없이 주지사들도 '아이구! 초대해야 될 텐데, 레버런 문이 언제 올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나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니 심정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 심정이상입니다. 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우주의 공통분모와 같은 사랑의 승리권이 우리의 생활권 내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다리가 연결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다리를 놓아 가지고 지상세계에서부터 지옥을 통해 가지고 천상세계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해방의 왕자로 등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거기에서는 레버런 문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백

년후에도 그럴 것이고 천년 후에도 그럴 것이고 만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인연된 모든 무리들이 영계에 와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상세계에 배푼 모든 것은 천년사를 엮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복이요, 축복이라구요.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라면 '천년 만년 여기서 모실 수 있게끔 해주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원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에 빛나는 여러분들이 지상세계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천상세계에 있어서도 후대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니, 사랑의 훈련도장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있는 시간을 뜻을 대해 가지고 모아갈지어다. 「아멘」

난관이 아무리 가로막더라도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눈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활권 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들어왔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을 하루에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오늘 선생님이 말한 것을 세계에 전부 마이크를 달아 가지고...

두 시간 조금 넘었나? 몇 시간 됐어? 「여섯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 「여섯 시간 반...」 이놈의 자식들, 전부 입이 틀렸지, 다섯 시간이 뭐야? 난 두 시간 같은데. (웃음) 사랑의 세계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100시간도 한 시간 같고 1000시간도 한 시간 같고, 뭐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썬는 줄 모른다고 그러지요? 참나무 도끼자루가 얼마나 단단한데 그게 썬는 줄 모른다니, 뭐 시간관념이 있겠느냐 말이예요, 배고프다는 말이 있겠어요? 밥밥 밥밥... (웃음) '저녁 시간이 됐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밥 먹여 주지, 저 늙은이 왜 저러나' 그러지요? 이놈의 자식들. (웃음)

향토학교에 연결된 교수들을 앞세워 사랑의 다리를 놓아야

이제 알겠어요? 남북통일이 어디서부터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부터, 몸과 마음이 우선 통일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형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 가정의 도장과 사회의 도장과 세계의 도장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알싸, 모를싸? 「알싸」 그럴싸, 말싸? 「그럴싸」 그럴싸? 「예」 그거 기분 나쁘지

않지 않지 않구만, (웃음) 자,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손들이 봐요. 이렇게 되면 감사하다구요.

이제 지시할 거예요. 교학통련 알지요? 「예」 글자가 몇 자던가요? 「열 여섯 자요」 열 여섯 자입니다. 내가 지어 놓고 나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열 여섯 자인지는 알거든요. (웃음) 그래도 '교학통련'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 교학통련이 뭐예요? 선생하고 학생하고 합해서 뭘하자는 거예요? 「통일」 무슨 통일이예요? 「남북통일」 무엇 중심삼고? 몽둥이 가지고? 배트(bat) 가지고? 「사랑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희망이 높습니다. 과거의 희망도 높지만 현재의 희망도 높고 미래의 희망도 높아요. 그러나 늙은 교수들은 희망이 낮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점점 좁아져요, 점점. 그래서 60세 넘은 교수들은 학교에 있을 필요 없어요. 55세 정년이지요? 「65세입니다」 65세예요? 「예」 65세에 정년 퇴직하면 그건 공동묘지 앞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교수님들을 해방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50대 이상, 40대 이상은 정정하니까 아들딸 다 낳고 학교에서 자기 할 것 다한다구요. 그러니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저 목청을 우러먹는 거예요. 기반 별것 없다구요. 40대, 50대 되면 다 덧없는 삶이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이 사람들한테 문선생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여러분을 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꽃입니다. 미래의 주체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주체사상의 방패가 되는 하나의 교두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영향을 끼치느냐? 교수는 학교 학과 시간에 단에 서서 말 영향은 줄 줄 알지만 행동 영향은 절대 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저기 교수나 해먹던 사람, 고개 틀고 기분 나빠하지 말라구요. 내가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에서는 큰소리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무력감투를 쓰고 그저 박혀 있는 것이 교수들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교수라 해도, 지방에서 뭐 하고 서울 가서 뭐 하고 서울대학교 총장을 해먹어도 이들은 저기 자기 집 안방과 학교 교단밖에 몰라요. 동네에 가 가지고 자기가 뭐 개척을 하나 뭘하나, 이걸 가 가지고 갈 적 올 적마다 뭐 좋지 못한 바람만 일으키는 거예요. 동네

개만 짓게 하고 말이예요. (웃음) 정말이예요. 교수 그거 쓸데없어요. 학교 교단에서나 필요하지 동네에는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다구요. 유명한 교수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무슨 공회당에 모이게 해 가지고 무슨 강의를 해줘요, 무슨 시사해설을 해줘요? 그런 것이 싫다고 해서 전부 다 도망가고 피신한다구요. 싫어하기 때문에 피해 간 것이거든요. 그런 작자, 교수들이 많아요. 가짜 교수들이 많다구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끌고 다니려니 전부 다 걸어서 가치를 붙여 주려고 향토학교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 교수들이 향토에 가게 되면 향토학교의 책임자들은 틀림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끌고 나와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야간에라도 교회당 안에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빌려 가지고 땅땅땅땅 해서 '이것이 향토학교의 모집 종이요' 하는 거예요. 교회 종을 빌려서 땅땅땅땅 치는 거예요. 교회 종처럼 땅- 땅- 이러면 안 돼요. 땅땅땅땅 이렇게 쳐야지요. (웃음) 이렇게 해서 특별한 강좌가 있다고 동네 부인들을 끌어 모아 가지고, 교수에게 서울에서 우려먹던 것을 재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탕을 못 하겠다면 기합을 주는 거예요.

누가 기합을 주겠어요? 할아버지도 기합 못 주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 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기합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사람들이 선생님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였는데 말을 안 하겠어, 하겠어?' 하고, 안 하면 '이놈의 선생' 하는 거예요. (웃음) 전부 다 사리에 맞는데, 안 할 수 있어요?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데 안 올 수 있어요? 엄명이라구요. 그거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신 없으면 죽으라구요, 죽어. (웃음) 배통에 칼 맞아 죽어 쓰러져도 구더기가 안 먹어요. 나라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국이니, 교수 짜박지들을 빨리 전부 다 활용해 가지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대학교 내에서 흠 처치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 250명 교수가 전부 다 목을 달았으니 어디 안 찾아오나 한번 보자구요. 우리 카프(CARP)도 여기 서울에 있고 도시에는 전부 다 있으니, 전화를 해 가지고 전부 다 흠 처치 책임자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여기 부락에 올 거예요?' 해서 안 온다고 하면 '그러면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제삿날이 언제예요?' 하면 안 올 수 있어요?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부러먹어야 되겠다구요. 그렇게 부러 가지고 여러분의 판도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예요. 여러분보다 불쌍한 젊은이들에게 불을 대는 거예요. 서울에서 교수가 와서 눈물을 흘려 그 사람들 앞에 사랑의 다리를 놓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교수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학생들 앞에서 교수는 꼼짝못하는 거예요. 여기 물리과 윤박사 있구만. 물리학 박사, 아무리 무슨 뭐 원자력을 만들고 물리학학회 회장을 해먹고 별의 별 능력이 수두룩하더라도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싹싹해서 '선생님, 요거 타야 되겠소. 타면 좋습니다' 하면 타야지, 안 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버스에 태우는 거예요. 택시 많잖아요? 택시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하면 '선생님 일생에 제일 좋은 곳에 갑니다. 좋다면 제일 좋고 나쁘다면 제일 나쁜 곳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 본 후에 답변할 테니 갑시다' 하면 가게 돼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기 30분 전에 그러면 '30분 후면 점심때니 이 녀석이 점심을 사 주려고 그러겠지' 할 거라구요. 생각은 점심 먹기 위해서 왔다고해도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야 어떻든 말이에요. 해가 졌으니 술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왔다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술 먹고 싶어하면 술 사 줄게요' 하고 강의를 하고 나면 술을 사 드린다는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술 사 주려고 모시고 갑니다. 선생님 술 좋아하지요? 몇 병 먹어요? 세병, 다섯 병, 열 병, 다 먹어야 돼요. 못 먹을 때는 이 다음에 술 사 달라는 얘기 못 해요' 이래 놓고는 강의를 하고 나면 사 주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하면 안 사 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술 안 사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강의를 잘하면 잘한 만큼 기분 나쁘지 않게, 쓱 어서 마시라고 하면서 아가씨들이 술을 부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술을 부어 주니 눈이 풀어지고 코가 풀어지

고 사지가 풀어져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게 뭐 술 생각이 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웃음)

그런 다음에는 '선생님 지갑에 있는 돈, 월급의 10분의 1은 학교에 예금해야 돼요'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월급 절반, 전부 다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알고 보니 저금통장에 몇십만 원 몇 백만 원이 예금되어 있더구만요',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요, 내가 영계를 통해서 알았지요' 선생님의 아들딸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전부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향토학교를 위해서 '매달 몇십만 원 넣어야 되겠소. 월급 타는 그 시간에 내가 찾아가 가지고 몇 퍼센트를 학교에서 월급봉투에 넣기 전에 내가 떼어 가도 되겠지요?' 하고 약속을 하면 싫다고하게 안 돼 있거든요. '그 녀석' 하면서 웃을 거라구요. '선생님이 웃지 않았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고 웃었지요. 웃었다는 것은 반대 안 한다는 말이 거든요. 그래서 승낙하는 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거 불기를 틀겠어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알겠어요? 선생님을 골려 먹기가 길가는 땅벌레 잡아죽이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아니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학교에 가면 강의실에서 언제나 선생님을 골탕먹였습니다 교수가 딱 와서 내 얼굴을 보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조는 것 같으면 신이 나서 강의를 하지만 눈을 딱 뜨고 있으면 흠칫합니다. 질문할까봐 말이에요. 질문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밀창을 파고들어가니 킁킁거립니다. 공부를 못 했으니 단에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렇게 서너 번 하게 되면, 말하지 않고 앉아 가지고 콘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은 얼마든지 있다구요.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고 계획이 부족해서 그렇지, 계획과 생각이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충만한 결과는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알싸, 모를싸? 「알싸」

교학통련을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수백 명 교수가 의식화된 몇 명 사람들의 파문 앞에 꼼짝못하고 있다구요. 그런 무력자들... 왜 우리는 못 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린 못 해요? 그렇다고 주먹으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예요. 말에 이유를 딱 세워서 얘기하면 꼼짝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잡아채 가지고 '선생님, 그렇소, 안

그렇소? 답변하소' 하면 선생님 체면에 그렇다고 안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대답하고 두 번 대답하고 세 번 대답하면 '선생님 일어서소' 해서 안 일어서면 기합을 넣는 거예요. 선생님은 딱 세 번만 걸어 체게 되면 답변을 못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소?' 하면 '그렇지' 한대구요. 그렇다고 세번만 하면 '일어서소, 갑시다' 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긴 어딜가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길 가지요' 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게 교수들이니까, 쓱 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부락 좋고 교수 좋고, 교수를 그 동네의 아들딸들이 좋아하고 얼마나... 강의를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나물을 캐다면 나물 보따리를 갖다 주고 닭을 잡아다 갖 주고 선물이 들어올 게 아니예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면서 일년 동안 공짜로 얻어먹었으니 갚아야 되겠다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별의별 선물 보따리가 들어와서 두둑할텐데, 그때도 기분 나빠 해요? 그때는 아무나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생활 전체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럴싸, 안 그럴싸? 「그럴싸」 그러니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강의를 하지요? 대학가에서 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풍토가 벌어지느냐?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 야당을 동원하고 대학가를 동원하여, 병든 환경에 있어서 레버런 문이 들어와 대학가의 모든 악풍을 청산하는 전통적 기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통일교회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서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6월달까지는 딱... 4월달에 이렇게 하고 5월달에 들어와 가지고는 교학통련과 합해라 이거예요.

의식화운동 하는 학생들 이상 사회에 나가 싸워야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는 교수 영감들은 학생을 몰고, 학생들은 누구를 몰아요? 「교수」 교수를 몰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강의를 하게 될 때 대학교 사무실에 교수가 남아 있으면 전부 다 몽둥이로 후려갈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세워 놓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아무

데라도 가야지 안 가면 안 됩니다. 오겠소, 안 오겠소?' 하면 그거 뻔한 놀음 아니예요? 프로그램에 이름까지 다 써서 자리까지 시간까지 다 딱 제시하는데 반대할 수 있어요?' 참석하겠소, 안 하겠소? 남북통일을 해야되는데, 이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북에 있는 불쌍한 동포를 해방하자는데 선생이 불찬성이야?' 하면 꼼짝못하는 거예요. 급한 데로 몰면 먼저 머리를 숙이게 돼 있지, 어디다 머리를 들어요? 완전히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대학교수를 몰고 교수는 대학교 학생을 모는 것입니다. 이 깡패들, 의식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학교 내에서'와, 와' 하겠지만, 우리 뜻을 품은, 남북통일을 원하는 젊은 청년 남녀들은 전부 다 사회에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사회를 회개시키자는 것입니다. 의식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당국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고'와-' 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하는 이상 대한민국을 우리 편에 끌어들이려고'와-'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좋습니다」 부락마다, 그다음엔? 「마을」 마을이나 부락이나 같지요. (웃음) 그다음에는 읍면마다, 그다음엔 시도마다, 마지막까지….

그래 우리 통일교회 패들, 이제 교수와 하나돼야 되겠어요. 의식화 운동하는 패들은 땅강아지처럼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뭐 어떻고 어떻고 하지만, 여기서는 백발의 신성한 노인 교수를 중심삼고'아이샤, 아이샤! 동원돼라, 국민아! 동원돼라, 국민아! 남북통일 하자' 하는 거예요. 남북통일을 원하는 사람은'국민연합 잘 될지어다'한다구요. (박수) 여기 김교수는'기분 나쁘게 저렇게 교육하는 선생이 어디 있노?' 하고 잘못만났다고 후회하는 모양이구만. 할 거요, 안 할 거요? 「하겠습니다」 '국민아, 동원돼라! 국민아, 동원돼라! 어이샤, 어이샤!' 하라구요. 젊은이들이 '국민아, 동원돼라!' 하면 나이 많은 사람이 '어이샤!' 하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 가지고. (웃음) '아하 아하, 아하 아하' 해야지, '아-' 하면 오래 못 간다구요. '아하 아하 아하 아하' 박자 맞출 줄 알지요? 「예」 대학생들이니 그건 알 거라구요.

그래 놓으면 학교 근처의 모든 집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여기 국민

운동에 가담 안 하면 전부 다 쟁그랑 쟁그랑 때려부수라구요. 어때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안본부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잡아라, 잡아넣어라!'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잡아 넣어라' 한다고 해서 누가 못됐다고 그래요? 문총재가 그런걸 시켰다고 해서 문총재 죽으라고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이북 사람들은 어디서나 잘한다고 한다구요. 대문을 열어 놓고 환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체면? 체면, 뭐예요? 「없이」 체면 불구하고, 그다음엔? 망신 불구하고, 사정 불구하고... 그다음엔? 체면, 사정, 그다음엔? 5불구쯤 하고 7불구쯤 해야 할것이 아니예요? 이 일을 시키려고 내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한국을 찾아왔느니라! 어때요? 「좋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대구요. 프로그램을 다 짰으니, 그렇게 끝내야 밥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생겨요. (웃음) 이 프로그램을 포기할 거예요, 다 할 것을 약속할 거예요?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예」

누구 이름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과 참부모님 이름으로, 그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참부모님, 내 이름으로. (점점 크게 말씀하심. 웃음) 하나님은 크고 부모는 내가 크기를 원하니깐, 내 이름이 작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은 작고 그다음에 부모 이름은 약간 작고 내 이름은 커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큰 소리로)」 (웃음) 아 이거 뭐 30년, 33년 체증이...

승공연합과 통일교회가 하나되어 국회에 들어갈 사람을 교육해야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광정환이가 '아이구, 30년의 선생님 체증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했어요. 내 체증은 딱 막혔는데 그러고 앉아있대구요. 이게 개막식인데 체증이 내려간대구요? (웃음) 체증이 내려갈 수 있는, 가능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러한 선서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놀음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도지부장하고 교구장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북 체제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들어가 얘기를 하고 그 세계를 소화하겠다는 패들이 돼야 하겠습니까. 북한이 반대하고 남한이 반대하더라도, 다 합해 가지고 반대하더라도 소화하고 남을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결의를 하여 남북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삼고 일본을 중심삼고 중공을 중심삼고 포위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수진을 내가 치고 나왔다고요. 알겠어요? 「예」 앞으로 미국 국민도 동원할 것이고 일본 국민도 동원할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통일의 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계무대에서 찬양 받을 수 있는 주체성을 지닌 국민으로 등장하지, 그렇지 못해 가지고 뭘 잘해요? 대한민국이 뭘 잘했다고 주체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 사상을 젊은이들이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20대 젊은이들이, 결심한 것을 향해 백 퍼센트 달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패? 「순전단」 순전단이라고 하게 되면 말이 좋지 않아요. 그 이름을 뭘로 갈아야 하겠구만. 「특전단」 특전단? 하여튼 뭐, 순전단에서 붙여 가지고, 전부 다 지어 가지고 불러도 괜찮아요. 순전단 패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교수를 움직여야 돼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8도에 걸쳐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을 위한 대회를 할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이... 교수들은 지방의 유지들을 동원하고 학생들은 지방 청년을 동원하는 거예요. 사명이 그거예요. 대학 내에서도 교수들과 여러분이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해서 얻어진 환경의 떼거리를 모아서, 교수의 영향을 받은 떼거리들을 몰아 가지고 교수를 통해서 사회유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하고 승공연합, 가인 아벨이 하나돼야 돼요. 알겠어요? 승공연합 패는 가인편으로 사회적인 인사들하고 사회의 젊은 청년이고, 통일교회는 아벨편으로 대학 교수하고 대학 청년입니다. 이들을 결속시켜 가지고 좌우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두익사상, 두익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날에는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우리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 대한민국이 그 권내에 들어가게 되면, 섭리로 볼

때 아벨권을 중심삼고 북한은 자동적인 해방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 면 촌을 중심삼고 조직편성을 해 가지고 남한의 국회에 보내질 수 있는 사람과 북한의 국회에 보내질 사람을, 2대에 편성한 요원들을 시간 내에 교육해야 되겠어요. 남북한 국회의원을 합하게 되면, 남한의 276명을 중심삼고 보게 되면 한 500명입니다. 한 540명, 한 5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3배인 1500명에서 2000명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런 주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북 땅에 가 가지고 지도적 책임을 짊어져야 되겠어요. 거기의 정치공작은 물론이고 사상적 교육은 물론 조직편성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땅에 있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실력 있는 대표자를 빨리 보내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중심삼고 도 책임자로부터 도 의원, 시 의원으로 편성 된 수만 명의 무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교육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한의 교수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대학원 학생, 박사코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지워 줘 가지고 달고 들어갈 수 있는 놀음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단시일 내에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북한은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이것을 재편성해 가지고 북괴의... 남북을 중심삼은 정세를 미뤄 보게 될 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이제 싸우는 것은 다 원치 않습니다. 싸움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국이 연합해 가지고 평화적 정부수립을 코치할 것은 명약관화(名若觀火)한데,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른다구요. 미국도 빠른 시일 내에, 일본도 빠른 시일 내에, 중공도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공은 이북이 남한에 대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북이 대화의 광장을 열고 나가다가 전부다 닫아 버렸지만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몰려 가지고 안 열 수 없는 시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게 될 때는 이북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조직편

성을 다 끝냈다구요. 거기에 동원되게 될 때는 모든 기밀은 물론이고 군사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차니 뭣이니 전국적인 모든 것을 전부 다 조직편성해 가지고 동원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이거예요. 내려 오자마자 즉각 선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부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한도 거기에 못지않은 환경적 여건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에서 지는 날에는... 북한은 2천만이면 2천만이 하나예요, 하나. 한통입니다. 여기에 와 가지고도 2천만이 똥똥 뭉쳐서 틀림없이 자기들의 대통령을 뽑는다 이거예요. 남한에는 대통령 후보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놈의 꼴렁꼴렁한 패들이 전부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으면 불리하니 우리 조직이 그걸 컨트롤해야 돼요. 그들은 틀림없이 단일 후보예요. 2천만은 전부 다 김일성을 찍게 돼 있어요. 남한은 어떻게 되느냐? 후보가 둘 나오면 벌써 2천만에게 지는 거예요. 싸우는 데 이북이 자기 사돈의 팔촌들에게 선전하면 벌써 몇백만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질수 있는 모든 여건이 눈앞에... 이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풍토를 강화해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할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서둘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오기 전에 미국에도 공화당 민주당 통일운동국민연합을 만들었어요. 50개 주를 중심삼고 이제 8월달이면 큰 문제가 벌어질 거라구요. 이걸 냄새 맡은 언론계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지금 시리즈로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파헤치는 놀음을 벌이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가 그럴 것이고, 보스턴 트리뷴 할 것 없이 전부가 레버런 문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월달이 되면 야단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야단이 벌어질 거예요.

한국에 야단이 벌어지는 것은 희망적이고, 미국에 야단이 벌어지는 것은 문선생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이지만 미국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에요. 또 일본에서도 야단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통일교회와 문선생에게 있어서는 희망적이지만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절망적인 것에서 희망적으로 돌이키는 것

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어느누구든지 우리 교육을 받게 되면 백 퍼센트 전부 다 전도되어 좌에 있는 사람이 우로 간다구요. 우로 가게 하면 우로 가거든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험한 결과에 의한 통계요, 비판에 의해서 결정된 실적이예요. 이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젠 여러분 전부 다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면 전부다 교육하는 거예요. 대학교 교수이건 학생이건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면이나 어디든지 가 가지고 이론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높지 않지만 교수 이름은 높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향토학교를 전국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연락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향토학교를 중심삼고 전부 다 대중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완벽하게 딱 짜 놓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체가 많았지만 그 모든 단체를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총집결해서 격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통일기원전을 중심삼고 모금운동을 하자

여러분, 저 '통일전' 알지요? 「예」 이번에 새로 조직한 것, 그거 어떻게 됐어요? 손대오! 「예」 있어? 통일기원전을 건립할 때가 되면 우리 대학가의 학생들을... 대학가의 학생이 얼마인가? 「백만 정도...」 많구만. 구테기 새끼들이 많구만. 중고등학생은 얼마야? 대학보다 많지? 「예」 얼마나 되나, 2배되나? 「예」 그다음에 국민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은 얼마나 되겠나요? 그건 더 많지요? 전부 다 하면 천만은 되겠지요? 이 천만은 우리 밥이예요. (웃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수를 움직이고 대학생을 전부 다... 통일기원전을 맡아 가지고 고등학교 선생, 고등학교 학생, 국민학교 선생을 소화하면 국민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천만 명 천만 세대, 그다음에 그 아들이 열성분자가 되어 어머니 아버지 동원하면 몇천만이돼요? 「4천만...」 4천만밖에 없잖아? (폭소) 천만 가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곳에 매일 10만 명씩 동원하게 되면, 360곳을 중심삼고 통일기원전에 10만 명씩 동원하게 되면 3500만이에요. 기원전에서 교육을 3박 4일로 하게 되면 40만이 육실육실 모여든다 이거예요. 30만은 교체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30만 하면 벌써 떼거리가 우글대는 거라구요. 자, 이렇게 되는데 100만 평 갖고 가능하겠어요? 100만 평 가지고 가능해요? 100만 평으로는 30만이 들어가 서 있지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천만 평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돈은 누가 내고? 돈을 누가 내고? 「국민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내가 먼저 돈을 냈는데, 모금운동은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문선생이 해야 되겠어요, 송사리떼 같은 기동대가 해야 되겠어요? (웃음) 송사리떼는 싫은 모양이지요? 그럼 왕사리떼, 왕사리떼. (웃음) 왕사리떼도 싫은 모양이구만, 이 자식들. 누가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해야 되겠어요, 왕사리떼가 해야 되겠어요? (웃음) 「왕사리떼가 해야 됩니다」 그 왕사리떼가 뭐예요? 대학교수하고 대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은 물론이고 중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국민학교 4학년부터 동원해야 되겠다구요.

4학년이면 몇 살이에요? 열한 살쯤 되는 가요? 열한 살 되면 여자는 볼록해진다고요. (웃음)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예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전부 다 뭐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말이예요. 세상만사는 다 알아요. 냄새 맡을 줄도 알고, 말을 듣고 좋고 나쁜 걸 알거든요. 요런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엄마는 어디 놀러 다니지요?' '그래' '놀러다니지 말고 국민운동기금 마련하는 데 지불하면 어때요?' '요놈의 자식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누가 가르쳐 줘요? 내 마음이 그렇고 천지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닫는 데 문선생이 풀무질을 해서 그런 것이요. 좀 내서 국민운동을 하여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자는데 뭐가 나빠요?' 하면 불찬성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답변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하겠어요? 욕을 하다 말고 '허허-' 하는 거예요. 어머니 체면에 한대 들이맞는 거예요. '놀러 나가게 되면 하루에 돈을 얼마나 써요? 차타고 놀러 나가게 되면, 차비 들지 비용 쓰지 하루에 얼마나 나가요? 자그마치

몇천원 나가는데 3분의 1을 왜 못 떼 내요?'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술 좋아하지요?' '그래, '얼마나 좋아해요?' '죽고 못 살 만큼 좋아하지', '술도 좋아하지만 엄마 좋아하지요? 술보다 더 좋아해요, 덜 좋아해요?' '술보다 더 좋아하지' '엄마가 이제부터 유한마담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외출비의 3분의 1을 내겠다고 했으니, 아빠는 술보다도 엄마를 더 좋아하는데 엄마와 같이 아빠도 술 먹는 값의 3분의 1을 국민운동을 위해서 내세요. 어때요?' (웃음) 그렇게 하면 '옹소' 하게 돼 있다가요. 반대하면 '아빠는 공산당 프락치 아니요? 공산당이 아니면 어떻게 북한을 해방하자는데 반대해요?' 이러면 꼼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다니는 술집을 알아 가지고 저녁 때에는 술집에 가서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 안 된다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퇴근할 때에 아버지 손을 붙들고 집에 돌아오다 '아버지 술 먹고 싶지요? 반 잔만 먹으시오. 그리고 반 잔 값은 북한해방을 위해서 회사해야지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병 먹겠다는 애비에게 한 병 먹으라고 하면, 자식에게 '이놈, 불효 자식아!' 그러겠어요? '고양지고' 하지만 '이놈의 자식, 근사하구만. 내 아들은 내 아들이구만. 그래야지. 헤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꼼짝 못하고 걸려든다가요.

그다음에는 사돈의 팔촌 또래는 전부 다 회의를 해 가지고 모금운동을 하는 거예요. 부락의 젊은 청년들과 딱 만들어 가지고 밤에도 북치고 낮에도 북을 치고 말이예요. 돈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얼마냈는가 물어 보고 면에 기록카드가 있으면 전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점심도 먹고 놀 비용을 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법이 있느냐고 하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식당이라는 식당은 전부 다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식당에 식사하러 오거든 '응, 당신 아침 안 먹었소?' '아침이야 먹었지', '뭘하러 왔소?' '점심 먹으르...!', '나도 점심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 뭘하는 녀석이야' '뭘하는 녀석은 뭘하는 녀석이에요? 북한을 해방하자는 녀석이지요', (웃음) '해방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당신이 점심 한 끼를 안 먹으면 해방의 기금이 생깁니다. 점심 먹으려면 내 점심까지 내소. 나 점심 사주겠소, 안 사 주겠소?' 그러면 안 사주겠다고

하겠어요, 사 주겠다고 하겠어요? 죽기만큼 싫더라도 할 수 없이 '그래 사 주마,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나는 안 먹어요. 당신이나 먹어요' 그러면 혼자 먹겠어요? (웃음) 젓가락 두개 해서 나누어 먹어야지요. 나누어 먹자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이대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그 아들딸을 다 아니까 아들딸에게 '네 아버지가 이러더라.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걸 공산당 앞잡이 아니냐?' 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딸이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밤낮 공격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공산당 앞잡이요!' '이 쌍놈 같으니라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왜 없어요? 아이들이 북한을 해방하자고 하면서 점심 한 끼 굶고 국수 한 그릇 값을 내라고 하는데 싫다고 해 가지고 구박을 줬다면서요? 안 줬어요?' '줬다' '그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앞잡이란 말이 맞지 않소'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거 별수없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말려 들어가나 보자 이거예요.

또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전부 다 별판에 나가서 한 논배미에 두 단씩매고 나오는데, 그걸 마다하면 그 쌍놈의 영감 수염을 뽑아라 이거예요. (웃음) 싸워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그 대신 내가 팔아서 무슨 푼돈 쓰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예금하는 거예요. 내가 재벌이 돼 가지고 움직이면 그런 놀음을 전부 다 국민이 믿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 누구를 통해서 굶어 모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 너희들은 총대를 메고 일선에서 밤을 새우는 군인보다 낫잖아, 이놈의 자식들. 간첩으로 가서 지하공작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북한 사람은 남한에 와 가지고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면서 지하공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게 싫어요? 남한의 학도로서, 젊은 가슴에 피가 끓어오르는 희망에 벽차 있는 사나이 아낙네로서 그게 싫어요? 어때요? 「좋습니다」 이놈의 자식들, 싫어도 좋다고 해야지 .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국가해방의 용사가 될 수 없어

하루에 몇억이 거두어질 것입니다. 한400만 명만 동원했으면 골짜골짜마다 산모퉁이마다 어디든지 빈틈없이 파송돼 가지고 모금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 원씩 받아 내면 얼마예요? 「4백억」 한 사람이 십만원씩 받아 내면 얼마예요? 「4천억」 4천억이지요. 그렇게 되면 저 평화의 댐은 우리가 막자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못 할 것이 없다구요.

여기서부터 평양 만수대까지 땅굴을 팔 수도 있어요. 다이내마이트 스위치는 여기서 누르고 거기를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평양이 여기서 몇 리예요? 우리 고향에서 서울까지가 550리, 우리 고향에서 평양까지는 280리이니까 550리에서 280리를 빼면 얼마예요? 「270」 270리밖에 안 되거든요. 공산당들이 삼팔선에서 굴을 뚫었는데, 그 길이가 280리 못 되겠어요? 못 할 게 어디 있어요?

저들이 뭐 두더지예요? 우리는 두더지보다는 구렁이가 될 거라구요. 두더지 궁중에 들어가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거 어때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4천만 명씩의 인구를 가지고, 이 못난 것들. 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남한해방을 부르짖고 나오는데 남한에서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뭘했어? 이 망할 자식들! 입을 달고 별의별 소리를 하고... 통일교회 지도자가 남북통일을 부르짖고 나서게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러분을 이북으로 파송할 특공대 요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서 잠수함, 함정을 만들 계획을 한 거예요. 함대로 쳐들어가서 거기 토치카를 폭발할 거라구요. 구미가 안 동해요?

여러분,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눈 깜박할 때 뻑- 한방 맞아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편해요? 20세기에 있어서 죽는 데 편리한 방법은 적진에 가 가지고 당당히 싸우다가 한방 쏘 거처가면 그것으로 다 청산되는 거예요. 그 래 가지고 영계에서 비상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의 거 누구인가, 그 미친 녀석? 「호메이니」 호메이니인지 코메이니인지, 그 녀석이 회교도들에게 천국 간다고 해 가지고 별의별 가짜놀음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회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죽어

봐야 알아요. 그들이 죽어 보면 가짜인 걸 깨닫고 여러분은 죽어 보면 진짜인 줄 깨달을 것이니, 못 죽는 것이 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못 하느냐 말이예요. 이걸 못 하면 내가 대장이 될 거예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무서워요? 「아닙니다」

동네 하나가 10분 이내에 다 끝나지요. 10분이 뭐예요? 3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 뭐 귀한 게 없다구요.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존중시키는 사람은 나라 해방의 용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돌아가 가지고... 시집, 장가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장가가기 전에, 꽃다운 청춘이요 아리따운 생애를 바쳐 해방의 용사의 무덤을 남기는 영웅열사가 되는 것이 어때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때는 축하해 줄 거예요. '한 날 내가 한남동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죽은 이가 있다' 하고 그 무덤 앞에서 선생님이 특별히 눈물을 지을 것입니다. '야, 내가 천상에 갈 때 너를 데리고 갈게' 하고 때려잡을 거라고요. (웃음)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좋은 데에 데리고 가면 얼마나... 만세에 그런 축복이 없고, 생애를 불사르고 불살라도 가당찮은 희망의 꽃이 피어날 텐데, 어때요? 「좋습니다」

선생님 뒤에 따라다니다 따라가면 좋겠지요? 「예」 내가 가자 하면 갈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 있다구요. 우리 흥진이도 내가 기도하면 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인을 해준다구요. 지상에서 그러는데 영계에 가서 못 해요? 영계에 가 있는 모든 조상들은 누구 졸병이예요? 여러분 백 대 천 대 할아버지도 내 졸병이예요. 내 졸병입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당당한지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내놓고는 전체를 마음대로 추구할 수 없을만큼 내가 유명하다구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잔치를 하려면 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돼 있지, 하나님 혼자 안 짜다 그말이라구요. 하나님이 잔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나 때문에 잘하고 못하게 돼 있지, 하나님 자신이 잔치 프로그램을 안 짜는 거예요. 전부 다 선생님이 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판도를 꾸며 가지고 있는 선생님인 줄 알아요? 청명파니들이 볼 게 뭐예요? 첩판이 덮여 있다구요. 그

렇지만 믿어요, 응? 「예」 그저 똥통에 똥밖에 없는 그 세계에서 믿어 가지고, 반대파들 속에서도 믿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믿은 보람이 세계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알고도 못 믿겠어요? 죽으라구, 죽어 죽어 죽어. 그런 놈이 세상에 살 게 뭐예요? 돼지 새끼만도 못한 데.

교수와 하나되어 지방유지와 청년들을 규합, 통일의 발판을 만들자

북한을 우리 손으로 해방하고야? 뭐예요? 해방하고야 말 거예요, 해방하다 말 거예요? 「하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교수와 하나돼 가지고 지방유지와 청년들을 움직여 가지고 연합전선을 펴는 거예요. 통일교회에 있어서 가인 아벨이 전부 한 협회장 이름으로 설 때, 협회를 중심삼고 승공연합과 하나되어 가지고 남북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초당적이에요, 초국가적입니다. 행차의 나발을 불고 출전을 시작할지이다. 「아멘」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조상이 영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앞으로 만국의 해방을 고대하는 수많은 미래의 후손이 아멘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들 결의하는 이 마당에서 숙연하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예」 이를 거예요, 안 이를 거예요? 「이루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행동지침도 시달을 하겠어요.

이제부터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대회를 시작하는데, 교수들을 얼마나 끌고 나오느냐가 문제예요. 이걸 도청소재지를 중심삼고 할 터인데 교수들이 절반 이상 돼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교수와 학생만 해도 꼭차게 해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는 지방유지와 지방 청년들을 조직편성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직편성 하는 데는 챔피언이예요. 그거 알겠어요? 「예」 이래 가지고 활동하는데 필요하면 내 손으로 내가 길러 가지고 조직 편성을 할 거예요.

일본의 저와 같은 악당들, 우리를 반대하는 일본 공산당들, 그런 세계에서 15년 동안 훈련해 가지고 일본 경제계, 일본 정치계가 우리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고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았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무서운 사나이예요. 알겠어요? 「예」 한다면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 말이 노라리가락이 아니예요. 이게 진짜예요? 「예!」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들 학교 그만두게 하고 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못하게 되면 학교 다니는 거 정지, 3년 정지... 그것도 못 하는 그까짓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서 뿔하자는 거예요? 교수들이 몇 학과를 가르쳐요? 학과가 많지요? 「예」 학과마다 다르지요? 「예」 그 교수들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걸 기필코 달성하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이 합해 가지고 국민을 계몽하고 유지와 청년들을 결성해서 통일역군의 활로를 증진해서 국민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무와 사명이 오늘 통일의 정예부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순전단 패들은 그 대표적인 기수가 될지어다!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봐요. 든 손을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라구요. 팍 쥐었나, 울바로 쥐었나? 거짓말로 쥐었나, 진짜로 쥐었나? 진짜야, 가짜야! 「진짜입니다!」 가짜야, 가짜! 「진짜입니다!」 가짜야, 가짜! 「진짜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가짜야! 「진짜입니다!」 두고 보자구, 진짜인가. 진짜의 위용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배고픈데 저녁을 먹을지어다! 「아멘」 노멘! (웃음) 선생님 얘기 다 끝났어요. (박수)

손대오! '손을 대 보소' 하는 게 손대오야. (웃음) '손을 대오' 하는게 손대오야. 손을 들었으니 대학가의 교수들에게도 손을 대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손을 대야 할지어다, 손대오. (박수)

자, 밥 먹고 또 모여, 헤어지면 좋겠어? 「모여요」 선생님이 이제 목이 쉬었어요. 몇 시간 말했나요? 「일곱 시간 반입니다」 일곱 시간 반에다 세 시간 더했으니 몇 시간이예요? 「아버님께 경배!」 경배보다도 싸우는 게 중요하지요. (웃음) 그래 경배해 봐요. (경배드림) 이 사람들이 선생님과 같은 기백을 가지고 날면 삼천리반도는 조약돌 같이 너무 작아요.

저녁 준비했지? 「예」 손대오는 저녁을 잘 먹이라구. *

文鮮明先生말담選集 <第163卷>

印刷 2002年 1月 15日
發行 2002年 1月 25日
編者 文鮮明先生말담編纂委員會
發行者 黃 善 祚
發行所 (株) 成 和 出 版 社
住所 서울 용산구 청파동 1가 172 - 1
電話番號 715-3894 ~ 6, 701-0110(청파서점)
FAX番號 701-1991
登錄番號 제3-98호
登錄日 1961年 5月 20日
